

李根三교수 정년기념 수필집

무대와 교실

이근삼교수 정년기념사업회

李根三교수 정년기념 수필집
무대와 교실

발행 1994. 9. 14.

편집 이근삼교수 정년기념사업회
편집실무 김연중, 김용호, 조기완,
정재우, 김영주

인쇄 (주)한국컴퓨터산업

100-192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48-13

전화) 273-8111

비매품

〈발 간 사〉

이근삼 선생과 우리들의 축제

이근삼 선생님의 정년을 맞아 헌정하게 된 이 수필집은 언뜻 보면 간단한 책 같지만, 여기에는 이선생님께서 그 동안 제자들과 후배들에게 바친 노력과 그에 응답하는 많은 분들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이 책에는 이선생님과 주변의 다양한 공동체들 사이에 맺은 인연의 무게와, 솔하게 오고간 애정과 격려가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읽는 분들은 금방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필집은 한 은사와 선배에게 드리는 글모음의 성격을 넘어, 이선생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솔한 전설을 오늘의 이야기로 끌어올리고, 그 기운을 미래로 투사하는 적극적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총 60분이 바쁘고 쓰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은사께 드리는 원고라 해도 막상 써서 보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좌담회에 참석하여 좋은 말씀을 나누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금에 참여하여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 충고의 말씀으로 도와주신 분들의 정성도 이 책 안에 보이지 않게 스며 있습니다. 책의 기획과 원고 청탁, 편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수필의 필자들은 이선생님 후배와 제자들이 대부분이고 선배도 계십니다. 원고들은 필자가 이선생님과 맺은 인연의 때와 장소, 성격으로 분류했고, 그 분류 안에서는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이선생님께서서는 매우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계신데, 그러면서도 한결같은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 원고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이 소박하면서도 ‘결코 정년을 맞을 것 같지 않게 젊고,’ 후배나 제자들에게 많은 정성을 쏟으셨다는 공통된 회상입니다. 이 선생님의 정년은 새 출발이고, 더 활발하게 사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도 특기할 사항입니다. 사모님께서 따뜻하게 대해 주신 데 대해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선생님은 사모님과 의 멋진 콤비 플레이로 ‘안팎이 없는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작은 책자가 이선생님과 주위의 모든 분들께 좋은 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이야기들은 주로 이선생님의 과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근삼 선생님은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이야기가 이선생님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뜻깊은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994년 9월

이근삼교수정년기념사업회

차 례

발간사 이근삼 선생과 우리들의 축제

제 1 부 스승과 제자

정년을 바라보는 제자들 · 동국대 인연

세월은 흐르고 — 이근삼선생과 나 / 강 민 · 11

2近3先生 / 김의경 · 15

“나보다 앞서 나가야지…” / 김정근 · 19

二代에 걸친 인연 / 오국근 · 25

쟁이로 타락한 계기는? · 중앙대 인연

내가 연극을 한 이유 / 박인환 · 30

농구 플레이어로서의 이근삼 / 오명환 · 34

논두렁의 變態일기 / 윤주상 · 37

제4막 전의 이야기 / 이승규 · 44

그 많은 추억중의 몇 가지 / 이영규 · 50

선생님의 지방출장 / 정 현 · 54

노고산에 데뷔 · 서강대 인연

아카시아 꽃이 필 때면 / 김낙희 · 57

8시 반의 커피 / 김연중 · 61

인간 이근삼 / 김진나 · 68

“무슨 주식을 사면 돈 버나?” / 박명훈 · 71

선생님의 첫 연극무대 데뷔 / 박준용 · 74
향토인, 문화인 그리고 선생님... / 이윤선 · 77
큰 나무의 향기 / 임항순 · 80
사랑 -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는 것 / 정 훈 · 84
젊고 천진하신 선생님 / 진수미 · 90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한 장 / 채정숙 · 95
Keep writing!, 그 한 마디 / 최성실 · 100

술 한 잔으로 나눈 이야기

제자 길들이기 / 김동규 · 104
입대전야에서 웨딩마치까지 / 김영석 · 109
이근삼 리스트 / 김용호 · 114
“학문은 향문이다” / 김창렬 · 119
소실 / 노병성 · 122
“술 한잔 사주세요 선생님!” / 노상규 · 126
“이제 보니까 현주가 더 아깝다 야” / 박현주 · 129
선생님에 대한 ‘老學生’의 변명 / 송정민 · 132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 송한무 · 136
“영철이 밥 시켜줘라” / 이영철 · 140
베스트셀러 작가의 꿈 / 이철호 · 146
최초의 스승에 대한 그리움 / 임남기 · 149
少者懷之라 말하는 까닭 / 정어지루 · 154

막둥이들이 노선생님께

나는 감히 그를 사랑한다 / 김영주 · 158
어느 날 문득 삶을 돌이켜 보면 / 김호석 · 162
술 한 잔의 원한 / 문종대 · 181

- 君師父一體 / 이상기 · 185
 아버지 / 이은주 · 189
 선생님은 나보다... / 정재민 · 193
 첫조교 / 정재우 · 197
 까르페 디엠 / 조기완 · 201
 선생님의 졸업 / 조은기 · 207
 나에게 이근삼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들 / 한창완 · 214

제 2 부 여러 이웃들

다산관에 같이 오기까지

- 길동무 / 김학수 · 221
 人間 李根三 선생님 / 박상태 · 226
 낭만을 위하여 / 유재천 · 232
 멋을 아는 연극인의 작품같은 삶 / 이상우 · 233

무대 뒤의 사랑방

- 마음의 빛 / 김동욱 · 238
 靑松위의 여원 鶴 / 김진태 · 241
 운명적인 이정표 / 이강백 · 243
 동향 선배작가의 우정 / 이재현 · 247
 비공식 제자 / 정복근 · 251
 이근삼 선생님과 나 / 정진수 · 254
 국물이 많은 연극 / 최명수 · 259

순간에서 영원으로

- 현실과 무대의 紳士 - 이근삼 교수의 점프 / 권일송 · 263

- 세익스피어와 맥주 / 신겸수 · 266
너의 기쁨을 위하여 / 이상오 · 271
아버지의 경로우대증 / 이유정 · 275
극작가의 안과 밖 / 이태동 · 280

제 3 부 그의 이야기

- 퇴장의 문턱에서 / 이근삼 · 289
나의 고향 / 이근삼 · 293

좌담회 “후학들이 모두 잘 되길 바랍니다” · 298

이근삼, 권성덕, 최용원, 김용수,
김연중, 최성실, 김용호, 김호석

제 1 부

스승과 제자

정년을 바라보는 제자들 · 동국대 인연

강민, 김의경, 김정근, 오국근

쟁이로 타락한 계기는? · 중앙대 인연

박인환, 오명환, 윤주상, 이승규, 이영규, 정현

노고산에 데뷔 · 서강대 인연

김낙희, 김연중, 김진나, 박명훈, 박준용, 이윤선, 임항순, 정훈,

진수미, 채정숙, 최성실

술 한잔으로 나눈 이야기

김동규, 김영석, 김용호, 김창렬, 노병성, 노상규, 박현주, 송정민, 송한무,

이영철, 이철호, 임남기, 정어지루

막둥이들이 노선생님께

김영주, 김호석, 문종대, 이상기, 이은주, 정재민, 정재우, 조기완, 조은기, 한창완

세월은 흐르고 - 이근삼선생과 나

강 민

시인, 도서출판 「무수막」 대표

이근삼 선생을 만나면 늘 뭔가 날카로운 섬광같은 것을 느낀다. 그러면서 어딘지 모르게 외로운 그림자같은 것도 느껴진다.

내가 이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1950년대 동국대학 학생시절이었다. 그 때 나는 가혹한 전쟁을 치르며 군대생활을 마치고, 병든 몸으로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고 동국대학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나는 국문과 학생이었고, 이 선생은 영문과의 선생이어서 별로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느 날 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영문과 학생이었던 신경림인가 이희춘인가가 찾아와 이 선생이 맡아 하고 계셨던 서머셋 모옴의 소설 번역일을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해서, 그 일을 돕기로 하여 처음 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와드린다고 했지만, 그때의 내 실력으로는 그저 맞춤법 등의 교정 보는 일 정도가 고작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처음 만나 뵈인 이근삼 선생은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와 연령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보였다. 수재형인 이 선생은 그 날카로운 인상으로 우리를 압도했고, 무척 빠른 말

숨씨로 우리를 매료했다.

영문과에는 그 밖에도 오국근, 김정근, 권대원 등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국근과는 그 때 별로 접촉이 없었고, 김정근, 이희춘, 신경림 등과 가끔 어울렸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젊은 이근삼 교수에게 매료당해 있었다.

이 선생은 그때 아직 신참교수여서 일반영어 강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 이 선생의 해박한 문학적 지식과 유창한 강의 실력을 칭송하곤 했었다. 강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나는 이 선생의 그런 모습을 기어이 접하지 못한 채, 어느 사이엔가 만나 뵈 기회가 멀어져 갔다. 그 까닭은 이 선생이 일찍 동국대를 떠나셨고, 또 나는 나대로 학교신문 편집일과 시를 쓴답시고 강의실보다는 충무로, 명동 등의 거리를 헤매며 각 대학의 문학청년들과 어울려 불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풍문으로 이 선생이 서강대에 출강하심을 듣게 되었고, 그 분이 그때는 몇 안되는 우리 연극계의 보배로운 극작가임을 알게 되었다. 이 선생의 작품을 처음 읽은 것이 「원고지」이던가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무척 감동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

어려웠던 시절을 근근히 지내고 우리는 학교를 떠나 제각기 갈 길을 찾아 흩어졌다.

신경림은 이미 「문학예술」지를 통해 시단에 나와 있었고 오국근, 김정근은 계속 학문의 길을 걷고 있었고, 이희춘은 생활 때문에 여기저기 직장을 전전하며 번역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전쟁때 고단한 군대생활 때문에 얻은 병이 깊어 운신을 못하면서도 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가 몸이 좀 나아질 무렵부터 이곳 저곳의 출판사 편집 일을 보면서 1962년에야 「자유문학」지를 통해 문단의 신참으로 등단했다.

그리고 다시 몇년, 이 선생은 극작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셨고, 계속 서강대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만나 볼 기회는 별로 없었다. 내가 「학원사」에 근무할 무렵, 「금강」의 시인 신동엽 형이 굳이 나에게 펜클럽에 가입하라고 해서 거기 회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마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 선생을 다시 만나 볼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선생이 그때 펜클럽 사무국장이셨는지 상무이사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리고 훨씬 후에 펜클럽 임원 선거가 과열되면서 이 선생이 지지하는 이가형 선생의 선거인 대열에 끼면서 이 선생의 다른 면모를 알게 되었다. 사실 고백하지만, 그때만 해도 나는 이가형 선생을 잘 몰랐고, 또 그런 선거같은 것에 별 관심도 없던 차였는데, 학교 선배인 이 선생과 황명 시인 같은 분들이 미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거기 휩쓸리게 되었다.

내가 받은 인상으로는, 이 선생은 그런 데에 신경을 쓸 분이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려웠던 국내의 정치, 사회적 불안과 억압당하던 문인들의 뒷바라지 등 여러모로 그런 처신이 필요해서 그러셨던 것 같다.

그때부터는 가끔 이 선생을 다시 볼 기회가 많아지고, 술자리도 함께 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 선생의 인상은 여전히 내가 처음 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치있는 날카로운 섬광과 같은 느낌과 어디선가 풍기는 쓸쓸함이었다.

이북에서 단신 월남하시어 가까운 인척이 없으셔서 그랬는

지도 모르겠다.

세검정에 있는 이 선생의 댁을 방문한 것은 아마 이희춘, 김정근, 신경림과 함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깨끗한 분위기 와 예쁜 따님이 계셨던 것 같다. 그 때 부인은 어디 출타하셨는지 못 뵈는 것 같다.

그러다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었는데, 이 선생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의 요절이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 더니 이게 웬 말인가. 그 때 빈소에서 뵈는 이 선생의 그 쓸쓸한 모습을 영 잊을 수가 없다. 그렇다. 그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잿빛 느낌이었다. 평소 그 분에게서 느끼던 그 쓸쓸함이 어찌면 그토록 증폭되어 거기 있었던 말인가. 지금은 두고두고 아쉽고 마음이 저리다.

그런 이 선생이 벌써 정년으로 퇴직하신단다. 언제나 젊어 보이시고 나이 드시기를 거부하시는 듯하더니……

하지만, 이 선생의 학문과 건필은 더욱 무르익어, 후학들의 귀감이 되실 것이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자 한다.

이근삼 선생님, 부디 계속 젊으시고 건강한 글솜씨로 저희를 인도하소서!

2近 3先生

김 의 경
극작가, 한국 ITI회장

대학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이과 과목을 들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한 적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래 나의 열등의식이 어느 정도 사라진 까닭은 수학이나 물리 화학과 인연을 끊어도 좋은 시대에 살게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과과목 학점을 따라고 하다니. 그러나 졸업을 포기할 수 없어서 수강신청을 한 것이 수학개론. 그리고 나는 일생 이 과목을 수강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 우선 A학점을 받았고, $1=0$ 이라는 정리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선생님께서 즐겨 ‘2근3’ 이라고 싸인을 하셨는데(요즘도 그러시는 지는 모르나) 이것을 수학적으로 수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저 수학개론 덕인 것이다. $2=3$ 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10억 2원은 10억 3원과 같다고 누가 주장할 때 웬만하면 인정해 주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등수학이라는 것이다.

연극계에서는 아마도 내가 이선생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이다. 선생을 처음 뵈는 것은 실험극장을 창립하던 시절의 1960년대였다. 전쟁 직후, 연극도 많지 않고 극단도 많지 않던 그 때, 30전의 풋나기들이 극단을 만들겠다고 말씀

드렸을 때 선뜻 베풀어주신 호의와 격려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 늦가을의 어느날 밤, 명동에서 우리들은 제법 취해 있었다.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되었는데 무리들은 헤어질 줄을 몰랐다. 그리고, “야, 우리 집 가자.”하시는 선생의 말씀을 기다리거나 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우루루 선생의 뒤를 열심히 따라갔다. 필동인지 목정동인지 동네 이름은 잊어버렸으나, 퇴계로에서 동국대로 들어가는 어귀의 큰 교회 근처로 우리는 행진하였다. 아마도 셋집이었을 선생댁을 쳐들어간 우리 모두는 취중에도 앓차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때는 아마도 말이 유리양만 태어났던 시절로 생각되는데, 사모님이 주무시려다가 놀라서 일어나시고, 우린 그 안방을 지나 윗칸 서재를 차지한 것이었다. 그런 눈치를 이미 간파하시고 선생님은 한술 더 떠 술안주를 마련하라고 명령을 내리신다. 새벽에 어떻게 그 댁을 빠져나왔는지 기억이 없는 것은 그날 밤 내가 너무도 민망하였기 때문일것이다. 아니면, 선생께서 아끼시던 죠니 워커 병을 비워버리고 정신을 잃은 까닭이었을까? 주머니에서 뽕뽕 찬바람이 불던 대책없던 그 시절을 원망해 봤자 이제 도리가 없다.

실험극장의 첫 작품 이오네스코의 한국 최초등장, 「수업」. 두번째 작품 「거기 누구 없소?」, 윌리엄 서로이언의 첫 소개. 모두가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계단교실에서 이루어진 공연이었다. 세번째 작품 「다리에서의 조망(A View from the Bridge)」은 동국대 중강당을 빌렸다. 그 시절 이선생의 무리한 독심이 아니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다.

나 개인적으로는 더 큰 부채를 선생님께 지고 있다. 1967년 ITI 뉴욕 총회에 갔던 때였다. 로스엔젤레스를 거치긴 했

으나 생판 헤맬 수 밖에 없는, 꿈에도 못 그리던 뉴욕 초행이었다. 비행기는 여린 빗줄기를 뚫고 천천히 선회하면서 지상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우리는 처음에 구름 속에 있었고 빗물 속을 지나갔다. 그러다 갑자기 집들이 보이고 도로와 자동차의 행렬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끝이 안 보이는 도시가 나타났다. 나무와 잔디와 지붕이 시시각각 나의 시야쪽으로 가까워졌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긴 회랑을 지나 Baggage Claim 지역을 빠져나올 때까지 그것들은 나를 옥죄어 왔다.

“김의경!”

이선생이 공항에 마중나오신 것이었다. 검은 우의로 몸을 감싸고 우산을 드신 모습을 뵈면서 이 촌놈은 와락 달려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있었다. Yellow Cab에 몸을 싣고 시내로 들어오는 차 속에서 느끼던 그때의 안도감. 어두워지기 시작한 뉴욕의 거리는 거대한 홍물로 비취지고 있었지만 하여튼 나는 안심이었다. 지금은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Stanford Hotel이 당시 내가 뉴욕의 첫 밤을 지낸 Hotel Martinique라는 사실은 별로 아는 이가 없으리라.

선생의 정년을 아쉬워하는 후학과 제자들이 문집과 기념공연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접하면서 우리들은 거역할 수 없는 시간의 존재를 새삼 느낀다. 그 동안 베푼 일 많아서 이런 복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니 우리같은 범인이 부러워할만 것은 아니다.

60년대의 한국 연극계는 아직 외부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들은 막연히 세상의 연극이 대충 그런 것이려니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내가 소위 브로드웨이의 극장들을 돌아보고서는 장님에게 우유 빛깔을 이해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이선생에게 얼마나 절실하였을까를 상상하고도 남는 것이었다.

선생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브레히트를 우리에게 소개해주셨다. ‘Oh, What a Beautiful Morning’을 들려주시면서 뮤지컬의 세계에 눈뜨게 하셨다. 아직 신과의 때를 못 벗은 Realist들을 비판하여 기성 연극계의 미움도 사셨지만, 젊은이들의 진지한 시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설프고 설익었어도 무조건 전폭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그 용기와 열정을 오늘날의 30대에서 발견치 못함은 유감이다.

이선생은 학교를 그만 두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못 쓰신 작품들을 생산하여 우리 연극계를 더욱 변모케 할 출발점에 당도하신것 아닌가? 우리들은 유쾌하게 선생의 신작들을 기다릴 일이다. 이 어찌 선생의 복이요 우리들의 복이 아니겠는가?

“나보다 앞서 나가야지……”

김 정 근
동국대 교수, 영문학

언제쯤이었던가 새삼 기억을 더듬어야 할 만큼 수없이 많은 해가 쌓였는데도 이 선생님과 첫 만남은 생생하다. 그때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이 서머셋 모옴(Somerset Maugham)의 「인간의 굴레(Of Human Bondage)」였는데 선생님께서는 Maugham의 문체, 사상, 작품의 구조와 주제 등을 분석하면서 이 작품을 Maugham이 쓴 다른 여러 소설과 연계시켜 설명하고 또 Maugham의 문학사상의 근거를 Samuel Butler나 Hardy의 사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강의하셨다. 독해 위주의 강의에 식상해 있었던 학생들에게 이런 참신한 강의 스타일은 가뭄에 단비 격이었다. 선생님의 강의를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몇몇 학생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선생님의 지도를 원하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결국 ‘Reading Society’라는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모임은 주 1회 열렸고 주로 단편 소설을 서로 돌아가며 해석하고 토의하고 난해한 부분은 선생님께서 해결해 줄 몫으로 남겨놓곤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읽었던 것 중에서 Hardy의 「To Please His Wife」가 제일 인상에 남는다.

Byron은 「Don Juan」에서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과거는 소중한 것이 아닐는지. 강한 인상을 받았을 때는 좀처럼 그것이 무엇이든 뇌리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정신 상태가 아닐까.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서재과형을 선호했던 나는 선생님의 서재를 보고 지적작업을 하는 사람의 개인 생활, 즉 개인의 지적생활에 선생님께서 얼마나 충실하신가를 실감하고 지금까지도 선생님의 서재를 잊지 못한다. 영미문학 관계의 많은 서적이 paper bound가 아닌 hard cover로 서가에 거의 뽁뽁이 차있지 않은가. 그것도 장르별로. 그때 선생님을 따르던 신경림, 이효영, 이희춘, 김준환군 등은 지금도 가끔 만나면 Eliot, Pound, Joyce 등의 작품세계를 흐릿하게나마 짐작하게 되었고 또 Ibsen 이후 Miller에 이르기까지의 Modern Drama를 섭렵하게 되었던 것이 모두 선생님의 서재를 통해서 였다고 회고한다. 물론 이런 과목에 대한 강의가 없진 않았으나 주로 독해로 끝나는 일이 많아서 문학 강의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그 때는 원서를 구할 수가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것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대개의 경우 교재를 각 교수님들이 인쇄물로 배부해 주시던 때였다. 그 당시에 이미 문단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신경림 동문은 “이 선생님은 나이도 젊은데 언제 저렇게 많은 책을 보셨는지 몰라. 여하간에 재주있는 분이 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였다. 아마 그가 우리 중에서는 그 서재를 가장 많이 애용했고, 또 선생님께서도 시작(詩作)에 필요한 책을 읽도록 유도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가지 재미있었던 일은 책을 빌려 주실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책을 빌려주는 사람도 바보이지만 책을 돌려주는 사람은 그

보다 더 바보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라고 은연중에 뒤통수를 치시고는 “책은 반드시 노트를 하면서 보아야 하네”라는 토를 다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서울 시내의 대개의 대학이 다 그러했듯이 50년대의 영문과의 현황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영문과 지망의 동기가 영문학 공부에 있다기 보다는 영어를 남보다 잘 해서 졸업후 취직을 먼저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이나 시사영어(時事英語)라는 특강형태의 강의가 전공과목보다 더 인기가 있었다. 교재는 어떤 대학이나 마찬가지로 Time이나 Newsweek지였고 강사는 대개가 미국통 아니면 영국통으로 알려진, 소위 영어에 능통한 인사나 통신사의 외신부장이 동원되곤 했다. 그 때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시사영어를 맡게 되셨다. 선생님은 시사문제에도 밝아 해석이 명확할 뿐 아니라 발음이 또 정확해서 시간만 되면 초만원을 이루어. 적어도 30분 전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도리 없이 90분간을 선 채로 들을 수 밖에 없었다. 그 때만해도 학생들은 대학의 노교수님들의 일본식 발음에 식상했었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에 들어가면 이해여부에 관계없이 정말 영어를 배우는 느낌이 들었다.

50년대는 휴전(休戰)협정(1953) 조인을 전후하여 아직 시민생활이 이렇다하여 제 자리를 잡지 못한 실정이어서 대학도 어수선했던 분위기였고 학생들도 연령차가 심해서 20대와 40대가 같은 학년인데다 실력도 천차만별이었고 그 중에는 상당한 영어실력을 갖춘 학생도 끼여 있어서 가끔 젊은 교수와 학생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수님은 젊게 보였으나 (실제 젊으셨으나 교수라는 직함 때

문에 나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었음) 여느 다른 교수님들의 경우처럼 소위 늙은 학생으로부터 야유를 받으신 적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가끔 영어를 잘하는 학생의 질문을 받았을 때도 많은 문장을 예시해 가며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해 주시곤 했던 생각이 난다.

나는 그 당시에 한 40대의 학생이(그 때 그는 중절모자를 쓰고 있었다) 던진 질문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어느 신생국 대통령이 뉴욕 공항에 내렸을 때 대통령에게 ‘I am pleased to meet you.’라고 하지 않고 왜 ‘I were pleased to meet you’라고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문장은 문법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말이 있고 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 전제하고 당시 사용되고 있는 흑인 방언을 비롯해서 언어의 기능주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를 일일이 예시한 후,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말하는 사람의 기분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자공의 오기(誤記)로 생각할 수가 없고 이것을 가지고 오기를 발견했다고 투서해 보아야 “200불의 상금을 타지는 못할 것”이라고 부언하셨다. (Time 지에서는 오기를 발견하면 200불의 상금을 주게 되어있다는 것도 그 때에 알았던 정보의 한토막) 이 때 장내는 갑자기 숙연해지기까지 하였다. 한편으로는 젊은 교수의 영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놀라웠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부럽기도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영문과에서는 이윽고 서둘러 문학공부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내에서 영문학회를 만들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착수하게 된 것이 ‘학술발표회’였다. 그 때 처음으로 나

는 Samuel Bulter의 「The Way of All Flesh」를 소개하게 되었고, 이희춘 군이 「Maugham과 자유인」을, 이효영군이 Oneil의 「Beyond the Horizon」을 각각 발표하게 되어, 이것이 계기가 되어 「Apollo」라는 학술지를 내놓게 되었다. 변색된 이 학술지를 대하게 될 때마다 그 때 선생님께서 논문작법을 알려주시던 생각을 잊을 수가 없다.

선생님이 여느 다른 교수님들과 다른 점은 학생들과 학문에 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게 될 때 반드시 술을 필요로 하신다는 데 있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느끼지만 생리적으로 받지 않는 술을 받아 마셔야 하는 고역 때문에 자리를 가끔 피하지만 일단 동석이 되면 요지부동으로 재촉하시기 때문에 흥당무가 되어도 계속 눌러 앉아 끝까지 버텨야만 한다. 선생님은 일단 취하시면 횡설수설이 아니라 한층 더 정확하게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하신다. Bernard Shaw의 humour를 받아 넘길 수 있는 사람이 Oscar Wilde뿐이라고 했다던가. 선생님과과의 대화에서 대화의 단절로 인해 머쓱해지는 것은 유모의 결여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안절부절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거나하게 취하면 늘 하시는 말씀, “죽으면 무얼 남길래?”, “괴테가 죽을 때 햇빛을 쬐려고 창문을 열어 달라고 했지.”, “나보다 더 앞서 나아가야지. 이근삼이가 무어야,” “사내가 한번 태어나서 한다는 일이 고작 육법전서(六法典書)를 외워서 관점사가 되는 일이라고?”

나는 받지 않는 술을 받아 마시느라 언제나 무진 노력을 했으나 내 부실한 기관이 끝까지 말을 들어주지 않아 본의 아니게 벌이게 되는 저급한 나의 노상 쇼가 두려워 선생님과 같이 하게 되는 술 좌석을 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나를 대하시면 이렇게 말문을 여신다. “넌 미국

서 뭘 했어. 술도 못 배우고. 어이 이 친구 아직도 술을 못 배웠네.” 술에 관한 한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되고 이 점 또한 나는 존경하는 바다.

선생님은 격의없는 대화를 좋아 하신다. 이것은 선생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기질이고 성격인 것이다. 권위의식이나 위선적 태도를 가장 싫어하신다. 언제나 학문은 정직하다는 신조를 갖고 제자를 일 대 일의 관계로 대하신다. 언제 어디서 대면해 봐도 우울한 구석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일이 없고 늘 자신에 차 있는 점이 아마 제자들이 주위에 들끓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여기서 꼭 한마디 곁들일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드는 학생들을 한결같은 조용한 미소로 대하시면서 다과에 술상, 때로는 끼니까지 챙겨 주시던 사모님에 대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학부를 거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을 때도 주로 선생님과 따뜻한 사모님 가까이에 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내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문학을 가르치면서도 시 소설은 이제 전공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앞으로는 연극 쪽에 사람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결국 영문학 쪽보다는 연극계에서 더 많은 업적을 남기고 계시지만 문학연구에 뜻을 둔 나로서는 선생님께서 계속 문학 쪽에도 그만큼의 왕성한 의욕을 보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된다.

선생님의 은퇴를 맞이해서 뭐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쓰고 싶었으나 세월이 많이 흘러 별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줄문이 된 느낌이다. 기념논총을 만들 때는 좋은 논문을 한편 쓰고 싶을 뿐이다.

이대(二代)에 걸친 인연

오 국 근
동국대 교수, 영문학

이근삼 선생님의 정년을 맞아 이근삼 교수 정년기념 사업회에서 에세이집을 발간키로하여 원고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인간 이근삼’이라는 주제를 에세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써 달라는 청탁이었다.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 나는 한참이나 멍해 있었고 그 후에도 막막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가 충격에 가까운 멍한 기분을 느낀 이유는 이 선생님의 정년퇴임이란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전혀 실감이 안났기 때문이다. 이 선생님이 정년이라니! 항상 젊으셔서 평생가야 노인소리를 듣지 않으실 것 같았던 이 선생님이 말이다. 뭔가 잘못 된 것 아닌가 하고 두번 세번 읽고난 다음에 따지고 보니 이 선생님 연세가 틀림없이 정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누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그 충격에서 벗어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번에는 정말 막막한 기분에 사로잡히고 말았는데 그 첫번째 이유는 이 선생님을 처음 뵙고(대학선배이자 은사로서) 나서 꼭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40년이라니, 강산이

네번 변하고 세상은 그 네제품이나 뒤집힌 지난 40년이 아닌가. 참 긴 세월이 흘렀구나 하니 이번에는 본격적인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런데 다시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선생님과 특별한 추억꺼리가 전혀 없고 크게 내세울 만한 기억꺼리도 별로 없다는 한심하고도 희한한 사실이 그 두번째 이유다. 淡淡如水랄까. 멀리서 가까이서 그저 그럭저럭 세월만 흐른 셈이라 후배로서 제자로서 참 사람 노릇 못한 한평생이었구나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러니 나의 이글은 이 선생님과의 인간적인 교류에 바탕을 둔 추억의 에피소드의 기록은 결코 아니고 어찌면 지극히 객관적(?)인 인간 이근삼론이 될지도 모른다는 자위를 마음 속으로 해보기도 한다.

이근삼 선생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우선 젊으시다는 점이다.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이 선생님은 전혀 나이 하고는 관계가 없는 마음과 자세와 얼굴을 하고 계신다. 4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에도 나는 단 한번도 이 선생님이 연세가 드셨다. 늙으셨다 하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 얼마 전에 자제분 결혼식장에서 뵈을 때에도 혼주라는 기분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더러 만년 청년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선생님이야말로 이 말이 꼭 들어맞는 분이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선생님의 두번째 특징은 시원하다는 점이다.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씨원하다’는 된소리 표현이 더 알맞을 정도로 시원하다. 얼굴도 시원하게 생기셨고 마음씨도 시원시원한 분이다. 특히 평양 말씨가 시원하다. 이 선생님과 같이 앉아 얘기하노라면 이 씨원한 시원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특히 여름철에는)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결코 나만

이 아니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이 선생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선생님의 학문과 예술에 관한 높은 업적이다. 학문과 예술은 (그 둘이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문학에 있어서도) 두 가지를 고루 갖추기가 힘든 법인데 선생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연찬, 창작하셨고 더욱이 두 가지 다 대성하신 정말로 드문 분이다. 나는 30여년 전 선생님의 「원고지」를 처음 읽었을 때의 신선한 감격과 짙은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그 후에도 많은 작품들을 쓰셨지만 나는 「원고지」가 선생님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마디로 그 때의 내 소감은 “이제 우리나라 희곡(과 연극)이 50년은 앞서가게 되었고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었다. 만사지탄이 없지 않지만 몇년 전에 예술원 회원의 명예를 누리시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아무튼 흐르는 세월 속에서 그저 물갈기만한, 그러니 어떻게 보면 싱겁기 짝이 없는 인연에 뜻밖에도 선생님과父子 2대에 걸치는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이 또한 기이한 인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내력은 이렇다.

우리집 둘째 아이(성환)가 1988년에 선생님이 봉직하고 계시는 서강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하였다. 나는 선생님께서 영문학을 하셨기 때문에 으레히 문과대학에 재직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사회과학대학에 재직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학년때부터 운동권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핵심투사가 되고 말았다.

그 암담하던 시절에 운동권에 가담한 자식을 둔 부모들이

다 그랬겠지만 특히 내 자신이 학교에 몸을 담고 있었으니 마음고생이 정말 말할 수가 없었다. 그 아이와 며칠에 한번씩 간신히 얼굴을 맞대면 나는 타이르고 부탁하는 것이 “그저 학생의 본분이란 공부하는 것이니 학교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고 특히 교수님들에게 절대로 인간적으로 무례한 짓을 하지 말라”하는 것이었다. 이때 나는 늘 이 선생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3학년이 되자 (군대에 갔다오느라 90년에서야 3학년이 되었다) 이 아이가 느닷없이 학생회장(사회과학대학)선거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의 대학가와 운동권 학생들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실로 난감하였으나 그렇다고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여하튼 무난히(?) 당선된 다음인데 그 전후에서 이 선생님께서 사회과학대학장이 되셨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서 이 선생님과 인연과 관계를 말해주고는 학장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모든 일에 지도를 받도록 다짐해 두었다. 그 후 졸업때까지 투쟁과 피신의 연속이라 도대체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용케 졸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반신반의 하면서 졸업식날 서강대학교에 갔더니 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쓴 것이 제법 의젓해 보였다. 이학장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려고 어디 계시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한참만에 돌아와 하는 말이 어디 계시는지 찾을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래서 인사도 못드리고 돌아왔는데 그후, 그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어 “주례를 누굴 모실까요”하고 상의를 하길래 “아, 그 이학장님을 모시면 정말 좋겠구나. 내일 찾아가 뵙고 부탁말씀을 드려라” 라고 대답했다. 그 이튿날 이 선생님을 찾아가 뵙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렸더니 “야,

니가 아들이냐!”라고 絶句하시더라고 한다. 이 아들놈이 그때까지 우리 父子 2대에 걸친 긴 인연을 밝히지 않았던 모양이다. 선생님께서는 마침 다른 약속이 있으셔서 주례를 못 맡아 주셨지만 정중한 축전을 보내 주셨다. 그리고 보니, 말이 2대이지 싱겁고 如水하기는 내내 마찬가지로 되고 말았다. 참 싱거운 인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은사 이근삼 선생님의 익승익장하심을 마음속으로 기원하면서 이 글을 쓰는데도 어찌 기분은 여전히 이상하다. 이근삼 선생님이 정년퇴임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 선생님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싱싱한 청년이시고 뽕뽕한 현역이시니까 말이다.

내가 연극을 한 이유

박 인 환
연극인, 탤런트

선생님에 관한 원고청탁을 받았을 때는 쉽게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글을 쓰자니 펜이 움직이지 않음은 무슨 까닭일까? 학교 은사이시자, 연극계의 대선배님(?)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결례라는 생각에서 일까? 아니면 희곡작가이신 선생님의 명필에 비해 나의 글재주의 초라한 창피함 때문일까? 아무튼 이제 더이상 도망갈 길도 없어졌다. 내가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것은 64년도 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해서였다.

이선생님은 「원서강독」과 「희곡론」을 강의하기 위해 강단에 오르신 것이다. 그 특유의 달변과 유모어 감각으로 학생들인 우리들을 사로잡았고 더불어 인기도 대단하셨다. 그리고 어느날 선생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셨다. 타대학으로 자리를 옮기셨던 것이다. 그리고 한동안 선생님을 뵈지 못했다.

3학년 2학기에 군대에 입대한 나는 그 이듬해에 아버지를 암으로 잃었고 집안에 장남인 나는 가정문제로 고민을 해야만 했다. 즉 아버님이 안 계신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선 연극을 포기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연극계 입장으로 생활을 꾸려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제대 후 경영학과 편입원서를 사다놓고 있을 69년초, 극단 「가교」선배들한테서 연락이 왔다. 연극을 하자고 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일종의 계몽극인데 전국 순회공연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돈도 웬만큼 준다고 했다. 나는 그 돈에 관심이 많았다. 나는 그 돈을 받고 공연만 딱 끝나면 그만 두기로 하고 허락을 했다. 그렇게 만난 작품이 「미련한 팔자대감」이란 전국 순회공연이었다. 그 작품은 다름 아닌 이선생님이 쓰시고 또 극단 가교에 알선해 주신 것이었다.

3개월간 극장도 없는 전국 면·군 소재지를 돌면서 학교마당, 개천, 바닷가 등에서 야외공연을 가졌다. 요즘의 마당놀이 형태였다. 북, 팽가리도 치고 가면도 쓰고 한 이 무료공연은 연기자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체험이었다. 이 공연을 통해 연극도 돈도 벌 수 있었고 연기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그래서 어머니를 졸라 연극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아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연극생활은 오늘날까지 나를 묶어 놓는 계기가 된 것이다. 즉 이선생님의 「미련한 팔자대감」이란 작품이 없었으면 나란 연기자는 이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그후 나는 이근삼 선생님의 수많은 작품과 만나게 된다. 「유랑극단」, 「광인들의 축제」, 「삼십일간의 야유회」, 「원고지」, 「학담골」 등등 난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 해학과 풍자를 배웠고 희극과 서사극적인 재미를 배울 수 있었다.

선생님은 항상 연극은 재미있고 풍자상이 깃들여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사실주의 연극에서 한단계 위에 올라 내려다 보는 안목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해박한 지식과 안목으로 여러 극단의 창단작업을 도왔으며 연극계를

지도해 오셨다고 생각된다.

극단 「민중」, 「실험」, 「가교」 등은 창단에서부터 운영까지 직, 간접으로 도왔으며 창작극 개발과 작가육성에도 큰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된다.

설날에 댁으로 세배를 가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연극계 후배들과 제자들로 만원사례였다. 그만큼 선생님은 인기가 좋으셨고 떠들썩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얘기, 연극얘기로 밤을 세우기 일쑤였다.

항상 그 탁월한 달변과 유모감각으로 좌중을 웃음으로 이끄시면서 리드하였다. 또한 선생님은 후배, 제자들의 상담역을 맡기를 좋아 하셨다. 학교문제건, 연극문제건,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건 간에 선생님은 쾌히 상담에 응해주셨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술주정을 해도 너그러이 받아 넘어 가시는 선생님의 큰 마음에 항상 우리들은 “죄인이라도 소이다”였다. 그리고 부지런하신 성품은 또 유명하시다. 아무리 술을 드셔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불일을 보시며, 연극계 행사나 제자들 또는 후배들의 공연에는 꼭 참석하신다. 심지어는 아는 사람이 하는 TV연출이나 연기까지 보시고서 소감을 말씀하신다. 항상 만나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는 선생님의 성격은 정말 부럽기만 하다.

내가 제대 직후 진로문제 등 여러 가지를 상의하러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 선생님은 연극을 계속할 것을 권유하셨고 연극을 하려면 연기자도 영어공부를 해야하고 글을 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TV쪽은 안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예”라고 대답했었지만 오늘날 그대로 실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어도 제대로 못 배웠고 글도 쓸 줄 모르고 이제는 TV출연으로 생활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까 말이다. 하지만, 단 한가지 연극만은 계속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을 다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 동안 30년 넘게 몸담으셨던 학교에서 물러나게 되심에 섭섭함도 없지 않으시겠지만 더 넓은 우리 사회를 위하여, 우리 연극계를 위하여, 명강의를, 좋은 글을 쓰시기를 바란다. 이는 비단 내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농구 플레이어로서의 이근삼

오 명 환

MBC 편성국 부국장

회색싱글에 앞이 뭉뚱한 고도방형 구두, 이마에 깊은 주름살, 약간의 우거지상, 180cm를 웃도는 키, 그리고 줄담배…… 이것이 선생님과 첫 대면에 비친 모습이었다. 1964년 3월초 흑석동 중앙대학교 문리과 연극영화과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날이었다.

이후 30년 지난 오늘까지 선생님의 모습은 회색싱글의 양복색깔 타인지 회색 연대기의 나날로 기억되고 있다. 선생님의 작품 「원고지」, 「욕망」, 「국물있사옵니다」, 「위대한 실종」, 「유랑극단」……등의 주인공에서 그리고 작품의 기초에서 여전히 나는 그레이 무드를 떨치지 못하는 것이다.

선생님은 농구선수였다. 중앙대, 먼지 풀썩이는 교정 농구 코트에서 성큼성큼 제자들의 패스 공을 받아 별 어려움없이 바구니에 쓱쓱 집어넣는 모습은 지금도 선하다. 와이셔츠 바람에 지금쯤 센터와 가드역을 겸한 한기범, 김유택 선수처럼 선생님은 구경꾼들의 박수소리에 별 아랑곳없이 커다란 키로 공을 처리하시곤 했다.

그때 선생님 나이가 35세, 동국대(모교) 앞 필동, 어느 좁은 셋방집에서 신혼살림을 끝내고 장위동으로 이사하신지 3년째였다. 18세, 광주(光州)서 갓 올라온 나로서는 작은 키 때문에 농구는 엄두도 못냈지만 선생님이 즐겨 신은 고도방형 구두는 오늘날까지 나의 선호품이 되고 있다.

선생님에게 배운 과목은 「연극개론」, 「희곡강독」, 「연극사」……등으로 기억된다. 선생님은 셰익스피어보다 「유진 오닐」과 「아서 밀러」를 껍이나 좋아하셨다. 우리는 오닐의 단막극을 부지런히 섭렵했고 「다리위의 조망」과 「세일즈맨의 죽음」을 텍스트로 받았다. 선생님은 산업사회에서 희생된 미국의 소시민의 비극을 것처럼 중시하셨던 것 같다. 「원서강독」은 껍 쉽지 않았다. “Bottoms up”을 “술 마셔”로 “Better half”를 “여자”로 가르쳐 주셨다. 참 어려운 단어였다. 「세일즈맨의 죽음」의 첫 대사는 주인공 윌리 로만의 “I’m home!”으로 시작된다. 선생님은 “나야!”로 해석해 주셨다.

참 어려운 영어로구나…… 거기서 나온 “……shoulder”는 “갓길”로 번역하셨다. 솔더는 “어깨”라는 뜻인데…… 25년 후 내가 운전면허를 따고 노견(路肩) 주행금지를 보았을 때 “솔더”의 정확한 뜻이 파악되었다. 참 어려운 영어했다 싶다. 「세일즈맨의 죽음」의 주인공 윌리 로만과 오늘의 선생님이 자꾸 더블 포즈로 겹쳐오는 것은 웬일일까……?

내가 3학년을 마치고 군입대 후 1년이 지난 1968년 어느 겨울, 선생님과 해후가 있었다. 연극 강연 차 광주에 내려오신 것인데 당시 포병학교에서 근무한 군복차림으로 선생님과 대면은 껍이나 기억에 새롭다. 70년 4학년 복교 때, 선생님은 이미 안계셨다. 서강대학으로 옮기신 것이다. 선생님은 서강대학의 인상이 마치 유치원같다고 웃으셨다. 그리고

교정의 학교극장(메리홀로 기억된다)을 구경시켜 주셨다. 커튼이 국내 최초의 방화(防火)용이라고 자랑하셨다.

사반세기가 넘는 장위동 구옥을 떨치고 세검정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은 꼭 생소하게 들렸다. 89년 겨울, 선생님의 단골처인 자택 앞 어느 장어집에 들렀을 때 선생님은 파란 담배 ‘팔리아먼트’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목이 덜 아픈 담배라고 하셨다. 선생님은 여전히 담배를 즐기셨다.

93년 12월 16일, 롯데 잠실 백화점, 막내딸 유정이를 보낸 날, 양가 부모가 내빈에 인사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또 한번의 회색을 보았다. 뵈지 30년으로 가는 길목, 머리 빛과 옷색에서 그리고 즐거운 결혼식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회색에 짓눌린 것이다.

그날은 하늘도 회색으로 덮어 눈이 내렸다. 백화점서 들린 크리스마스 캐롤도 그레이 톤이었다.

논두렁의 變態일기

윤 주 상
연극배우

내가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선생님이 쓰신 책을 통해서였다. 그 글은 연극을 처음 시작하는 나같은 학생에게 꽤나 소중한 목록이었다. 명쾌한 정의와 논리전개로 연극을 공부해야 할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조건들과 방법에 대하여, ‘무엇’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하여야만 하는가가 선명하고 간결하게 쓰여져 있었고 또한 글쓴이의 연극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의 일면도 읽을 수 있어서 전혀 만나 뵈 적이 없는데도 마치 잘 아는 사람같은 친근감과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당시로서는 딱이 그럴만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연극과 더불어 이십 사오 년을 지내오면서 나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한갓 우연일 수도 있지만 당시 연극학도로서 내가 받은 작품을 통한 감명이나 선생님의 영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의 연속인 연극의 길에서 한눈 파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사실 한적한 시골에서 농사일 하는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

나 자라온 나는 한가롭고 나른한 생활이 몸에 밴 탓에 농촌 시계는 서울시계와 다른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어눌하게 적응해 가는 도시에서의 대학생활이 참으로 고되고 힘들었다. 대학에 들어와 사귀 친구들은 어찌면 그렇게도 유식한지 매일 혀를 내두르다 볼일 다 볼 지경이었다. 원래 성격 탓이 더 크겠지만 버스 잘못 타는 것은 예사고 일단 타면 졸다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 당도해서는 갈피를 못 잡아 허둥대다가 어렵사리 집을 찾아오곤 했다. 통금시간이 넘으면 그냥 쓰러지는 곳이 내 집이었다. 분명히 화장실에 남녀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살필 겨를도 없이 뛰어들어 애꿎게 경찰서 보호실 신세도 곧잘 지게되고, 그런 꼴이 옆에서 보기에 딱했던지 여러 친구들이 내 허술하고 불안정한 구석 구석을 잘 감싸주고 시시콜콜한 참견까지 아끼지 않았다. 모임에 빠짐없이 데리고 다니면서 주말마다 열리는 토론회 때는 지겹도록 발언기회를 주던 ‘쪽제비’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의 情도 잊을 수 없다. 이러한 나의 아주 느린 변화의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잠을 깰 수 있는 자극과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준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 책이었고 수도 없이 되내어 본 걸장에 새겨진 저자의 이름이 이근삼, 바로 선생님의 존함이었다.

어느 해던가 겨울방학이었을 거라고 기억되는데 한번 선생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1971년 학과동료 11명이 주축이 되어 만든 「演劇世代」에서 토론회 계획을 짤 때 나는 계속해서 이 선생님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친구들은 내가 이 선생님과 아주 잘 아는 사이인 줄 알고 나를 통해 그 토론회에 이 선생님을 모셔오라는 임무를 주었다. (당시는 부조리극에

심취했던 때이므로 토론회도 그 계열의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를 위한 것이었을 거라고 짐작된다) “여부가 있겠는가” 하고 큰 소리는 쳤는데 이게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기회는 이때다 싶어 내심 용기를 내어 찾아 뵙기로 했다. 처음엔 학교로 갔는데 연구실 문이 잠겨 있었고 사방은 어두웠다. 컴컴한 복도를 한시간 가량을 서성이다 어느 방인가 말소리가 들리기에 들어가서 이 선생님께서 만나오셨는가를 물었다. 나로 인해 대화가 끈긴 그들은 물끄러미 쳐다보곤 말이 없었다. ‘아차, 노크하는 걸 잊었구나, 더구나 학과도 대지 않고 함자만 읊어댔으니’하고 나는 내 무례함을 스스로 탓했다. 한참만에 그들 중 가장 늙으스레한 사람이 “방학동안에는 연구실에 어찌다 들르실 정도니까 급한 용무시면 댁으로 찾아가는게 쉬울거요” 라고 아주 형식적이고 정중하게 대답을 하고는 다시 그들의 끈긴 대화를 이어가려 했다. 나는 재차 “교수님,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이번엔 “난 그런거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요!”라는 통명스런 대답이 나왔고 그들의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면서 교수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서무과에 가서 주소와 약도를 알아내어 한번도 가보지 않은 장위동을 향해 버스를 탔다. ‘일면식도 없는 어린 놈이 전화로 실례를 하면 안되지’하는 생각에 직접 찾아 뵙기로 한 것이다. 난생 처음 가보는 장위동 고개를 넘어서 한참만에야 그것도 파출소에 물어본 끝에야 선생님 댁을 찾았다.(그 후로도 수없이 뵈러 갔는데 한번도 제대로 찾은 적이 없으니 동네구조가 기묘한 것인지, 내 길눈이 눈두렁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선생님을 뵈면 무슨 말을 할까?’ ‘누군데 어디서

왔나시면 어떻게 대답할까?’ 대문 밖에서 삼십분 가량 혼자 리허설을 벌였다. 그러는 동안 제풀에 흥분이 되어 침이 마르고 머리가 옥신거리고 가슴은 방망이질 해대니 이건 면접 시험 이상 가는 초조함이었다. 게다가 날씨까지 코를 베어 갈 량으로 추위 한참을 덜덜 떨다가 가까스로 벨을 눌렀다. 기척이 없었다. 한번 다시 한번을 눌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결국 서성이다가 발길을 돌렸다. 선생님을 뵈지도 못하고 돌아오면서 아까 골목을 들어설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 되어 있었다. 춥지도 않았고 머리는 오히려 맑아졌으며 가벼웠다.

그 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극단 가교의 P선배와 함께 정초에 세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다. 당시의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아담한 단층양옥에 정원에는 몇 그루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대문이 열리면서 “아, 왔구나. 어서들 들어오라우.” 그 선배 뒤를 어슬렁 어슬렁 따라 들어간 나는 선생님의 풍채에 놀라버렸다. 내가 그려본 그림과는 너무나 달라서 나는 엄청난 실망을 할 정도였다. 큰 키만 생각과 일치할 뿐 용모도 미남과는 거리가 먼 듯하고 어투는 또 뭐란 말인가? 하도 빨리 말씀을 하시는 통에 나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영 종잡을 수가 없었다. 어른에게 번번이 되묻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해서 대충 알아듣는 말만 이해하고 “예, 예”만 연발했다. 연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의 질문에 조차 그저 “예”라고 대답했을 터였다. 그런데 갑자기 “야, 애 뭐이가? 오데서 용국했데?”

선생님 서재는 나를 다시 놀랬켰다. ‘저 책을 다 보셨단 말인가? 설마 다는 아니겠지. 하지만 필요치도 않은 책을 쫓아

두실 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자문자답하던 나는 그 정돈되고 손때묻은 흔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저 선생님의 일면이나마 그 세계를 볼 수 있던 행운에 감격했고 즐거워했다. 그토록 어려워했던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늘어감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려놓았던 선생님에 대한 그림들은 조금씩 고쳐지고 다듬어져 훨씬 분명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철학이라도 하는 양 감당 못할 질문들을 안고 온 우주의 고민을 혼자 떠맡 것처럼 전전긍긍하고 있어도 선생님은 내게 화려한 논리로 그것을 설명해 주신 적이 없다. 대답은 늘 간단 명료했다. “야, 책을 많이 읽으라우.” 질문자체가 무엇을 묻는 것인지 불분명하거나 뭘 모르는지 조차도 모르는 자에게 줄 수 있는 당연한 답변이었을거다. “체험을 통해 스스로 찾아라”거나 “어려운 얘기지만 최선을 다 하는 것은 어디에나 해당되는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그런 답변이 한편으로는 야속했지만 그런 선생님이 좋았고 멋지게 보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왜 연극을 하는가?”하는 선생님의 질문은 내게서 한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그 질문은 답을 준비하기 위해 평생을 받쳐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좀더 내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누구에게나 묻혀버렸거나 묻히길 바라는 일이 왜 없을까마는 이 이야기가 내게 있어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순전히 사적인 이야기를 글로 쓴다는 것은 참으로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무관한 이들에게는 대단한 일도 아니려니와 쉽게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것이겠지만 이 어줍지 않은 글이 내게 자식과 진배없는 정을 주신 선생님 정년기념에 부치는 글이고 보니 그대로 써

보고자 한다. 오히려 나보다는 선생님의 8년의 먼지를 걷어내고 아픔을 다시 들추는 이야기가 되기에 묻어두고도 싶었지만 티없이 맑고 영롱한 영혼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서 송구스런 마음으로 조심스레 풀어본다.

1987년 정초에 선생님 댁을 찾았다. 이제껏 선생님께서로부터 누누이 들어온 자상한 추궁이지만 또 시작이다. “야, 노와 장가 안가네? 요자가 기렇게 읊네? 머린 다 빠지구야, 큰일 났다우. 이젠, 이젠 가야지 안캅어?” 늘 얼굴 붉어지는 화제로 곤경에 처하곤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중극단」에 나오신 선생님께 장가를 가겠다고 선포하고 날짜까지 2월 7일로 잡았으니 주례를 맡아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놀라운 표정으로 “모하는 요자야? 멧살이구? 야, 노두 가진 가누만. 누구가? 노한테 오겠다는 요자가?” 하며 호탕하게 웃으시며 소주집으로 모두를 데려 가셨다.

그런데 2월 4일 새벽에 슬픈 소식이 날아들었다. J선배의 전화였다. “유철이가 교통사고로……”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언제나 공연 첫날이면 2홉 소주병에 예쁜 리본을 달아 가지고 와서는 엄지손가락을 펴 보이며 씩 웃어주며 “공연 잘 하세요.” 라고 격려해 줬었는데. 그 소주병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옆엔 며칠 전 선생님과 유철이와 내가 함께 마시다 남긴 조니워커가 놓여 있는데…… 믿어지지 않았다.

고려병원 영안실에는 애석하고 안타까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생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었다. 그런 경황에도 선생님은 초췌한 모습으로 “야, 노 주례 오떡하니? 난 괜찮은데 노나 색시 부모님들이 모라구 안하실까?” 나는 그저 울

고 있었을 뿐 아무 말씀도 못 드렸다. 유재천 교수님이 선생님의 근력이 염려된다며 근처 식당으로 일행과 함께 모시고 갔다. 그 자리에서 또 그 말씀을 하셨다. “어른들께 여쭙어 보라고.” 아내와 난 어른들께 상의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약속했다. “선생님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는 선생님만 괜찮으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른들께서도 좋다고 하셨구요” 물론 양가 어른들께는 후에 말씀드렸다. 두 집 어른들 모두가 우셨다. “그렇다면 난 괜찮아. 개 인생은 개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2월 7일, 전날 아드님을 화장하여 부처님 품에 안겨 주시고 예식장에 오셔서 그야말로 지금도 회자(膾炙)되는 명주례사를 하셨다. 하객들의 배를 쥐게 만드신 것이다. 지금도 경이롭게만 느껴진다. 초인적 힘이었을까?

선생님의 깊은 뜻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수많은 날들을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 희생해 오신 선생님의 여러 역할 가운데 한가지가 완성되는 순간이다. 그것은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의 시작이다. 인위적으로 설정한 연한의 의미는 한정된 몇 곳에만 존재할 뿐이다. 예술가에겐 정년이 없다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믿는다. 앞으로도 더욱 더 젊음을 유지하시고 이제까지 그래오셨던 것처럼 자유로운 예술가로서의 향기를 온누리에 나눠 주시기를 기원하며 활짝 웃으시는 선생님이 얼굴을 떠올려 본다.

— 은혜만 입고 사는 못난 이가 큰 절을 올립니다.—

제 4막 전의 이야기

이 승 규

연출가, 인천시립극단 대표

선생님을 처음 학교에서 뵈은 지도 30년이 가까워옵니다. 학교에서 배운 시간은 짧았지만 사회에 나와서 배우고 같이 일한 기간은 깁니다. 선생님이 젊은 교수로부터 정년퇴임하기까지 제가 사회에 첫 발을 디딘 후로 이제 무언가 마무리해야 될 나이가 되기까지 선생님과 대화의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오래 외국에 나가있어 친구들과의 연락이 두절 되었을 때도 선생님은 2, 3년에 한번씩 오시어 친구들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오래 인사를 못드려도 선생님은 언제나 먼저 전화해 주시고 편지도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빠른 영미 희곡 원서강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나도 노력하면 원서를 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졸업공연을 준비할 때도 선생님은 은근한 격려가 큰 힘이 되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선생님과 본격적인 만남을 극단 「가교」를 창단하면서부터입니다.

소위 한국 최초의 전공한 학사극단이 잉태된 곳이 선생님

의 서재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때 저희들은 세상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몰랐으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신생 단체가 아직 발전단계에 있는 예측 불허의 사회 속에서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첫 창립공연이 선생님의 작품인 「데모스테스의 재판」이란 것도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선생님의 주요작품을 거의 도맡아 공연했으니깐요.

「데모스테스의 재판」에서 저는 기획일을 맡았는데 친구들이 기획을 하라니까 했지, 그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더구나 풍자극이라는 스타일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극이 갖는 희극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쓰여있는 대로 외웠는데 나중에 관객들이 웃는걸 보고서야 이것이 이 정도로 우스운 대사요, 장면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신문회관 2층 강당에서 올려진 이 공연은 관객들의 호응과 조선일보에 게재된 백철 선생님의 호평으로 우리들에겐 대성공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창립공연을 가진 다음에 선생님은 여배우가 모자랐던 우리에게 매력있는 이대 출신 여배우를 한 명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의 아내가 된 김소아였습니다. 당시 선생님은 이대에도 강의를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 부부에겐 양쪽으로 은사이셨습니다.

초창기 저희들은 공연할 기회와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스폰서가 필요 했었습니다. 그 때 선생님은 두번의 대규모 전국 순회공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카톨릭 계통에서 스폰서가 된「퇴비탑의 기적」과 「미련한 팔자대감」이었습

니다. 이공연들은 서강대 퀴어리 신부의 「춘향전」과 더불어 한국 현대 뮤지컬의 효시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관객을 직접 찾아가는 연극을 3류의 연극 활동으로 취급하여 연극 수상의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때 수많은 공연 중 늘 관객 속에 있으면서 실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후배들에게 책이나 도시의 극장속에 머물지 말고 다양한 장소, 다양한 관객 속으로 뛰어 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이런 전국규모의 면단위 순회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극단 가교가 첫번째로 큰 무대에 선 것은 1968년 명동 국립극장에서 였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몽땅 털어 놓시다」를 제가 연출했습니다. 20세에 시골에서 올라온 저는 명동 국립극장의 대형 간판 앞을 지날 때마다 30세 전에 이 무대에 서리라 다짐했었고 제 나이 그 때 29세니까 그 꿈을 이루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웬일인지 공연마다 흥행이 안될 때였는데, 「몽땅 털어 놓시다」만은 장사진을 이루는 1만명 이상의 기록(그 당시)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선생님과 저의 연극적 대화의 서곡이었습니다.

그 뒤로 「30일간의 야유회」, 「광인들의 축제」, 「아벨만의 재판」, 「유랑극단」등의 희곡을 선생님이 쓰시고 제가 연출했습니다.

선생님의 희곡은 무조건 서구의 첨단적 연극 수법을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때 우리가 진력내고 있던 틀에 박힌 사실주의적 수법도 아니었습니다. 현실로부터 끌어낸 우화를 익살과 노래 등 재미있는 수법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 늘 재미있었습니다. 극적 구조가 튼튼해서 세부에서는

좀 덜된 듯해도 오히려 그래서 연출이 들어갈 공간이 틈어있는 그런 점이 매력이 있었습니다. 구태여 지금 말한다면 브레히트적이라고 할까요. 물론 선생님의 작품은 부조리극, 서사극 통털어서 언어를 주로한 재현적 연극의 범주에 들어가지니까 소위 오늘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거리가 먼 것이지만 그 때로서는 연극의 새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었고 많은 젊은 연극의 새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었고 많은 젊은 연극인들이 매료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면 반드시 연상되는 것이 성극(聖劇)입니다. 당시 기독교 방송국 산하 음영위원회(audio-visual committee)에는 성극위원회라는 것이 있었고 선생님은 그 위원이었습니다. 다른 쟁쟁한 멤버들로는 오영진, 김갑순, 모진주(M. Moore), 나상희(S. Robinson) 등이 있었습니다.

성극위원회에서 좀더 한국적이고 수준 높은 활동을 위해 전문 극단과의 연결을 원했고 선생님이 그들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재정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하는 배려였습니다. 우리는 1966년부터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 계절에 성극을 마련하여 학교, 교회, 전방부대, 교도소, 소년원, 나환자촌 등을 순회했습니다.

나중엔 그림자극을 가지고 동남아 5개국을 순회했으며 가는 곳마다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또한 재정적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연극적 체험을 넓혀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 때는 매년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나 다른 형식을 빌려 공연하게 되었는데 이때 연극에 있어 내용보다는 형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서극 뿐만 아니라 「끝없는 아리아」, 「노아」, 「요나의 표적」등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성극 「울보」도 공연했습니다.

선생님의 해학, 약자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정의감은 언제나 작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님은 영문학자요, 해외유학을 하셨지만 그 흔한 외국의 유행 사조를 한번도 들먹인 적이 없으십니다. 비록 선생님의 작품이 당시 유행하던 어떤 사조와 유사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작품의 기조는 언제나 한국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외국의 사조나 영향을 주체적으로 소화해서 내 것을 만드는 좋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외국의 한 귀퉁이에서 또는 그 주창자조차도 잠시 외쳤던 구호나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회를 풍미하고 신문 지면에 이름 석자를 드날린 날라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이 선진세계의 연극이요 연극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선생님을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껍 드라마틱 한데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소위 난세를 산 지성인입니다. 일제시대, 6.25, 4.19, 5.16에서 오늘에 이르도록 수많은 변화와 압제 밑에 살아오셨습니다.

특히 교수는 언제나 정부와 학생의 중간에 위치해서 양쪽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노골적으로 학생의 편을 들자니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고 정부편을 들자니 학생들이 흥위병식 인민재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어느 한 쪽을 택한다면 삶자체는 힘들지만 선택 자체는 간단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선생님은 가정적인 분이시고 가정에서의 의무를 언제나 철저히 수행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과격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젊은이들과 학생을 이해하고 격려고무하시는 일도 중단하지 않았었습니다. 「사계절의 사나이」

에서 토마스 모어경은 바른 말 곧 죽음과 생존 곧 가정의 의무 사이에 균형을 잡기 위해 왕의 질문에 대해 ‘침묵’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결국은 모함으로 죽고 말지만) 선생님은 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과 학생들의 ‘행동’하라는 요구 앞에서 침묵이 아닌 야유와 은유적인 작품이라는 무기로 균형을 잡으셨습니다. 사실 선생님의 작품은 토마스 모어의 ‘침묵’에 해당하는 선생님의 무기였습니다.

이제 한 시대가 갔습니다. 사회도 연극도 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은퇴하시고 저는 꽤 긴 외국생활과 연극활동의 공백으로부터 돌아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오히려 창작에 전념하실 기회를 마련하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저 사이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속되었던 ‘연극의 대화’가 마지막으로 장엄한 ‘제4막’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추억 중의 몇 가지

이 영 규

극작가, 「일봉」 출판사 대표

고수(高手)멍청이 이착실 선생님

아, 벌써 정년이신가? 누군가 세월은 쏘 화살과도 같다고 하더니, 그러고 보니 선생님을 마지막 뵈 게 오 년 여가 되었던 말인가. 선생님 회갑 공연때 뵈고 그만이었으니까. 지방에 살다보니 참으로 무심하기 그지없는 제자가 되어버렸다.

우리가(중앙대 연극영화학과 66학번) 선생님을 처음으로 뵈게 된 것은 1967년 봄의 일이다. 나는 지금도 당시 선생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고 있다.

“스트린드베리에 백년 뒤의 위대한 극작가 유진 오닐, 그 백년 뒤의 또 하나의 위대한 극작가 탄생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당시 우리는 불경스럽게 우리끼리 선생님의 별명을 지어 부르고 있었다. “이착실 선생.” 나라 안이 어수선해서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선생님께서는 거의 결강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 이유로 연극계의 중견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 현형이 작명해낸 별명이다.

언젠가 비 내리는 초여름 1교시 수업시간 때로 기억된다.

선잠에 연신 하품을 해대며 강의를 듣던 우리들에게 선생님께선, “멍청이들 아니야. 이런 날은 군불 뜨뜻하게 때고 막걸리 받아놓고 만화책이나 보는 거지, 강의는 무슨……”

아,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께선 우리보다 한 수 위 멍청이가 아니신가. 뭣 때문에 이른 밥 지어 잡수시고 저 먼 장위동에서 강 건너 흑석동까지 택시타고 오셨단 말인가? 고수(高手) 멍청이 이착실 선생님의 일면이 약여(躍如)한 일화의 한토막이었다.

제자를 무능력자로 만드신 선생님

1978년 초봄, 선생님께선 몸소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오셔서 늦장가 드는 이 못난 제자를 완전히 무능한 인간이라고 예식장 안의 많은 이들에게 확성기에다 대고 공표하셨다. 선생님은 주례사를 통해 “신부는 참으로 용감하다. 천하에 볼펜 한 자루밖에 가지지 못한 실업자와 결혼을 결심했으니……”, “이젠 우리집엔 방이 하나 비었다. 이군이 매일 술 마시고 와서 자던 방이 바로 그 방이다.”, “정말 결혼하는지 우리 내자가 확인해 보라고 해서 대구까지 왔다.”

아니 이럴 수가? 우리네 속사정을 잘 모르는 신부측 하객들이 얼마나 황당해 했을까. 그러나 식장안은 밝은 웃음으로 넘쳐흘러 잔치집다움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16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부부는 밥굶지 않고 튼튼한 두 아들 키우며 잘 살고 있다. 하기가야 그 당시 나는 방송 스크립터로 어려운 밥벌이를 하고 있었고, 걸핏하면 술 마시고 결혼 후 11번째 이사하셨다는 장위동 선생님댁 서재에서 잠자리를 해결하곤 했었으니까. 당연한 말씀이긴 했다.

그러나 지금은 TV에도 많이 나오는 배우 박인환형은 요즘

석간신문은 커녕 조간신문까지도 볼 틈이 없이 바쁜 줄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새삼스럽다.

제자를 버릇없는 놈으로 만드신 선생님

선생님은 대단한 애주가, 애연가로 정평이 나 있으시다. 오죽하시면 회갑소연 때 참석한 제자들에게 의사인 사위가 선정한(?) 건강에 비교적 덜 나쁜 담배를 한 packs 선물까지 하셨겠는가? 선생님께선 당신이 워낙 애연, 애주하셔서 그 방면에서의 너그러움은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하셨다.

대학 삼학년(내 나이 만 스물이었다.) 때의 일이다. 그 당시 우리는 무슨 일로 서너 명이서 장위동 선생님 댁을 맨손으로 찾아 뵈었는데 우리를 맞으신 선생님께선 사모님께 술상을 봐오게 하시고는 우리 나이 어린 제자들에게 담배 한 개피씩을 주욱 돌리셨다. 황송하고 계면쩍어 우리들에게 선생님께선 자상하게 불까지 켜주시며 꺾연을 권하셨다.

“피워, 피워, 어때, 어서, 피워,”

어이구, 나는 그때 처음으로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워 무는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 밤—후일은 더 많이 폐를 끼쳤지만—사모님께서 차려주신 맛있는 안주와 더불어 대취하여 횡설수설 이성을 잃고 말았었다.

그 방면 전문가들의 탁견에 따르면 선생님의 그 급 높은 애주, 애연이 선생님의 건강을 오래 전에 망가뜨려 놓았을 텐데, 선생님께선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정년을 맞으셨다. 그들의 연구결과가 선생님의 경우엔 차한(此限)에 부재(不在)이신가 보다.

어쨌든 대구까지 오셔서 밤새도록 술 드시고 아침 기차로 상경하실 만큼 선생님의 대단하신 건강이 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더욱 오래 유지되시길 빌고, 남은 날에도 우리 연극사에 빛나는 「국물 있사옵니다」, 「유랑극장」, 「계사니」 등보다 더 훌륭한 작품들을 내놓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생님의 지방출장

정 현

연극배우, 극단 「민예극장」 소속

이근삼 선생님은 그의 작품속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간결하면서도 끈적한 정감이 독설과 유모어가 함께 하는, 유연한 듯 하면서도 강한 성품의 소유자이다. 어찌보면 그 양면성은 다른 사람을 당혹케 할는지 몰라도 그것은 적어도 당신의 생활철학이자 철저한 외유내강의 삶의 근본이 아닌가 싶다.

흰칠한 키, 적당히 마르고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나는 학창시절에 선생님에게 희곡론을 배웠고 그 이후 선생님의 여러 작품에 출연도 하고 연출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 은혜에 보답은 커녕 빛만 지고 살아왔다. 원고료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늘상 선생님께 술만 얻어 먹었으니 이런 배은망덕한 제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이제 선생님을 생각하며 그리는 추억을 그것도 그리 자랑 할만한 것이 못되는 것을 끄집어 내자니 자칫 무례와 누를 끼칠까 염려되나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믿고 선생님과 함께 했던 시절의 몇가지 얘기를 해보자.

십오륙년 전 선생님의 작품을 연습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국립극단에서 8.15경축공연 연습을 시작한지 얼마가 지나서 작품수정을 부탁드리게 되었다. 그게 처음도 아니고 두번째였으니 죄송스런 마음이 앞섰다(그 때 나는 조연출이었다). 작품수정 방향의 토의와 짧은 연습일정의 고충을 말씀드렸다. 예약해 둔 타워호텔 방에 들어가시더니 당신 댁으로 전화를 걸어 원고지와 담배 한 보루를 가져 오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이 쪽에서 모든 걸 준비해 두었는데도 당신이 애용하시는 원고지와 은하수 담배가 따로 있었다. 밤늦게 아드님 유철이가 심부름은 물론 시중까지 들었고 아침 일찍 수정대본을 넘겨받은 우리는 다음날 연습에 차질이 없었다.

선생님이 동문들의 결혼식 주례를 서 주실 때마다 나는 사회를 맡았다. 처음에는 떨린다고 긴장하시던 선생님께서 횡수가 거듭될수록 강단에서 강의하실 때처럼 당당하고 여유를 갖게 되었다. 때론 지방출장(?)도 불사하였다. 언젠가 대구에 갔을 때이다. 멋드러진 주례사 덕분에 식장은 박수와 웃음바다가 되었다. 식을 마치고 저녁부터 시작된 현장강의인 술자리가 여관방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여러 제자들이 곤드레가 되어 쓰러지는 데도 선생님은 끄덕없이 다음날 새벽은 물론 서울 올라오는 기차에서까지 왕성한 주량과 건강미를 과시하시어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시었다.

또 한번은 국립극장에서 연극관람을 마치고 장충동 일식집에서 국립극단 권성덕 형과 함께 선생님을 모셨을 때의 일이다. 그 날 따라 선생님께선 술잔을 비우는 시간이 빨랐고 다른 때와 달리 선생님이 먼저 취하시게 되었다. 모시고 가려는데 굳이 당신 혼자 집에 가시겠다고 우기시는 걸 겨우 부축하여 택시를 잡으면 팔을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

시는 바람에 여러 대의 택시를 놓치고 말았다.

밤 11시 30분경! 질주하는 택시에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두려워 나중에는 거의 필사적으로 선생님을 붙들고 택시를 잡는데 성공하는 순간, ‘쿵’하는 소리와 함께 선생님 머리가 택시문턱에 부딪치고 말았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하고 여쭙더니 “응,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하시면서 걱정하는 택시기사에게 까지 위로를 하시는 것이었다. 2.30분동안의 택시 타기 전쟁을 치른 나는 거의 기진맥진해 있었다.

먹은 술은 다 깨고 여하튼 무사히 선생님택에 도착하여 환한 전등불 밑에서 확인해 보니 머리가 붓고 심하지는 않았지만 찰과상을 입어 피가 맺혀 말라 있었다. 사모님을 뵈면 목이 없어 사죄하고 도망치듯 선생님 택을 빠져나왔다.

그 날밤 나는 집에 오면서 선생님마음을 헤아려 보았다. 그때가 아드님 유철이를 잃은지 일년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아카시아 꽃이 필 때면

김 낙 회

제일기획 이사

아카시아 꽃이 한창 필 무렵이면 노고산 언덕이 그리워진다. 그맘때 쫓이면 나는 가끔 퇴근후 저녁에 소주와 오징어를 사들고 학교 교정을 찾는다. 요즘엔 그것도 게을러져서 자주 못하지만 그러나 아카시아 철이 되면 잊혀졌던 서강의 추억들이 아카시아 향기만큼이나 질게 배어나곤 한다.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노고산 언덕에만 들어서면 먹구름 가시듯이 사라지고 만다. 젊은 후배들의 패기와 때문지 않은 발랄함이 있고 싱그러운 공기와 편하게 뒹굴 수 있는 잔디가 있어 좋다. 더우기 아카시아 향과 더불어 되새김하는 대학 시절의 추억이야말로 생활의 청량제가 아닐 수 없다.

70년에 입학하여 71년 위수령 발동으로 제적되고 군대로 끌려가기전 까지 나는 그야말로 학교생활이 엉망진창이었다. 매학기마다 아슬아슬하게 학사 경고는 면했지만 A에서 F까지 다채롭게 경험하며 게시판의 출석경고를 열심히 체크해야 할 정도로 스릴을 만끽(?)하였다. 총학생회에 들어가서 학생회 활동을 하며 공부보다는 학교 행사나 클럽활동에 더 신나



15년전인 1979년 10월
 이선생님께서 결혼 주례를
 서주셨는데 정작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보다
 이선생님의 주례 목소리가 더
 멀리서서 장내를 어리둥절케
 했는데 이선생님 왈
 “결혼 주례가 두번째라서...”
 필자의 결혼식

있었다. 69년의 3선 개헌과 72년의 유신체제로 가는 길목에
 서 있던 70년, 71년은 박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최대의 반
 대세력인 대학과 지식인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였다. 특히 71년은 대학가의 교련 반대 투쟁과 교
 수들의 대학 자율화 운동, 광주 대단지 민중봉기, 실미도 군
 난동사건 등 군사독재 정권의 모순이 한꺼번에 분출된 시기
 이기도 했다.

서강대 역시 이러한 독재에 항거하기 위한 시위를 주도한
 대학 중에 하나였고 그 해 10월 15일 위수령 발동과 함께 전
 국에서 180여명이 제적되었고 서강대도 7명이 포함되었다.
 나는 그 이전에도 마포 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데일리 총장
 신부님의 특청으로 석방되기도 했고 여러 차례 데모꾼으로
 찍혀 있었던 터라 그 중에 끼게 된 것은 그리 이상스러운 것
 은 아니었다.

위수령이 터지기 전날 노량진 경찰서에 연행,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이첩되어 조사를 받다가 국군 통합병원에서 간이 신체검사를 거치고 바로 입영통지서를 받아 군에 입대하게 된 것은 10월 28일 이었다. 용산역 광장에서는 입영열차를 기다리는 88명의 제적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과 동료 그리고 가족 등 1천명이 모여 있었다. 복학의 기회도 박탈당한 처절한 상황이었다. 이근삼교수님이 이날 용산역까지 나와 어깨를 두드리 주시며 “자유는 영원하다. 건강하게 다녀오게”하신 말씀이 논산 훈련소로 가는 열차 안에서 일말의 불안감을 씻어 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특히 신방과에서 김진원, 이운선 선배 등과 함께 사랑하는 제자를 자신의 손으로 제적시키신 선생님의 마음이야 얼마나 아프셨겠는가마는 한편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제자를 둔 것을 대견해 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연극에서나 강의에서 독특한 해학과 풍자로 날카롭게 사회를 비판하시던 이 선생님의 가르침이 한편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나는 최전방인 강원도 철원에서 군대 생활을 했다. 최말단 소총 소대의 소대원으로 낮엔 자고 밤엔 철책선을 지키는 올빼미 생활도 했고 대남 방송이 짹짹 울리는 이북을 눈앞에 보면서 국토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이가 득실거리는 모포를 같이 덮고 자는 동료들의 연애 편지 대신 써주기에서 부터 불우한 고참의 인생 상담까지 끈적끈적한 생활을 경험하면서 몸서리쳐지도록 학교가 그리웠고 공부가 하고 싶었다. 부대 회식 때면 목청껏 아침이슬이나 선구자를 불러댔지만 전방에는 이런 류의 노래보다는 전선야곡이나 뽕짝이 박수를 받았고 서로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

로 없었다. 그만큼 당시의 전방에는 학력이 낮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았다.

친구들이 보내주는 편지와 책으로 얼마간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었지만 처음엔 그것도 보안대의 철저한 사전 검열로 차단 되었었고 보안대 요원의 정기적인 동향관찰 보고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겹쳐 처음엔 실어증 환자처럼 행동해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차츰 익숙해진 군생활속에서 쫄병에게 식기 세척이나 옷 세탁을 시키고 앓고 직접 내가 하면서 시대의 아픔을 견디어 내는 인내심을 배워 나갔다.

내가 복학 소식을 들은 것은 제대를 얼마 앞두고 였다. 정말 다시 학교에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했다. 그리고 복학 하고서는 실제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서강의 품속에 푹 빠져 지냈다. 나에게 있어서는 71년이 커다란 전환기였으며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던 계기였다. 그래서 아카시아 꽃이 필 때면 노고 언덕을 찾아 그 많은 단상들과 함께 추억을 반추하곤 한다.

8시 반의 커피

김 연 종
서강대 강사, 언론학

대학 1년을 마친 겨울 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 몸살은 이를테면 자유니 정의니 하는 것들을 위해 살고싶다는 그맘때 쯤의 대학생들이 갖는 열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열심히 살아야한다는 이유로 난 어느날 배낭 가득 책을 메고 작은 암자를 찾아 나섰다. 그곳은 지금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경기도 안산 근처의 산사였는데 조계사에서 얻은 조잡한 손지도 한장과 양초 몇통 그리고 리즈 크랙커 등을 싸들고 난 산길을 걸어 그곳에 몸을 맡겼던 것이다.

그해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솜이불을 뽕뽕 둘러쓰고 이를 딱딱 갈면서도(?) 난 그해 겨울을 그곳에서 버텼다. 며칠씩 집을 비우는 땡초(?)같은 스님 덕택에 그나마 난 절지기 개 한마리와 더불어 빈절을 지켜야했지만 그래서 더욱 책에 깊이 빠질수가 있었다. 나는 소위 이념서적 등에 깊이 심취했으며 그것들은 대학1년의 젊은 나를 가르치고, 세뇌하고, 사로잡기에는 충분한 내용들이었다.

그 겨울이 끝날 무렵 난 그 산사를 내려왔다. 그러나 이때 난 달라져 있었다. 이미 내 나름대로의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스무살의 철부지에게 세상은 보이는게 없었으며 난 정말 내가 대단히 잘난 사람인줄 알았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 난 고작 얼마간의 책을 읽고나서 스스로 엄청난 도를 깨친 것처럼 대견(?)해 하고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착각은 곧바로 엉뚱한 결과로 나타났다. 다음학기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들의 강의가 도무지 귀에 차지 않는 것이었다. 그분들의 얘기가 마땅치 않았고 이미 바람이 든 내 가슴에는 누구의 말도 아무런 해답이 될 수가 없었다. 혼자서 읽고 제멋대로의 생각을 부추킨 결과가 참으로 엉뚱하게 불거지는 것이었다. 아무튼 난 그 학기에 마음껏 치기를 부렸다. 교수님들의 시험문제는 두줄로 지워버렸으며 내가 새로이 문제를 쓰고 답안을 쓰는 오만을 부렸다. 난 그때 그러한 나의 태도가 올바른 것이라 믿었으며 그것이 내가 추구해야 할 대학생활의 낭만이라고 믿었다. 난 마치 소설에 나오는 60년대 대학생들의 신화를 흉내내듯 나 스스로를 동키호테 쪽으로 설정하고 착각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학기 수강과목에 이근삼 교수님의 연극개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극실습을 해야하는 수업이었고 우리 팀은 서양연극 한편을 공연하기로 했다. 난 방송반이란 이유로 음향을 맡았었는데, 극본에 “벽시계가 3시를 가르치는 소리를 울린다”, “4시를 알린다”라는 지문이 있었다. 당연히 시계 종소리가 음향으로 넣어졌어야 했는데 난 동료들 몰래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해 놓았다. 그리하여 공연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시계종소리 대신 엉뚱한 목소리가 튀어 나온 것이다. “지금 벽시계는 3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입니다” 당연히 연극의 극적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다.

동료들은 흥분했고 난 연극이란 그렇게 원칙적이고 고루한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난 그들을 파격이나 전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보통사람이라 생각했으며 나의 멋을 이해하지 못하는 줄장부들이라고 믿어버렸던 것이다. 이근삼 교수님 역시 마땅치 않아하셨음은 물론이다.

그 학기말, 난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이번학기 소감을 쓰라는 것이었다. 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존경하는 이근삼 교수님. 난 이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선생님의 존함에 대해서 익히 듣고 있었고, 그래서 참으로 많은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학기를 마치는 이시간 솔직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이름만큼 제가 아무것도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략… 다만 이번 과목을 통해서 제가 얻어가는 것은 선생님의 이마가 사진에서 보다도 더욱 많이 벗겨지셨다는 것 하나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연극개론 점수가 아주 형편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난 이근삼 교수님과 그분의 강의를 잊어 버렸다.

6년이 흘렀다. 난 대학이란 것에 대해 갖고 있었던 환상을 차츰 부수어 갔으며 구름이나 쫓던 나의 의식은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마 그때 쯤에는 내가 조금은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던 80년 난 복학을 앞두고 영어 회화학원에서 우연히도 이근삼 교수님의 딸과 한반에 속하게 되었다. 가슴이 뜨끔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더니 이근삼 교수에 대한 죄책감이 그분의 딸을 만났는데도 밀려오는 것이었다. 난 우연한 기회에 그녀를 통해 거두절미하고 선생님께 무례를 하고 죄송스러워하는 한학생이 있다고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다. 선생님의 딸은 어떤

내용이냐고 물었지만 난 그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무엇을 말하는지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르는 얘기가 되어버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난 그때 진정으로 가슴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던 스승에 대한 불손함과 무례를 그런 식으로라도 사과드리고 싶었다. 그때 쯤에는 내가 저지른 선생님에 대한 무례가 몇곱절 죄송한 마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몇년 후 난 대학원을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조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조교를 시작하면서 난 이근삼 교수님이 아침 8시 반이면 출근하신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난 매일 8시 출근을 시작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갚을 길 없었기에 난 8시에 와서 선생님께 커피 한 잔을 타드리는 것으로 내 죄송함을 갚고자 했고 이렇게 시작된 8시출근은 이후 내가 조교를 그만 두는 때까지 거의 계속된 나의 속죄의 방법이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들고 그의 방을 드나들면서도 난 내가 얼마나 그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있는지 그것을 한번도 그에게 말해본적이 없었고 난 그저 말없이 커피 한 잔에 그 마음을 담았을 뿐이다. 결국 난 말로 사과를 드리는 것보다 몸으로 때우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그렇게해서 내게는 이근삼 교수님이 선생님이 되셨다. 그가 특별히 나를 불러준 것이라기 보다는 내가 좋아 그저 그분을 따랐고 난 그것이 참으로 기쁨이었다. 그분을 가까이서 보고 느끼면서 이전에는 미처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테면 그가 여학생을 별로 가까이하지 않는다거나 한번 기억한 것은 결코 잊지않는 비상한 기억력의 소유자라는 사실, 그리고 술을 마실때는 오른쪽 옆자리의 제자를 군밤 때린다는 것, 그리고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못할 만큼 약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 등이었다. 그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난 비로소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선생님을 만났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난 평소 대학에서 실력이 뛰어나거나 인격이 훌륭한 선생님 어느 쪽을 만나도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했는데 이 선생님이 내게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분은 실력은 차치하고라도 내게는 인격이 더 훌륭한 분이었다. 그는 자상했고 따뜻했으며, 나 또한 그분을 아버지처럼 따르고자 했던 것이다.

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 그는 아들 유철을 잃었다. 그 소식을 들은 이후 난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난 그가 시카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시카고로 향하면서 난 너무도 그가 안스러워서 눈물이 났다. 그만큼 나는 그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난 그를 만나서 아무런 말도 못한 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스승에게 제자인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너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난 다만 “선생님 힘내세요” 그 한마디로 내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었다.

몇년 후 그가 회갑잔치를 피해 미국에 왔을 때는 며칠간 자동차로 여행을 함께 다닐 기회가 있었다. 그와 같은 방에서 자면서도 그리고 매일 10여 시간을 같은 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난 그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마음으로 좋아하고 있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내게는 높은 스승이었고 그래서 난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는 못했다.

내가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그가 나를 어른으로 대해 주었다. 나는 스스로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나를 어른으로 또 동료처럼 선생으로 대해 주었던 것이다. 그는 내게 선생으로서의 자세와 가르치는 방법 등에 대해 말해주었으며 언제나 바른 훈도의 길을 가도록 당부했다. 난 그의 말을 새겼으며 그의 마음을 받았다. “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한두번은 휴강을 시켜줄 겸 가끔 몸이 아플 것,” “완벽하려 하지말고 인간적으로 보일 것”, “주입식 강의보다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도록 할 것” 등의 가르침을 나는 놓치지 않고 새겼고 실행했다. 그의 가르침을 확인할 겸 때로는 그의 강의를 듣고 싶고 그의 노련한 테크닉(?)을 배우고도 싶었지만 이제는 부담이되어 강의를 들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난 그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홀로서기를 계속해야 했다. 강의 경험이 차츰 쌓이면서 나는 문득 그의 가르침을 되새기곤 한다. 그리고 그가 몇번이고 강조했던 당부들을 점검해보는 것이다…….

이제 그가 은퇴한다. 그는 요즘 내게 기분이 좋지않을 것이다.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끊기로 한 이후로 그는 나와 관계가 뜸하다. 평소 대부분의 대화를 술자리를 통해서 이루는 그분이신데 내가 술자리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맨날 멍멍한 기분으로는 내게 별로 할 얘기도 없고 마음을 전하기도 어려우신 것 같다.

난 그분이 얼마나 내가 돌아와주기를 기대하고 계신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 또한 그가 이제는 그만 돌아오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다. 생각해 보면 인생은 떠남으로 시작해서 돌아감으로 끝맺는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다. 그도 어머니를 떠났었고 고향인 평양을 떠났으며 그리고 한국을 떠났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딘가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신앙을 갖고있는 나는 그가 이제

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연극을 했다던 어린시절로 그분이 다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내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라고 믿고있다.

난 이제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는 더이상 8시 반에 출근하지도 않으며 나 또한 8시에 나올 이유도 없다. 그를 위해 여러사람에게 물어가며 연마했던 맥스웰 커피를 맛나게 타는 방법도 나는 이제 까먹어 버린지 오래이다. 그러나 그의 이른 출근과 나의 젊은 조교시절과 아침 8시반의 커피는 사라졌지만 그와 인연맺었던 연극개론의 마지막 문제로부터 오늘 그가 학교를 떠나는 이시간까지 그는 내게 참 좋은 선생님이 남아 있다. 술을 함께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생각했던 내 마음과 나를 생각해주었던 그분의 마음이 나와 이근삼 선생님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었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난 그를 참으로 좋아한다. 비록 그것을 한번도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은 그때만큼의 애정으로 그를 바라볼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생각하며 가슴 두근거려했던 그때 그 시절과 선생님에 대한 내마음을 나는 늘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인간 이근삼

김진나

성심여대 교수, 영문학

서강 「연극반」에 발을 들여 놓았던 나는 연극과 함께 선생님을 처음으로 대하게 되었다. 매력이 있으면서도 너무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 연극. 그러한 연극을 나는 한동안 가까이 했다가, 다른 선택의 길이 있나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 거리감을 두었다. 연극과 함께 선생님과 인연은 단지 맺어져 있었다.

수많은 제자 중의 하나였던 내가 졸업과 함께 연극을 다시 선택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사뭇 덤덤하게만 느껴졌던 선생님께서는 의외로 가까이 계셨다. 지금도 그러하시지만 선생님께서는 개인의 선택을 기다리신다. 누군가 무엇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기다리시고, 누군가가 삶에, 연극에, 선생님에게 가까이하길 기다리신다.

내가 조금씩 연극에, 삶에 가까워지기로 선택하면서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깊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셨다. 그 관심과 배려의 한 예로, 특히 선생님의 향내를 듬뿍 담은 채, 나의 기억에 자리하고 있는 일이 있다.

유학시절, 나는 의례적인 크리스마스 카드를 선생님께 보내 드렸다. 생각지도 않았던 답장이 “말괄량이 길들이기에 수고가 많군……철없는 제자를 부탁하네……”의 사연을 담고 날라와, 별다른 친분의 기회도 없던 나의 남편을 감동시켰다.

우린 함께 웃고 그 일을 넘겼지만, 나는 그 편지에서 선생님의 유머, 간략함, 초연함 뒤에 자리하고 있는 선생님만의 감상, 사랑, 배려의 세계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표정없는 가면, 아니 웃음을 앞세운 모습, 형식 이면에 커다란 인간을 감추는 것이 선생님 특유의 인생에 대한 자세, 예술적 자세임을 나는 그 뒤 더욱더 실감하게 되었다.

학위 도중 몇차례 서울에 나올 때마다 난 꼭 한번씩은 선생님을 뵈었다. 선생님의 인품에 반해버린 나의 남편이 거의 매번 함께 하기를 자청했는데, 그는 선생님을 뵈 때마다 선생님에 대한 평을 능청스럽게 아니 솔직하게 불쑥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선 멋적어하시며 못 들으신 양 대화의 방향을 바꾸셨다. 그런 모습을 대하며 나의 남편은 선생님께서 “순수”하셔서 그러신다고 했다. 연극을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던 나의 남편은 이제는 자신의 은사님들과도 절친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진한 술자리도 함께 하는 사이가 되었다.

한 우물을 십년쯤 파보면 뭔가 되겠지하고 유학을 떠났던 내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선생님께선 아마 날 “맹랑하다” 여기시지 않았을까. 어쨌건 선생님께선 나의 학문, 교육의 길을 지원, 주시해 주셨고, 지금도 내 능력 이상을 기대하시며 가끔씩 “멋진 작품도 써 봐. 쓸 때 됐잖아” 하신다.

이러한 직접적인 자극의 도움 이외에 난 많은 것을 선생님

에게서 얻는다. 선생님께서 학문을, 예술을, 교육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전해져 오는 도움이다.

요즘처럼 순수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 상황에서, 실리를 선택하고 깊이 있는 무언가를 가까이 해 볼 기회도 소양도 결핍된 무리들의 모임인 듯한 대학 분위기에서, 난 가끔씩 학문이, 교육이, 연극이, 예술이 구차스럽고 짐스럽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럴 때 한길을 지켜오신 선생님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나의 회의를 지워버려 주신다.

누군가가 “라디오가 텔레비전에 밀려 났듯이, 연극도 곧 차세대 대중 매체에 밀려나지 않을까……”라고 했었다. 언젠가 또 누군가가 “현실이 더더욱 각박해 질수록 인간은 인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라고 했었다.

모든 변화와 함께 연극에 대한 염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시기에 선생님께서는 구차한 현실을 일단은 관망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셨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선생님께서는 이 기회를 꽤나 기다리셨는 지도 모른다. 마음껏 하시고 싶으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시며.

선생님 덕분에 연극하고, 학문하고, 가르치고, 글쓰고 하는 이의 고독과 자존심의 세계에 대해 조금은 할 얘기를 지니게 된 나는, 선생님께서 더욱 많은 시간을 순수함에 쏟아 부을 수 있게 된 때에, 가끔씩 선생님 곁에 가서 순수를 충전할 것이다.

“무슨 주식을 사면 돈 버나?”

박 명 훈

경향신문 경제부 차장

못 배우들을 웃고 울리는 당대의 극작가 李根三 선생님도 무대에서는 약했다. 78년 말의 일이다. 양주 한 병 달랑 들고 찾아온 제자의 부탁에 “자네가 아니라 신부의 얼굴 보고 서주는 것이야”하며 선생님은 선선히 주례를 승락하셨다. 눈발이 날리던 결혼식 날, 선생님은 결코 숙련되고 매끄러운 프로주례가 아니라는 사실이 금새 드러났다. 더듬기도,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면서 주례사는 길게 이어졌다. 선생님의 얼굴은 내내 긴장한 모습이었고 신랑 또한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으나 신부만은 무대에 선 세사람 중 유일하게 태연자약, 여자 무서움을 결혼출발점부터 절실하게 느껴야 했다.

그러나 주례사는 완벽한 女必從夫論으로 신랑편이었다. 선생님은 “기자란 직업이 매일 술먹고 새벽에나 들어오고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일주일에 서너번은 될 터이니 신부는 이를 명심하라”고 거듭해 강조, 결혼생활에서 있을지도 모를 제자의 무절제와 방탕(?)을 합리화시켜 주셨다. 떨림으로서 진실성을 더해준 이날의 주례사는 테이프로 남아 가정을 지켜주고 있다. 이후 신년인사 차 선생님댁에 들리면 아

이들은 몰려온 유명 연기자들 얼굴에 신나했고 저명한 스승을 모신 제자의 집안내 주가도 덩달아 올라가곤 했다.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뵈게된 선생님은 학과의 교수보다는 ‘극작가 李根三’으로 가슴에 다가왔다. 파이프 담배와 올 굵은 콤비에 평안도 억양까지 그렇게 썩 어울릴 수가 없었다.

연극개론, 극작법에서 영문과의 세익스피어 강독까지 따라가 듣게 된 것도 극작가 스승을 향한 마음의 쏠림이었던 셈이다. 연극에 남다른 열정이나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단막극 연출과 극작가 연구발표도 했고 평생에 단 한번 희곡도 써 보았다. 극작법시간에 쓴 「이별놀이」라는 어줍잖은 글은 공연을 준비하기도 했으나 데모와 휴교조치에 힘입어 무산됐다. 돈 안드는 연극이라고 해서 골랐던 「우리읍내」 또한 여름방학 내내 연습하고 공연일자를 잡으며 학교연극반과 맞붙었으나 역시 휴교가 충돌을 말려 주었다. 세익스피어 강독 때는 ‘죽느냐, 사느냐’ 운운하는 햄릿의 독백을 요즘 영문법도 모르는 주제에 원문대로 외워 써내느라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 선생님과 만남이 엮어낸 학창시절의 추억들이다.

대학생활을 마감하는 4학년 2학기에 그 유명한 유신이 선포됐다. 당연히 교문은 굳게 닫혔고 졸업 때까지 신촌 일대의 술집이 강의실을 대신했다. 유신을 비방한 사람의 말만 전해도 죄가 되던 암울했던 시대, 사회 구석구석이 얼어붙으며 4년내 코끝을 떠나지 않았던 최루탄 냄새까지 자취를 감추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속내를 털어놓지 못할 때, “유신은 얼마

가지 않아 커다란 저항을 받게 된다.”고 단언한 분이李先生님이다. “정말 그럴까요”하며 몇번이나 되물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선생님은 “朴正熙의 억압이 강해질수록 저항의 강도도 거세질 것이고 머지않아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고 얼마 후 예상은 적중했다.

73년 봄, 군 입대를 앞두고 선생님께 인사차 들렀을 때의 일이다. 선생님은 또 “이런 시절에는 군대생활이 오히려 마음 편할 지 모른다. 시간나면 글이라도 써 보아라”는 격려까지 해 주셨다. 그러나 군대생활 3년간 손끝이 닳도록 타자기를 두들겨대면서도 글이라고는 아무것도 쓴 것이 없다.

선생님이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을리 없건만 이따금 보면 “요즘 무슨 주식을 사면 돈버나”하고 묻곤 하신다. 경제부기자인 제자에게 ‘주식’이란 경제적 단어를 통해 던지는 관심의 표현인 셈이다.

선생님이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좋은 주식이라도 하나 골라 드려야 할터인데.

선생님의 첫 연극무대 데뷔

박 준 용
월트 디즈니 이사

이근삼 선생님께 출연을 요청한 것은 공연 약 두달 전이었다. 그랬더니 한국 연극계의 유명인사이시자 극작가이신 선생님께서, 대학교 4년간 연극반에 몸을 바친 이 제자의 애원을 거절하시는 것이었다. 그 이유 또한 특이하게도 “큰 딸이 시집가기 전에는 절대로 무대에 서지 않겠다” 는 것이었다. 나는 다급해서 친구 중에 쓸만한 놈을 골라 갖 대학에 들어갔던 큰 따님과 긴급결혼을 시킬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별로 가능성이 없어서 그냥 애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래서 결국 공연 한달 전에는 출연 승락을 받아낼 수 있었다.

드디어 역사적인 공연날. 그러니까 1976년 4월 25일, 실험극장에는 일반 관객외에도 이근삼 선생님의 데뷔 무대를 보려고 많은 연극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때가 4월 말, 벚꽃놀이가 한창이던 날씨 좋은 봄날의 토요일 오후니, 창경원 근처였던 실험극장 일대는 무지막지한 차량의 홍수로 완벽한 교통체증이 일어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관객들은 제 시간에 맞춰왔건만, 출연진들은 제대로 도착을 하지 못했다. 특히 서

곡을 연주할 현악4중주 팀 중에서 첼로만이 30분 늦게 달려왔다. 고민을 하던 연출자는 하는 수 없이 공연시작을 명했다.

첼로 솔로로 장송곡 비슷한 음악이 연주되는 순간 관객은 웃음을 터트렸고, 무대에 조명이 밝아지며 주인공 이근삼 선생님이 등장하셨다. 그리고 사회역을 맡은 이윤선의 대사에 맞춰 신랑역을 맡은 나와 신부역을 맡은 문정숙 선배도 등장했다. 대사의 대부분은 주인공 이근삼 선생님에게만 있었고, 그 대사가 끝날때까지 엑스트라를 맡은 신랑신부는 눈에 안 띄게 가만히 서 있는 역이었다.

드디어 이윤선의 큐를 받은 선생님은 대사를 시작했다. 몇 십년동안 강단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유창한 강의를 하시면서 갈고 닦으신 말씀씨, 그리고 가교와 실험, 민중등 많은 극단에서 연극인들을 가르치시면서 익숙해지신 무대에서, 이제 직접 비장의 전문적인 솜씨가 빛을 발하려는 이 무대를 감회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실험극장의 연극인들, 김동훈과 유용환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이근삼 선생님께서는 대사를 하시면서 앞에 놓인 연단을 가볍게 짚고 계셨는데, 그 탁자가 가볍게 떨리는 이상으로 몹시 심하게 떨리는 것 아닌가! “아, 전문가도 데뷔 하실 때는 떠시는구나!” 하고 두 사람이 눈물 글썽한 표정으로 감격의 미소를 띠고 있는 동안, 신랑 역을 맡은 나는 혹시 탁자에 켜놓은 촛불이 흔들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조마조마 해서, 아주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신부역을 맡은 문정숙은 그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선상님의 그, 뭐이가, 유명한 피안도 사투리 때때, 고저, 우습이레 터질까봐서 기를 쓰고 이를 악물었시요.”

이렇게 몇가지 작은 문제가 전문가들의 눈에 띄긴 했지만, 그런 것을 모르는 일반 관객은 형식과 제약에서 벗어난 아주 독특한 이 공연에 감동했다. 그 공연의 결과, 조역을 맡은 나와 문정숙 선배는 부부가 되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본격적인 무대 활동이 펼쳐졌다는 것이다. 데뷔 무대의 성공에 뒤이어 출연요청이 쇄도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대개 마음에 드는 조연들만 데리고 공연을 하셨다. 그러나 물론 그 뒤의 수 많은 공연은 첫 데뷔 공연과 같을 수가 없었다. 우선, 그 뒤의 공연은 무대가 아닌 예식장이었고, 선생님은 그 뒤로 한번도 탁자나 촛불을 흔드신 적이 없으시며, 오히려 여유가 넘치셔서, 평소 말 안듣거나 콧배기도 보이지않다가 결혼이 다급해지니까 주례해달라고 달려온 신랑들을, 주례사를 통해 여러번 지독하게 야단쳤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얼마 전, 선생님의 막내 따님 결혼식을 보면서, 그 공연 앞부분에만 잠시 등장하셨다가, 대사도 없이 뒤로 물러나 눈에 안띄게 가만히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쉬운 생각이 감돌았다. “지금 다시 한다면, 그 옛날 데뷔 무대에서 했던 실수는 하지 않을텐데!” 하고 생각은 했지만, 내 옆의 아내이자 무서운 선배님이 계신한 불가능한 일이기에, 나는 말도 못꺼냈다.

향토인, 문화인 그리고 선생님……

이 윤 선
KBS TV제작국 부주간

선생님은 鄉土人입니다. 내게 있어 선생님은 늘 故鄉의 安
溫함처럼 포근하다. 일찌기 청년시절 North Carolina 大學에
유학하셨건만 도회풍의 어떤 차거움과 傲慢함을 느껴본 적도
없으려니와 소위 人爲的인 분위기나 복잡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 소탈하고 質朴한 體臭를 우리네 시골 아저씨들 한테
서 느끼듯이 선생님은 그런 鄉土人입니다.

선생님은 내심 속 感情을 숨기지도 않지만 실은 숨겨지지
도 않는 분입니다. 선생님 얼굴에는 언제나 선생님 感情의
달이 덩그렇게 떠 있다. 쪽달일 땐 그때 대로, 초승달이면 초
승달대로, 그 얼굴엔 늘 선생님의 정서가 드리워져 있고, 滿
月처럼 환할 때는 그 좋음과 기쁨이 가름한 얼굴에 온통 차
고 넘치신다. 게다가 간간이 들려오는 평안도 사투리와 抑揚
은 영낙없이 어딘지 모를 久遠의 시골 맛을 듬뿍 안겨주신
다. 사슴처럼, 鶴처럼 맑고 여린 鄉土人이 내게 있어 선생님의
이미지다.

선생님은 文化人입니다. 그 생각, 그 느낌, 그 말 전부

선생님을 비롯한 주위 모든 사람들과 부문에 걸쳐 그 어떤 하나의 文化를 形成하시었다. 물론 그것이 선생님의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李根三 文化를 創造하셨고 李根三 類型의 文化를 퍼뜨리셨다. 韓國의 各 方面에 분포되어 있는 李根三 學派의 出身들이나 李根三 文化 Fellow 들은 多樣한 분야에서 李根三 類型 文化를 전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은 특히 文化專門人이다. 선생님이 말으신 「文化 커뮤니케이션」 강좌는 눈에 띄는 뿐 아니라 가히 獨步的이다. 스스로 文化的이시지만 ‘文化’ 그 自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유별나고 남다르신 것이다. 放送을 報道媒體로 볼 것이 아니라 文化媒體로 봐야 한다고 힘주어 주장하신 이도 선생님이요, 放送에서의 文化的 屬性을 看破하시면서 「文化로서의 放送, 文化를 向한 放送」의 指標를 提示하신 이도 선생님이시다. 선생님은 文化人이신 동시에 文化 愛好論者요, 나아가 文化至上主義者이신지도 모른다.

선생님은 藝術人이다. 두말할 것 없이 演劇人이요 劇作家가 아니신가. 교수라는 직업인보다는 오히려 예술인으로서의 李根三 선생님이 더욱 참되고 정겨운 모습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연극예술을 꽃피우시고 수많은 제자와 후학들을 育成 排出하심으로써 척박한 藝術의 땅에 肥沃한 藝術의 터전을 일궈 내셨다. 장위동 時節 선생님 덕은 배고픈 演劇人들에게 안위와 所望의 메카였으며 때때로 연극에의 신들림을 경험케 해주는 살아있는 藝術婚의 場이었다.

1970년 서강 演劇會가 막 올린 李根三 作 「국보 1970」은 이 땅에 최초의 창작 뮤지컬이었으며, 늘 새로움과 함께 동·

서양의 遭遇와 交感을 追求해온 李根三 演劇의 새로운 里程碑였다. 1969년의 「올리버」, 1971년의 「West Side Story」以後 「라만차의 사나이」 등에 이르는 뮤지컬 공연 가운데에서 「국보 1970」은 뮤지컬의 韓國化 作業의 始發로 記憶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인으로서의 선생님의 세계를 不肖 門下生이 言及하기는 力不足이다. 다만 뚜렷하게 藝術人의 자리에 우뚝 서 계심은 藝術院에도 돋보이게 자리잡고 계신 점이 말해주고 있다.

1969년 선생님과 師弟의 緣을 맺은 以來 25년이 지난 지금 선생님의 人間的 面貌를 되새겨 보려니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아련해진다. 1971년 10월 머리 뺏뺏 깎고 애국가 소리에 묻혀 42명의 각 대학 제적생들과 함께 용산역에서 강제 입영열차에 오를 때 안타까워하시면서 손 흔들어 주시던 때의 선생님의 애뜻한 표정은 앞으로도 영원히 내 가슴에 刻印되어 있을 것이다.

선생님 내내 平安하시오소서.

큰 나무의 향기

임 향 순

덴쯔 영 앤드 루비콤 코리아(DYR)이사

선생님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유다. 아니 자유정신이라고 해야 보다 적절할 듯하다. 우선 자유를 찾아 월남하셨고, 보다 나은 학문의 세계를 찾아 미국에서도 공부 하셨다. 기본적으로 생각이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많이 보여 주셔서 우리가 당황한 경우도 많았다.

선생님 과목을 두 과목 들은 기억이 난다. 하나는 「연극사」였고, 또 하나는 「극작법」이었다. 연극사시간에는 빵보다 더 가치있고 절실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정신적 자유이고, 이를 위해 인간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나를 가르쳐 주셨다. 당시 모든 것이 ‘빵’위주로 온 세상이 뒤짚혀 돌아갈 때, 한갓 외로운 목소리였는지도 모르나. 지금 한국의 연극, 방송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는 대부분의 제작자들이 선생님께 큰 가르침을 받았음을 생각할 때, 정말 헛된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믿어진다.

선생님의 격이 없는 Free-style은 강의 방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었다. 극작법 시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커피를 끌어 수강생에게 준 후 “마담을 누구로 하지?”였다. 일상적

인 강의와 달리 우리는 둘러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강의를 들었다. 당시 꼬장 꼬장하기로 유명한 「법학」이나 「철학」을 강의하시던 교수님들과 달리 우리는 자유로이 표현한다는 즐거움과 격이 없는 이야기를 해도 수업이 알찰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正反合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일찍이 체득케 해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자기 주장만 강하고, 남의 의견을 무시해야 직성이 풀리는 당시 지식인 풍토하에서 격이 없이 앉아서 고만 고만한 소리로 이야기해도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민주적 태도를 일찍이 보여주신 것이다. 이때 배운 이러한 태도는 가장 고집쟁이가 많아 의견수렴이 어려운 광고회사의 업무를 해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선생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또 하나는 한국적 해학이고 미소이다. 선생님은 소위 ‘웃는 낫’을 하고 계신다. 항상 부드러운 미소이지만, 사물의 진실을 파고 드는 힘이 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한 자유스러움, 무엇하나 크게 갖고자 하는 것이 없는 無所有慾에서 나오는 지도 모른다. 강의 중에 선생님께 “왜 극작가가 될 생각을 하셨습니까?”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주저함이 없는 답이 돌아왔다. “「신춘문예」에 재수없이 당선이 되어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나다.” 더 이상 물을 것 없이 전부가 웃은 것은 물론이다.

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때 그때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며 항상 명쾌하게 이야기를 끌어가시는 게 부러울 뿐이다.

필자는 선생님께 주례를 부탁하러 간 적이 있었다.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좋은 말로 해주셨지만 더욱 큰 소득은 선생님을 내조하시는 사모님께 나의 처될 사람이 많은 것을 느

끼고 온 것이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지금도 가끔 한국적인 분위기와 한국여인으로서 조용히 선생님을 내조해 오신 사모님의 모습을 처가 얘기하곤 한다. 그러한 면에서 福이 많으신 분이다. 주례를 부탁하고 결혼식 당일 주례사를 10분 정도로 끝낸 것 또한 선생님의 기지와 재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 대목이다. 우리 처가 갑자기 입원하게 되어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지만, 한국 주례사상 초유의 일일 것으로 기억된다. 주례사 전부가 “신랑 신부에 대한 주례사는 지난 번에 얘기한 것으로 주례사를 대신합니다”였다.

선생님은 제자들의 장래문제에도 큰 걱정을 하시고 직접 뛰어 다니시기도 하셨다. 당시 광고업계에 처음 진출하게 된 필자와 조정현군을 위해 사람들에게 전화도 걸고 막후에서 상당한 힘을 써 주셨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필자도 이를 깊이 새겨두고 후세들의 길을 여는데 적극 노력해 왔다. 지금은 광고회사만 해도 170명선이니 대단한 숫자이다.

서강은 ‘이근삼 선생님’이란 큰 나무를 배출하였다. 민주화 이전부터 인간의 정신적 자유를 주창하셨고, 서양학문과 한국적인 것의 조화를 잘 보여 주셨다. 아쉬움이 있다면, 연극학과나 영화학과 등을 만들어서 선생님의 전공을 마음껏 더 많은 젊은 서강인들에게 전달할 토대가 끝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선생님이 떠나신 후로 서강에 큰 공백이 생긴 듯한 느낌을 졸업생들이 받고 있다는 점이고, 날로 그 구멍이 좁혀지기는 커녕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수양산의 큰 나무 향기와 그늘이 30리를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언제까지나 생각케 되는 인간적인 면모의 스승을 가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행복감을 느낀다. 서강의 자랑, 이

근삼 선생님 아닌가?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점 널리 용서하옵소서.

사랑 -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는 것

정 훈

SBS 프로덕션 제작부국장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테이프 한개를 꺼냈다. 먼지를 털어야 했다. 16년 전 녹음 테이프니까……. 아빠, 무슨 노래 들으려고? 옆에 있던 효진이가 묻는다. 음~ 노래가 아니고, 결혼식 녹음이야. 너를 낳게 한건데 들어볼래?

“지금으로부터 신랑 정훈군과 신부 김해옥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두사람은 서강대학교 동기생입니다.” 사회자 오인환(화학 70)군의 목소리다.

“오늘 주례는 이근삼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신랑 신부와 인연이 깊습니다. 신랑에겐 신문방송학을, 그리고 영문과인 신부에겐 영문학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훈군의 형 정현씨에겐 연극학을 지도해 오셨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효진이가 놀란다. 와~~ 저 아저씨 캡이 다! 신문방송학도 가르치고, 연극도 잘하고 또 영어도 잘해? 어허, 방자한 계집애, 아버지의 주례선생님보고 캡이라니?…… 나는 혼잣말처럼 웃으면서 한편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지금 이 선생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손녀딸 효진(내 딸과 「孝眞」이라는 한자도 같다)이와 마당에서 놀고 계



필자의 결혼식

실까? 영화 'God Father'에서 마론 브란도가 손자와 함께 놀아 주듯이? 그래, 선생님은 제자들을 많이 두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강의실 뿐 아니라 선술집에서 또는 선생님 댁에 쳐들어와서 자주 괴롭힌다는 점에서 「대부」이셨지. 술을 못하는 나보다는 형과 더 깊은 인연이 있으실게다. 그 형도 30년 가까이 무대와 술을 잊어본 적이 하루도 없을 테니까.

어쨌든 우리 형제는 서로 다른 대학을 졸업했지만 같은 스승을 모셨다. 선생님 회갑연을 대학로의 극장에서 가졌을 때 선물증정 순서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서강대와 중앙대 두 산맥으로 우뚝해서 두 대표가 협의를 했다고 한다. 한 팀에서 한 명씩 나오기로 한 바, 조그마한 선물을 들고 내가 왼편 길로 걸어나갔더니 오른편 길에서 현이 형이 역시 무엇인가를 들고 나오고 있었던 장면이 기억에 새롭다.

그 정도로 얽히고 설킨 인연이니, 우리 결혼에 선생님을 주례로 모신 건 두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었다. 1978년 5월 8일, YWCA였는데, 인테리어도 없는 웅한 강당이어서 그랬는지, 선생님은 평소의 여유보다 다소 긴장된 표정이었다. 실제로 주례 경험이 두번째라고 하셨다(주례 데뷔는 김성찬 선배인 듯 하다)

“……제가 신랑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월요일에 날을 잡아서 하객들을 불편하게 하느냐, 특히 월요일은 직장인들에게겐 우울한 날이 아니냐고 했더니, 오늘 5월 8일은 의미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7년 전 오늘 그러니까 당시의 어머니 날을 소재로, 말하자면 효심을 빙자해서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보통 주례는 연극의 소도구 정도에 지나지 않기 마련인데 오늘은 제가 깊은 감회를 가지고 섰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물론이고, 특히 신랑의 친형과 저는……”

흔히 주례사는 안듣는게 보통이다. 어느 주례사나 똑같기 때문이다. 첫째 건강, 둘째 신뢰, 세째 화목…… 등등 천편일률적인 식 진행양식과 더불어 국화빵 짚어내기이다. 개성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일생에 한 번 개성 살려야 할 일인데도 부조금, 주례사, 피로연 반찬까지 똑같기 일쑤이다. 그러나 이근삼 주례의 주례사는 달랐다. 그 신랑, 그 신부를 별도로 기억하고, 그들에게만 꼭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신랑이 입학했을 때, 저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고의 성적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공부에 몰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실망했는데, 알고 보니 신부를 사귀느라고……”

참 적절한 말씀이시다. 꾸미지 않은 이 다큐멘타리적인 주례 멘트를 나는 감동깊게 듣고 있었다.

“교실에서 참하게 앉아있던 신부에게 동정심이 갑니다. 한국의 언론계 근무실정이 순탄치 만은 않습니다. 또 휴일에도 일 나가는 경우가 많지요. 신문사는 일요일과 신문의 날에는 노는데, 방송국은 방송의 날에 방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남편은 직장의 어려움을 집에 옮겨서는 안됩니다. 정군의 형도 무대를 지키느라고 고생하지만 그 고통을 전가하지 않았듯이 정군 역시 쾌활하지만, 자기 어려움을 남에게 씌우지 않는 성격이므로, 이 부부는 앞으로……”

그런데 그 말씀 2년 뒤에 나는 갑자기 TBC에서 쫓겨났다. 1980년 7월이었다. 귀와 입이 막힌 때였다. 광주에서 무슨 큰 일이 생겨서 술한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언론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라도 하자”고 했는데, 이름도 생소한 국보위에 의해 해직됐다. 직장의 어려움을 집에서 말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당부했기 때문에 나는 입을 다물었지만, 전두환씨, 허씨들, 권정달씨, 이상재씨 등이 하도 떠들고 다녀서 우리 마누라도 알아버렸다.

그 때 선생님을 뵈었다. 빙긋이 웃으시면서 대범하게 지내라고 등을 두드리셨다. 너 그렇게 될 줄 미리 알았었니? 학교 잡지에 유언을 썼더구나. 선생님이 보신 글은 내가 첫 아들 범진을 낳으면서 써놓은 것인데, 친구가 「서강」지에 보낸 것이었다. ‘平凡한 眞理를 추구하며 살라’면서 ‘凡眞’이라는 이름짓기의 연유를 설명한 내용이어서, 80년 상황에서 선생님이 그 글을 보셨으면 ‘유언’이라고 느끼실 법도 했다.

주례사는 마무리를 하고 있었다.

“신랑 신부가 마침 아버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 날

결혼이 귀중한 선물입니다. 두 어머니를 서로 잘 섬기면, 아버님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무엇 일까요? 서로의 자리를 비우지 않고 눈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아닐까요? 저 자신이 모범가장이 못됩니다만……”

가족간의 사랑은 서로의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는 것…… 나는 급기야, 「아, 유철이」하고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유철이를 잘 모른다. 학번 차이도 크게 나고 술 친구도 못되니까 더욱 그렇다. 그래도 이유허철 추모집 「작은 신화」를 두번이나 혼자 읽었다.

자식을 묻은 선생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흔히들 문상을 갈 때면 속으로 위로의 말을 정리해 본다. ‘조금 더 사셨으면 됐는데요’, ‘엇그제까지 식사도 잘 하시던데 어떻게……’ 등등. 그러나 그런 위로의 말은 나이 든 분이 타계하셨을 때 가능한 것이다. 나는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이 선생님께 어떤 형태로든 조의를 표하지 못하고 지내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선생님이 부친상을 당하셨다면 나는 부담없이 마음으로 문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연하장이나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몇 줄 써서 때울 수 없는, 그렇다고 마주 칠 면목도 못 찾는 그런 명칭한 제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작은 신화」를 펼치고 ‘내 아들 유철아’를 읽는다. 이제 남은 것은 너로부터의 해방……. 그래도,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나를 누가 부축해 집에 데려오지? ……식탁 맞은 편 빈 자리는 누가 채워줄까?

“아빠, 뭐해? 테잎 끝났잖아.” 효진이가 흔들며 묻는다. “이렇게 결혼해서 내가 태어났지? 재밌네. 근데 아빠, 왜 지금 이거 들은 거야?” 물어대던 효진은 내가 대꾸없이 가만있

자, 금세 무심한 표정이 되어 그 자리를 떠나 버린다. 그래, 효진아! 자리 채우기구나. 가족간의 사랑은 서로 자리를 비우지 않는거야. 선생님이 16년 전에 당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는 「서강」을 비우신다는구나. 아빠, 엄마를 맺어준 곳, 외아들 유철이가 마지막 정열을 태우던 곳, 당신께서 4반세기 넘게 오르내리시던 그 서강 언덕을 비우신다는구나……

젊고 천진하신 선생님

진 수 미

경북대 교수, 사회학

내게는 육친 같으신 선생님이 대한 공개적인 글을 쓴다는 것이 몹시 쑥스럽고 두렵다. 육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어딘지 어설픈 것이 우리네 사는 방식이라서 그런지. 때로는 가까이서 또 때로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선생님을 모신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선생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젊으셨고 앞으로 그렇게 젊으실 텐데 세상의 잣대(정년퇴임이라는)에 따라 ‘선생님을 정리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렇게 오래 선생님과 더불어 지냈으면서도 선생님을 정말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은 무능한 제자로서의 자격지심이 두려움에 더 큰 몫을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스승보다 나은 제자는 없다는 것을 아는 이는 알 것이므로, 어차피 선생님은 어떤 고정된 틀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므로 내가 어떤 불경을 저질러도 편안한 웃음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위안을 삼기로 한다.

선생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천진하신’ 모

습이다. 수업에서나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에서나 선생님은 우리를 딱딱한 권위로 대한 적이 없으셨다. 어딘지 어려워서 쭈뼛거리는 학생들을 부드러운 농담으로 풀어주시되, 윗자리에서 내려다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동년배라도 되듯 하셨다. 같이 서로 흉도 보시고 어린아이같이 자신의 자랑을 하기도 하셨다. 선생님이 무구하게 자기자랑을 하신 것은 우리의 게으름을 질책하는 정이 담긴 우회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나중에야 조금씩 알게 되었다. 20대 후반에 대학 강단에 서신 이야기,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공부하시던 시절, 끼니도 거른 채 지독하게 공부하다가 실제로 실명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한 실명인 줄도 모르고 ‘아니 왜 이리 날이 안 새나’하셨다고 파안대소 하시던 모습. 드문 일이었지만 간혹 선생님께서 정말 화가 나시고 꾸중을 하셔야 되는 순간에 선생님 스스로가 얼마나 어색해 하셨는지, 우리들의 송구함이 곱절로 늘어났던 기억도 있다.

선생님은 우리가 틀에 매인 답답하고 여유 없는 모습을 하는 것을 언제나 안타까와 하셨다. 서강이 자랑하는 FA라는 무기가 우리를 위협하던 학부시절, “나, 다음시간에는 아플 예정이야”라며 우리와 즐겁게 공모하시던 선생님은 얼마나 신선했는지……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고와 생활방식의 여유와 천진함을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학원에서 선생님을 가깝게 모시게 되었을 때 였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원 수업 시간보다 수업시간 이후의 행사(?)에서 훨씬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하면서 선생님께 배웠다(아마도 누군가 다른 이가 ‘술’과 관련된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더 실감나게 하리라 짐작되지만). 선생님은 씹는 것은 귀찮다고 안주도 별로 없이 술을 많이 드셨다. 선생님의 창의와 재기, 풍자,

해학이 술자리에서 얼마나 빛났던가. 선생님은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고, 젊고,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를 하셨다.

더욱 우리를 주눅들게 했던 것은 전날 밤 아무리 술을 많이 드신 날이라도 언제나 새벽 3, 4시에 일어나셔서 해 밝기까지 글을 쓰신다는 것이었다. 술병이 나서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도 있고, 그 동안에 술값으로 쓴 돈을 모았다면, 빌딩이라도 몇 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자랑(?)하신 적도 있었지만, 술은 선생님께 있어 ‘존재의 불꽃’과도 같은 것이 아니었는지. 지금은 고인이 된 문학평론가 김현이 술자리에서의 이야기를 존재들 사이의 틈을 없애주고, 부조리한 현실을 더 불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새롭게 꺼안게 해주는 힘을 지닌 ‘불꽃의 말’이라고 명명했던 것은 선생님의 술자리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이제는 선생님이 지나치게 건강을 해치실 만큼은 많이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청을 드리고 싶지만).

선생님이라고 왜 사는 일이 고단하고, 답답하고, 신산스럽게 여겨질 때가 없으셨겠는가. 그러나 나는 한번도 선생님이 고통을 드러내고 내색하시는 것을 본 일이 없었다. 선생님은 그 모든 세상사를 선생님 특유의 천진함과 여유를 가지고 웃음으로, 작품으로, 사람들과 혼연한 정으로 풀어내시곤 하셨다. 그래서 선생님 주위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늘 모이고 있었다. 설에 인사드리러 가면, 선생님 댁의 방마다 넘쳐나던 연극하는 사람들, 영화하는 사람들, 서강은 물론이고 그 전에 계셨던 학교의 다양한 연배의 제자들, 후배, 동료들.....

또 하나 선생님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선생님을

둘러싼 따뜻하고, 부드럽고, 맑은 사랑으로 넘치는 가족의 모습이다. 어쩌면 이제 우리시대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현숙한 사모님, 투명한 피부와 순정한 마음씨를 지닌 유리, 유원, 유정이, 코흘리개쩍부터 정겹던 그래서 지금은 내 마음에도 아픔으로 새겨져 있는 총명하고 수려하던 유철이. 선생님 인생의 비밀은 가족이라는 보물창고 안에 깊이 숨어있지 않은가 싶다.

선생님과의 인연

1969년 가을 : ‘전국고교생 문학 콩쿨’이 열리던 이화여대 교정에서 심사위원 이셨던 선생님을 먼 발치에서 처음 뵈다.

1970년초 겨울 : 대학입학 시험장에서 감독위원이 되신 선생님을 발견하고 서강대학을 지원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1970년 3월~4월 : 선생님의 작품 ‘국보 1970’에서 스탭조수(의상)노릇.

1970년 3월~1974년 2월 : 선생님의 연극관계 강좌 하나도 빠지 않고 수강. 어설픈 희곡 습작도 해보았으나 무능력을 절감하고 포기.

1974년 3월~1976년 8월 : 신문방송학과 대학원과정, 학과 조교로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좀 더 친밀해지고, 선생님 댁에도 자주 드나들면서, 선생님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친화와 매력을 느낌.

1976년 가을 : 대학원 졸업 후 무위도식하는 나에게 범한 서적에 일자리를 주 선택 주심.

1978년 여름~1983년겨울 : 미국 유학중 선생님께 간혹 격려편지를 받음. 펜클럽세계대회 참석하시는 길에 두어 번 시

카고에서 고전하고 있는 무능한 제자를 찾아 격려해 주심.

1984년 봄~지금까지 : 선생님께서 마음으로 성원해주신 덕분에 경북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일자리를 얻고 오늘에 이
름. 지방 식민지(?)에 거주 한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 뵈지
못하는 결례를 저지르고 있어서 송구함.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한 장

채 정 숙
서강대 신방과 졸

선생님, 71년도에 대학에 입학해서 제가 대학에 다닌것도 그리고 선생님을 만난 지도 벌써 20여년 전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학시험을 치를 때 선생님을 처음 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면접을 하시며, 왜 신문 방송학과를 택했느냐고 물으셨지요.

“졸업 후에 아나운서를 하고 싶어서요.”

한심한 — 그 때는 그것이 한심한 것인 줄도 모르고 — 대답을 해놓고 따끔한 선생님의 질책을 들어야 했었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던 그날의 부끄러움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벌써 선생님의 정년 소식을 접하게 되니 그동안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도 공평한 것이어서 20대의 푸르른 나이로 대학문을 나선 우리 동기들도 모두 40의 나이를 넘었습니다. 누구도 예외없이……

전공을 택한 동기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선생님께서 깨우쳐 주시긴 하셨지만), 그리고 돌아보면 성취감 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은 대학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은 제 기억속에서 언제나 봄날처럼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속엔 언제나 선생님이 계셔서 제겐 더 푸근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C관 앞, 연두빛 새순 돋은 버드나무를 적시던 뽀얀 안개비에 이유없이 슬퍼지던 기억들, 비 오는 날 강당 앞의 그 한적한 언덕길을 오르며 가슴깊이 느껴지던 풀 냄새를 잊지 못합니다.

“서강 고등학교”라는 별명이 우리가 아닐만큼 작았던 캠퍼스와 전교생이라야 천 몇백명 그래서 모두 낯익은 얼굴들, 강의시간이면 교정은 적막하리 만치 텅 비어 버리고…… 위수령, 긴급조치, 끊임없던 데모와 휴교, 너무 익숙해져서 때로는 구별조차 어려웠던 아카시아 향기와 페퍼포그(pepper fog)냄새도…… 그리고 A관 2층 끄트머리에 있던 선생님의 연구실과 그 커피향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청바지와 통키타로 상징되던 청년문화란 단어가 유행되던 시절의 저희들을 선생님 또한 기억하시겠죠. 모든 것이 서투르고 어설펠던 그 시간 속의 우리들 모습이 그리움으로만 기억되는 것은 아마 그 만큼 저도 젊음에서 멀어져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3학년의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선생님께서 제게 “자기 시간 있나”라고 물으셨어요(제자들을 자기라고 부르는 것은 선생님의 좀 특별한 습관이어서 우리들은 몰래 웃기도 했었죠). 언제 어느 만큼의 시간을 물으시는지 가늠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제게 선생님께서는 파트타임(part time)조교로 일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물론 할 수 있죠 선생님!). 아직 2학년이던 제겐 뜻밖의 행운이었

습니다. 강의 없는 시간에도 언제나 나만의 책상을 가질 수 있다는 기쁨과 학교 안에 나의 “장소”가 생긴 것에 대한 뿌듯함은 분명 특별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조교 생활을 통해 선생님은 물론 우리 과의 다른 교수님들 과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고 과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그 곳에서 선생님께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별로 기억에 남는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생활이 제겐 편안하고 자유로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달 누런 봉투에 동전까지 챙겨 넣어진 조교 봉급을 학교 서무과에서 받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구요.

커피를 좋아하시던 선생님 덕에 그방은 언제나 커피 향기로 가득했었고 교수님들 선 후배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리운 얼굴들입니다. 살아가면서 더욱 그 시절 그 만남들이 소중한게 느껴지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치열한 경쟁이나 계산, 또는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인간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유모와 젊은 웃음들…….

그렇게 제 대학 생활을 넉넉하게 해준 선생님과 만남과 저의 조교 생활은 저의 졸업때까지 이어졌었죠.

선생님과 연관된 어떤 단편적인 기억을 끄집어 내는 것은 제겐 오히려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의 대학 생활을 통해 선생님은 늘 제 가까이에 계셨고 선생님에 대한 제 기억 또한 평범한 일상처럼 그대로 제 생활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식사를 함께하며, 강현두 교수님께서 농담처럼 하

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두 분의 식성이나 취향이 달라 함께 식사 하실때 어려움이 있다고…… 강교수님은 푸짐하고 얼큰한 음식을 좋아하셔서 맛으로 소문난 기사 식당같은 곳을 즐겨 찾으시고 선생님께서는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하시고 깔끔하고 단정한 것을 좋아하신다고.

두 분의 성격이 대비되는 일례라고 말씀하셨듯이 선생님께서는 단정하고 절제된 것을 좋아하셨다고 느껴집니다. 때로는 차갑고 까다롭게 느껴질 만큼. 그러나 저는 자유롭고 따뜻하고 정이 많은 선생님의 모습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졸업 후 제가 일하는 곳에 문득 들리셔서, “작업 환경은 좋은 편이구나”하시며 안심해 하시던 모습, 그리고 연극표 두 장을 건네주시던 자상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펴 내신 희곡집에 손수 제 이름을 써 건네주시던 따뜻한 마음도…….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저를 믿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선생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 장위동에 있던 선생님 책과 책 속에 묻혀 있는 선생님의 서재, 언제나 온화하고 조용하시던 사모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항상 편안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찾아 뵈는 것이 언제였는지 아마 10년은 훨씬 넘은 것 같군요. 언제나 죄지은 것 같은 마음을 느끼며 살아 가면서도 결국은 핑계일 수 밖에 없는 이런 저런 이유로 선생님을 찾아 뵈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몇년 전 연말에, 오랫동안 선생님께 보낸 카드의 회답에서 선생님은 “잃었던 아이를 찾은 듯 기쁘다”는 말씀으로 반가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무심한 제자에 대한 날카로

운 질책으로, 또한 그동안 선생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아픔과
연관되어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 속엔 부족한 제자에 대한 용서와 사랑도 함
께 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다짐했듯이, 봄이 오고 새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
께서 좋아하시던 양주 한 병과 꽃다발 한아름을 안고 가서
책상 위에 꽂아드려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게으름 탓인지, 세
월만 보내다가 어느 사이 선생님의 정년…… 이제 그럴 기회
마저 사라져 버린 것 같군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그만큼 제
게서 더 멀어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 글쓰실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갖게 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글 속에서, 연극 속에서 선생님을 자주 만나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994.3

제자 정숙 올림

Keep writng!, 그 한마디

최 성 실
드라마 작가

Keep writng!, 그 한마디 최성실 드라마 작가 Keep writng! 빨간 볼펜 글씨, 비스듬한 느낌표까지 선명하게 내 기억에 남아 있는 그 짧은 문장은 대학 졸업반, 나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막연하고 불안하기만 하던 그 시절, 느닷없이 내 인생에 튀어 들어왔다.

이근삼 선생님의 창작법 강의 시간이었는데 그 날도 나는 교수님이 돌려주시는 레포트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때론 연애편지처럼 애정이 담긴 지적을, 때론 재미있는 극본처럼 재치있는 대사들, 예를 들면 옹으신 말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예전의 여고생 일기같은 감상이 사라졌다! 뚜렷한 주관의 맘에 든다 등등의 말들을 레포트 곳곳에 적어서 돌려주시는 교수님이었기에 이번에는 또 어떤 얘기가 적혀 있을까를 기대하며 레포트를 받아든 순간, 겉표지에서 Keep writng! 이라는 한마디를 발견해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짜릿하고 야릇한 흥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릴 적부터 글을 잘 쓴다는 칭찬이나 그 길로 나가보라는 격려를 수없이

들으며 크는 게 보통이니까 그 한마디가 뭐 그리 새롭고 대단할까 싶겠지만 사실 나는 그때까지 그 혼한 백일장에 입상은 커녕 참가 한 번 못해본 처지였고, 창작법이라는 강의도 이교수님이 학점을 잘 준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전혀 창작 외적인 요인에 의해 선택했을 정도였으니 그런 격려가 무척이나 새롭고 짜릿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실로 창작법 수업이 없었다면, 이근삼교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드라마 작가 최성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근삼 교수님이 당시 건강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빠져 있던 나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셨길래 탄생이 된 것이다.

물론 창작법 강의를 듣기 전에도, 좀더 어렸을 적부터, 밤새워 소설을 읽을 때면 문득문득 뭔가 쓰고 싶다는 욕구가 용솨음치는 걸 느끼긴 했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것 저것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될 때도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될 책 한권은 남기고 갈 거라는 주제넘은 꿈을 은밀히 숨겨가지고 있긴 했었다. 그러나 나는 그 꿈을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느낄 때가 많았었다. 우선 글 쓰는 일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데다가, 가능성이 있으니 글을 써보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한사람도 없었으니 작가라는 직업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창작법 강의 첫 시간에 교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 이 강의는 창작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그 요령을 가르치고 습득시키는 강의가 아니라 각자 자기 속에 들어 있는 창작의 능력을 찾아내고 계발시킬 기회를 갖기 위한 시간이라는 요지의 말씀을...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이런 저런

상황이나 소재를 주어 끊임없이 창작하도록 요구했다.

난 그 때 참 당황했다. 심하게 말하면 대충대충 시간이나 떼우고 학점이나 따지고 신청한 강의인데 그 지긋지긋한 글 쓰기를 끊임없이 요구받아야 했으니, 거기다가 학기말 시험이라는 것도 희곡 한편을 써내라는 과제가 전부였으니 그때의 암담함이란... 결국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 강의를 신청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적지 않은 밤을 후회 속에서 지새워야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원고지와 씨름하면서 난 참으로 커다란 소득을 얻게 되었다. Keep writing! 이라는 격려도 얻어냈고 창작하는 순간의 괴로움이 끝난 후에 참으로 커다란 희열을 맛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교수님이 애초 의도대로, 내 안에서 창작 능력을 찾아내 마음만 먹으면 그럴 듯하게 써낼 수 있다는 확신도 얻게 되었다. 더욱이 실질적으로는 학기말 때 써낸 희곡 한 편이 화근(?)이 되어 생각지도 않았던 드라마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니, 그 소득의 크기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어떻게 보면 내가 신입생 시절부터 이교수님을 유난히 좋아했던 것도 이교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학점을 잘 주신 것도 - 처음에는 나한테만 그런 걸로 알았는데 이교수님에게 상당히 많은 다른 애인 군단이 있다는 걸 알고 좀 약이 올랐었다 - 내 속에 들어 있던 드라마 작가로서의 속성과 이근삼 교수님의 극작가로서의 속성이 서로 통한 탓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교수님은 그 자유로운 영혼, 인간에 대한 사랑과 통찰력으로 내 숨은 능력을 일찌기 찾아내어 물을 주고 싹을 틔워 주신 것일 것이다.

어찌되었든 나는 이근삼 교수님과의 만남을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교수님을 찾아 뵙지 못하며 게으름을 피우지만 좋은 인연으로 항상 가깝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드라마 작가 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드라마 쓰기가 너무 역부족이어서 길을 잘못 들어선게 아닐까 회의가 일 때마다, 나는 Keep writng! 이라는 한마디와 아직도 창작의욕을 잃지 않고 계시는 이근삼교수님을 떠올리며 자신을 채찍질한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에 못지 않게 좋은 글들을 써내야 할 텐데...

죄송합니다!!!

제자 길들이기

김 동 규

건국대 교수, 언론학

선생은 유독 제자가 많다. 나 또한 많은 제자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서강에서 같이 공부한 제자들은 선생과 나와 의 관계를 유별나다고 표현한다. 그만큼 서강에서의 십년이 넘는 생활 내내 선생과 나는 서로에게 단골손님이어 왔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학과의 터줏대감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때론 두 사람 사이에 남들이 잘모르는 세속적인 인연이나 뭔가 큰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오해까지 받으면서 말이다.

그러나 선생과 나는 남들이 주목할 만큼 뚜렷한 학연이나 지연도 없고 혈연의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 선생은 연극과 문화가 전공이고 나는 언론을 공부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과 나는 전공을 통한 학연이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선생과 나의 고향은 남북으로 정반대이다. 선생의 고향은 냉면이 맛있는 평양인 반면 내 고향은 굴비로 유명한 전라도 영광이다. 서울이 타향이라는 것외에 시원한 냉면과 짠 굴비의 공통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의 경우라면 선생은 많은 대학 은사 중의 한 분일 수밖에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선생과의 각별한 관계는 서강을 떠난 지 2년째가 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각별한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면 대개 그것은 아마도 선생의 독특한 제자사랑 방식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남들보다 오랫동안 보아온 때문이다.

선생은 당신이 평양사범학교 나오신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신다. 학자보다는 교육자를 먼저로 꼽는다. 그래서인지 선생의 제자사랑 방식은 사범학교식이다. 이시대 마지막 남은 낭만주의자를 자처하시면서도 제자 교육에 관한 한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시다. 요즘 대학교수들을 보시곤 자기 전공에 전문적이며 똑똑한 학자는 늘어가지만,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지식의 전수보다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적인 교육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걱정하신다. 당신 제자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런 까닭에 선생의 제자사랑은 박사만들기보다 올바른 선생만들기에 치중되기 마련이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서강의 TK라는 이유로 가장 적극적인 선생만들기의 대상이었던 것 같다. 선생은 30년 교육경험을 다 전수해주실 양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만남을 자주 만든다. 그리고 당신의 독특한 제자만들기 과정을 실천으로 보여주곤 하셨다. 언젠가부터는 나 또한 조교처럼 선생의 제자만들기에 동참하게 되었다.

선생의 제자만들기는 보통 제자를 먼저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장소로 권위와 위선이 앞서는 학교보다는 스승도 제자도 쉽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곳들이 자

주 선택된다. 신촌의 아림, 한산도, 한울 그리고 평창동의 고려, 낭만, 베이스캠프 등 선생을 모셨던 분들이면 한번쯤은 가봤을 곳(?)들이 바로 제자만들기 장소인 것이다. 장소가 그렇다보니 제자 사랑의 수단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대체로 술이다. 선생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달인의 주법(酒法)으로 사제지간의 불필요한 격식들을 가차없이 허물어 버린다. “야, 마시고 주라야”로 시작되는 선생의 벽 허물기에 제자들은 정신없이 옷을 벗는다. 때론 주(酒)님을 핑계삼기도 하면서. 가족사항은 물론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서부터 갖고 있는 고민거리, 장래 희망까지 가끔은 스스로 각색까지 해가며 털어놓기 마련이다. 선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친구의 마음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신다. 그리고도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제자가 있으면 그날은 선생 덕이 마지막 자리가 된다. 집까지 제자를 데리고 아니 편안히 모시고 간다. 선생을 완전히 드러내놓기 위해서이다. 그런 다음날이면 제자는 그 전날 자기가 한 비밀스런 얘기들은 잊어버리고, 술 많이 먹은 자랑만 떠들어대기 일쑤다. 마치 선생과 동급으로 논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런 자리가 많아질수록 제자는 이미 잊어버렸을 직한 자기 이야기가 선생과의 대화 속에서 정확히 재현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작 놀란다. 얼마 안가서 일생에 한번 있는 결혼식 주례로 모실 것을 스스로 약속해 버린다.

선생의 두번째 전략은 제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다.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 놓으면 선생님의 관심은 간섭으로 보일 정도로 집요하며, 호기심으로 보일 만큼 연극적으로 다가간다. 그 대상은 제자의 가정사는 물론 개인들의 건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선생님은 전화를 그 통로로 자주 이용하신다. 아침 저녁 안가리시고 제자들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안

부를 묻곤 한다. 처음 받는 사람은 선생의 언변이 평양식으로 워낙 빨라 당황스러워 하기 일쑤다. 그런 이유로 제자의 가족들 특히 어머니는 선생 얼굴은 모르지만 목소리는 대체로 기억한다. 이러한 제자에 대한 관심은 짝을 맺어주는 결혼식의 주례를 하고도 끝나지 않는다. 신혼여행 간 호텔로 불쑥 전화를 걸어 첫날밤 안부를 물어야만 직성이 풀린다.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주기 위한 배려도 함께 하면서 작가로서 한편의 드라마를 쓰는 것이다. 선생의 관심은 제자들 강의에 이르러서는 더욱 철저해진다. 서강에서는 대개 박사과정이 끝나야만 과목을 배정받는다. 그리고 제자들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에게 강의할 내용에 대한 노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오분짜리 이야기꺼리도 준비하라는 효율적인 강의전략도 소개받는다. 그것은 강단에서의 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선생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기왕 하려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인지 선생 제자들은 곧잘 강의를 잘한다. 제자를 프로젝트용으로 인식하거나 졸업하고 나면 자기 조교했던 제자의 이름도 모르기 쉬운 요즈음 교수들과는 사뭇 다르다.

선생의 제자길들이기는 세번째 단계에서 완성된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경험의 진수만을 전수해주는 것이다. 선생은 외길을 강조한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 연극만을 고집한다. 자기 전공, 한 우물을 파야지 이곳 저곳 집적대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특유의 엉덩이론을 전개한다. 자고로 엉덩이가 무거워야 한 우물을 판다는 것이다. 조금은 둔하더라도 엉덩이 큰 제자가 이쁘다고 말한다. 여자제자도 마찬가지다. 또한 선생은 평균치 인생을 강조한다. 하느님은 공평하셔서 모두에게 비슷하게 베푼다는 것이다. 여러모로

유명한 당신에게도 가슴에 묻은 아픔이 있음을 예로 드신다. 잘 풀릴 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안 풀린다고 화내지 말라는 말씀이다. 작은 것을 내주면 언젠가 큰 것을 얻는다는 양보와 기다림의 미덕이 최고라는 것이다.

선생은 오늘도 손자뻘되는 대학원생들을 놓고 그런 제자길들이기와 제자사랑을 계속하신다. 그래서인지 남들은 선생을 한국의 대표적인 희곡작가나 영문학자로 먼저 꼽지만 나는 선생의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이 더 가깝게 여겨진다. 그건 아마도 내가 선생의 제자만들기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고, 나 또한 그런 제자사랑방식을 내 어린 제자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복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입대전야에서 웨딩마치까지

김 영 석
한국통신 연구개발원

돌이켜보면 늘 우울하고 쓸쓸한 느낌을 안겨주었던 80년대에 대학과 대학원시절을 보냈던 나에게 이근삼 교수님은 특유의 개성과 따뜻함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걱정하고 사랑하시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꾸짖음을 아끼지 않았던 참 스승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삭막하고 음울했던 당시의 대학가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암울한 정치현실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아파하면서 학생으로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해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떠올랐던 그러한 시대였고, 자칫하면 집단적인 열기에 휩싸여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쉬웠던 그러한 시절로 기억된다. 대다수의 그 시절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가치관의 혼돈과 방황, 용기없음에 대한 자학으로 그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생각된다. 4년간의 학부생활을 마감하면서 간접적으로 이근삼교수님을 과행사 때 만나 뵙기는 하였으나 직접 강의를 수강하지는 못한 채 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대학원은 따라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없었다면 이근삼 교수님을 만

나뵙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어떠한 만남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나 인생철학 혹은 삶의 가치관까지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진리 중의 하나 일 것이다. 예술이나 문화에 대해서 그것이 단지 상류층을 위한 일과성 오락이거나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그 무엇이거나 등으로 생각하며 극히 편향된 의식을 고수하던 나에게 있어서 이근삼 교수님과 의 최초의 만남은 「예술과 사회」라는 대학원 세미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톨스토이의 고전적인 명저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주요 토의 주제로 삼았던 당시의 첫 강의는 편협함과 아집으로 가득찼던 나에게 사물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던져 주었고, 한국사의 숭한 고비를 온 몸으로 체험하시며 예술혼과 후학들에 대한 교육에 일생을 보내셨던 이근삼교수님의 강의는 내가 안고 있었던 고민들과 편협함에 대해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시작된 한 한기는 기존의 딱딱한 사회과학의 이론서에서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문화에 대한 느낌을 내게 안겨 주었으며 우울했던 당시의 대학문화 속에서 그래도 따뜻함과 훈훈한 인정을 느낄 수 있었던 강의로 기억된다. 더우기 세미나 이후 이근삼 교수님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신촌일대 주점에서의 뒷풀이는 우리나라 연극계의 원로이시며 극작가이신 선생님의 세계관과 예술관을 아낌없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선생님을 대하면서 느꼈던 당시의 감정은 사회과학적인 분석과 설명을 통한 예측보다도 예술가의 통찰력이 현실에 대해 보다 높은 설명력과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결론을 내릴 정도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선생님의 이같은 풍자와 해학 그리고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은 연극을 경원시했었던 내가 하나 둘 선생님의 작품을 연극으로 혹은 TV에서 극화된 형식으로 접했을 때 느꼈던 통쾌함 내지는 내가 가졌던 허구성과 이중성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내게 뼈아픈 고통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받게 했으며 그때마다 선생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 아직도 문화나 예술에 대해 철저히 문외한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대학원을 마치고 군복무가 예정된 순서로 기다리고 있었다.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하는 것이었으며 당시로서는 향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동안 사귀어 왔던 대학동기이며 애인이었던 지금의 아내(최영미, 83, 신방)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대 시련의 시기가 아닐 수 없었다. 그동안의 신변정리와 함께 입대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입영하기 전날 선생님께 인사드릴 기회가 생겼고 그때 선생님은 나와 지금의 아내와 함께 저녁을 하시면서 용기와 함께 격려를 보내 주신 기억이 새롭다. 두 제자(나와 내 처 모두)의 앞날에 대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특유의 유머로 둘을 격려해 주셨던 당시 선생님의 인자함은 힘들었던 군대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며, 지금의 처와도 커다란 시련없이 부부의 연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군생활을 마치고 나서 내게는 다시 선택의 고민이 남게 되었다. 학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직업세계로 나갈 것인가가 커다란 고민으로 다가왔고 그 고민은 군생활 내내 해결되지 않고 나를 괴롭힌 문제가 되었다. 선택의 문제는 항

상 어려움을 야기시켰고 나는 박사과정 시험에 응시하고 채 결과가 발표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근삼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주례를 맡아 주셨고 특유의 주례사는 6월말의 한더위를 쫓아내는 시원스러운 것이었다. 신랑인 내게는 이제 앞으로 몇년이고 어렵고 힘든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변변히 돈벌이도 못하면서 등치가로 살아가야한다고 참으로 걱정이 된다고 주례사를 하시는 것이었다.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며 선생님이 주관하는 결혼식에 참석해 본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선생님의 주례사는 다른 분들과 달리 준비된 원고없이 즉석에서 선생님의 느낌과 축하가 병행되는 것으로, 특히 신랑측에 대한 공격(?)은 언제나 하객들에게 상큼한 웃음을 안겨주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나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고 찾아주신 친지분들에게는 두고 두고 회자되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다.

지금의 내 처 또한 선생님을 학부시절의 은사로서 또한 주례선생님으로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새벽 1-2시에 받는 전화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새삼스럽게 선생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 한다. 오랜 만에 즐거운 술자리를 마친 후 선생님께서는 평창동의 당신 댁으로 함께 술자리를 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는 귀한 술을 한잔씩 따라 주시면서 늘 그러하셨듯이 격려와 함께 흥겨운 이야기를 나누고는 하신다. 대개 그럴 때면 시간이 자정을 넘기기 일쑤인데 선생님께서는 ‘나는 장가간 이후로 외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라고 하시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부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저는 이근삼이라고 합니다. 댁의 남편은 지금 이곳에 있으니 안심하고 있어요’라고 하시곤 하셔서 집에서 기다리던 부인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따

스함을 느끼게 하신다.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고 멀리 계신 것같은 선생님을 직접 전화로 접하면서 자상한 선생님의 또 다른 모습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내 경우에 있어서 선생님과 인연은 이처럼 대학원 시절과 입영전야를 거쳐 결혼식의 주례 선생님이로 이어지게 된다. 주례사에서 선생님께서 제시하셨던 학문의 길은 유보한 상태로 지금은 통신회사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같은 선택을 했을 때 화를 내시며 꾸짖으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학교와 학문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며 그야말로 신영역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보고자 바쁘게 일상생활에 빠져있는 동안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는 생각으로만 그치고 실제로 안부인사도 못한채 연락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이에 선생님의 정년퇴임 소식을 듣게 되었다. 서강의 산 증인으로서, 우리 연극계의 거목으로서, 그동안 신문방송학과를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연락드리지 못했음을 자책하면서 가까운 시일에 아직도 치르지 못한 아들터를 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이근삼 리스트

김 용 호

서강대 강사, 문화비평

‘이근삼의 리스트’라고나 할까? 술자리에 고정적으로 간택 받는 몇몇 제자들의 명단이다. 그 속에 오랫동안 높은 순위로 올라 있었던 나는, 리스트에 끼지 못한 제자들의 시기와 원망을 등뒤로 하며, ‘야간 수업’을 10여년 받았다. 비록 내가 선생님보다 주량이 딸린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은 후부터 뜸해지긴 했지만.

내가 그 리스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83년 석사 초년 때의 일이다. 「현대사회와 문화」였을까, 선생님의 수업을 처음 들으면서였다. 읽고 토론할 거리로 제시된 한 논문이 내가 싫어했던 국내 모교수가 쓴 것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아직 남아있었던 학부 때의 객기가 발동했다. “그 사람은 데모 때 ‘저 학생이 적극가담자’라고 경찰에게 특정 학생을 찍어준 사람”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논문 내용에 대해서도 마구 씹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교수가 그랬었는지도 불확실하다.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저 녀석이 내가 제시해 준 수업자료를 마구 흠집내 놓다니...’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나도 대학

원 강의를 해봐서 알지만, 학생들이 내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 비판적이면 나에게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 후 선생님은 기회 있을 때 마다 내 얼굴이 무안해지도록 그 사건을 인용하셨다. 그런데 묘한 일이다. 그 후부터 ‘이근삼 리스트’의 말단에 내가 끼게 된 것이다!

당시 리스트에는 지금 전남대에 계신 정민이 형님이 저 높은 곳에 내무반장같은 무게로 있었고, 이등급으로는 현재 미국박사로서 시간강사 생활에 허덕이는 연종이 형이 있었다. 연종이형은 당시 내무반 상병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후배들을 술집으로, 산으로 몰고 다녔다. 3등급에는 지금 제일기획에 있는 김창렬이 목에 힘을 주며 빠기고 있었고, 4등급쯤에 나와 몇몇 동기들이 말석을 더럽혔다.

아마도 내가 그 리스트에 끼게 되었던 것은 과격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의 성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선생님은 단순한 모범생보다는 좀 ‘튀는’ 애들을 좋아하셨다. 당시에 지배적인 학문 분위기였던 과학주의로부터 도망다녔던 나도 신문방송학과 교수로서는 과격적인 이선생님께 기댈 수밖에 없었다.

에드워드 홀, 수잔 손탁, 찰스 디킨스, 레이몬드 윌리엄스로 이어지는 공식 수업과 야간의 술한 비공식 수업, 가끔 표를 들고 오셔서 가보게 된 재미있는 연극들, 2차나 3차 혹은 맥에서 조우하게 된 이선생님 주변의 그 많은 분들,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이 털어놓으시는 술한 ‘뒷이야기들’, 이미 반이상은 연극대본이 되어 버려 몇 번이고 반복하시는 어찌 어찌한 사람의 어찌 어찌한 얘기들(그 얘기들의 사실성은 중요치 않다. 이미 연극이 되어버렸으므로), ‘두 배’ 혹은 ‘따블’을 꼭 부르라며 택시잡기를 시키셨다가도 곧 직접 외치시는 ‘평창동 두 배!’, 갑자기 닥친 유철이의 죽음, 그 후에 느신

주량, 가끔씩 희화화된 말씀 속에 혹은 단도직입적으로 토로 하시는 삶의 지혜들…… 그렇게 보냈다.

박사논문의 지도교수로 나는 이근삼 선생을 선택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랫동안 나는 ‘네 관심은 신문방송학적이지 않다’든가, ‘교수 자리로 취직이 잘 될 만한 주제를 잡으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아왔다. 그러나, 머리만 커져서일까? 더 이상 주어진 틀에 나 자신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취직이 안 돼도 좋으니 ‘할 말 좀 하고 나가자’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가장 ‘비신문방송학적인’ 이근삼 선생님께 다시 기댈 수밖에 없었다.

예정된 험로였다. 3차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한 학기가 연기되었다. 지도교수로서 피곤한 기색이 완연한 이선생님과 단둘이 구기동 삼거리의 한옥집에서 고기를 구우며 쓰린 뒷풀이를 했던 기억이 완연하다. 첫수업에서 찍힌 학생과 찍은 교수가 8년 후 같이 한 자리였다. 그러나 한 학기가 지난 후 4차 심사에서 이선생님의 멋진 쿠테타로 논문은 통과되었다. 선생님은 학위수여식 때 가운을 입은 내 모습이 제일 멋졌다고 칭찬하셨다(이런 칭찬은 대부분 좋아하는 제자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선호에서 나오는 말씀이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근삼 맨’이 되어갔다. 물론 누구나 그렇듯이 한 사람의 장점은 곧 그 단점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이선생님은 특히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너무도 분명히, 어떤 때는 맹목적이라 생각될 정도로 구분하시기 때문에, 그 분으로부터 오해를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응어리를 풀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 응어리가 이선생님의 정년을 통해 봄개울처럼 풀리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럼에도

나는 자랑스럽게 이근삼 맨의 한 사람이다. 고집세고 모난 한 인물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분과의 관계는 내가 선택하거나 버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 나는 이선생님을 달리 볼 기회가 생겼다. 이런 기회가 생긴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 정년기념 논문집에 논문을 내기 위해 이선생님께서 쓰신 희곡들을 읽어 보면서, 그 동안, 그러니까 내가 석사과정에 입학한 83년 이후 11년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접한 이선생님과 너무도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다. 내심 놀란 일이었다. 그러자 다른 모든 것도 달라 보였다.

부부나 부자 관계도 그럴까? 그토록 오래 같이 생활하고 얘기하고 술 마시고 했어도, 상대의 이면을 알기란 것처럼 힘든 일일까?

몇 번 이선생님의 연극을 보기도 했지만, 내게 기억남는 것은 재미있는 연극을 쓰시는 ‘희극작가’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에 내가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희극이 아니라 그 배후에 질게 깔린 비극이었다. 그리고 비극을 헤쳐나가기 위한 철저한 탐색의 노력이었다. 특히 최근의 「이성계의 부동산」은 내가 찾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 기가 막힌 통찰을 제공해 주었다.

평소 술자리에서도 심각한 인생 문제나 학문 문제는 ‘연극적인 방식으로’ 기피하셨던 선생님이셨기에, 늘 답답함이 있었다. 이제는 저 분이 왜 심각한 문제들을 ‘연극적으로’ 따돌렸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연극이 나같이 ‘심각한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겪는 병에 대

해 얼마나 중요한 처방인가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 지도교수가 이처럼 ‘대단한 양반’이라는 점이 기뻐다. 그래서 강의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삶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성계의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한 지침인가를 선전하고 돌아다녔다. 묘한 기분이었다. 고식적인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넘어섰다는 기분 같기도 하고, 형식적 관계를 넘은 것 같기도 하고, 매우 익숙한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요새 나는 이선생님을 생각하면 은근히 기분이 좋다. 얼마 전 이선생님과 단둘이 그 분의 연극에 대해 잠시나마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내가 이해한 이선생님 연극 얘기를 했고, 그 분도 대등한 입장에서 동조해 주셨다. 「이성계의 부동산」에서 이성계와 38번이 장기 두는 장면을 떠올렸다.

선생님의 정년을 맞아 필히 감사드려야 할 분이 있다. 사모님이다. 취기가 머리까지 오른 후에 찾아가 괴롭혀 드린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나 외에도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있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3차나 4차 자리를 마련하는 마지막 선생이 되게 하신 분, 사모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그 분도 정년이다. 누구에게나 닥쳐 오듯이. 불안하시기도 할 것이다. 고향도 잃고 외아들도 잃으면서 선생님께서 체득하신 대로 ‘이성계처럼 사시 길’ 진심으로 빈다. 수많은 38번들이 있으므로. 그 38번들은 ‘끝없는 연극(never ending drama)’을 다기하게 펼쳐나갈 것이므로.

이제 ‘이근삼의 리스트’는 없어질 때가 되었다. 대신 여러 38번들의 이름이 올라간 개정판 리스트가 나올 차례다. 그 제목은 ‘이성계의 리스트’가 될 것이다. 이성계의 연극 개봉 박두!!!

“학문은 향문이다”

김 창 렬
제일기획

가끔은 둔탁한 무언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얼떨떨한 기분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있다. 어쭙잖게 직장생활이라고 시작한 이래 거대한 힘의 홍수에 앞뒤 가릴 겨를도 없이 떠밀려가며, 혹시나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 없나를 두리번 거리는 날들. 학창시절의 열정적인 자유주의자에 대한 끝없는 열망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꼴이다. 내가 학창시절을 그저 멍한 눈빛으로 보내지는 않았다고 자부하면서, 열정에 대한 열망이 무너져 버린 이유를 굳이 몹쓸 세상탓으로 돌려 보고자 하는 몸부림도 또한 우스운 짓이다.

그러나 나도 때로는 그런 처절한 삶을 직시하고 진정으로 정열로 가득찬 자유인이 되고자 노력한다. 바로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대학시절 기자노릇을 한 것과 또 대학원에서 이근삼선생님과의 만남 때문일 것이다. 신문사 기자 시절은 접어두고라도 이 선생님과 만남은 지금도 한없이 가슴이 부풀고 무한한 가능성을 머리속에 그리게 한다. 나의 20대 초반의 시절, 그때는 이렇게 만남의 의미로 충만하던

시절이었다.

만남의 의미로 충만하던 이 시절, 나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다. 질풍노도처럼 성나지도 않으며, 미동도 않는 바위처럼 무겁지도 않으며, 단지 현상을 정확히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눈 말이다. 선생님은 거대하게 밀려가는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바로 평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다. 어떤 이의 말을 빈다면, 진정한 자유와 힘은 냉철한 관찰력을 가지고 현상에 도전하는 노력에서 얻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질풍과 노도처럼 성나거나, 바위처럼 무거운 사람은 재미가 없다. 재미만 큼이나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는 것도 없다. 선생님은 재미를 아신다. 선생님께서 쓰신 희곡이 재미와 해학으로 가득차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선생님과 첫 만남은 긴장속에서 시작되었다. 5공 초기의 암울함 속에서 어용, 꺾박, 학살 등 살벌한 용어들이 난무하던 그 시절. 기득권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 그리고 여기에 처절하게 대항하던 정의파 자유주의자들이 때로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팽팽하게 대립하던 그 시절. 공교롭게도 학보사 주간교수, 학생처장이라는 뜨거운 감투를 선뜻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학교 당국에서도 꽤나 고심하여 선생님을 반강제적으로 그 자리에 임명하였던 것이다. 선생님은 그 억압의 시대에 이 고독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셨다. 어쩌면 다시는 돌이키지 못할 악연으로 이어질 뻔한 이 첫 만남은 세상을 냉철히 바라보고 날카롭게 타개해 나가시는 선생님의 수완으로 반전되게 되었다.

이러한 긴장 이후의 만남은 대학원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만남이다. 이 만남이 있었기에 지금도 나는 선생님과 인연을 지속하고 있다. 아무런 환경의 제약도 상호 견제도 없는 편안한 만남. 사실 이때는 수업시간에 했던 토론보다 수업이 끝난 후 조출한 자리를 열어 오갔던 이야기가 더 풍요로웠고 즐거웠다. 술자리에서의 토론이 더 진지하고, 살아있는 정보였고, 보다 현실을 바탕으로 둔 이론들이었다. 거나한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 밤을 지새고 다음날 수업준비를 하던 열정을 지니던 시절. 그때 선생님은 학문은 바로 학문이라고 불쑥 말씀하셨다. 죽은 학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말씀이리라.

지나가는 말로 불쑥 던지신 이 한 마디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지금은 학원을 떠나 삭막한 현실 속에서도 그때의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 한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 저리 휩쓸려 다니며, 현상을 직시하지 못하면 일할 가치조차 없다는 의미로 바뀌서 말이다. 선생님은 나에게 영원한 스승으로 남아계신다.

소 실

노 병 성

대전전문대 교수, 출판학

선생님은 평소 약주를 즐겨하셨지만 드실 때는 분명한 어떤 명분이 있었다. 즉 맥없이 ‘술을 위해 술’을 드시진 않았다. 그래서인지 약주를 드시고 싶으실 땐 하찮은 이유라도 챙기시고 드셨다. 제자의 결혼기념일, 득남, 시험합격 등등은 빠짐없이 선생님의 약주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약주파티라고 해야 대부분은 먼저 소주에 간단한 안주이고, 얼큰해진 뒤에는 보통 맥주를 마시는게 통례였다. 맥주를 드신 후 더 생각이 있으시면 맥으로 가서서 맥주 아니면 양주를 드시는 것이 일반적인 행로였다. 술좌석에서 선생님께서는 으레 이 당신 특유의 ‘언어적 순발력’을 통해 텔레비전보다도 더 배꼽 잡히는 농을 즐기셨다. 개그맨보다 더 뛰어난 코미디 솜씨(?)에 그만 우리들은 웃다 술도 제대로 못마시기 다반사였다.

1990년 초여름 어느 날로 기억된다. 토요일 오후 나는 대전에서 강의를 마치고 선생님 연구실에 들렀다. 날씨는 매우 흐려 금시라도 비가 올 모양새였다. 선생님께서는 웬지 허전해 하시는 모습을 보이셔서 이내 약주생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을 당신이 가끔 가시는 맥앞 ‘고려

삼계탕' 집으로 모시고 갔다. 그 집에는 '명옥'이라는 30대 중반 여성이 선생님만 오시면 술 시중을 들어 주는 그런 곳이었다. 그 날 역시 선생님께서는 장어구이 2인분에 소주 한 병을 시켜서 드셨다.(선생님께서서는 안주를 거의 드시지 않지만...) 명옥이 들어오고 소주가 한 순배 돌았을 무렵 선생님께서는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 나는 선생님께서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기에 내심 당황해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선생님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힘있게 말씀하셨다.

「이젠 적당한 소실 하나가 필요하단 말이야.」

「마누라도 귀찮고... 그저 아름다운 소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나 정도 나이면 이제 소실 있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에 나는 무척 난처한 꼴이 되었지만, 얼떨결에 「예, 이제는 때가 되었죠.」라고 대답했다.

선생님께서서는 말씀을 하시는 동안이나 나의 말을 듣는 동안이나, 줄곧 명옥의 시선을 바라보셨다. 그리고는 매우 쓸쓸하고 고독한 표정을 하고 계셨다.

명옥은 직감적으로 선생님의 간절한 소망이 자신에게 관련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다소 얼떨떨해 하는 낮이었지만 서비스업계의 베테랑답게 넌지시 특유의 능청을 벌려 놓았다.

「어휴! 선생님도 지금이 어느 땐대... 첩이 다 뭐예요. 일제시대나 '소실이다 첩이다'하고 살았지, 지금은 누가 그런 짓을 한대요? 금새 하신 말씀 사모님께 모두 일러바칠거예요. 흥!」

이렇게 말하면서도 명옥의 얼굴에는 싫지 않은 표정, 아니 내심 기뻐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명옥 말에 선생님께서는 무

엇인가를 열렬히 갈망하는 모습으로 힘주어 말씀하셨다.

「명옥이! 소설은 그저 명옥이처럼 아담해야 좋지 너무 크면 못써. 안그래? 명옥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제 명옥은 드러내 놓고 신나하는 모습이었다.

「그럼요. 소설을 얻는다고 돼지같이 똥똥한 여자나 고릴라처럼 거구를 얻어서야 돼나요. 호호... 그래도... 저처럼... 저처럼...?? 저도 들어 앉으라는 부탁을 가끔은 받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이 뭐야!... 그럴때 빨리 가야지. 명옥이도 나이가 사십이 가까워지는데... 이제 자리 잡고 안정해야지. 어디 그런 자리가 흔케 나타나나?」

이런 선생님의 말씀에 명옥은 내심 실망하는 모습이었고 한편으로는 매우 서운해하면서 상기된 표정을 보였다. 이를 확인한 선생님께서는 곧바로 단도직입적이면서도 재빠르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 노군! 자넨 걱정하지 말게. 난말야, 소설얻을 계획을 다 세워 놓았다구! 평창동에 새로 생기는 15평짜리 오피스텔로 할까해! 어떨까?」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그만 박장대소하고 말았다.

선생님께서 ‘생활 속의 연극’뿐만 아니라 실제 작품 속에서도 ‘언어의 마술사’이셨다. 언젠가 선생님 작품공연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을 모시고 대학로 한 극장으로 관람을 갔다. 지금 기억으로는 ‘뉘시터 전쟁’이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다. 대사 중 한 배우의 입에서 ‘보통 사람’이라는 단어가 불쑥 튀어나오자 관객들은 정신없이 웃어댔다. 왜냐하면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사람’, ‘보통사람’을 외쳐대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다. 시국조롱조로 생각하기 십상인 때라 배우의 ‘보

통사람’ 발언에 관객들은 과안대소하였다. 연극이 끝난 후 우리는 『연출자가 각색하여 ‘보통사람’이란 단어를 대사 중에 넣었나 봅시다. 선생님께 상의했는지요.』라고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껄껄 웃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아주 옛날에 앞으로 노태우라는 사람이 나타나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 하나를 만들어 놓았지. 보통사람… 보통사람이 대통령 되는 때니 자네는 ‘보통사람 이상’이 아닌가? 자넨 대통령되기는 틀렸네!」

우리가 일상화된 언어의 틀 속에서 고정되고 경직된 사고의 늪을 허우적거릴 때 선생님께서는 ‘언어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이 훨훨 활보하셨다. 사회과학을 공부한답시고 끊임없이 ‘개념의 올가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에게 선생님께서는 창조의 무궁함과 신비함, 지적 유희의 쾌감을 몸소 보여 주셨다. 혹 선생님에게 우리들은 계량화니 과학화라는 허울로 위장한 채 무한한 창조 가능성을 등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나 반성해 본다. 이제사 생각해 보니 선생님의 ‘언어마술’을 통한 고정관념의 한계넘기는 잃기 쉬운 사회학적 상상력의 원동력이었으며, 나아가 건조해지기 쉬운 대학원 생활에 생기넘치는 삶의 활력소였다.

“술 한잔 사주세요 선생님”

노 상 규

한국코카콜라(주) 전략개발부

의례히 그랬듯이 대학시절에 선생님은 내게 멀리 떨어진 존재였고, 선생님도 수많은 제자 때문에 또한 저 자신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으므로 저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한가지 선생님이 제게 선물로 준 것은 대학 2년, 연극개론에서 쓰라린 학점뿐 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첫 대면은 대학원에 입학한 후였습니다. 나름대로 공부에 대한 불같은 열정과 아울러 어쩔 줄 모르는 자괴감에 빠져 있을 무렵, 아마도 선생님은 연극공연 후 술좌석에서 처음으로 저를 주목하셨나 봅니다.

선배들이 그때 저를 선생님의 조교로 추천을 했고, 그래서 선생님은 아마 유심히 보셨던 게지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선생님은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농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면이 있는 데 그때 “너는 박사과정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 자리에 끼었니?”하고 농담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 답변이 무엇이었던 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좌우간 저는 그날 이후 조교로 1년간 선생님을 따르게 되었고, 선생님은 제게 많은 정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선생님의 모습에서 연상하는 많은 부분은 술과 관련된 것 입니다. 느낌의 교류로서, 만남의 활력으로서의 술자리는 전적으로 선생님께 배운 것이며, 그 누구도 그렇게 따스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서로 나누게 하는 자리를 만들지는 못할 것 입니다.

또한 저는 나이 차이를 넘어서 진정한 웃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가식과 권위를 뛰어넘는 인간미가 요컨대 선생님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제 생일날 동료 친구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기로 하였는데,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조교가 생신이신데 교수가 따라가야지” 하시며 그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한테 “어떤 교수님이 제자 생일에 축하해주러 오냐?” 라고 뼈졌지만, 사실 덕분에 몹시 유쾌했던 자리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과음한 덕분에 다음날 학부 시험 감독으로 들어가 다리가 후들거리기는 했지만요.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아들이나 손자를 대하듯이 자상한 면이 많은 반면, 학업을 게을리하거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엄격하게 꾸짖는 일도 많았습니다.

선생님을 저는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식의 전달자라기 보다 인생의 깊이를 가르켜 주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조교를 그만둘 때 선생님은 제게 술한잔을 사주시며 “상규야 그 동안 수고했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아마 늦은 밤 평창동의 밤이 몹시 싱그러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기로 결정했을 무렵에 진심으로 애석해 하시던 모습, 그 모

습과 느낌을 어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타산적이고 형식적인 인간관계가 만연한 요즘, 인생의 폭과 깊이가 얼마나 넓고 깊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자유인으로서 선생님의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힘들 때는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술 한잔 사주세요”라고…….

“이제 보니까 현주가 더 아깝다 야”

박 현 주

서강대 대학원 신방과 졸

그날도 우리는 신촌 로타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얘기하던 중에 형이 나에게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우리 이 선생님한테 갈래?” 하는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남의 눈을 속여 가면서 만나기 시작한지 석달쯤 지난 후였다. 형과 나는 대학원에서 만난 소위 캠퍼스커플이었다.

내가 대학원에 막 들어갔을 때 형은 졸업한 상태였지만 공부한다는 핑계로 학교에 계속 나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눈이 맞은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면서 남모르게 만나고 있었다. 그런데 형이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한 것이었다. 형은 대학원에서 선생님의 조교를 했던 관계로 선생님과 꽤 가까운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망설이는 나를 옆에 세워둔 채 형은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이세요? 지금 찾아봐도 될까요? 보여 드릴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전화를 끝낸 후 우리는 평창동으로 가는 차를 탔다.

선생님 댁 근처 음식점에서 선생님을 만났다. “아니 그런

데 넌 왜일이니?” 나를 보신 선생님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무안하고 황당한 기분이었는데, 형에게 자초지종을 들으신 선생님의 말씀은 나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다. “그래 너희들 결혼해라. 사실 시혁이가 더 아깝지 뭐” 하시는 게 아닌가. 당시의 나는 지금의 남편인 그 선배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을 뿐이었지, 이성으로서의 감정이라던가 더구나 결혼 따위는 생각도 않은 상태였었다. 더구나 그 사람이 더 아깝다니. 그러나 얼마 후 우리의 결혼이 공표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었었다.

선생님의 그 말씀은 나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조금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서도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 안도감 같은 것은 느끼게 했다.

그 얼마 후 우리는 결혼을 했고, 이제 횡수로 결혼 칠 년째를 맞고 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 선생님의 말씀은 내가 결혼을 결심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결혼을 하고 나서 삼 년쯤 되었을 때 선생님께서 갑자기 우리집에 오신 적이 있었다. 남편과 선배 몇 분과 약주를 드시다가 “너희 집 한 번 가보자”고 하셔서 선생님을 모시고 왔던 것이었다. 그 때 우리는 시집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약간 취기가 있으셨던 선생님은 시부모님께 마치 나의 친정 아버지가 되신 것 처럼 얘기를 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보니까 현주가 더 아깝다야” 하시는 것이었다.

결혼 전의 그 말씀이 사랑하는 제자의 연애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선생님의 전략(?)이셨다면, 결혼 후의 이 말씀은 시집살이하는 제자의 입지를 높여주기 위한 선생님의 배려가 아니셨을까?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생활에 쫓기다 보니 자주 찾

아 뵈지도 못하지만, 선생님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훈훈해
져움을 느낀다.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찌르신 채 반백의 머
리를 날리며 걸어 가시는 선생님 특유의 모습을 기억하면 고
독한 노신사이시고, 술자리에서 학생들과 어울리시는 모습을
대하면 언제나 젊은 우리들의 오빠이신 선생님.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생님에 대한 ‘老學生’의 변명

송 정 민

전남대 교수, 언론학

이근삼 선생님에 대한 마음과 이야기들을 모두어 소담한 문집을 꾸며 올리자는 소식이 왔다. 지금으로부터 수개월 전의 일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자 종착이라 할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을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애써오신 선생님의 지난 날을 회고하자면 어찌 단 한권의 책자로 가당키나 할까. 그러나 제자들의 정성이 담긴다면 이 또한 강단을 떠나시는 선생님께 조그만 위로라도 되겠다 싶어 매우 반가웠다. 시골 대학에 묻혀 있다는 핑계로 서강의 후배들이 추진하는 어느 일 하나 거들어주지 못해 온 터에 이번 문집 꾸밈 작업에는 솔선하리라고 다짐도 했다. 하지만 근 일년이 지나도록 망설임 만으로 어쩔 줄 몰라하고 말았다. 무슨 명구 진담을 선생님께 봉정하려는 것도 아닌데 필을 들기가 어려웠다. 뇌리로 스쳐 가는 하고많은 생각들이 어쩐지 남의 것인 듯 멀어 보이기만 했다. 차분하고 정중하기 이룰데 없는 김용호 후배에게서 짜증 섞인 독촉도 몇차례 받았지만 가닥이 잡히지 않기는 매한가지였다. 선생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일까, 아니면 결정적일 때면 발동하여 자신과 주위를 곤혹스럽

게 만들곤 하는 습관성 욕심 때문일까.

오늘이 7월 19일. 나는 아직도 컴퓨터 앞에서 찢찢 매고 있다. 아침이지만 세상을 태워버릴 것 같은 더위가 창문을 넘어온다. 등에 땀이 배기 시작한다. 이제 욕심을 털고 마음에 쏙이는 대로 원고지에 옮겨보자고 하나 역시 어렵다는 생각만 뇌리에 가득하다. 땀은 줄기가 되어 흘러내린다.

정말 써야하고, 쓰고 싶을 때, 글이 저만치 달아나버리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아니, 늘 쉽게 생각했던 일들이 필요한 경우엔 타래로 얽혀 가닥을 추릴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은 웬일일까? 서강과 제자들을 품에 안고 살아오신 선생님께서 그들을 뒤에 두고 떠나가시는데 말문이 막혀버리는 것은 어떤 연고인가?

아니다. 경외감도 욕심도 아니다. 그것은 자책이다. 배움도 사회관계도 어느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제자로서의 뼈저린 자책이다. 그 척박한 지식인들의 속물 근성에 학문적으로건, 실천적으로건 아무런 댓거리도 못하고 나 자신의 안일에만 빠져 선생님께서 떠나시는 순간까지 짐이 되어버린 못난 제자로서의 뉘우침이다. 원칙이며, 대의며, 인정마저 잘라먹고 우리의 영역을 계산 속에 저당해버린 참 잘난 사람들을 멀거니 바라만 보아온 나약함과 자기 안일에 대한 죄책감이다.

잠깐 자리를 떠본다. 더위가 무리지어 넘어오는 창 너머로 하늘도 숨이 차다. 내가 이근삼 선생님을 뵈게 된 것은 81년 무렵이었다. 군부집단의 폭압에 밀려 기자직을 잃은지 일년여 만에 나는 서강의 문을 두드렸다. 땡벌에 풀석거리는 흙

먼지길을 걸어 겨우 찾아든 대학원 면접장에서 나는 진땀을 흘렸다. ‘학부에서의 영어 과목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원서로만 공부하는 석사과정에서 팔팔한 후배들과 수강이 가능하겠느냐’는 선생님의 물음에 ‘성적과 공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조금은 오기 섞인 답변으로 대신하고 물러나오면서 이제 차분하게 공부해 보자는 마음은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명색이 학생운동을 한답시고 소홀해 버렸던 학부 과정의 보잘것 없는 증명서를 전혀 모르는 서강대학에 내놓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억지를 부렸다는 후회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그 엉터리없는 억지를 서강대학은 받아주었고, 나는 선생님 곁에서 바라던 배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노학생(나이 많은 대학원생이라는 뜻으로 선생님께서 붙여주신 내 별명)’으로서의 서강 생활은 선생님 강의 수강으로 시작되었다. 입학시험 면접 때의 강다짐이 억지가 아니라 는 것을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내 깐에는 무척 애를 썼다.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학교 안에서 보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거리로 나가 돌아다니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한 달여가 지난 뒤 첫 과제물을 제출하고 나는 무척 느긋해 했다. 이제 선생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리라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다. 열심히 해 보려는 노력은 사지만, 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지적이었다. 그리고 30여매의 원고가 각 쪽마다 뽀얀 틈이 없을 정도로 고쳐져 있었다. 무언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했던 당초의 생각은 스러져버리고, 엄습해오는 당혹감으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학부 성적과 관련하여 진땀을 흘리게 했던 면접 때의 선생님 말씀이 가시관이 되어 뇌리를 후비고 들었

다. 글을 몸과 마음으로 아껴왔고, 글에 대한 혼자만의 자신감으로 누구에게도 당당했던 나의 과거가 빈 껍데기가 되는 순간이었다. 선생님께서 무엇인가 오해를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아보려 했으나 그도 헛일이었다.

그 날 나는 온 밤을 뒤척거리며 보냈다. 다음 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돌려 받은 과제물 원고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이것이 어떻게 내 글인가 싶게 낮설어 보였다.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더욱 신랄한 것이 되었어야 했다고 느껴졌다. 자신의 부족과 잘못에 대한 가르침을 똑바로 받아들이지 못한 옹졸함을 한없이 후회했다. 글은 사유와 실천의 산물이니 위세나 자존심으로 엮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신을 내보이기 위한 글은 스스로를 영망으로 만들고 만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얼마 있지 않아 선생님께서는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하셨던 서강을 뒤로하고 떠나신다. 그러나 ‘노학생’의 신분을 여직 벗어나지 못한 나는 단 한줄의 말씀도 혼연히 드리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다. 원고지가 새빨강도록 호된 지적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다. 그리하여 세월의 허송을 마감하고, 삶에 대한 진지한 고뇌와 강단을 내 마음 속에 되살려 낼 때, 비로소 선생님의 내일을 간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송 한 무
리서치 맵

‘이근삼선생님’하면 늘 생각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다. 89년 봄학기에 처음으로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이근삼선생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 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 왜냐하면 주위의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성성한 은빛 백발과 당신 세대 분들에겐 찾아보기 힘든 흰칠한 장신을 자랑하고 계셨으므로 그것이 조금은 어렵게, 또 조금은 까다로운 분 같다는 인상이 깊었기 때문이다. 특히 바람부는 날 교문에서 K관으로 걸어오실 땐, 회색도시의 백사자(?) 라고나 할까. 그러나 내가 갖고 있던 선생님에 대한 첫 인상이 통쾌하게 깨진 것은 선생님이 학과장을 하시던 90년과 91년에 내가 조교장을 하면서 부터이다.

물론 내가 조교장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조심스레 반추해 보건대, 선생님이 조금은 어렵고 까다로우신 분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학사관리와 관련된 업무 이야기에만 국한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에 깊은 열병을 앓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늘상 그 분 주위엔 몇 병의 소주와 맥주, 몇 갑의 팰러먼트 담배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와중에 느

긴 선생님의 따뜻함과 인자함은 지금 생각해도 잊혀지지 않을 일이다. 물론 나를 비롯한 시답지 않은 조교 몇 명이 선생님의 아련한 옛 추억과 날아갈 듯이 던지는 몇 마디의 영어 단어를 알아듣지 못해 그 좋은 술 좌석을 가끔씩은 어색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 어색함을 덜어주려 무수히 반복하시던 선생님의 한물간 농담이 조금은 더 어색하게 느껴지긴 했지만(왜냐하면 선생님이 던지신 농담은 우리 수준에선 웃기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 어느날 부터인가 내 머리속에선 선생님을 모시고 술 한잔 하는 날은 의례껏 평창동 자택을 방문하는 날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 빈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생님과 우리 집사람, 선생님과 우리 아버님과의 전화통화 횟수가 점차적으로 늘어가기 시작했음을 나는 기억한다. 물론 전화통화 내용은 ‘송한무’라는 어리숙한 제자가 술을 과하게 먹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친히 제자를 돌보고 계신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일관하시곤 했지만. 그러나 감히 주장하건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몇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신 지금도 밝힐 수 없는 의문의 술집들을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한 공작의 일환이었음을 이 어리숙한 제자도 다 알고 있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이지만, 신촌의 몇몇 술집과 평창동의 몇몇 술집은 지금도 내 전화번호부 수첩에 낱낱이 적혀 있다.

그 당시에 내가 교육받은 선생님으로부터의 酒道 때문에 아직도 나는 술집코스가 저절로 눈에 선하게 떠올려지고, 술 종류는 소주 1차, 맥주 2차, 양주 3차가 주도중의 주도인 것처럼 자동적으로 인식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더욱 더

잊혀지지 않을 일은 어느날인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의 시집간 첫째 따님 집과 둘째 따님 집을 훑한 대낮에 방문했을 때의 일인데, 효성 지극한 두 따님의 나에 대한 원망의 눈초리가 바로 그것이다. 아, 대낮부터 선생님을 모시고 두 따님 댁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술을 마셔왔으니, 그분들 눈에 내가 얼마나 선생님의 건강을 해치는 술꾼으로, 특히 몹쓸 제자로 비쳐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대학원 조교시절 학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로 고민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적만 좋으면 누구나 다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다르셨다. 학부학생들의 신상기록카드를 꼭 살펴 보신 연후에야 장학생 추천을 기안하셨다. 그 당시 철없던 나로서는 선생님의 그런 행동을 얼마나 귀찮게 여겼는지 모른다. 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녹이 슬어 잘 열리지도 않던 철제서류함에서 학부학생들의 기록카드를 찾아내고, 성적표를 일일이 뒤져 갖다드리는 일이 수업준비와 행정업무에 지친 나에게는 정말 야속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집안형편이 안좋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선생님의 지론이 내 귓가를 때릴 때, 그 분은 나에게 진정한 스승님이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모시고 술 한잔 대접해 드릴라 치면, 어느샌가 내 뒷 주머니에 지갑을 찢러 넣고 다른 제자들 몰래 빨리 계산하라고 눈짓을 보내시던 선생님. 아마 지금도 제자에게 술 한잔 대접 받으시기 보다는 제자를 대접해 주시고 계실 선생님. 그런 분이셨기에 학과장실에 불려가 가끔씩

혼이 나도 야속하지 않았던가 보다.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결점많은 사람을 폭 넓게 감싸 주시던 인간적인 포근함. 대학원 조교시절 내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 논문을 잘 쓰지 못하고 있을 때, 너무나 자상하게 보살피 주셨던 일 등. 내가 받은 그 고마움들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사회에 나와 직장인이랍시고 자주 연락드리지도 못하고, 자주 찾아가 뵙지도 못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입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라고 변명한다면 정말 변명다운 변명이 될까?

“영철이 밥 시켜줘라”

이 영 철
미래교육방송 PD

나는 서른 살이 넘었지만 아직 해외여행을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조금 더 어렸을 때 외국의 문물을 접했다라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지금보다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한다. 나는 대학원 재학 중이던 사년 전에 결혼했다. 결혼 직후 이근삼 선생님께 인사를 갔었다. 선생님께서는 나이 서른이 되기 전에 꼭 외국여행을 경험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그 해외여행은 아직 아이들이 생기기 전에 처와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고 역설하시면서 만일 비용이 걱정이라면 아멕스카드에서 여행 경비를 대출해 주고 취직 후에 갚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선생님 당신이 보증을 서게 되면 경비 마련에 문제가 없으니 꼭 다녀오라고 거듭 당부하셨다. 못난 나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뿐 그 후의 실천은 없었다.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이며 월급쟁이인 나의 처지로 처와 둘이서만의 해외여행은 커녕 국내여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경제적 여유도 없으며 시간 내기도 어렵다. 선생님 말씀 안 듣고 후회한 첫번째 경험이다.

우리 친구들의 선생님에 대한 평가—죄송합니다. 선생님—은 크게 두 가지로 상반된다. 이근삼 선생님을 가르켜 소탈하신 분, 인간적인 어른,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격의 없는 분, 다정다감하신 분, 진정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우리시대의 마지막 스승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 나 역시 이근삼 선생님에 대한 그러한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와는 반대로 선생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선입관이 강하다, 편가름이 심하다, 우리들 용어로 ‘한 번 찍히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다. 선입관이 강하다는 말에 나 역시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나는 선생님께 아주 큰 꾸중을 들은 적이 있다. 평생토록 못 잊을 일이다. 나는 평소 술버릇이 나쁜 단점이 있다.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지고, 어른을 몰라보는 안하무인이며, 마셨다하면 소위 필름이 끊어지곤 한다. 한번은 선생님을 모시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말이 많아지고 한 말 되풀이하고 결국에는 필름이 끊겼다. 몇차를 하고 마지막에 선생님 댁에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크게 야단을 맞았다. 필름이 끊겨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야단을 맞는 순간부터 정신이 돌아왔다. 선생님께서 나에게 ‘너처럼 시니컬한 녀석은 처음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진지하지 못하고 냉소적인 나의 성격을 선생님께서는 이미 알았을 터이다. 술먹고 방자한, 예의 없는 어린 녀석의 행동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불쾌함을 느꼈음이 분명하다. 그 때 노병성 형, 조은기 형, 장택원 형, 노상규 형, 유기은 형 등이 자리를 함께 했었다. 나중에 선배들 얘기를 종합하면 내가 만취하여 횡설수설 했다고 한다. 꾸중들어 싸다. 후에 김용호 형이 그

술자리의 전후사정을 전해 듣고 ‘영철아, 그래도 너는 영광이다. 내 경험으로 선생님께서 당사자 앞에서 그렇게 화낸 적이 없으셨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솔직히 나는 그 사건 이후부터 선생님을 무척 어려워하게 되었고 술버릇에 대해 조심하게 되었다. 아직 못된 술버릇이 많이 남아 있지만 선생님과 함께 술마시게 되면 항상 긴장하게 되었고 정신을 잃은 적이 없다. 또한 다른 어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어도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나 친구들과 술마시면 아직도 필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선생님은 소탈하시고 격의없는 분이 분명하다. 그리고 또한 냉정한 것도 사실이다.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친구들,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께서는 무척 냉정하다는 것이 나의 경험을 통한 결론이다.

선생님께서서는 무엇보다 겸손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으며, 남을 생각할 줄 아는 학생들에게 호감을 가지는 듯 하다. 선생님께서는 평소 연극은 협동작업이라고 강조한다. 연극은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작업이다. 배우, 스태프, 연출자 모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협동해야 좋은 연극이 된다는 것이 선생님의 지론이다. 따라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겠지만,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예의 없는 녀석이 된다. 선생님의 이러한 생각은 학부강의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학부강의는 조별활동이 주된 부분을 차지한다. 과제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조원의 화합이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강의시간외에도 함께 만나야 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던 겸손하고 또 남의 의견을 잘 들어주며 여러 사람들

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는 교수법을 택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선생님께서서는 약주를 무척 좋아하신다. 어쩌면 선생님의 생활 자체가 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어떤 술자리에서 선생님께서 다른 친구들과 이미 좌정해 있었고 나는 조금 늦게 도착한 일이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밥을 시키고 우선 허겁지겁 먹었다. 그 때 나는 하숙을 하고 있었고 아마 두 끼 정도는 굶었던 상태였다. 선생님께서서는 나에게 ‘술과 밥을 동시에 먹는 야만인’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후에도 함께 술마실 기회가 있으면 선생님께서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영철이 밥시켜 줘라’라고 말씀하신다. 선생님께서서는 술을 드셔도 안주를 거의 들지 않는다. 식사는 더더욱 하지 않는다. 연세가 점점 드시는데 그러한 음주법이 건강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선생님께서서 살아오신 또 살아가는 방식인데 이제와서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선생님께서서는 주종과 안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어느 명절 때 선생님께 양주 한 병을 선물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나는 학생부부였고 형편이 어려웠었다. 선생님은 그런 사정을 아시는지 ‘애야 이런 것 사올 필요 없다. 소주 한병이면 돼’라고 말씀하셨다. 그 때 나는 왜 가슴이 찡했을까. 아마 따뜻한 정을 느꼈던 것 같다. 나는 ‘선생님, 제가 취직하면 양주 한상자 사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난다. 아직까지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선생님께서서는 그 약속을 이미 잊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선생님께서서는 격식보다는 정성을, 좋은 술과 안주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정을 더욱 귀하게 여기심에 틀림없다. 따라서 돈이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서로를 생각하고 아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선생님께서서는 참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대학원 다닐 때 마침 선생님께서 학과장직을 맡고 계셨다. 놀랍게도 선생님께서서는 대학원 학생 전원의 신상명세를 알고 있는 듯 했다. 심지어 휴학 중에 있는 친구들의 근황까지도 파악하고 있었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나도 미처 모르는 부분들을 학과장께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가 잘 모르는 친구들의 근황을 물었을 때 나는 당황했다.

대학원시절 학기말 텀 페이퍼를 숙제로 제출한 일이 있다. 원고지 서른 장 정도의 분량이었다. 선생님께서 보시고 난 후 되돌려 주었는데 결과는 참담했다. 서른장의 원고지가 온통 시뻘겑게 채색되어 있었다. 내용은 물론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까지 잘못된 부분을 일일이 지적해 주셨다. 참 부끄러웠다. ‘선생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적나라한 실력을 알게 되었으니 아이고 창피해라’ 이런 생각들을 했었다. 그러나 시뻘겑게 범벅이 된 것은 나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함께 페이퍼를 제출했던 학생 중에서 조은기 형의 페이퍼만 깨끗했던 기억이 난다.

석사논문의 영문초록(abstract)도 마찬가지다. 석장 정도되는 초고도 온통 시뻘겑게져 되돌아 왔다. ‘아이고 창피해라. 이 실력가지고 석사입네 하고 졸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던 기억이 난다.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없다’

는 말을 많이 듣는다. 관습이 변하고 학교 교육이 대중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는 말이라. 그러나 나는 그 말이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83학번이다. 이근삼 선생님을 알게 된지 이제 겨우 십년이 조금 넘는다. 아직 오랜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생님을 만난 것은 영광이며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선생님께서 정년을—사실 선생님께 정년은 어울리지 않는다. 언제나 젊은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맞아 출간되는 기념수필집에 나도 한 구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도 더할 수 없는 기쁨이다. 선생님께서는 우리시대에 많지 않은 스승 중의 한 분이시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꿈

이 철 호

SBS 편성부

한 시대를 풍미하는 20대 초반의 소설가, 시인, 시나리오 작가, 희곡작가들 30여명이 모여 그들이 창작한 작품을 발표하고 평가하는 다소 특이한 모임이 있다. 다들 바쁜 일정을 쪼개 일주일에 세차례 정해진 시간이면 어김없이 작은 공간을 찾아든다.

꾸깃꾸깃 이곳 저곳에 내팽겨쳐진 이백 칸의 잔해들과 연초 내음으로 가득한 밤샘의 공간을 뒤로 하고 한결같이 초췌한 모습으로 꾸역꾸역 모여든다. 늘상 되풀이되는 모임이건만 이 시간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실내를 감돌고, 여기 저기 문구를 다듬느라 그 흔한 인삿말조차 서로 오가는 법이 없다.

50대 중반의 신사가 문을 열고 들어선다. 꺾충한 큰 키에 구부정한 어깨, 윤곽이 뚜렷한 얼굴 생김생김이 역센 평안도 사투리와 묘하게 어우러지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특히 창작인들을 끔찍이 아낀다. 그는 파이프 담배를 즐기며, 조그만 카페를 즐겨 찾는다. 영국 신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황진이도 반할 정도의 풍류객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

가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老작가다.

“이제 종강도 다 와가는데 각자 작품들을 마지막으로 잘 손질해야지. 이중에 대작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어. 자, 그럼 오늘은 철호부터 발표해보지.”

드디어 한 시대를 풍미한다는 근사한 소설가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순간이 왔다. 창작법 종강시간! 그동안 준비한 작품 아닌 작품을 발표해야 할 시간인 것이다. 어떻게 발표했는지 잘 기억나지도 않지만 ‘끊어진 끈’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었다. 내가 쓴 처음이자 마지막 창작소설이기에 아직도 내게 그 원고가 보관되어 있다.

그 수업 이후 선생님께선 종종 괜한 소리일지 모르나 작품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다. “철호 너 소설 잘 썼어, 특히 동학사 가는 길에 대한 표현은 기가 막혀. 그 쪽으로 한번 해 봐”하시는 말씀에 그때는 멋도 모르고 ‘나도 소설가가 돼 볼까’하는 시덥지 않은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실제로 그때 같이 창작법 수업을 듣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도 했으니 누가 알겠는가 나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었을지. 졸업한지 십년도 더 지났지만 대학 4학년 때의 이 창작법 수업은 잊을 수가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 부부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은 각별하다. 물론 나보다는 집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집 사람은 의견이 좀 다르다. 선생님께선 대단한 남성편애주의자이며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신지라 웬만해선 여성제자들을 어여삐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도 자기를 어여삐 여기는 건 순전히 내 덕이라는 것이다. 어찌됐든 내 덕이라니 나로선 나쁠 게 없다.)

십년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맨 손으로 결혼부터 하려는

우릴 보고 선생님께선 어디서 어떻게 살거냐시며 걱정을 많이 해주셨다. 정 없으면 당신 사시던 옛 장위동집 옥상에라도 방한칸 올려주시겠노라 하시며 말이다. 그랬다. 그렇게 없이 사는 제자들을 보시면 선생님은 언제나 당신이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 안절부절하시곤 했다. 이젠 나도 살만해졌으니 선생님께 그동안 걱정끼쳐드린 죄값을 해야 마땅한데 늘 마음뿐이다. 하긴 집사람이 아직도 학교 울타리를 넘나드는 까닭에 “철호, 요즘 바쁜가? 얼굴보기 힘들어. 원래 방송사가 정신없기는 하지”라는 소리를 집사람 통해 전해들을 때면 쥐구멍 아니라 개미구멍이라도 찾아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글은 쓰면서도 천성이 게으른 탓에 또 무슨 때나 되어 찾아갈 게 뻔하다.

요즘은 늘어나는 대학 수, 대학 정원만큼이나 교수와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는 물론 학교 안에서조차 스승과 제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들 한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스승다운 스승, 제자다운 제자가 없다는 뜻일게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생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사실에, 그것도 언제든 찾아뵐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최초의 스승에 대한 그리움

임 남 기

서강대 대학원 신방과 졸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날이었다. 사방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고, 겨울을 재촉하는 빗방울은 가뜩이나 논문준비와 졸업후의 진로로 고민하는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애써 마음을 추스리면서 마지막 수업을 향해 발걸음을 앞당겼다. 그 날은 이근삼 교수님의 「예술과 사회」가 종강을 하는 날이었다. 비록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청강을 했지만 수업이 재미있어 한번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 그것도 논문을 써야 하는 4학기 때.

평소 아름다운 음악 테잎이나 그림들을 모으고, 음악이나 화랑, 극장을 즐겨찾던 터라 「예술과 사회」라는 과목이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4학기는 논문을 쓰느라 수업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데 덩싹 청강을 신청했고 수업을 듣다보니 어느덧 한 학기가 흐르게 된 것이다. 물론 발표도 자청했다. 논문을 써야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논문준비보다도 수업준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다. 결국 논문을 5학기 때까지 쓰게 된 것도 그 수업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다. 예술이란 무엇인지,

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 이론적인 흐름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예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얻었다. 이러한 지식들은 앞으로 예술을 이해하고 향유하는데 올바른 지침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있던 과목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수업의 종강과 더불어 나의 대학원 생활도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이다. 허전함이 밀려왔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허전함이 이중주가 되어 마지막 수업시간 내내 어두운 마음을 더욱 침울하게 했다.

교수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끝내시고 나를 불렀다. 내심 걱정이 됐다. 교수님은 분명 논문에 대해 물으실텐데……. 나는 연구주제 조차 잡지 못하고 헤매는 실정이었다. 수업을 듣느라 매주 교수님과 얼굴을 대면했지만 논문에 대해서는 자료조사 중이라고만 언급했을 뿐이다. 교수님 자신이 창작활동에 있어서 자유로움의 중요성을 아시기에 가능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셨다. 그러나 이제 4학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논문에 대해 얘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수님은 낡은 책 한권을 불쑥 내미시면서 전혀 상상치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그동안 수업에 한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들어서 선물하나 할께. 케네디 대통령에 관한 내용인데, 네가 미남자를 좋아할 것 같아 주는 거야. 읽어 보라구, 재미있을 거야.”

그 책은 400쪽이 넘는 두꺼운 영어원서였다. 책에는 ‘임남기大兄께, 李根三’이라는 싸인이 있었다. 나는 “감사합니다” 외에는 무슨 말을 해야될지 몰랐다. 그저 가슴이 찡할 뿐이었다.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책을 주는 것은 아주 자연스

럽고 또 흔히 있을 법한 일이건만, 그렇게 자연스럽고, 정겨운 일을 나는 대학원에 와서야 비로서 처음으로 겪게 되었다.

그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수업에 들어갈 때와는 판판이었다. 날씨는 여전히 짜뿌드 했고, 빗방울은 더 세차게 몰아쳤다. 그리고 논문준비나 졸업후 진로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내 마음 한 구석에는 훈훈한 감동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교수님은 절대로 논문을 재촉하거나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한달만에 불쑥 논문 문치를 들고 찾아가면 스스럼없이 맞으면서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성의껏 조언을 해 주셨다. 근거없는 황당한 논리를 펴더라도 끝까지 들으시고 논평을 하였고, 집으로 돌아갈때면 늘 “잘 해보라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능력을 믿어주셨다. 결국 교수님의 믿음과 자상한 배려 덕분에 괜찮은 논문을 쓸 수 있었다. 그리고 교수님은 논문심사때에도 가능한 다른 교수님들의 예리한 칼날을 막아주려고 애쓰셨다.

졸업을 하고 뭐가 그리 바쁘지 교수님을 한번도 찾아뵙지 못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교수님이 대학원 졸업생들과 술을 마실때면 의례 내 얘기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전해들을 때면 마음이 쩡하면서도, 도무지 찾아뵙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마도 졸업후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럴듯한 사회적 지위를 점하고 싶고, 특히나 자신을 믿어주고 아껴준 사람 앞에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다 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월급쟁이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교수님 앞에서는 참으로 속좁은 것이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교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교수님 자신도 한번 마음 문을 연 사람은 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혼 전날 졸업 후 처음으로 교수님께 불쑥 전화를 드렸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임남기예요.”

“오, 그래! 너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네, 교수님. 저 내일 결혼해요.”

“그래? 널 데려가는 미친 놈이 누구야? 그 놈 얼굴이라도 보게 한번 들려라.”

졸업 후 5년만에, 그것도 결혼 전날 불쑥 전화한, 버릇없는 제자를 교수님은 너무도 반갑게 대해주셨다. 5년이라는 단절된 시간 앞에서 스승을 한번도 찾지 않은 제자라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죄송스러움과 어색함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시며, 애써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려는 따뜻한 배려가 못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것처럼 따뜻한 배려는 신혼여행을 갔다온 후 시댁에 인사가기도 전에 교수님 댁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만들었다. 교수님은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현관까지 나와 덤썩 안아 주셨다. 그리곤 술상을 차려놓고 신랑 앞에서 내 칭찬을 마구 하시는 것이었다.

“남기는 정말 똑똑한 애야. 웬만한 남자들보다 낫다니까. 장가 잘 간줄 알라구! 집에서 썩히지 말고 계속 공부시키라구. 말을 안 들으면 때려도 되는데, 근데 나는 지금까지 부인

을 한번도 때린 적이 없어…….”

교수님은 무정한 제자의 방문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다. 집으로 돌아올 때, “잘 살아. 명절때 잊지 말고 들리구”라고 말씀하시면서 헤어지는 것을 못내 아쉬워 하셨다.

지금도 맨발로 뛰어나와 함박 웃음을 지으면서 제자를 반기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눈에 아련하다. 그 분은 내게 말로만 들던 사제지간의 정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 준 최초의 스승이셨다.

「少子懷之」라 말하는 까닭

정 어 지 루

목원대 교수, 광고학

나는 서강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철학은 인식 중의 인식이며, 철학은 순수하고 철저한 唯一學이라고 배웠다. 그러면서 철학은 철학적 지식의 소유가 전부가 아니고 철학적 정신의 소유가 중요하다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철학도의 길을 등한시한 것이 사실이었다.

끊임없이 자신에 관하여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점이 모든 학문에 대한 철학의 수월성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물음에 철학자만이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해 왔던 것이다. 체험과 표현과 이해로 채워진 삶의 진수를 이해하는 노력은 철학이 아니고라도 어떤 학문, 어떤 직업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결국 철학과의 결별이 가능했는지 모른다. 그런 다음 택한 것이 바로 「廣告學」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그 판단은 철학과의 결별이 아니라 「광고학」과의 접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각설하고 지금부터는 이근삼 교수님에 관해 얘기할 차례다.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박사공부를 위해 서강대학을 다시 찾은 84년 이후인 것 같다. 물론 그 전에도 신방과에 계셨고 연극전공 교수로서의 명성도 익히 들어온 터이긴 하지만 69년 2월, 철학과 졸업때까지는 이교수님께서 서강대에 안계셨고 84년이라면 내가 대전 목원대에서 교수생활 4년째 접어들던 해였다. 그때는 벌써 교수 대 교수의 만남이었다고 감히 말해도 될까?……

처음 대면때의 느낌은 좀 특이한 것이었다. 우선 이선생님은 그 동년배의 연세에 비해 키가 크신 편이라는 점이다. 일제 때 주로 청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물론 6.25전쟁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만 봐도 그 당시 가난했던 우리네 살림 때문에 ‘못먹어서 키가 작다’라는 인식이 거의 상식이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어느 누구의 키가 좀 크다 싶으면 내심 부러우면서도 주위에서 괜스레 ‘꼭다리’라고 놀려 대기도 하고 한 술 더 떠 ‘키 크고 속 없다’는 말까지 만들어내며 위안을 삼을 정도였다. 어쨌든 이선생님은 그 연세 또래들에 비해 키가 크신 편이 사실인 것 같다.

줄곧 보아온 것 중 한 가지는 이선생님은 이제 정년을 맞게 된 연세가 분명하신데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등이 곧다는 점이다. 곧은 자세에서 곧은 마음이 나온다는 말은 이선생님을 두고 있는 말일게다. 곧은 등과 살이 찌지 않은 몸집에서 키가 커 보이는 점도 있을 것이다.

이 교수님의 흡연실력은 누구나 알아주는 바다. 전엔 은하수, 라일락 담배 등을 피우시더니 이젠 미제 ‘팔리어먼트(Parliament)’로 굳히신 것 같다. 나도 30세를 전후해서 흡연을 해 왔지만 때로는 담배 유해론에 버럭 겁집어 먹고 버리기도

해보고 또 금연까지 시도해 봤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정말 담배를 끊는 일엔 교수도, 박사도 소용없는 것 같다. 몸이 불편할 때는 별 생각없다가도 소위 컨디션 좋고 분위기 좋을 때, 그리고 기분좋은 사람과 기분 좋게 피우는 그 맛 때문에 당장 끊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어는 틴엔가 나도 팔리어 먼트를 피우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선생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제자들과의 술 자리를 회피해 보신 적이 없고 술잔을 거절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다. 안주도, 술도 전혀 까다롭지 않으시고 화제 또한 전혀 구애받지 않으신다. 특히 술좌석에서 느닷없이, 그리고 방향없이 날라오는 비관과 훈계, 시니컬한 코멘트, 간단 명료한 해석— 이러한 면모는 이선생님과 함께 자리함을 한층 신나게 만드는 일들이다.

내 학위심사가 통과되던 날, 그날 오후 1시쯤, 심사위원중 한 사람이셨던 이교수님 그리고 나를 기다리던 일행과 함께 신촌 골목 어느 음식점에 들렀다. 논문에 얽힌 전후 사연에 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술잔과 함께 주고 받는 동안 나는 그만 낮술치고는 꽤나 많은 술을 마시고 말았다. 그런 다음 음식점을 나와서 얼마간 길을 따라 걸다가 너무 취한 나머지 나는 일행 대여섯명의 대열에서 뒤로 처지고 만 일이 생겼다. 대열은 마냥 전진했고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없이 나는 혼자 떨어져서 어느 빌딩 계단에 걸터 앉았고 그로부터 줄곧 2시간 동안을 그 자리에서 잠을 잔 것이다. 路上就寢이 뭐 별건가. 대학입시에 합격한 20세 청년때의 모습을 40세가 넘어 박사학위 취득 때 와서 다시 보는 것 같아 좀 창피한 생각도 든다.

노인에게는 안도감을 주고(老者安之), 친구에게는 신뢰감을 주며(朋友信之),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주어 절로 따르게 한다(少者懷之),(공양장편 25)는 공자의 이상적인 군자상 특히 소자회지 편은 이근삼선생님께서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에 만나봐도 피곤하지 않은 큰 ‘외삼촌’ 곁에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대학교수라면 왕왕 학문적 성취를 향한 집념과 자기도취적 개성의 실현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독점관리 하려들기 십상이고 그래서 자기를 내세워 세상에 이름을 떨치려는 마음으로 가득차기 마련인데 이교수님은 그렇지 않아 좋다. 일찌기 신방과에 「演劇學」이라는 인기 전공 영역을 설치하셨고 이제 연극학과 더불어 서강대 신방과가 신문방송학으로서 구색을 갖추고 명성을 얻게 된 것도 이근삼교수님의 공이 크다 아니 할 수 없다. 거기다 이선생님의 젊음과 건강은 老益壯으로 전과 다름이 없으시니 정년 후에도 好學정신과 好人정신을 전과 같이 드높이시기를 빌고 싶다.

길이 소년같은 마음과 황소같은 건강을 지탱하면서 부디 앞길이 더욱 다경 다복하시기를 빌 따름이다.

나는 감히 그를 사랑한다

김 영 주

서강대 신방과 석사과정

나는 감히 그를 사랑한다.

인연이란 말을 굳이 쓴다면 그 시작은 어디일까? 대학 2학년 때 그에게 「연극개론」이란 수업을 들었다. 벌써 8년 전의 일인데 그 때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일런지도 모를 연극을 했었다. 「필립호츠의 외출」이던가 「필립호츠의 외인부대」던가 지금은 작가며 제목이며 내용 모두 희미한 그 연극에서 내가 맡았던 배역은 대사도 몇 마디 안되는 여자 외관원으로 말그대로 엑스트라, 단역이었다. 난 그 때 연출가 형의 속을 무던히도 썩였었는데 노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는 발성연습에는 물론 모든 연습에 불성실했다. 게다가 50대 여자 외관원의 분장이 예쁘게 되기만을 원했으니 연출가 형은 나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봄동안 연습한 연극을 무대에 올리던 그 해 오월 세상은 내내 미쳐있는 것 같았다. 다치는 사람,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서 나도 역시 늘 옆에 들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부끄러운 내 양심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꼭 그래서만도 아니면서 내내 연습에 충실하지 못했다. 사실은 엑스

트라가 싫었던 걸거다. 내 처음이자 아직은 마지막인 최초의 연극이었다.

연극은 그 때 내게 그랬다.

“주인공도 아닌데 학점이나 잘 나올까? 이왕 하는 거 주인공이 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데 신데렐라처럼. 단역은 정말 시시하구나. 완전히 들러리군.”

타고난 재능은 생각지도 못한채 히로인만을 꿈꾸며 세상을 핑계삼아 내 배역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그 연극의 제목조차 생각이 안나는 건지도 모른다.

스물 한 살에 그를 그렇게 강의실에서, 메리홀 무대 위에서 만났다. 그는 그 때의 내겐 성의 없이 올렸던 그 연극과 다름이 별반 없었다. 그 때의 내게 그는 내 인생의 단역배우처럼, 내가 스쳐온 수많은 선생님들 중의 한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어린왕자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수많은 길가의 장미꽃같은 존재 말이다. 그는 학점으로 나를 점수매길 한사람의 교수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내게 학점으로 남기도 했는데 놀라지 마시라, 놀랍게도 학점은 A였고 그래서 그는 A학점으로 남았다. 처음 알았다. 단역에게도 점수가 있구나.

졸업을 하고 한동안 나는 부유했다. 어디로 떠다니는지도 모르게 떠다니다가 내가 그를 새로 만난 건 녹차 한 봉지 달랑 사들고 그에게 갔던 2년 전 가을 끝머리께였다. 졸업한 지 거의 4년만이기도 했다.

“공부를 더 계속하고 싶어서요. 이번에 대학원 시험 보려고요.” 뭔가 잡다한 말을 늘어놓는 내게 그는 “와서 뭐하간?” 한마디로 오지 말라고 하셨고 그 말 뒤에 시집이나 가지라는 말이 덧붙여졌는지는 기억에 없다. 나는 그 말씀을 당연히 그의 농담으로 여겼으므로 한 귀로 흘렸다. 시험을

치렀고 운 좋게 들어왔다. 남들은 박사공부를 하고 있을 나이에 말이다.

그리고 다시 1년 쯤 지난 어느 술자리에서 그는 내게 “들어오지 말랬더니 왜 들어왔간?” 물었다. 나는 얼른 “어? 그때 그 말씀 농담 아니셨어요? 전 당연히 선생님께서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라고 대답했고 그는 농담이 아닌 진담이었음을 나는 진담이 아닌 농담임을 계속 주장했다. 그리고 웃음. 실은 나는 1년 전 그 대화를 그가 당연히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는 당시에 사회과학대 학장까지 겸임하고 있어서 그 여느 때보다 바쁠 때 였으므로. 그가 진담이었다는 말까지 내게 직접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 말은 내게 농담 같이 여겨진다. 그의 기억 한 귀퉁이에 내 모습이 남아있는 것도 고맙고. 그리고 인생이란 어찌면 이런 혼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는 그렇게 농담처럼, 진담처럼 내게 인생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닐까?

올 봄에 그의 연극을 보았다. ‘이성계의 부동산’이란 작품이었는데 나는 그 연극을 두 번 보고 대본을 두 번 읽었다. 그의 작품은 나를 웃기고 울리고 또 웃겼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꿈꾸게 했으며 깨어나게 해주었다. 이성계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정도전은? 나의 인생은 어떤 환상일까? 30년쯤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엔 나도 내 인생의 부동산을 갖게 될까? 내게 많은 질문이 던져졌지만 아직은 결론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난 다만 그 연극 안에서 많은 단역들을 만났고 주인공을 만났으며 그들 하나하나로부터 나의 모습, 우리 모두의 자화상과 만났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꿈꾸는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30년 뒤의 내 모습.

나는 감히 그를 사랑한다고 또 한 번 쓴다.

나는 그가 마시는 술을 사랑한다. 그가 내뿜는 파이프 향기를 사랑한다. “이 녀석 주례는 꼭 내가 서고 싶은데 여자라 안된단 말이야.”라고 하는 그의 농담같은 진담도 사랑한다. 그리고 그가 준 A학점 덕분에(?) 나는 모든 단역배우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감히 그를 나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부르고 싶다는 것이다.

삶과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사랑, 무엇보다도 지칠 줄 모르는 삶에 대한 긍정과 여유, 향기를, ‘그분’의 인생을 배우고 싶다.

선생님, 그런데 왜 ‘이성계의 동산’이 아니라 ‘이성계의 부동산’이죠?

어느 날 문득 삶을 돌이켜 보면

김 호 석

서강대 신방과 박사과정

운명이란 준거틀로 하여

지루한 일상을 즐거이 보내다가도 어느날 문득 삶을 돌이켜 보면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별다른 의심없이 유쾌히 즐기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쩐지 신기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때마다 불현듯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의문은 ‘내가 왜 여기에 있나’라는 실존적인 문제이다.

하필이면 이 공간에 왜 있을까? 더 좋은 공간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는 서강대 신방과 대학원이 너저분하게 보일 때도 많은데 말이다. 어쩌면 이런 생각은 30을 갓넘은 나에게만 발생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국사회에서 31살이란 나이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선택의 자유가 상당한 정도로 침해당한 상태이다. 모든 대기업이나 언론사, 방송국 등 신입사원 모집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 때로는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나이제한’에 걸리기 시작하는 연령인 것이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구조결정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동시에 인간의 창조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구조에 의해 결정당한 한 개인의 무력함을 심각

하게 반추하게 된다. 한마디로 31살이라는 자연과학적 수치 높이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제도적 규칙과 제약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나이를 경험하는 모든 인간들은 한번쯤 자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되고 혹시나 실존적 자아가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의 힘에 의하여 삶이 결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아마도 이런 심정적 위기가 컴퓨터가 횡횡하는 과학의 시대에도 미신이라고 매도당하는 ‘점’을 보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却說하고 구조나 모순의 절대성을 믿지 않는 내가, 따라서 운명의 결정론도 역시 우스운 사고 중 하나라고 일침을 가하던 내가 나의 이론적 지향과는 무관하게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운명을 믿으려 하는 이 언어도단과 같은 현실을 맛보니까 한편으로는 의식을 강압하는 물질세계의 위대한 힘을 다시금 돌이켜 보게 되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탈중심화된 세계에서 이성의 분절과 해체에 직면하게 되자 혼돈과 무질서로 추락하기를 거부하고 운명의 神에 자신을 맡기게 된 것이라고 자체분석을 하기도 한다.

운명론을 준거틀로 하여 나의 삶을 돌이켜 보려는 시도는 당연히 현재의 삶이 미리 예정되었던 것임을 사실로서 여기고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지나간 과거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면서 나의 과거와 현재를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그 결과 하나의 유려한 전체상을 그려보는 것이다. 이를 보고 或者는 결과를 원인처럼 전제하고 분석하는 기능주의적 사고라고 단정하거나 비판하겠지만 나는 기꺼이 그 비판을 수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운명론의 설명논리는 기본적으로 순환론과 결정론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다른 혹자는 무리한 전제 아래서 분석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여 나의 시도를 일종의 知的 유희로 매도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런 매도만큼은 적극적으로 반발할 것이다. 아직까지 운명론의 영역은 不可知論이 관치는 공간이므로 그 전제가 실증적 과학에 의하여 기각되려면 상당기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하나의 가설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향후에 보다 과학이 발전하여 운명론의 반증이 가능해진다면 나는 언제든지 어설픈 그 가설을 기각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설령 운명론의 논리가 진리를 보장하지 못할지라도 한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反省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실천적인 유의미성을 갖추기 때문이다.

여하튼 그 모든 논리적인 방어전략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만큼은 ‘오늘’을 기초로 ‘어제’를 바라보고 싶다. 이 작업을 통하여 ‘내가 알고 싶어하는 단 한가지’는 나만의 실존적 고민을 극복하여 나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선택된 현재가 가장 올바르고 동시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설령 그것이 왜곡된 신념일 뿐이기에 실제로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었을지라도.

오늘 다시보니 이상한 과거

내가 서강대 신방과 박사과정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하등의 의문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떠한 시간의 흐름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현재의 존재상태를 인정하게 된다면 무슨 의문이 있겠는가? 하지만 개인의 역사를 조금만이라도 추적하다보면 현재라는 결과가 그다지 수월하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다. 게다가 한 개인의 내면상태를 알기 위해 間主觀的 방법을 사용하거나 共

感的 內省의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의 선택이 도출할 때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복잡미묘한가를 금방 알 수 있다. 특히 평생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라면 두말하면 잔소리일 뿐이다.

사실상 나 역시 마찬가지다. 처음보는 사람들은 나의 학부 전공이 컴퓨터공학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삶의 진로가 상당히 평범치 못하다고 느끼는 듯 하다. 대체로 보면 인사치레의 말일지라도 ‘무엇때문에 컴퓨터를 포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선택했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나의 곤궁한 답변은 컴퓨터를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한다. 의지론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대한 관심덕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 역시 그 삶의 주체이면서도 쓸데없는 의구심이 생긴다. 그다지 원하지도 않던 신방과에 왜 목을 매달고 사는지를.

학부에서 마지막 학기를 눈앞에 둔 87년 1월, 지금보다도 절박한 심정에서 나의 삶을 반추해 보았다. 時節은 하 수상하여 무언가 급박하게 보였고, 난 나침반을 잃어버린 외양선처럼 부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무게의 중심이 해체된 상황을 근거로 과거를 회상하다보니 삶이 꼬이게 된 시점을 찾게 되고, 그것은 순탄했던 과정이 무언가 뒤틀리기 시작했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까지 근 7년간의 엮이고 엮인 삶의 굴레였다. 사소한 생활부터 대학과 학과선택까지 나의 자유의지를 행사한 적은 별반 없었던, 한마디로 모순의 담지자였던 인생인지라 미래에 대한 예측과 현실이 조금만 뒤틀리기 시작해도 양자를 일치시키려는 합리적 실천보다도 예민한 감성에 상처만 남는 의지박약한 삶의 역정이었다. 따라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였으며 ‘주체’의 회복이었다. 그 결과 타인의 공리주의적 의지에 굴복한 댓가로 발생한 컴퓨

터 인생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고, 예술사회학을 평생의 반려자로 결정하여 부전공인 사회학 대학원에다가 나침반의 초침을 맞추었다.

‘자유’란 생각보다 무서운 힘을 주었다. ‘너무나 먼 당신’이었던 영어책을 독과하게 해주었고, ‘대학 내내 어색한 공간’이었던 도서관의 향기가 뿌듯한 것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고, ‘광란의 분위기’에서만 먹던 소주가 은은한 향취 역시 갖고 있음을 알게 해주었고, 알찬 한학기가 무료한 철학기 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질풍노도와같은 낭만적 감정은 운명이건 구조적 제약이건 간에 모두 뿌리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세상은 한번쯤 살다가기엔 그만’이라는 당시로서는 부르조아적 사고를 만끽하면서 사회조사방법론을 달달 외우고 있던 3월, 우연히 나의 도서관 좌석 옆 빈자리에 놓여있던 대학원 요람을 보게 되었다. 난 내가 선택한 사회학과 대학원의 교과목을, 마치 대학원생이 이미 된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예술사회학에 관한 과목이 2과목 정도밖에 없었다. 상당히 당황스러워진데다가 대학과 학과를 다시 선택해야 한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무언가 모를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하였고, 자율신경의 통제를 상실한 듯한 나의 손은 무심한 상태에서 대학원 요람을 한장 한장 넘기고 있었다. 그 때 「예술과 사회」, 「문예비평론」, 「연극연구」, 「영상미학」 등 예술사회학과 관련된 다수의 과목들이 번쩍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가슴은 떨리기 시작했고 ‘아마도 실수로 인하여 사회학과 대학원 교과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구나’하는 자책이 생겼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회학과 커리큘럼이 아니었다. 대학내내 한과목도 수강

신청한적이 없는, 따라서 교수들의 신상명세서조차 전혀 몰랐던 신방과 대학원의 커리큘럼이었다.

난 아무런 주저도 허용하지 않았다. 사회조사방법론은 매스컴조사방법론으로, 사회학개론은 매스컴개론으로, 사회학이론은 매스컴이론으로, 단 하루만에 바꾸어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다행히도 절친한 동료 중에 신방과 친구들이 많았던 덕분에 그러한 결단은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자료복사부터 예상문제, 교수들의 특성까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으므로 남는 문제는 개인적인 노력이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그리고 진학하면 앞으로 지도교수가 될 이근삼선생에 대한 초보적인 사실들을 알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극작가이고 동시에 문화론을 강의한다는 지극히 ‘공식적인 이근삼’을 말이다.

6월초 무더웠던 그 어느 날 대학원 입학시험이 치루어졌고 다행히 8명만이 신방과 대학원을 지원하였다. 그 중 5명이 뽑혔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외한이었던 난 재수 좋게 합격했다. 1.6대 1의 대단한(?) 경쟁율을 뚫고 말이다.

오늘의 내가 있게 한 과정은 위와 같다. 아마도 혹자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의도성’으로 나의 과거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또는 예술사회학과 관련된 과목이 사회학과에 없었고 신방과에 존재했다는 원인 때문에 현존재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현상학적 사회학의始祖인 슈츠의 말대로 ‘과거세계’는 드러난 사실로서만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인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삶의 주체인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몇가지 운명적 요인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 과학체계로서 설명되어질 수 없는 우연성은 무엇보다도 ‘그날 나의 비어있던

옆자리에 대학원 요람이 어떻게, 왜 놓여있었느냐’는 것이다. 같은 맥락이지만 ‘하필이면 난데없이 요람을 보려는 의지가 갑자기 왜 생겼느냐’는 것이다. 만약 요람을 보지만 읽었더라도 아마 사회학과 대학원에 진학했거나 再修했을텐데 말이다. 물론 각각에 대한 실증적 요인을 찾았다면 존재할 수밖에 없게 한 그럴 듯한 이유야 있을 것이다. 내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 역시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려고 한 수험생이어서 대학원 요람을 보고나서 그대로 놓고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또는 보편적으로 어차피 한번은 요람을 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운명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그러한 요인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게끔 하고, 다시 반추해본 나의 삶이 신비스럽게 느껴진다. 운명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에야 어쩌면 당연한 감정이 아니겠는가!

이근삼선생과의 遭遇

‘공식적인 이근삼’만을 인지하던 수험생시절, ‘인간 이근삼’이라는 실존적 의미들은 당시로서는 상상력 안에서만 맴돌았고 그래서 그런지 무언지 모를 신비감만 매일 매일 가중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연극’이라는 주제가 나의 뇌리에 조금씩 뿌리깊게 박히게 되었고 급기야는 마치 내가 오랜동안 연극에 집착했었다는 착각까지 갖게 되었다. 게다가 이근삼선생의 의지와 무관하게, 猥濫된 행동이었지만 난 선생을 평생스승으로 결정하였다.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나 예측도 없으면서도 단지 육감으로 말이다. 그래서 교수와의 면접 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선생은 대만에 출타중이었다) ‘이근삼 교수님 밑에서만 연극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보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고, 떨어지면 다음 학기에 다시 보

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하였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으나 선생의 차기 연극조교가 없어서 합격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얼마나 운명적인 사건인가! ‘이근삼’이라는 인칭 대명사와 ‘연극’이라는 명사를 술회하지 않았던들 삶이 어떻게 또다시 꼬여 나가기 시작했는지 상상만해도 소름이 끼친다. 그 누가 아무리 ‘절망 속에서 장미빛 인생이 피어난다’고 부르짖더라도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훼손된다면 개인의 무력감은 극대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평생 미련과 여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다행히 운명의 여신은 개인적 욕구를 처벌하지 않았고 힘껏 밀어준 것이었다.

선생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참 잘생기셨다’는 느낌이 들었다. 설령 A급 관상장이가 아니더라도 30년의 세월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배운 ‘관상술’은 최소한도의 객관성을 지킬 줄 알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극작가’라는 실증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야 환갑을 눈앞에 둔 老大家의 관상이 안 좋게 보일리 있겠는가! 게다가 이미 난 나의 자유의지로 선생을 평생의 스승으로 삼겠다고 비장한(?) 결정을 내린 뒤여서, 베이컨이 진리를 위해선 그렇게도 배제해야 한다던 ‘부족의 이상’에 빠져버린 상태임에야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난 手相, 足相, 觀相을 과학적 체계로 재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40세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상학적 명구는 개인의 역사성이 얼굴 안에 퇴적될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강조하고, 삶의 지표로서 기능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의 수상, 족상, 관상은 이유없이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왔던

과거와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게다가 똑같은 수상, 족상, 관상은 전혀 없다. 개인마다 모두 다르다. 한마디로 ‘구체성’이 살아 숨쉬는 지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속성과 변화의 역동성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또한 실천적인 윤리학도 내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心相’이다. ‘마음을 좋게 써야’ 수상, 족상, 관상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심상의 ‘결정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동양적 윤리관은 물론 유물론적 전제와 배치되는 형이상학적인 것이지만 내 개인적 평가는 좀 다르다. 모든 이론은 궁극적으로 ‘목적의식적인 결정론’에 빠지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과학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의 혁명론은 구체적인 현실을 법칙론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식적인 실천을 해야만 혁명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이론없는 실천이 맹목적인 것처럼 실천없는 이론은 공허할 뿐이다. 결국 변화에 대한 결정성은 실천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심상을 결정변인으로 여기는 동양적 실천론과 목적의식적 활동을 중시하는 서구적 실천론은 결국에 가선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術’로 남아있는 인식체계가 ‘學’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는 사고에 짓눌려 있던 난 때때로 선생의 손금을 훑쳐보곤 하였다. 물론 선생께서는 전혀 인지할 수 없었겠지만, 수업시간이건 술좌석이건 선생의 옆좌석에 앉아 있기만 하면 선생의 말쑤에 집중하는 척하고 툼툼히 보여지는 수상을 힐끗 쳐다보곤 하였다. 거기엔 힘차게 뻗어있는 운명선과 함께 꿈틀거리는 수려한 태양선이 한껏 뽐내고 있었다. 나의 예측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가을, 세상은 文民이라고 잘 나갔지만 신방과는 지리멸렬할 때, 몇몇 선후

배와 함께 선생을 모시고 동규兄이 書生으로 있는 충주에 놀러갔는데 우습게도 손금보는 기계가 있었다. 제자들은 선생께 ‘선생님께선 이제 불확실정보다는 확실성만 남으셨기 때문에 기계의 정확도를 실험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보십시요’라고 권유하였다. 선생께서도 재미가 나시던지 껄껄 웃으시면서 기계에 왼손을 넣으셨고, 잠시 기계작동음이 들리자마자 선생의 기본적인 手相線과 함께 해설이 나왔다. 기계라서 워낙 보편적인 수상선만을 다루는지 단순한 해설이 나왔지만 태양선과 관련된 설명은 나의 해석체계와 동일했다. 다시 한번 검증된 것이다.

우스운 생각이지만 간혹 넘나드는 사고의 편린은, 때때로 선생의 몰상식한 제자이면서 동시에 위풍당당한 사위인 종석이랑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선생님 만나러 여기에 이런 물골로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운명론적 가설이다. 그래서 그런지 운명론의 大家로 알려진 정다운 스님한테 3만원 내고 ‘前生이나 한번 볼까’하는 마음이 자주든다.

이근삼과 레이몬드 윌리엄즈

신방과 대학원 생활은 나로서는 전례없이 삶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된 것이었다. 자율적 존재로서의 재탄생이라는 의미가 듬뿍 넘쳐흘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삶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창조적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토론에서 절대 지지않겠다는 투지도 생겼고, 실력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자만도 커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저작을 반드시 쓰겠다는 각오도 생겼다. 그래서 그런지 ‘공부란 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구나’하는 느낌을 인생에서 처음 만끽하는 즐거움도 갖게 되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연극에 대한 소명의식이 점차 부차적으로 변하고 반면에 사회과학일반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이다. 일말의 불안감이 솟구쳐 올랐다. 왜냐하면 어쩐지 선생에 대한 약속 비슷한 것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하튼 암묵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멍에로 지며 그럭저럭 세월에 맡겼더니 논문학기가 어느덧 슬며시 다가왔다. 잠재하던 고민은 불쑥 고개를 들이내밀었고, 연극에 관한 논문을 써야 할지 아니면 평소에 관심이 있던 사회과학적 주제를 갖고 써야할지 선택을 하기가 어려웠다. 연극을 쓰자니 준비가 불충분하였고 준비된 걸 쓰자니 약속위반이 발생할 것 같았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섬광처럼 지나친 타협점이 언뜻 생각났다. 그것은 레이몬드 윌리엄즈였다. 선생께서 애착을 가졌던 영국의 문화론자이고 동시에 맑스주의자였던 윌리엄즈! 아마도 한국사회에서 그의 주요 원전을 모두 독과할 기회는 선생의 과목에서 유일하게 주어졌을 것이다. 마침 논문 前學期에 그 과목을 수강하였고 대충 내용을 섭렵한 상태였다. 결국 방법론을 중심으로 윌리엄즈의 이론을 해체 및 재구성하는 주제로 논문작업은 순탄하게 진행됐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였던 윌리엄즈는 여러모로 선생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유사했다. 난 영국의 학자 간함(N.Garnham)이 윌리엄즈의 死後 그를 추모하는 논문에서 사진을 보았는데 인상이 참 좋았다. 무언가 응시하는 자태를 찍어서 그런지 약간 어둡게 나왔지만 평소엔 이근삼 선생처럼 아주 환한 모습이었을 것 같다.

다음으로 양자 모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다는 점이다. 윌리엄즈도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이론의 장을 열었는가 하면 이근삼 선생도 삶 자체가 문화적인 것이다. 또한 양자 모두 작가이자 비평가였고 동시에 학자였으며 평생을 교수라는 직함을 갖고 살아왔다. 이런 것까지 비교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양반 다 장교출신이라는 점도 재미있는 사항이다.

좀 더 개인적인 성찰을 해본다면 윌리엄즈는 60년도 자전적 소설인 「Border Country」에서 표출했듯이 도시와 농촌의 경계에서, 노동자계급 출신이라는 신분과 공식적 학교라는 경계에서 부유하는 심정을 토로하였고, 이근삼 선생 역시 대표작인 「국물있사옵니다」의 대사처럼 평양출신으로서 남과 북의 경계를 희화화하면서 보내셨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비극적인 형식을 취한 반면에 후자는 희극적인 양식을 애호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둘다 낙천적이고 낙관적이었으며 엄격한 도덕과 윤리를 기반으로 살았다.

이근삼 선생이나 윌리엄즈, 두양반 다 문화라는 공통의 주제를 갖고 유사한 삶의 양식을 표출하였지만 역사에 남길 흔적은 상당히 다를 것 같다. 이근삼 선생은 무엇보다도 희곡 작가로서 역사의 방점이 굳게 찍힐 것 같고 반면에 윌리엄즈는 문화론의 대가로서 위상을 잡아갈 것 같다. 같은 맥락이지만 전자는 작가로서의 능력이 만개하였다면 후자는 비평가, 이론가로서의 업적이 현저하다. 구체적으로 약간은 무리한 비교일지라도 이근삼선생의 「국물있사옵니다」는 윌리엄즈의 「문화와 사회(Culture and Society)」와 비견될 수 있고, 「유랑극단」은 「The Long Revolution」, 「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와 「제18공화국」은 「May Day Manifesto」, 「30일간의

야유회」는 「Maxism and Literature」, 「막차탄 동기동창」과 「이성계의 부동산」은 「The Year 2000」과 대비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러한 대비가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도 제시하기 어렵겠지만 양개인과 작품의 비중과의 관련을 기초로 재미삼아 작성해 보았다. 여하튼 양자는 각각 한국과 영국이라는 공간에서 5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작품과 저작들을 양산해왔고 역사의 발자취에 뚜렷한 족적을 남겨 놓았다.

이근삼 선생께서 연결해 준 결과지만 나는 윌리엄즈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논문을 윌리엄즈의 방법론으로 작성하였고, 두번째 소품 역시 ‘레이몬드 윌리엄즈 : 문화, 맑스주의의 위기와 탈출구’라는 제목으로 출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원 최초의 수업에서 최초의 발표가 베츠키의 윌리엄즈에 대한 비평이었다. 당시만해도 조야한 경제주의적 맑스주의를 유일한 진리라고 신념처럼 굳게 믿고있었던지라 베츠키의 비판에 덩달아 협조하면서 뭣도 모르고 윌리엄즈를 심하게 비판하였다. 한마디로 그의 이론적 지향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논문을 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었고 그를 그렇게도 사랑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나는 세상에 몇 안되는 윌리엄즈 추종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 윌리엄즈는 사회과학에 있어서 전통적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단초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아마도 그것은 ‘시간’과 ‘가치’ 등 두개념을 축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특히 ‘시간’의 문제는 기존 사회과학이 생각보다는 불철저하게 다루고

있는 영역이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이론들이 공간법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질적 시간’을 개념화한 맑스주의가 시간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지만 이들 역시 ‘양적 시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을 뿐이어서 불충분한 방식으로 시간을 다루고 있다. 그 증거로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는게 혁명이고 상대적으로 개량에 대해서는 불철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내 인생에서 비중있는 첫 연구는 ‘사회과학에 있어서 시공간(Time and Space in Social Science)’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철학에서 다루는 시공간개념과 물리학에서 발전한 최신의 시공간개념을 분석하여 가능한 일반적인 시공간개념으로 구성하여 연구의 전제로 설정한 뒤, 사회과학의 주요한 이론들이 얼마나 공간법칙 중심인가를 증명하고 대안으로 ‘시간의 법칙(Law of Time)’을 향한 독자적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언제 그것이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아니 설령 불가능한 연구일지라도 반드시 도전하여 해결하고픈 열정에 휩싸여 있다.

스승으로서 이근삼선생의 가르침

동양적 사고에 있어서 스승에 대한 관념은 서양과 비교해 볼 때 사뭇 다를 것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서양의 스승관에 대하여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또는 스테레오타입화 한 방식으로 편협하게 알고 있는지라 왜곡의 가능성을 담고 있지만 아마도 동양적 스승관은 다른 무엇보다도 삶의 교사로서 기능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 같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가 고도로 발전한 우리나라도 서구사회처럼 계약관계를 기초로 스승과 제자관계가 형성되자 기존의 스승관은 대체로 많이 퇴색

해가는 경향이다. 내 견해지만 50, 60년대 사제관계가 전통적인 방식을 취했다면 70년대 이후부터는 공리주의적 계약을 통한 관계가 보다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50, 60년대를 제자의 위치로 살았던 현재의 원로교수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대간 경계선에 놓여있어 가치의 혼란상태인 아노미를 겪을만 하다. 동양적 스승관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가치를 따라갈 것인지, 양자택일적인 선택의 순간에서 말이다.

이근삼선생은 그 혼돈의 순간에서 전통적인 스승관을 선택하셨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공리주의적 현실을 조소하며 ‘시대의 마지막 낭만주의자’라는 호칭을 애호하듯이 선생께서도 간혹 유쾌한 술좌석에서 농담반 진담반 ‘내가 마지막 스승 아니겠니’하며 동의를 구하신다. 얼핏 느끼는 바지만 후배나 제자들의 공리주의적 성향을 안타까워 하면서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선생께 배워온 삶의 양식은 전통적 스승관이란 넓은 틀을 기초로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사실상 나에게 ‘삶의 교사로서의 인생’이란 주제는 이런저런 단편적인 글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체함의 기회는 거의 없었다. 선생을 만나고 비로소 전통적 스승관의 구체적인 실천양식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예들을 있는대로 제시해 보라면 紙面문제뿐만 아니라 어디서 주어 들은 이야기까지 말해야 하므로 의미의 과장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나와 연관된 몇가지 생생한 체험을 밝히면 족하리라고 본다.

가끔씩 떠오르는 우스운 생각이지만 ‘선생의 삶에서 내 존재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든다. 사실상 선생의

사회적 위치가 거의 완성된 말년에 막내자식뻘 되는 내가 제자건 아니건 간에 선생의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클 것인가! 그러나 선생께서는 정년퇴직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도 스승의 역할을 다하셨다고 느껴진다.

석사논문을 쓸 당시 논문학기생들 중 선생의 조교로는 유일하게 내가 있었다. 짧은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양산해 내겠다는 경제주의적 원칙을 갖고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고 굴릴 때 선생께서는 일주일에 2-3일 정도 논문의 진행상황을 꼭 점검해 주셨다. 물론 술좌석이었지만 ‘휴식은 곧 새로운 창조의 원천’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말이다.

어쩌면 선생께서는 선생의 독특한 과목인 윌리엄즈論을 정리해 줄 제자를 찾았는지도 모르겠다. 또는 별것도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삶의 정열을 바치고 있는 제자가 너무 안스러워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관심갖고 봐주시는 선생의 모습은 건대기 없는 논문이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事前에 막아주는 즐거운 것이었고 평생 공부를 하려는 열정에 지긋한 불씨가 되어 준 것이다.

내가 신방과 박사과정에 들어오기까지는 1년이 걸렸다. 한번의 고배를 겪고 합격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넉넉하게 나의 실력부족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당시로는 삶에 대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에 낙방한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 모두가 불만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선택이 이 길이어야 하는가’라는 회의와 ‘유학 또는 타대학을 가는 대안’ 등 온갖 잡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불쑥 떠오르곤 하였다.

물먹었다는 사실은 선생께서 연종이뎡, 동규뎡과 함께 처음 가본 평창동 두부집의 술좌석에서 말씀해 주어 알았다.

그 날은 참으로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운 그런 날이었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하늘이 얼마간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다. 선생께서는 ‘별 것 아니니까 여유를 갖고 다시 준비하면 다음엔 절대 합격할 수 있으니 공부 포기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셨다. 게다가 만약 집에다 말하기 어려우면 선생께서 직접 말해 주시겠다는 어찌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배려까지 약속해 주시면서.

솔직히 말해 누가 이러한 스승을 두고 떠나갈 수 있겠는가! 최소한 바보가 아니라면,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면, 각별한 애정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천치가 아니라면, 오직 절망 이외에 삶의 방법이 없는 비극적 인간이 아니라면 그 누가 무력하고도 공허한 자존심 때문에 스승 중의 스승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다음날 선생께 부족함을 사과하며 다시 공부에 매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 후 어떠한 잡생각이 나도 선생의 배려를 염두에 두며 상념의 괴물들을 격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93년 여름학기 어렵사리 박사과정에 합격했다.

합격이 결정된 며칠 후 토요일, 선생께서는 약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평창동 어느 술집으로 오라고 전화하셨다. 기쁜 마음에 들떠 있었던 난 522번 버스를 기분 좋게 타고 어렵사리 찾아갔다. 좀 허름한 술집이었고 북어찜과 두부에 소주를 시켰다. 한시간쯤 지난 후 선생께서는 빙긋 미소지으면서 ‘너 여기 기억안나니’라고 물으셨다. 순간 언뜻 느낀건 前學期 선생께서 박사과정에 떨어졌다고 알려주신 바로 그 자리라는 사실이었다. 당시 얼마나 감성적인 분위기에 매몰되어 있었으면 장소에 대한 기억을 무의식의 공간속에 밀어 넣어 버렸

을까! 여하튼 그 공간은 시간변수를 고려치 않으면 실패와 성공이 한자리에 있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날의 주제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였으며, 선생의 미소는 ‘염화미소’로 나의 폐부에 깊숙히 다가왔다.

30에 내리는 잠정적 결론

31살에 가끔씩 넘나드는 사고의 편린은 인생의 선택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때때로 공부대신에 다른 길을 선택할 경우의 기대비용을 계산하기도 하고, 공부를 포기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보기도 한다. 특히 잘나가는 친구들의 생활상을 보거나 경제적 능력이 일천하여 궁색한 심정이 생길 때 더욱 그렇다. 나 역시 俗物은 俗物인가 보다.

그러다가도 신방과라는 공간을 통하여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만약 입학하지만 않았어도 영원한 타인으로 존재했을 그 사람들을 말이다.

자본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보면 인간의 성공은 ‘사람만들기’에 달려있을 것 같기도 하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가설은 衰落을 거듭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前提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께서 ‘占’을 보고 하는 이야기는 내 평생에 만날 貴人들 중 다수를 현재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론적인 해석 때문에 사람들을 평가하지는 않지만 내가 貴人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욱 믿고 따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궁극적으로 31살에 내리는 내 인생에 대한 잠정적 결론은 운명적으로 만난 그 사람들을 근거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미래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확실한 상태에서, 특히 한국사회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장래에 대하여 비관 말고 무슨 낙관을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낙관적 사고로 치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능력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인 것이다.

특히 이근삼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은, 일종의 환상일지도 모르지만, 나의 앞날에 커다란 빛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떠한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선생의 삶이 부여하는 형용할 수 없는 색채가 내 삶의 양식을 많은 부분 결정했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선생의 정년퇴직을 맞이하며 발생한 내 삶에 대한 반추는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통하여 나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선택된 현재가 가장 올바르고 동시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어느날 문득 삶을 돌이켜봐도 언제나 배태될 단 하나의 결론은 ‘난 잘 살고 있다’는 외침과 메아리일 뿐이다.

술 한 잔의 원한

문 종 대
목원대 강사, 언론학

선생님은 석사 때부터 나를 바보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바보이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나보고 바보라고 하는 말씀을 항상 시인하였다. 반박을 하여야 하는데 자꾸 시인하니까 이젠 선생님이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진짜 바보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딱 한번 칭찬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날은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선생님은 나를 소개해야만 하는 딱한 처지에 있었다. 평소대로 바보라느니 농아라느니 등등 약점을 계속 말씀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문종대군을 칭찬할 것이 없나 하고 2시간이나 생각을 하였는데 그래도 칭찬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문군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 문군은 머리가 나빠서 칭찬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날은 나의 결혼식날이었고 선생님은 주례를 하신 것이다.

선생님이 나에게 칭찬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선생님의 술 한잔을 허락없이 뺏어먹은 죄 때문이다. 석사 3학기 때였다. 그때 자주 선생님의 술좌석의 말단에 끼어 앉곤 하였다. 선생님은 말없이 앉아서 술만 마시는 나를 농아 학교 출신이라고 놀리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선생님과 술좌석에서 처음으로 말을 하였다.

“선생님, 요즘 약주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약주 그만 드십시오. 선생님 술은 제가 먹겠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앞에 놓인 술잔을 가져와 마셔 버렸다. 이 행동이 원한의 씨앗이 된 것이다. 선생님은 선생의 술을 뺏어 먹는 버릇없는 놈이라고 대노(大怒)하시고는 다시는 나를 술자리에 끼지 못하게 하라고는 술자리를 옮기셨다. 나는 머리가 나뻐기 때문에 옮긴 술자리를 찾아가 사죄를 하면서도 계속 선생님을 괴롭혔다. 그 술 한잔 뺏어 먹은 원한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한에도 불구하고 결혼식날 많은 말씀을 하여 주셨다. 아직 사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문종대 역시 농아학교 출신이라 그런 말 못할 거라고 하시곤 신부에게 평생 그런 말은 기대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나는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금까지 나의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백번은 한 것 같다.

선생님의 그 날 이 말씀은 참 고마웠다. 선생님은 월급봉투나 외식, 선물 같은 것으로 사랑을 증명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직 월급봉투도 없다.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선물을 한다. 나는

나의 아내에게 선생님의 이 말을 빌어 가난한 자에게는 마음만큼 큰 재산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곤 한다.

그 날 또한 선생님은 결혼생활은 연극과 같다고 하셨다. 상대방 눈만 보아도 서로를 느낄 줄 알아야 좋은 연극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을 살아가는 공동운명체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길없는 인생을 찾아 나서는 것은 혼자 가기에는 외롭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나에게서는 그렇다. 그러나 나의 아내는 문종대라는 또 하나의 집을 짊어지고 지금 가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지고 갈 것이다. 그러다 또 때가 되면 그 짐 모두 버리고 떠날 것이다.

서른 한살이 되던 그 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 보았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아니 신혼여행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나의 이 행사는 더욱 늦어졌을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나의 아내를 품속에 품고 꿈속에 젖어 있던 그날 새벽 1시경 난데없이 호텔 전화벨이 울렸다. 순식간 ‘어느 미친놈이야, 혹시 호텔 불난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 난데없이 “너 제대로 하고 있어? 내가 가서 시범을 안보여 줘도 돼?”하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이다. 마산 호텔에서 선배들과 약주를 하시다가 심술이 나셨는지 전화를 하신 것이다. 아마도 선생님은 첫날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몰라 그냥 보내셨나 보다. 사모님이 참 안되셨다.

선생님이 정년 퇴직하시니까 신난다. 왜냐하면 교수 자리 하나 비니까. 내 자리도 아닌데 왜 나는 좋아할까. 선생님 말씀대로 나는 참 바보다. 바보가 될 바에야 세상에서 제일 큰

바보가 되자. 그래야 선생님이 좋아하실 거다. 그 때가 되시면 술 한잔의 원한도 없어지시겠지.

君師父 一體

이 상 기

서강대 신방과 박사과정

우리집은 아들 부잣집이다. 아들 삼형제에 결혼한 형들도 모두 아들만 낳았다. 요즘이야 잘키운 딸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이지만, 내가 처음으로 세상구경할 때만 해도 아들이 대접받던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 두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 배속에 들어왔자마자 딸을 노래부르고 다니셨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고추를 단 나의 운명은 아버지의 노래로 바뀔 수는 없었다. 나는 울음소리 우렁차게 아버지를 배신하며 아들로서 호적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못내 아쉬웠던지 나를 딸처럼 키우셨다. 세살 이전의 기억은 할래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전해들은 바로는 아버지가 나에게 쏟으셨던 정성은 정말 남달랐던 모양이다. 내가 돌도 채 되기 전에 부모님은 대판 싸우시고, 급기야 어머니가 이모집으로 짐싸들고 떠나신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젓먹이인 나를 안고 젓동냥을 다니셨단다. 이런 저런 연유로 나는 성인이 되도록 아버지께 사랑의 매조차 한번 맞은 적이 없다.

지금도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끈끈한 정이 흐른다. 술을

남달리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이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싸우셨다. 그런데 위의 두 형들은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고, 나는 끝까지 아버지의 편이 되었다. 지나고 보면 이런 편가름이 있었기에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 나머지 어머니의 편이 되었다면 아마 두분이 이혼을 하셨을 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인들에게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고향이나 영원한 안식처 정도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는 조금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가 그런 이미지로 여겨질 때가 많다. 그만큼 아버지와 나와 의 관계는 질퍽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나는 국민학교 4학년 이후부터 줄곧 남자 선생님을 담임선생님으로 만나게 되었다. 여자 선생님의 자상한 이미지에 비해 딱딱해 보이는 남자 선생님의 이미지는 어린 심정에 다소 두려운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4학년 때 권택인 선생님을 만난 것이 나에게서 행운인지도 모른다.

원래 나는 이 선생님의 반이 아니었다. 반편성 당시 본 담임 선생님이 교내 육상반을 맡으시면서 우리 반은 한학기 동안 갈기갈기 찢어져 지내야 했다. 나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지만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사실이다. 선생님은 나의 의사를 물으시면서 본래 반으로 갈 것인지 그대로 남을 것인지를 물으셨다. 그러나 나는 선생님을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 1학기 중의 한 에피소드가 선생님과 나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든 까닭이다. 1학기 중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나는 수업 중에도 아버지 생각으로 몰래 눈시울을 적실 때가 많았다. 그런데 수업시간중

내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할 순간에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말았다. 순간 반 분위기는 묘연해졌다. 나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실재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철없이 주르륵 눈물 방울을 떨구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나를 가만히 감싸안으시면서 다독거리 주시는게 아닌가. 이 사건 이후로 선생님과 나는 스승과 제자가 아닌 부자지간 같은 관계가 맺어졌던 것이다.

이후로 나는 학년이 진급할 때마다 선생님들을 아버지 혹은 권선생님과 비교하는 습관이 생겼다. 6학년 때 만난 김원순 선생님 역시 나에게서는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셨다. 그때 우리집의 가세는 아버지의 거둬드는 실패로 급격히 기울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이런 환경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섬세히 보살펴 주셨다. 여름방학 때는 선생님의 고향집에 가서 일주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때 보낸 여름방학이 가장 추억에 남는 방학이기도 하다. 중학교를 진학하고서도 틈틈히 찾아 뵙곤 하였는데, 내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무렵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리라고 하늘을 향해 다짐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런 코흘리개 촌놈이 장성하여, 서울로 유학을 왔다. 감성적인 사춘기의 열병을 앓고 난 후 나의 사고는 다소 냉소적이고, 세상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눈으로 변해버렸다. 선생님을 대하는 것도 사무적인 관계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대학시절 나는 좌충우돌하며 모든 기성세대들에 대해 알 수 없는 반감을 품기도 하였다. 대학교수라고해서 나의 반감이 덜어질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이근삼 선생님을 알고부터는 이런 반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학부때 만난 선생님만으로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가까이서 살펴 본 선생님의 모습은 실로 경이였다.

육순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들·손자 같은 제자들과 스스럼없이 대하시는 선생님의 삶 속에서 잊혀졌던 아버지와 같은 스승의 모습을 본 것이다. 그리고 학문은 물론이려니와 삶에 대해 이모저모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의 현장 교육은 제도권 내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교육이었다. 주도(酒道)를 배운 것도 선생님을 통해 엮으며, 이기만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의 때문지 않은 삶을 통해서 엮었다.

멀게만 느꼈고, 그래서 일정 거리를 두고자 했던 선생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이제 변하게 되었다. 선생님도 평범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인간관계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답아 안으면서 과거와 현재가 접목되고,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전통이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날의 師弟관계는 자꾸만 변절되어 가는 느낌이다. 예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했는데, 주차시비로 학생과 교수간에 주먹질이 오가고, 선생님의 사진이 계단에 붙여져 학생들의 발에 짓밟히고, 계란세례를 받는가 하면, 성희롱 시비도 있었다. 아마 공자님이 살아 계셨다면 말세라고 하셨을 게다. 잘잘못을 따져서 바로 잡는 것이 상아탑의 본분이라면 이러한 사제관계가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때쯤이면 아마 술자리에서 취기를 핑계삼아 선생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용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언제쯤 일까?

아 버 지

이 은 주
서강대 대학원 신방과 졸

1989년 11월.

학교는 학생회 선거로 떠들썩했다. 후보자에 등록된 학생들은 소수가 아닌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생회를 만들겠다는 자세로 운동장이 아닌 강의실을 찾아 나섰다.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수업시간 전후의 5분을 얻어 소견을 이야기하기 위한 특별한 만남이 시도된 것이다. 시간은 11시 45분, 『서양연극사 및 형태론』 수업에서 기회를 얻었다.

도착하기로 한 시간에 늦어 수업은 거의 끝나갈 즈음 험뻑이는 숨과 초조함, 조금은 들떠있던 내게 문이 열렸다.

“미스 버나드쇼가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열린 문에 당황한 내 눈에 허허 웃으시는 선생님의 모습과 떠나갈 듯 웃어대는 학생들이 있었다. 선생님은 멋진 소개로 나의 긴장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92년 6월. 그 강의실 옆 시험장에는 눈이 작은 한 ‘계집애’가 다시 나타났고, 94년 5월 15일 대학원에서 제일 미인인 이 계집애는 선생님께 꽃을 달아드렸다. 우리들의 스승의 날에.

웃으실 때마다 좌우로 살포시 접히는 큰 눈으로 소리없이 한보따리 웃음을 안겨주시는 이 선생님, 선생님의 사랑표시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다. 그 사람의 제일 못난 구석을 제일 곱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선생님의 말씀은 체격만큼이나 군살이 없으시다. 수업은 물론이요, 연구소나 술자리, 어느 공간에서도 장황한 연설을 싫어하신다. 물론 한번 말씀하신 이야기를 서너번 반복하실 때도 있다. 선생님께서 재미있고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이다. 선생님은 신방과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모르는 이야기가 없다. 특히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농담섞어 전해주실 때 가끔 선생님의 해석이 본래의 사실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 반복되는 이야기라 할 지라도 들을 때마다 새롭다. 귀신은 속여도 선생님은 속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생님께선 모두 알고 계신다.

선생님께서서는 편애를 하신다. 아마 선생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의 조교나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의 情이야 함께 오래 지내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드는 것은 모두가 아는 人之常情으로 편애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리라. 굳이 이 편애 아닌 편애라는 평범한 문제, 선생님의 편애는 한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편애의 폭을 한정하지 않으신다는 점이다. 선생님의 관심과 애정은 여전히 제자들에 대한 열려있는 사랑으로 가르침을 통해 ‘열린 편애’의 대상을 찾으신다.

수업을 보면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진행과정에서 얻는 것이 크다. 여러 사람이 한조가 되어 공동연구를 하더라도 공동작업과 함께 개인의 느낌과 의견을 중요시 여기신다. 발표의

경우 처음에 듣고 계시다가 모두 끝난 후 그 발휘의 기회를 주신다. 대학원 자식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이다.

지난 가을 선생님과 우리들에겐 자랑거리가 생겼다.

93년 2학기 『문예비평』 수업이었다. 대학원 과정 33명이 대규모로 시작한 수업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 지 선생님께서도 원생들도 모두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발표와 토론 위주의 대학원 수업이 학부수업처럼 다수의 학생으로 진행하기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수업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달랐다. 선생님과 우리 34명 모두의 호흡과 팀웍은 서양 예술사를 넘나들 수 있는 문예비평의 신화를 만들었고, 원생 개개인의 준비와 발표, 발표 후 선생님의 有一問 唯一問은 권위와 참고서적에 눌린 원생들의 상상력과 배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교육철학은 무엇일까? 감히 짧은 경험이지만 적어보자면 고유의 창의성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배움으로 길에 찾아든 제자와의 인연을 배움의 아버지로서 자식으로 삼으실 때, 동어반복이나 고정된 흡수가 아니라 자기나름의 생각과 판단으로 소화된 학문, 완성하지는 못해도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배움을 기대하신다. 때문에 발표 끝의 질문에는 그 사람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가장 창조적 대답이 나올 질문을 던지신다. 깊숙히 베어있어야만 대답할 수 있는 『창작』의 자극은 각자 고유한 그 사람만의 독특성과 창의력으로 글과 말, 생활의 생명력이다. 이것이 그 사람만의 향내로 이어짐을 체득하게 되었다.

세상을 한없이 품고도 남을 환한 소년같은 맑은 웃음, 그러나 패인 주름만큼이나 깊은 마음의 이선생님께서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예의와 상상력을 배우게 해주셨다. 또한 배우는

우리들에게 미래의 가르침의 자리에 선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투명한 상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이렇게 막내동으로서 작은 지면을 허락받을 수 있는 것과 선생님 곁에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할 따름이다.

배움과 학문과 교육자의 길 속에서 아버지로 계실 이선생님.

선생님겐 많은 자식들이 있다. 나의 존경하는 선배님부터 귀여운 후배녀석들까지. 오늘도 그 고마움의 보답을 무엇으로 할지 갚지 못할 은혜이지만 자유로운 상상력과 절제된 글로써 시작할 수 있기를 다짐해 본다.

선생님은 나보다……

정 재 민

서강대 신방과 석사과정

선생님은 나보다 더 빨리 걸으신다

나는 걸음이 빠르다. 걸음이 빠른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고 한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나는 당장 해치워야 속이 편한 그런 부류의 인간이다. 그리고는 또 일을 찾아 헤맨다. 그러다 보니 주인을 잘못 만난 불쌍한 다리는 흑사당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어린 시절 나와 함께 걸을 때면 누나는 꼭 말하곤 했다. “넌 연애하긴 틀렸다. 그렇게 빨리 걸어다니면 어느 여자가 쫓아올 수 있겠냐?” 아닌게 아니라 누나는 헉헉거리며 달리듯 나를 쫓아다녀야 했고 지금의 내 룸메이트(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역시 언제나 보행이 아닌 달리기로 항상 나와 동행에 임해야 했다. 쉴 줄을 모르는 내 걸음은 “제발 천천히 좀”이라는 편잔을 들어가면서도 한번도 늦출 줄을 몰랐다. 그러던 내가 결국 임자를 만나고 말았다. 이근삼 선생님 ! 당신을 경보경기에 내보냈더라면 우리 나라는 진작 올림픽 금메달 하나쯤은 수월하게 건졌을게다.

학부시절 그는 그냥 어른이셨다. 행여 지나다 마주칠라치

면 엄숙히 멈춰서서 조심스레 인사를 드려야했던 어른이셨다. 대학원 생활, 당신의 조교를 하면서 악착같이 선배들을 쫓아다니다보니 선생님과 함께 나란히 걷게 될 시간이 많았다. 나의 신화는 깨졌다. 내가 달려가야 할 만큼 당신은 빠르셨다. 동행이 있을 때면 항상 들어야했던 그 말을 하고 싶었다. “제발 천천히 좀……” 당신은 매사에 이러하다. 나보다 더 걸음이 빠른 당신은 일처리도 마찬가지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그야말로 당신에게는 우스운 경구일 뿐이다. 당신은 내일 일도 오늘 하시고 내일에는 또 일을 만들어 내신다. 그리고는 번번히 ‘남을 위한 케어 (care)’를 일깨워 주신다. 나의 바쁜 걸음은 더 이상 나만의 조금증으로 남지 않을거다. 바쁘게 댄 만큼 그 만큼의 여유를 얻고 그 이상의 케어정신으로 이어질게다.

곧 나는 다시 서강에서 제일 빠른 놈이 된다. 당신이 내게 주고 가시는 그 빠른 놈의 타이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케어하라우. 거기 중요한 기야.”

선생님은 나보다 더 웃기신다

언제나 말 한 마디 하면 그냥 웃기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다. 난 얼굴이 잘 생기고 적당한 근육질의 몸매에 키도 큰 편이라서 개그맨 하기는 틀린 놈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자지러진곤 한다. 난 유머감각이 있는 놈이 분명하다. 문제는 근엄하신 선생님들께서 가끔 나의 화려한 조크를 이해 못하신다는 것이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니 말이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이근삼 선생님! 학부시절 당신은 글 잘 쓰는 글쟁이였다. 수업시간 말고는 말은 못하시는 병어리라고 생각했다. 그러

나 나는 임자를 만나고 말았다. 나의 주둥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끼를 발동해 진가를 발휘한다. 공교롭게도 당신의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덕분에 나의 유머가 고공비행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는 셈이다.

그러나 나의 고공비행은 번번히 선생님의 미사일에 추락하고 만다. 멋지게 날아오르는 나의 제트기에 입을 헤 벌리고 감탄하던 좌중의 사람들은 바람 빠진 풍선 마냥 피그르르 추락하는 나의 모습에 박장대소를 한다. 번번히 진다. 나의 조크를 이해하지 못하기는 커녕 오히려 나보다 더 웃기시는 당신 때문에 난 즐겁다. 당신의 대본을 통해 공연을 통해 만나는 것보다 더 우습다. 아마 곧 당신은 이제 그 이야기들을 계속 글로 써서 모든 이들에게 웃음과 교훈을 줄 게다.

곧 나는 다시 서장에서 제일 웃기는 놈이 된다. 당신이 내게 주고 가시는 그 웃기는 놈의 타이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냥 웃기기만 하면 안 돼. 내용이 있어야지. 거기 중요한 기야.”

선생님은 나보다 더 여자에게 인기가 있으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 생겼다는 사실은 못여성들의 타켓이 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 게다가 말 잘하고 매너까지 좋다면야 그야말로 금상첨화요, 여성들의 뜨거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어찌 살다보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가는 곳마다 내 주위에는 여성들이 들끓었고 나는 그녀들에게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디 높은 오르지 못할 산으로 자리해 있었다. 그런 내가 임자를 만나고 말았다. 이근삼 선생님! 그야말로 잘 나가던 나의 행적에 종지부를 고하

고 만 것이다. 당신은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이 솟아있는 내 머리 꼭대기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알뜰게 날 내려다 보셨다.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겠는가? 당신은 나보다 잘 생긴 것도 아니요, 목소리가 좋은 것도, 여성들에게 보이는 매너도 나보다 나을 게 없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 꽃다운 여성들이 나를 버리고 당신에게로 마음을 돌려 존경과 사랑의 꽃다발을 바치는 것이었다. 내가 아름다운 신방과 대학원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당신은 슬그머니 오셔서 “부럽다야”를 연발하신다. 그러나 그 “부럽다”는 이제 내가 해야 할 말이 되고 말았다.

내가 결혼했을 때보다 더 큰 아쉬움의 파장이 퍼지고 있다. 허, 참 당신이야말로 참말로 인기남이셨습니다. 그래 세상 어느 여자가 당신에게 꽃다발을 바치지 않으리요. 그래서 여지껏 그리고 앞으로도 사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일 것이다. 나의 룸메이트는 결혼식날 선생님이 당부하신 주례사를 너무나도 잘 받들고 있다. “밥상 머리에서 잔소리 하지마라”, “결혼 후에 친구를 잃지마라.”

단칸방에 고향친구 한 녀석이 취직 문제로 한달을 기숙하고 간 적이 있다. 허허 하시며 말씀하셨다. “우리집으로 오라우. 방 텅텅 비어 이서” 그러면서 덧붙이셨다. “옛날에 말이야. 평양사범 친구놈이 마누라까지 데리고 와서 다 같이 자고 해서.” 친구를 아끼는 그 마음을 나와 내 룸메이트는 평생 잊을 수 없다.

곧 나는 다시 서강에서 제일 멋진 놈이 된다. 당신이 내게 주고 가시는 그 멋진 놈의 타이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사람을 잃지 마라우. 거기 재산이야. 그럼, 거기 중요한기야.”

첫조교

정 재 우
서강대 신방과 석사과정

이 선생님의 관한 이야기를 하자니 무엇을 할까 망설여졌다. 내가 선생님을 안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과 생활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생님께서 내가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핑계로 못쓰는 글이지만 몇자 적어 보려고 한다.

내가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였다(선생님은 당시 나를 모를 때 였다). 나는 삼수를 한 후 대학에 들어왔다. 삼수를 하는 동안의 시간들 속에서 나는 몸과 마음 모두 지쳐 있었다. 내 동생과 같은 나이의 아이들에게서 거리감을 느끼며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신일고등학교 연극반 후배들에게 전화가 왔다. 10월에 있을 연극반 정기 공연 연출을 해달라고. 작품은 정해졌다고. 약간의 머뭇거림이 있었지만 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지친 나의 심신을 충분히 회복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다.

후배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일 고등학교 연극반실에 갔다.

오랫만에 간 학교는 정겨웠다. 후배들이 내게 준 대본은 이근삼선생님께서 쓰신 「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였다. 난 그때까지 이근삼이란 작가를 알지 못했고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난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도서관을 뒤졌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선생님이 희극 작가라는 사실이었다. 대본을 읽으면 읽을수록 맛은 났지만 그것을 무대 위에 형상화시킬 자신이 없었다. 첫번째 이유는 내가 희극을 무대 위에 잘 형상화시킬 자신이 없었다. 그 다음 이유는 고등학생들이 연기를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나의 생각이었다. 마지막으로 신일고등학교 연극반의 전통은 비극 위주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결심을 했다. 이 작품을 비극으로 만들기로.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서 공연을 하게 되었고 반응도 좋았다. 난 간간히 후배들이 하는 연기를 보면서 이 장면은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쭙잖게 희극을 만들기 보다는 비극을 만든 것이 잘하지 않았나 생각도 된다. 왜냐하면 선배형들이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비극적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선생님과 작품으로 만난 이후 난 내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겪어 신방과 대학원에 들어오게 되었다. 신년하례식때 난 선생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직접 볼 수가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신입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청해 주셨다. 그런 선생님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와 같았다. 그 이후 선생님과 나의 만남은 1년의 단절이 있었다. 선생님은 은퇴전 6개월간 휴가를 다녀오셨다. 그로 인해서 나는 1학기 동안 선생님을 뵈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2학기때는 전공필수 2과목을 들었고 선택과목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영상비평」을 듣게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문예비평」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셨지만 난 듣지 않았다.

선생님과 나의 새로운 관계는 94년 1학기가 시작되면서였다. 당시 선생님의 조교는 재민이었는데 재민이가 조교장이 되면서 학과장선생님의 조교가 되어 버렸다. 선생님의 조교 자리가 비게 되었다. 선생님의 조교가 되기를 바란 학생이 두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 어떤 이유인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던 내가 선생님의 조교가 되었다고 재민이가 알려왔다. 재민이 스스로가 강력히 추천했으니 잘 모시라는 말과 함께. 그래서 나는 3:1의 경쟁율을 뚫고 선생님의 마지막 조교가 되었다. 이것이 선생님과 나의 실질적인 만남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 만남 조차로 대단한 인연 같다. 왜냐하면 나는 휴학을 할까 고민하던 중이었다.)

한학기를 선생님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선생님의 성격중 좋은 점 몇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는 선생님은 여유가 있어 보인다. 선생님의 성격이 급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선생님의 급함은 평소에 나타나지만 선생님의 여유는 수업시간에 나타난다. 조교로서 나는 선생님의 학부강의를 들었다. 학부생들의 조별 발표를 선생님은 뒷좌석에 앉으셔서 일일이 지적할 상항을 적으신다. 그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을텐데 선생님은 학생들의 말을 끊지 않으신다. 그들의 발표가 다 끝이 나서야 선생님은 말씀을 시작하신다. 이러한 수업방식은 선생님의 대학원 수업에서는 더 더욱 잘 나타난다. 선생님은 대학원 학생들의 중구난방식 토론을 일일이 들으신다. 웬만하면 어줍잖은 이야기들을 끊고 논의에 참가할 수도 있겠으나 여간해서는 이야기의 흐름을

끊지않으신다. 이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절대로 급한 성격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은 선생님의 힘이다. 선생님은 힘이 있으시다. 내가 선생님을 통해서 느낀 힘이란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 넣는 힘을 의미한다. 난 글재주도 없지만 말재주도 없다. 선생님께서 나를 처음 보았을 때, 매우 약하게 보셨다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내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 내가 선생님의 과목에서 발표를 했을 때, 그리고 학기말 레포트를 썼을 때 선생님은 격려를 해주셨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선생님의 일상생활인 것 같다. 하는 일이 잘 안된 제자들에게 선생님은 언제나 먼저 불러서 용기를 주셨다.

이제 선생님은 정년 퇴직을 하신다. 그 덕에 나는 선생님의 마지막 조교가 되었다. 재민이는 자기가 선생님의 마지막 조교인 줄 알았는데 아쉽다고 하고 나는 그것을 자랑삼아 혹은 재민이를 약 올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재민이는 요즈음 더 약올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선생님의 첫조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정년퇴직을 하시지만 명예교수로서 다시 학교에 출강하실 예정이고 나는 다시 선생님의 조교가 될 것이다. 선생님은 명예교수로 첫 강의를 하실 것이고 난 첫 명예조교로서 일을 시작할 것이다. 선생님을 모셨던 수 많은 조교 중에서 나와 같은 조교가 또 있을까? 마지막 조교 이면서 첫조교가 되는.

까르페 디엠

조 기 완

서강대 신방과 석사

오래전에 본 영화중에서 ‘인생을 즐기라(carpe diem)’는 대사가 생각난다. 영화를 본 후 좋은 느낌도 받고 남에게 유식한 척 자랑도 하고 싶던 나에게는 참 멋진 말로 들렸다. 특히 어투에서 느껴지는 경쾌함과 무언가 말속에 내재되어 있는 듯한 알쏭달쏭한 느낌이 고민에 찌든 철학자의警句라기 보다는 인생을 뒤돌아 보는 노인이 손자에게 들려주는 듯한 따뜻한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생각해 보니 인생을 즐기는 방식도 다양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로 즐길 것이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통해 인생을 즐기듯이 인생을 즐기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양해서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즐기라’는 말같이 정의하기 어려운 말도 없을 뿐더러 참으로 무책임하기까지 한 말이 없는 듯하다.

내 주위에는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 이근삼선생님이다. 창피한 말이지만 나는 선생님같은 연극인은 물론이고 연극자체에 대해서도 무식하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이다. 선생님을 처음 뵈기 전까지 평소 TV만 본다고 구박했던 우리 누

나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을 나는 뵙기 전까지 잘 모르고 있었으니 말이다. 어쨌든 나는 그런 무식함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대학원 내에서 선생님과 관계야 뭐 크게 내 세울 것도 없고 단지 조교로 옆에서 선생님을 보면서 느낀 감정밖에는 없을 뿐이다. 그러나 그런 선생님이 나에게 인생을 즐기는 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선생님이 인생을 즐기는 법을 쓰자면 과거부터 우리 나라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인 신언서판(身言書判), 즉 생김새, 말씨, 글씨, 판단력을 중심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 선생님에 대해 적어 보고 싶다. 사실 웃어른에 대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무척 실례가 되는 일인지야 알지만…….

먼저, 선생님의 생김새는 상당히 재미(?)있으시다. 키는 전봇대같이 꼳꼳하고 걸음걸이는 SF영화 로봇트가 명령을 받고 걸어가는 것 마냥, 빠르고 당당하게 걸으신다. 단지 머리가 약간 벗겨지시고 이마에 남겨져있는 인생의 족적과 부드러운 웃음을 통해 선생님이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선생님의 자태는 어디서나 따뜻한 느낌을 준다. 언젠가 우연한 기회에 여러 선배와 함께 선생님을 모시고 충주에 놀러간 적이 있다. 거기에 도착해서 우리는 충주댐에 갔는데 그때 선생님은 손금을 보는 기계에 유난히 관심을 보이셨다. 선생님은 우선 천원짜리 지폐를 집어넣으시고 자신의 손금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신 후 그 결과가 종이로 나오자 그걸 읽어 달라고 나에게 주셨다. 선생님은 한쪽에서 조심스레 귀를 기울이시며 활짝 웃고 계셨다. 나는 그 내용을 들으시는 선생님의 표정을 보며 참으로 아이들과 같은 천진함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밝은

선생님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인간다움이란 오래된 개나리 꽃이 봄날에 활짝핀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선생님의 말씨는 가끔 심한 이복 사투리를 쓰시는데 솔직히 선생님의 이복 사투리는 상당히 알아듣기가 어렵다. 언젠가, 대학원 종합시험을 볼때 선택과목으로 선생님의 「예술 세미나」를 보기로 하고 선생님께 전화를 드린적이 있다. 그때 전화상으로 시험에 대해 여쭙어 보았는데, 선생님의 답변은 상당히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야 구거 말이야 로 시작된 말은 알각지 로 끝나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직접 대면을 했을 때는 표정이나 제스처를 통해 대강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이걸 모습을 뵈 수 없으니 난감하기 그지 없었다. 이는 단지 전화잡음때문이 아니었다. 간간히 쓰시는 영어는 잘 들리는데, 오히려 우리말은 상당히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그때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기도 뭐해서 일단 전화를 끊은 다음 그동안 들은 단어들을 최대한 조합해 보았다. 그런데 생각나는 단어들을 엮어보니 이걸 이전 수업인 「예술과 사회」수업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할수없이 다시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혹시 「예술과 사회」수업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셨냐고 묻자, 선생님도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예술과 사회」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셨다. 이날의 해프닝은 결국 웃고 넘어갔지만 이후 내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들일 경우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만 했다. 그래도 선생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것은 알아듣기 어려운 사투리 속에 담겨있는 따뜻한 정을 느낄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선생님의 글씨에 대해 말해보면 선생님의 글씨는

솔직히 유치하다.(글이 유치하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 글씨체가 유치하다는 것에 유의할 것)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중학교 1학년때까지 나는 글씨를 왼손으로 썼다. 하도 주위에서 비웃어서 그때부터 글씨를 오른손으로 쓰려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금의 악필(惡筆)이 완성되었다. 어쨌든 내 글씨는 대단히 유치하다. 유치하다는 표현은 몸이나 사고는 커졌는데 유독 글씨체만은 국민학생의 국어노트를 못 벗어나고 있어서 쓰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선생님의 글씨체는 참으로 동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글씨에 담겨있는 사상에 있어서도 동질감을 느꼈으면 하지만 이점이 나로서는 너무도 처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글씨체만 동질감을 느끼면 뭐하나, 글씨에 담긴 내용이 비슷해야지!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판단을 보면, 보통 이선생님을 뵈는 사람들은 선생님에 대해 자유주의자라는 말을 많이 쓴다. 특히 선생님의 자유주의 정신은 비단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항상 위트와 재치로 모든 술좌석을 즐겁게 해주시면서도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려 한다.

언젠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여러 조교들과 당시 사회과 학대 학장이시던 선생님이 참가하신 적이 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술자리에 참석하신 이선생님은 어느새 특유의 재담으로 자리에 있던 학생들의 마음을 끌었다. 술자리는 점점 무르익었고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친구가 선생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선생님은 오히려 웃으시며 의외의 답변을 하셨다.

건강 구거 뭐 염려한다고 되는지 알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말야 건강해지려고 산에 올라가 매일 약수 뜨러 다니는

사람있는데 구사람말이야 약수 뚜러 가다 죽었지. 구거 뿐인지 알아. 평소 안하던 줄넘기를 한다고 말이야 매일 삼백번씩 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도 줄넘기하다가 죽었지. 이백 오십번인가 하다 말이야. 거 말이야, 건강생각한다고 평소 안하던 거 한다고 되는지 알간!” 나는 순간적으로 웃어야 할지. 심각한 표정을 지어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태어나서 이런 식의 대답은 처음 대해보기 때문이다 다른 친구들도 웃음을 참으며 괜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일로 선생님은 한때 줄넘기와 약수터로 불려지기도 했다.

이와같이 선생님의 인생을 즐기는 방식은 자신만이 즐기는 방식이라기 보다 항상 남과 함께 즐기는데에 있다. 따라서 선생님이 계신 자리는 선생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설령 그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즐겁게 된다. 나는 이렇게 서로가 즐길줄 아는 것이 인생의 멋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그런데 나는 그런 인생의 멋을 자유주의자라고 부르기가 요즘 와서 좀 꺼려진다. 언제부턴가 나는 XX주의자, 또는 XX리즘(-ism)이라는 말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살아서 활발히 움직이는 사물에 말뚝을 박아 놓고 경계를 정해 놓아 오히려 대상자체를 억압하는 느낌이 들어서이다. 리버럴리스트(Liberalist)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반드시 자유로와야 자유주의자가 되는 강박관념이 들지는 않을까? 따라서 나는 누구나 항상 만나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서로 즐길줄 아는 선생님을 자유주의자라는 말보다 까르페 디엠 정신을 가진 분으로 부르고 싶다.

선생님은 멋있으시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위트와 여유를 가지고 있기에 더욱 멋있으시다. 그리고 쩡그린 얼굴을 절대

안보이시면서도 자신의 일을 너무도 잘해 내시는 까르페 디
엠의 선생님이 매우 부럽다. 나도 한수 배워야지!

선생님의 졸업

조 은 기
서강대 강사, 언론학

이근삼 선생님께서 올해 여름 서강을 졸업하신다. 공식적인 용어로는 ‘정년퇴임’이라고들 하나, 별로 실감나지 않는 나는 그저 선생님께서 지금까지의 여느 선배들처럼 하기졸업을 앞둔 졸업예정자라는 생각이 든다.

서강에서의 선생님 학번은 68학번이니까 선생님께서는 꽤나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신 셈이다. 30년 가까운 긴 세월, 선생님께서 서강에서 행하신 가르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지난 몇년동안 선생님과 함께 했던 즐거운 배움의 날들이 내겐 분에 넘치는 행운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움의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선생님의 졸업을 생각하면 나는 마치 전근가시는 담임선생님을 뵈는 어린아이 꼴이 된다.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라도 제자보다 일찍 졸업하시는 선생님이 섭섭하고 서운할 뿐이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나는 선생님께서 대학교수가 아니라 선생님 표현대로 하자면 ‘소학교 훈도’를 하셨더라도 좋았겠다는 생각을 여러번 한 적이 있다. 단지 어린아이

들의 학업만이 아니라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기고 보살펴야 하는 국민학교 담임선생님처럼,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꼭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엄격하고 어려운 스승이라기 보다는 한없이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이 같은 분이시다. 선생님만큼 세심하게 제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또 계실까? “아무개는 요즘 독감 때문에 고생이 심하더라, 아무개는 어디로 이사갔더라, 어디에 취직한 아무개는 요즘 어떻게 지낸다더라……” 선생님을 뵈면 동문들의 소식을 환하게 알 수 있다. 누구든지 선생님을 뵈면 살다보면 으레히 생기기 마련인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편하게 하는 까닭이다. 선생님이 아시면 어찌 생각하실 지 모르겠으나,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선생님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이 아닌 선생님을 가까이 모신 적이 있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느끼는 공통의 느낌일 것이다. 대개의 경우 학생과 선생 사이에 있기 마련인 묘한 긴장과 거리감을 오히려 가장 연장자이신 선생님에게 거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선생님의 보이지 않는 배려가 컸기 때문이리라.

선생님을 편하게 뵈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크게 기쁜 일이지만 가끔은 그 때문에 본의 아닌 결례를 하는 수도 있다. 언젠가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선생님을 모시고 닭갈비에다 동동주를 마셨던 날이었다. 그리 술을 많이 못해서 조금만 마셔도 쉽게 취하는 편인 나는 그날 따라 몇잔 마시기도 전에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만 깜박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선생님 무릎을 베고 한 시간이 넘도록 잠을 잔게 아닌가. 무안하고 황망하여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나를 깨우지 않은 주위사람들을 속으로 원망하

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랐니? 이제 술 쟀지, 맥주 마시러 가자”

제자가 스승 앞에서, 더군다나 스승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니. 물론 그 일은 스승을 대할 때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긴장마저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전적인 나의 불찰이지만 한편으로는 제자로 하여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승을 대하게 만드신 선생님의 책임(?)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잠깐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2차 가자는 선생님 말씀이라니. 아마 나는 그날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선생님께서도 그날 일을 기억하시는지 얼마 전 나의 결혼식 주례사를 하시면서 “신랑이 말을 안 들으면 동동주를 먹이라”는 비법(?)을 신부에게 전수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이렇듯 자상하고 격의 없는 스승의 성품은 그분과 함께 했던 식사나 술자리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술을 못한다는 핑계로 선생님을 자주 모시지 못했던 나이지만 가끔씩은 선생님과 함께 음식과 술을 같이 했는데, 나는 아직도 선생님이 특별히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통 짐작도 할 수 없다. 음식이나 안주가 나와도 정작 당신은 거의 드시지 않으면서 우리들 보고는 이것 먹어보아라, 저것 먹어보아라 하신다. 나는 이제껏 선생님께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식탐도 심한 법이라는데 그 말처럼 선생님께서는 거의 욕심이 없으시다. 선생님의 성품은 당신이 이따금 즐기시는 냉면육수와 같다. 잔맛없고 담백한 학교 후문 뒤에 있는 을밀대 냉면육수처럼 선생님의 성품은 검박하고 정갈하다.

항상 얻어먹기만 하는 우리들이 어찌다 돈이 생겨, 또는

취직한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식사대접하기를 원하면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그렇게 대견스러워 하실 수가 없다. 그렇지만 대개 그런 자리에서 선생님께서는 자리가 거의 끝날 때 쯤 어김없이 화장실에 다녀오신다. 말 그대로 우리들이 술값 낼 기회를 ‘원천봉쇄’하시는 것이다. 어쩌다 선생님의 전략을 미리 간파한 우리들이 선생님보다 앞서서 화장실에 다녀오면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미안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니들이 무슨 돈있니, 백수들이” 제자들의 주머니 사정까지 염려하시는 소학교 훈도 같은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는 이렇게 술자리까지 이어진다.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한 배움의 시간들은 즐겁고 재미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편식하기 쉬운 우리들의 시야를 폭넓게 키워준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주로 커뮤니케이션과 예술, 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대학원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예술과 사회’ 과목은 대학원 수업에서 오랫동안 과목내용이 변하지 않은 인기 있고 전통 있는 과목이었다. 나의 경우는 그 외에도 레이몬드 윌리엄즈와 존 피스크를 본격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연륜이 있는 학자인 것을 보면 아마 선생님께서 비교적 그들과 가까운 연배에 계셨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셨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의 수업방식은 요약본에 길들여진 우리들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었다. 윌리엄즈의 경우 우리가 10권 가까이 되는 그의 전 저서를 읽어야 했고, 피스크의 경우 대표적인 저술 한 두권을 대단히 꼼꼼하게 읽어오기를 원하셨다. 수업은 맨 처음 시간에 선생님께서 대강의 내용을 요약해주시면 학생들은 할당된 논문이나 책을 읽고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학생들의 발표가 끝나면 그날의 주제에 대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자유 토론이 이어졌는데 그 시간에도 선생님의 자상함은 유감없이 들어나기 마련이다.

수업시간의 선생님은 주로 이야기를 들으시는 편이시다. 그것은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을 형성해가기를 바라시는, 드러나지 않는 선생님의 의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엉뚱한 곳에서 헤메기 쉽고,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기 십상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선생님의 수업방식은 가르치는 사람의 자기절제가 없으면 행하기 힘든 교습방법이다. 내가 반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를 가진 이후에 나는 그 점을 더욱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으레히 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마련인 토론에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는데, 어떤 때는 직접 모든 학생들을 지명해서 각자 느끼는 바를 기탄없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것은 강의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고른 관심을 주시려는 선생님의 숨은 배려였고, 또한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준비해야만 하는 우리들로서는 더 없이 좋은 공부가 되었다.

그렇게 학생들의 말을 다 들으신 연후에야 선생님께서는 수업내용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대부분의 경우 선생님께서는 책의 내용을 반복하시지 않고, 그보다는 주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나, 또는 당신 스스로의 경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게 하시거나, 혹은 그와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신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책의 내용과 함께 왜 저자가 그렇게 생각

하게 되었는지, 즉 저자의 사유의 뿌리를 더듬어 보는 훈련을 강조하셨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에서는 저자의 약력이나 저자가 활동했던 사회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그와 같은 선생님의 가르침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새롭게 접해야 하는 박사과정에서의 나의 공부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선생님의 수업은 비록 그 내용이나 양에 있어서는 대학원 수업임에 틀림이 없었으나 실제의 진행은 국민학교 1학년 교실의 사회시간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하겠다.

선생님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대학교수가 아닌 극작가로서의 선생님이다. 명성으로만 따진다면야 대학교수로서의 선생님은 명실공히 이 나라 연극계를 대표하는 극작가로서의 선생님이 멀게 아니다. 그것은 어쩌다 학교 밖의 공간에서 ‘유명한’ 선생님을 접하게 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다. 가끔씩 선생님 덕에 공짜로 연극구경을 갈 수 있다는 것 말고는 극작가로서의 선생님이 어떠신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극작가로서의 선생님의 모습을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다. 희극작가로서의 선생님의 풍자와 해학은 특히 선생님께서 마땅치 않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을 때 유감없이 발휘된다. 선생님께서는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놓고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법이 없고 반드시 재미있는 우스개 소리로 돌려 말하신다.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마땅히 꾸지람을 들어야 할 사람이 혹시 불편해 하지는 않을까를 헤아리시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하실 말씀을 나름대로 다 하시는 선생님의 지혜가 숨어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솜방망이로 피나게 회초리를 치실 수 있는 재주

를 지니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들은 처음엔 선생님의 의중을 잘 모르다가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하고 무릎을 칠 때가 많다.

선생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거슬러 생각해보니 참으로 기쁘고 즐거웠던 배움의 날들이었다. 더없이 자상하고 따뜻한 스승과 더불어 몇년이나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가. 아마 이제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자주 뵙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까지 졸업한 여느 선배들처럼 말이다. 나는 선생님의 졸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졸업했던 다른 선배들에게 느꼈던 것 이상의 섭섭함과 서운함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졸업한 선배들을 지금도 내가 변함없이 보는 것 처럼 선생님과 함께 할 배움의 날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선생님의 ‘소학교 훈도’같은 사랑 역시 변함없이 지속될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생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나에게 이근삼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들

한 창 완

서강대 대학원 신방과 졸

이근삼스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이근삼 교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느껴왔던 감정들이 평상시 주위 상황에 발현되는 담론적인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교수님은 말씀을 최대한 억제하신다. 이는 필요한 말씀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불필요한 정보는 입력을 거부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교수님의 대화에는 쌍방향 의사소통보다는 일방향 의사소통이 일반화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러한 불균형적 현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수님의 곧은 학자적 양심과 스승으로서의 자애로움, 그리고 누구보다도 부지런하심에는 어떤 제자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상 빠르면서도 유머가 일반화 되어 있는 말씀과 늘 먼 곳을 응시하시고 큰 키로 성큼성큼 걸어 나가시는 교수님의 일상은 학문에 대한 열정과 패기를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배움의 시작이었다. 전날 제자들과 늦은 시간까지 동행하시고도 다음날 가장 먼저 학교에 나오셔서 전날의 안부와 당일의 등교여부를 체크하시는 모습은 젊은 제자들에게 자기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강인

함이었고, 해외여행 때마다 비행기 출발시간 1~2시간전 공항에 도착해야되는 철저함은 교수님의 모든 일처리 방식을 느끼게 해주는 완벽함이며, 이근삼스러움의 대표적인 예이다.

3~4개월 준비하고 연습했던 연극공연이 끝나고 세트가 아직 남아있는 무대 위에 혼자 앉아 텅빈 객석을 바라보노라면, 적막함과 고독감이 나를 엄습해 오는 것 보다는 푸근함과 새로운 의욕이 성취감과 함께 내게 몰려오곤 했다. 그 때 나는 이근삼스러움을 느낀다. 힘든 일상뒤에 남아있는 어둠은 곧 또 다른 새벽의 전주곡임을 교수님은 항상 강조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근삼스러움은 또 다른 일면을 동시에 강조한다. 앞만 보고 뛰는 제자에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항상 자신의 주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선배가 되기를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이근삼스러움인 것이다.

대학교 2학년 1학기, 「연극개론」 수업때 일이다. 교수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기 위해서 보다는 좌석의 여분이 남지 않았던 관계로 나는 교수님의 바로 앞에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 맨 앞좌석을 지정받게 되었다. 강의가 한참 진행되던 4월초경, 나는 내 자신의 일을 대강대강 해대던 그 당시의 습관대로 강의교재 뿐만 아니라, 필기도구와 노트도 없이 수업에 임하고 있었다. 강의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교수님은 벼락같이 나에게 화를 내셨다. 확신하건데, 그 당시 교수님의 역량수준은 최고수위였고, 그날 이후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을 정도였다. 강의에 참가하는 학생이 교재와 필기도구조차 지참하지 않고 어떻게 강의에 들어오냐는 것이었다. 그리고서 교수님께서서는 대학생이 되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고 확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

어야 한다며, 연극론 보다는 인간론에 대해 한참동안 강의를 해 주셨다. 그 강의이후 나는 교수님을 똑바로 뵈 수 없었고 학교에서 교수님과 마주치면, 가슴에 탕크가 군단규모로 지나가는 충격을 느끼며, 내 자신의 일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 연극개론 수업의 연출노트를 교수님께 제출하고 과분한 칭찬을 받은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지금도, 강의를 듣거나, 보고서를 내거나, 어떤 글을 쓸때마다, 그 때 교수님의 꾸지람은 항상 나 자신을 확인시키고, 책임지게 하는 강력한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이근삼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지난 여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선배가 교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날 위로한 적이 있었다. “교수님은 아들을 잃었으나, 너는 아버님을 잃지 않았느냐, 물론 어느 상황이 더 낫다거나 낫지 않다는 문제가 아니라, 장성해서 아버님을 잃은 슬픔만큼이나, 장성한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사실 교수님은 나보다 더 장성한 아들을 사고로 잃으셨다. 「작은 신화」라는 그 아들의 유고집에서 교수님의 글을 읽고, 한참동안 책을 덮지 못하던 기억에 다시 그 책을 꺼내 읽어 보았었다. 그리고는 또 한참을 생각했다. 이제는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지만 내 아버님도 교수님처럼 늘 아픈 마음으로 이 못난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늘에서도 무척 힘드시리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일상이 힘들때마다 아버님이 더 보고싶어 진다. 그러나, 철없는 녀두리라도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아버님이 필요할 때 나도 모르게 교수님을 찾게 된다. 물론 힘든 나의 생활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교수님은 다 아시는 듯 일상적인 이야기와 진실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 때에 내가 다시 얻게 되는 힘

은 바로 이근삼스러움이다. 교수님은 또 항상 말씀하신다. 神이 있다면 그는 참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모든 걸 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항상 최선을 다한 후에는 겸손하고 감사하라는 승자로서의 이근삼스러움이다.

학부 생활에서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열심히 사는 생활과 최선을 다한 후에 얻는 자신감이었다. 나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군생활도 해내었고 대학원 생활도 시작할 수 있었다. 대학원 생활에서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내 자신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세상사는 휴머니즘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은 가장 인간다움에 진실할 수 있을 때 가장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다. 내 주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문제의식을 구체화 시키는 순간에 논문은 시작되는 것이며, 그러한 논문은 바로 계속적인 긴장상황에서만 좋은 글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구체적인 문제의식이 결여된 편안한 생활태도로는 절대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없다는 가르침은 이제 학문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조되는 진정한 이근삼스러움인 것이다.

교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시 듯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지도 또 해주시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것을 뒤에서 챙겨주시며, 많은 것을 원하시는 욕심꾸러기라고도 볼 수 있다. 한 제자라도 세심한 것까지 마음을 쓰시는 교수님의 곁에는 모든 제자들이 감사하는 사모님이 계신다. 나는 이근삼스러움의 근본적인 원천은 사모님의 내조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한다. 바로 사모님의 편안한 웃음을 대할 때 어느 누구나 진정한 이근삼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이근삼스러움을 나의 생활에서 느낄 때마다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긴다. 그것은 이근삼스러움의 일상화인 이근삼이즘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 내 후배들도 바로 이러한 이근삼이즘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이 되고, 고뇌하는 대학인이 되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 늘 감사할 줄 아는 성실한 세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이근삼이즘을 내 아는 모든 후배에게 전하고 싶다. 그리고 바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이 또 다른 이근삼스러움을 느끼는 순간이며,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밝히고 싶다.

제 2 부

여러 이웃들

다산관에 같이 오기까지

김학수, 박상태, 유재천, 이상우

무대 뒤의 사랑방

김동욱, 김진태, 이강백, 이재현, 정복근, 정진수, 최명수

순간에서 영원으로

권일송, 신경수, 이상오, 이유정, 이태동

길동무

김 학 수

서강대 교수, 언론학

20년 이상이나 연배가 높으신 분을 놓고서, “길동무”라고 표현하면 상당한 실례가 됨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이근삼 선생님을 논할 때 그 외 다른 적절한 말을 찾아낼 수가 없다. 학문(그는 자주 ‘항문’이라 주장했다)의 길이든, 연극의 길이든, 아니면 먼 외가로 이어지는 시골길이든, 선생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옆에 누가 있으면 언제나 다정한 길동무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우리네 학과를 창설했기에 학과내 여러 교수들 중 가장 자연연령이 높으면서도 오늘까지 가장 젊은 정신년령을 유지하고 사는 분이라고나 할까. 선생님 만큼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자주 술잔을 기울이셨던 교수가 아마 서강대 안에서는 없을 것 같다.

어차피 나그네의 길인 인생에서 길동무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뭐니뭐니 해도 우선 술잔을 나눌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삶의 굽이길에는 간혹 피곤이 찾아오게 마련이고, 그럴 때마다 쉼터가 있어야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술잔을

권하는 길동무를 만나야 진정한 쉬어감이 이룩되는 법이다. 그 면에서 선생님은 타고난 길동무라 할 수 있다.

나는 한때 선생님의 댁으로 가는 길을 거쳐서 나의 집을 가야 했던 적이 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음주운전을 꽤 허용 하던 시절이다. 2차까지 하고 나면 대개 운전대가 마치 기름을 먹은 것처럼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이 취중(醉中) 운전자의 감각이다. 그래도 안전하게 모셔 드리려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선생님 댁에 도착하면, 필연코 그냥 나오지 못하게 한다. 또 한잔을 기울이고, 오히려 나의 집사람에까지 전화를 해주시는 친절을 베푼다. 그렇게 해서 나의 귀가길은 길동무 덕분에 기름칠 해놓은 아스팔트를 달리는 기분일 때가 간혹 있었다.

술잔의 기준만으로 보면, 사실 우리 학과에는 길동무 자격을 충분히 갖춘 또다른 두 분의 원로교수님들이 계신다. 그러나 선생님을 따라오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그 분들이 너무 자주 술잔을 기울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자기처럼 자주 먹지 말고 (선생님께서도 비슷하게 잦은 회수로 드시는데도), 자기처럼 적당한 양을 마시고 (또한 비슷하게 엄청난 양인 것 같은데), 절제할 줄 알아야 많은 일 할 수 있고, 오래 사실 수 있다나. 안주라곤 땅콩 하나 놓고서, 하신 말씀 되뇌이시고, 재채기 하기 시작하면 이제 집에까지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데, 그 이하로 끝내는 적을 솔직히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도 다른 교수님들의 앞날 걱정을 해주실 만큼 되어야 그래도 진정한 길동무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길동무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애연가라야 한다. 그래야 나 그네길에서 담배를 서로 권하거나 불붙이기를 도와주면서 나놈의 역사를 만들지 않겠는가. 그 점에 관한 한, 선생님은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 오늘날 같이 금연장소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세상에서도 선생님은 일단 앉으시면 담배부터 꺼내고, 또한 권하기를 잊지 않으신다. 나와 같은 금연가의 눈치는 아예 무시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즉각 숨겨놓은 재털이를 대령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담배재가 최소한 탁자 위의 화분 속에 쌓이지는 않을테니까. 자욱한 연기 속에서 선생님의 이야기꺼리들을 듣고 있노라면 흡연시대의 마지막 길동무를 만난 기분이다.

길동무의 마지막 조건은 적어도 동행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줄 줄 아는 재주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지루하고 귀찮아서 긴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없다. 선생님의 입에 잘 오르내리는 이야기 중의 한 토막은 “한국의 현실은 너무나 웃기는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따로이 희극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길동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실보다는 더 웃길 줄 알아야 한다는 논리가 필요하다. 선생님의 작품들이 인기있는 것은 바로 그런 한국의 현실이 안고 있는 웃음 이상으로 웃겨주는 데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선생님은 길동무의 자격을 넘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인간 이근삼을 만나본 사람은 그의 작품보다 그가 더 웃기는 재주를 갖고 있음에 놀라게 된다. 좀 외람되게 표현해서 내가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 나는 선생님이 말더듬

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한두 문장으로 절제되어 나오는 말씀에 모순의 해학(諧謔)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릴락말락하는 선생님 말씀의 끝마디는 무척 따라잡기 힘들었다. 간결한 한 말씀에 서론, 본론, 결론이 모두 나타나게 하는 재주, 그것이 바로 실물 이근삼 선생님의 “웃기는” 모습이다.

한참이나 연하인 내가 선생님을 놀릴 때도 간혹 있다. 그 때에 내가 주로 거론하는 것은 선생님의 손으로 직접 쓴 원고글씨이다. 인쇄기가 선생님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워낙 일제시대에 성장하셔서 한글 쓰기를 제대로 훈련하지 못한 탓이라고 한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생님의 글을 볼 때마다 우리 아들의 서툰 글씨를 보는 것 같아 읽어내려 갈 때 상당히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원고지의 칸 안에 글자가 안정되게 자리잡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글이 인쇄되어 나올 때는 얼마나 이쁘게 바뀌어 있는가. 인쇄기가 없었다면, 선생님이 작가가 되실 수 있었을까. 언제나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의문이다.

이제, 선생님이 갖고 있는 길동무의 자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나 길동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래, 연극이니 문화니 하는 것들은 인생의 길동무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은 하시는 일에서부터 인간 이근삼에 이르기까지 타고난 길동무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아니 서강대학이 선생님께 가장 감사해야 할 것도 그런 길동무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한다. 각박한 세상살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밥벌이 중심의

공부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학생들은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현실보다 더 웃기는 연극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길동무가 될 줄 아는 지혜를 익힐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교실에서 그리고 신촌 로터리의 선술집들에서 직접 선생님의 생생한 길동무의 연기를 체험할 있었다는 것은 지난 날의 우리 학생들이 받았던 복(福)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의 은퇴에 가장 아쉬워하는 사람 중 하나는 나의 집사람이다. 그녀는 그나마 선생님의 공짜표 얻어서 부부 나들이 할 수 있었던 기회마저 사라졌다고 아우성이다. 선생님이 곁에 계셨기에 우리 부부 또한 연극이라는 길동무를 때때로 만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기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길동무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는가를 곰곰히 생각해볼 양이다. 선생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빌면서…….

人間 李根三 선생님

박 상 태
서강대 교수, 사회학

이근삼 선생님 같은 학계, 예술계, 언론계에 수십년 간 두루 널리 알려진 분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망설여졌다. 그것은 그분을 조금이라도 오해하는 군더더기 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같은 과에서 봉직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3년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뵈고 자리를 같이 했던 동료교수로서 선생님의 영광스런 정년퇴임과 인생의 새 출발 계기를 맞아 간단히 선생님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느낀 면모를 소개하는 것 또한 필자로서는 큰 영광이기에 이 글을 쓴다.

첫 만남

필자는 1960년까지의 우리 나라 소설이나 시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부하나 연극이나 희곡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던 멧없는 사람이었다. 솔직히 말해 13년 전까지는 이근삼 선생님에 대해 몇차례 이름만 들었을 뿐 전혀 몰랐다. 필자가 키크고 멋있어 보이는 이근삼 선생님을 처음 뵈게 된 것은 1981년 햇빛이 강하게 쏟아지던 어느 날 서강대학교 총



1990년 2월 진시황릉 앞에서 이선생님과 함께.

장실에서였다. 그 해 서강대학교에 사회학과가 신설되고 필자가 최초의 신입교수로 결정되었다. 사회학과와 그 학문의 내용상 가장 인접한 학과인 신문방송학과의 학과장으로서 신입교수로 내정된 필자의 인품을 심사하기 위해 이 선생께서 참석했던 것이다.

그 날 필자는 이근삼 선생님의 지적 때문에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그 조건은 안경을 바꿔 쓰라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감광성(感光性) 안경들을 많이 쓰던 시절이었다. 필자도 당시 그것을 썼는데, 그것이 밝은 곳에서는 색이 진해져 눈을 보호하지만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한참 후에야 다시 색이 밝아지므로 본인은 큰 불편을 느끼지 않으나 본의 아니게 한참동안 시커먼 안경을 쓰고 있게 된다. 장이동으로

이사도 해야 되는 등 돈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형편에 안경 바꾸는 일도 또 하나의 부담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선생님의 큰 배려였음을 곧 알게 되었다. 필자의 비교적 어두운 인상을 밝게 해준 것이다. 즉 남들이 보기에 시각장애인처럼 보이는 것을 미리 방지해 준 것이다. 그 후 나는 딱딱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주로 만나다가, 큰 형님처럼 돌봐 주는 키크고 멋있는 극작가 이근삼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

직장인으로서의 이근삼 교수

이근삼선생의 학문적, 예술적 업적에 대해서 나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없다. 교육자로서의 이근삼선생은 늘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의 일-예컨데 혼인이나 취직 등- 이라면 불원천리하고 성의를 다 하시는 모범적인 분이 라고 확신한다.

이 선생과 같은 세대에 그런 분들이 많듯이 그는 자신의 스승이나 선배에게 깍듯하고 한번도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러한 점이 후배들에게는 큰 귀감이 되어 준 것이다.

이 선생은 자기 직무에 지독하리만큼 충실한 분이였다. 스스로는 일제시대 사범학교 출신이라 “노예교육”을 받아서 하기 싫은 일도 잘한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애착과 철저한 임무완수 정신 때문으로 여겨진다. 80년대 중반 학생운동이 가장 극렬했을 때 그는 학생처장직을 맡게 되었다. 이미 50대 중반을 넘어서 그는 다른 대학교의 학생처장들 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정열적으로 학생들과 대화하고 주위 교수들과 매일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 해결책

을 찾으려 고심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연극계 제자들 못지 않게 많은 운동선수 제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했다.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서강대학교 배구단 감독으로서 선생님의 열성은 대단한 것이었다. 필자가 알기에는 당시 배구 코치와 은퇴했거나 현역인 당시 배구단 소속 선수들은 아직도 이 선생을 찾아 뵙고 당시의 정을 나누고 있다.

위트와 유모어

선생님이 낭만적이고 위트가 넘치며 악의 없는 농담을 잘한다는 것은 옆에서 보지 않아도 그분의 작품과 강의, 주례사 등에서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한가지 회상해 본다. 1981년부터 5년 이상 이 선생님과 필자 그리고 또 다른 한분의 동료교수 셋이 매주 1회이상 자주 찾았던 카페가 있었다. 신촌로타리 근처의 ‘아림’이란 카페의 여주인은 당시 30대 후반의 비자의적 독신주의자(?)로서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들과 살고 있었다.

1984년으로 생각되는 어느 여름날 우리 셋은 어느 때처럼 그 집에서 또 만났다. 필자가 짧은 지방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인사도 겸해 만난 것이었다. 그런데 셋이 들어서자마자 주인이 내게 축하한다는 것이었다. 영문을 몰라 우물쭈물하는 나에게 그 여주인은 그렇게 몰래 결혼식을 올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 어엿하게 처자식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린가? 그제서야 이 선생님께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祝 華婚’이라고 쓰여진 봉투를 내게 주시는 것이었다. 사연인 즉, 내가 한국에서 가족들만 초청하여 약혼식 겸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급히 유학을 떠나게 되어 가족

이외에는 알리지 못했었다는 사실에 착안한 이 선생님께서 나의 서울 부재 중 그 카페에 들려 내가 결혼식을 올려서 같이 오지 못했다고 반강제로 여주인에게 축의금을 받아낸 것이다. 나는 결혼 후 14년만에 가족아닌 외부인으로부터는 처음으로 축의금을 받았다. 그 날 우리는 그 축의금으로 유쾌하게 마시고 헤어졌다.

이 선생께서는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짓궂은 분이시다. 그러나 신촌 근처에서 만날 약속이 있으면 누구든 꼭 그 집에서 만나서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하신 자상한 분이였다. 또 온갖 농담과 해학을 즐기면서도 남녀관계의 일정한 도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선을 지키시는 분이였다. 그의 이와 같은 생활태도를 가장 존경한 사람 중 한사람이 필자임은 물론이다.

이 선생님과 가족

이 선생님께서는 자녀들을 마음 속으로 깊이 사랑하는 분이다. 겉으로는 폄하하는 말을 많이 한다. 특히 딸들과 사위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비판적으로 평가절하하는 말씀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그럴 때 곧이 듣고 따라서 맞장구 치다보면 큰 실수가 된 것을 얼마 후에야 알게 된다.

이 선생께서는 가정적인 분으로 사모님을 늘 배려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필자가 1987년에서 88년까지 'Fulbright' 방문교수로 선정되어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주위의 선배 교수님들 다섯 분이 부부동반으로 환송회를 해 주었다. 그 때 경기도 남부에 있는 절 앞 개울가 바위에 망연히 앉아 한숨 쉬는 부인을 선생께서 위로하는 눈빛으로 감싸주던 모습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다. 선생에게 단 하나였던 아드님이

요절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아들을 잃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선생님 부부의 심정을 조금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선생께서는 많은 자녀들이 있다. 그가 아끼는 연극계, 학계의 여러 제자들은 모두 그의 아들이며 딸이라고 생각된다. 이들과 함께 키크고 멋있는 이근삼교수께서 우리나라의 학계, 예술계에 큰 별이 되어 오래오래 남아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낭만을 위하여

유 재 천

서강대 교수, 언론학

자하골
사람들이 모여
사랑을 피우듯
술을 마신다.

마시는
술잔마다
넘치는
그리움.

그리운
사람마다
만나는
얼굴,

낭만.

1994. 3.18. 평창동 「낭만」에서

멋을 아는 연극인의 작품같은 삶

이 상 우
서강대 교수, 정치학

멋이란 무엇인가? 사람냄새를 즐기는 것이다. 사람의 삶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 삶을 느끼면서 사는 마음가짐이 곧 멋이다.

세상살이는 대체로 딱딱한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법과 제도와 관습과 지배이데올로기 등으로 묶여져 있는 틀 속에서 삶들은 관에 박힌 일을 하도록 강요당하면서 산다. 이러한 삶의 최소한의 규격화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순응하려고 애쓰고 살지만 그렇게 살다보면 ‘사람’은 죽고 만다. 삶은 메말라 버리고 만다. 그래서 왜 사는 지도 모르게 된다.

멋이란 이러한 회색빛 사회, 어둡고, 딱딱한 틀 속에 밝은 생명력을 불어 넣으려는 인간노력을 말한다. 시멘트 베란다에 화분 하나 놓는 마음가짐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틀 속의 여유공간을 찾아 따뜻한 사람냄새를 부어넣어 나도 즐기고 남도 즐기게 하려는 틀에 대한 도전, 사랑의 표현이 곧 멋이다.

이근삼 선생하면 함께 떠오르는 그림은 역시 ‘멋진 사람’, ‘멋을 아는 사람’, ‘멋을 즐기며 사는 사람’, 그리고 ‘남과 멋을 나누려는 사람’이란 그림이다.

이근삼 선생은 법을 어기고 살지 않는다. 다 성실히 지킨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규칙이라도 마음 내켜하지 않으면서도 지키며 산다. 그러나 그대로 그 속에 묻혀 숨죽이고 살지는 않는다. 멋을 찾을 줄 알고 멋을 사랑하기 때문에 틀을 이겨내는 지혜를 찾으며 산다. 그리고 더 멋진 것은 그 멋을 남에게 베풀려고 애쓰며 산다는 점이다.

이근삼선생 주변에는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이와, 사제관계 등을 모두 초월해서 사람과 만남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이다. 아들뻘되는 젊은 교수와도 마치 친구처럼 맥주잔을 나누며 이상을 털어놓으시는가 하면 손자뻘되는 제자들과도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여 세상을 논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토론한다.

이근삼선생은 나보다 10년 연상이신데도 격없이 어울려 술마시기를 20년간 해오고 있다. 함께 외딴 절간도 답사하고 함께 중국천지를 누비기도 했다. 「신촌 돌구이」, 「아림」에서 마신 맥주도 여러 드럼통이 되겠지만 北京, 西岸, 上海, 桂林에서 마신 中國五大銘酒는 李太白도 혀를 찰 만할 것이다. 七里선생(李光麟교수 아호 : 이근삼 선생의 평양 종로국민학교 직계선배)을 함께 모시고 海量 (유재천선생이 하도 酒량이 커서 中國사람이 붙여준 별명)과 함께 江華로, 高達寺로, 그리고 대만의 阿里山, 日月潭, 日本의 東京등지로 다니며 함께 마신 술은 西江大의 교수전원이 마신 양보다 조금 많을 것이다.

이근삼선생의 연극은 멋이 있다. 작품 속에서 항상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두운 시대 주눅이 들어 어깨를 떨구고 걸어다니던 사람들에게 이근삼 선생의 연극은 하나의 구원이었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 어둠 속의 촛불과 같은 따뜻한 마음도 나누어 주는 그런 연극이기 때문이다. 이근삼 선생은 세상은 어마어마한 낙원도 아니고 천상의 유토피아도 아니지만 멋있게 살만한 것이라고 일러주는 그런 연극을 썼다. 이근삼 선생의 작품들은 멋을 나누어 주려는 그의 마음이 배어있어 보고나면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이근삼 선생은 전혀 늙지 않으신다. 앞으로도 절대로 늙지 않으실 것이다. 대왕이 죽기를 거부한 것처럼 이근삼 선생은 늙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마음만이 아니라 몸가짐도 마찬가지다. 항상 ‘고등학생’같은 모습으로 사신다. 적당히 억지도 부리실 줄 알고 적당히 욕심도 부리실 줄 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년같은 호기심을 계속 지니고 산다.

삶이란 무엇인가? 氣의 발현(發顯)이다. 氣를 가꾸고 축적하여 발산해 가는 과정 그 자체가 삶이다. 이러한 氣가 쇠하면 사람도 늙고 삶도 끝나게 된다. 젊었을 때와 같은 氣를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아마도 이근삼 선생이 ‘萬年少年’으로 살아가는 것의 비법은 氣의 관리에 탁월한 묘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비법이 무엇일까? 멋을 사랑하고 멋있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그 기초일 것이다.

버트란트 러셀은 말년에 쓴 글에서 행복의 세가지 조건을 들었다. 첫째는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 했다.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보다도 하게 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싫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산다는 것은 분명 행복의

조건이 될 만하다.

둘째는 건강이라 했다. 당연하다.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려면 건강이 따라야 한다. 자기의 꿈을 키우고 발전시켜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에 내어 놓으려면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얻으려면 건강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는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라 했다. 이 점은 럽셀경의 독특한 안목의 표현이다. 그리고 역시 철인의 탁견이라 할 만하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삶이 성립될 수 있다. 좋은 친구 없는 세상이라면 자기의 삶의 전개도 있을 수 없다. 사람은 역시 좋은 친구들과의 어울림 속에서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근삼 선생은 어떤가?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연극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 자기 삶을 연극으로, 그리고 연극을 자기 삶으로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다. 아마도 한 평생을 이근삼 선생처럼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도 드물 것이다. 럽셀의 시험관문 제 2관문은 무난히 통과하고 있다.

이근삼 선생님처럼 주위에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젊은 아가씨로부터 늙은 영감까지 허물없이 서로를 터놓고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이 주위에 모두 포진하고 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90세를 넘어 살면서 오직 자기가 하고 싶었던 수학과 철학만을 공부하면서 살았던 럽셀경이 자기는 좋은 친구를 가지지 못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후회하였지만 우리의 이근삼 선생은 럽셀의 제 3관문도 무난히 통과하고 있다. 이근삼 선생은 행복의 조건인 세가지 시험에서 모두 만점으로 합격한 셈이다. 가장 행복한 멋쟁이가 결국 이근삼 선생이다.

이근삼 선생은 새시대의 成年式이라는 회갑을 갓넘은 청춘 이시다. 이제부터 얼마나 더 멋진 삶을 전개할지 구경할 만 하다. 이근삼 선생의 삶 자체가 그의 최고 걸작품 ‘연극’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마음의 빛

김 동 욱
연극인, 기업가

나는 이선생님에 대해 빛을 많이 졌다. 졸업논문의 개요만 적어내고 후일 완성된 논문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나는 그 논문을 제출하지 못했다. 그 내용은 이상적인 연극생활에 관한 설계였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극장이 많지도 않았고, TV 등 연기자들이 갈 곳도 많지 않았다. 다시 말해 연극을 해 밥먹고 살 가망은 전혀 없어 보이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연기자들이 시골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연극연습을 해서 완성이 되면 서울로 와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갖는다는 계획이었다. 선생님은 이 말을 듣고 거참 좋은 생각이라 하시면서 급하니까 우선 점수를 주겠다고 하셨다.

후일 미국의 「Bread and Puppet」같은 유명한 극단이 이런 방법으로 성공하여 세계적인 공연을 해왔다는 말을 듣고 지금도 이 방법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극단 「가교」를 통해 어느 정도는 실현해 보인 셈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선생님도 어느정도 용서해 주시리라 믿는다.

선생님은 언제나 술값에 인색하지 않으셨다. 사정이 어렵

던 우리들을 생각해서 동작빠르게 술값을 먼저 치르셨다. 한번은 술값이 떨어지셨던지 영화관계 일을 하시던 선생님의 친형을 모셔와 중국집에서 술을 사주신 적이 있다. 김상렬군과 나는 대취하여 구토를 하는 등 아름답지 못하게 보담(?) 하였지만 두 분은 조금도 불쾌한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술값에 대한 빚 만큼은 계속 갚아 나갈 시간이 있는 것 같다.

선생님에 대한 제일 큰 빚은 나의 연극 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선생님은 내가 15년 이상을 열심히 연극하는 걸 보고 내가 연극을 중단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셨을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그의 기대를 저버린 셈이다. 액수야 어찌 됐건 「가교」는 유일하게 월급을 주는 극단이었다. 약혼 시절에 처 조부되실 분이 불려서 월급이 얼마냐고 물으셨다. “3만원”이라고 대답했더니 “그건 내 손자 용돈 밖에 안되는 군” 하셨다. 그러나 나의 정직성과 용기 때문에 점수를 후히 주셨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가교」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서 나는 그 “3만원”마저 못받게 되었고 다른 일을 좀해서 생활을 해결하려던 것이 아주 못하게 되고 말았다. 내가 연극을 못하고 종파티나 참가하는 외로운 신세가 되었을 때도 선생님은 언제나 똑같이 대해 주셨고 연극을 다시 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으셨다. 앞으로 장담을 못하겠으나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번은 무대에서 이 빚도 갚으려 한다.

사실 나는 선생님에게 보다 사모님에게 더 큰 정신의 빚을 지고 있다. 우리들이 「가교」설립을 논의하던 장위동 시절부터 오늘날 평창동 빌라 시절에 이르기까지, 또한 사모님 신변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 뒤에도 언제나 사모님의 미소는 변함이 없다.

명절 때 수없이 제자들이 찾아갈 때도 언제나 푸짐한 안주

를 준비해 대접해 주셨다. 선생님은 늦게 밖에서 취하시면 꼭 우리를 댁에 데리고 가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런 날은 날이 새도록 양주 맥주 가릴 것 없이 마신다. 이런 날에도 사모님은 자리에 같이 동석하시지도 않고 꼬박 부엌과 서재 사이를 오가면서 날을 새우신다.

나의 유일한 술주정은 과음 끝에 토하는 일이다. 웬만큼 마셔서는 취하지 않기 때문에 취기를 느끼기 위해 독한 술을 급히 마시는 버릇이 있다. 이것이 도를 조금 넘으면 토하게 된다. 나는 비교적 양이 크기 때문에 토하는 양도 많다. 선생님 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모님은 큰 대야를 가지고 오셔서 오물을 수습하신다. 이럴 때도 사모님은 싫은 소리는 커녕 그 잔잔한 미소를 잃지 않으신다. 나의 주변에서 이런 분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 사모님의 미소는 어떤 지식이나 가르침보다도 나의 마음을 순화시켰다.

선생님의 서글서글함과 사모님의 잔잔한 미소를 언제나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내가 연극을 하던 안하던 이런 분을 주위에 모시고 살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빛을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다.

靑松 위의 여원 鶴

김 진 태
극단 「가교」 대표

극단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근삼 선생님입니다. 그러한 관심 속에 「가교」처럼 이 선생님의 작품을 많이 공연한 단체도 드물 것입니다. 창단공연으로 「데모스테스의 재판」을 공연하였고 「거룩한 직업」, 「퇴비탑의 기적」, 「몽땅 털어놓시다」, 「광인들의 축제」, 「미련한 팔자대감」, 「울보」, 「유랑극단」, 「30일간의 야유회」, 「아벨만의 재판」, 「하늘에서 땅에서」 등 수많은 작품을 공연해 왔다.

물론 그 시절 연극계가 그랬듯이 「가교」 또한 연극에 대한 열의만 대단했지 재정상태는 어려워 변변한 작품료도 드리지 못하였지만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극단의 재정에 도움을 주시려고 무던히 애쓰셨다. 지금도 오래된 고참단원들과 난 정초가 되면 선생님을 찾아 뵙는다. 십수년을 장위동시절부터 지금 계시는 평창동까지 찾아 뵈었다. 아마 「가교」가 변함없이 찾아뵙는 스승님은 이근삼 선생님이 유일한 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선생님의 냉철하시면서도 따사로운 성품, 연극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 때문이리라.

선생님께서서는 나의 결혼식 주례를 서 주셨다. 78년 7월 명동 로얄호텔에서 였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선생님께서 그렇게 떠시는 것은 처음 뵈는 것 같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주례단상 위의 촛대가 떨릴 정도라고 할까? 이렇다 할 생활대책도 없이 결혼에 돌입한 젊은 부부에게 선생님은 많은 걱정과 희망을 주셨다. 지금도 생각나는 말씀은 피아노를 전공한 신부나 연극을 하고 있는 나, 신랑 신부가 다 예술분야라 개성이 강해 싸움이 잦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 생활의 불규칙에서 오는 불안정, 하지만 우리 부부의 성실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장담해 주셨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보지만 결혼 후에는 한눈을 감고 살아라”하는 말씀.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눈감아 주어라는 뜻의 말씀이었으리라. 또 연애시절은 단편소설에 불과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역사소설처럼 한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다.

이제 우리 부부도 결혼생활 17년 째를 맞고있다. 그간에 물론 고통스러운 일, 성격대립 등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딸, 아들 하나씩 낳아 큰일없이 살아온 것은 선생님과 우리 부부의 약속때문 일 것이다.

이제 선생님께서선 기나긴 교육자의 생활을 마감하시고 정년을 맞으셨다.

마치 청송 위의 여원 학처럼 고고하고 깨끗하게 지내오신 선생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오래 오래 건강하시길 빕니다.

운명적인 이정표

이 강 백
극작가

문예회관 대극장, 동숭 아트홀, 성좌 소극장 등 크고 작은 연극공연장 30여 곳이 모여있는 한국관 브로드웨이 대학로에서 혜화동 로터리 쪽으로 가다가 우회전하면 삼선교, 다시 직진하여 돈암동 삼거리에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 길음역을 지나 대지극장에 이르기 전 고가차도 밑에서 우측으로 꺾었다가 유턴해서 다시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장위동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의 중간쯤에 가파른 고개가 있고, 사람들은 그곳을 장위동 고개라고 부른다.

그 고개를 사이에 두고 이근삼 선생님과 나는 살았다. 햇수로 치면 스물 세 해 된 일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나드는 고개를 사이에 두고 살았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나 하겠지만 인생이란 기나긴 길을 생각해 보면 그 고개는 나에게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 글을 온갖 극장들이 모여 있는 대학로에서 시작했던 것도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다.

스물 세 해 전 나는 연극을 장위동 고개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대학로가 연극의 종착점이라고 한다면, 그 시작의 출발점

에 이근삼 선생님이 계셨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 당시 나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희곡을 응모했었는데, 이근삼 선생님은 여석기 선생님과 함께 심사를 맡으셨다. 훗날 여선생님께 들은 바에 의하면, 이선생님은 내 희곡을 당선작으로 뽑자고 하였고, 여선생님은 다른 이의 희곡을 뽑자고 하셨다는 것이다. 결국은 격론 끝에 이선생님 주장이 워낙 세어서 여선생님이 양보하셨다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선생님은 그때 양보하기를 잘했다며 빙그레 웃으셨다. 어쨌든 그것으로 내 인생은 결정났다. 장위동 고개로부터 대학로까지의 여정이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으니까 이근삼 선생님과 내가 아주 잘 알고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신춘문예 당선 인사하러 갔을 때 처음 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도 줄곧 나는 극작 워크샵을 주재하셨던 여석기 선생님만 따라 다녔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여선생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신춘문예 당선을 여선생님이 시켜주신 줄 알았다. 훗날 그 말씀을 하시는 여선생님께도 존경의 마음이 컸지만, 줄곧 아무 말씀도 안하셨던 이선생님께 깊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하나 이근삼 선생님께 내가 깊은 감동으로 받은 것은 내 첫 장막희곡인 「내마」의 공연 때였다.

그 당시는 유신체제가 강화되던 시기였고, 더구나 육영수 여사의 피살사건 직후여서 「내마」는 대본 뿐만 아니라 무대 위의 실연 검열을 거쳐야만 공연허가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경직된 공윤의 관계자와 맞서서 「내마」를 옹호해 줄 연극계 인사를 모셨는데, 이근삼 선생님과 이해광 선생님이

었다. 이근삼선생님은 「내마」의 공연을 위해 고군분투하셨고, 이해광 선생님은 그 당시 유정회 국회의원이란 신분때문에 적극 나서기를 망설였던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내마」를 수록한 희곡집을 출판하면서, 그 책의 서문에 이해광 선생님께 감사를 표시하였고 이근삼 선생님은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해광 선생님은 국회의원이기에 「내마」 공연을 위해 힘을 발휘해 주신 줄 알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이근삼 선생님은 권력이 없으니까 힘을 못 쓰신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뒤늦게서야 두분의 역할이 완전히 거꾸로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희곡집은 몇판을 계속해서 찍어낸 다음이었고, 새삼스럽게 고칠 수도 없었다. 오직 적극적이셨던 이근삼 선생님을 오해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다.

그러한 이근삼 선생님을 나는 자주 찾아 뵈지도 못하고 전화 드리는 것마저 소홀하다. 선생님은 평창동으로 이사하신지 오래 되셨고, 나는 멀리 평촌으로 옮겨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설날 세배하러 가는 것이 고작이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해가 갈수록 나를 더욱 각별하게 생각해 주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강백과 정복근을 연극계에 데뷔시킨 자랑을 하심으로써, 선생님의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다.

장위동 고개를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그 고개 사이에 선생님과 내가 살았었다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느껴진다. 만약 그때 선생님이 나를 대학로 방향으로 강력히 밀지 않으셨다면 내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나는 대학로가 아닌 전혀 다른 길을 갔을 것이고, 연극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 것이다.

이근삼 선생님의 의해서 내 운명이 극작가로 살도록 결정났었다는 사실은 지금도 나를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한다. 연극의 길을 걸으며 행복할 때에는 선생님께 운명적인 감사를 느꼈다가도, 불행할 때에는 운명적인 원망을 느끼기 때문이다. 감사와 원망이 엇갈리는 이정표가 장위동 고개 위에 세워져 있다. 그 이정표가 바로 이근삼 선생님이다. 선생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연극의 길을 가며 행복해야겠다.

동향 선배작가의 온정

이 재 현
극작가, 극단 「부활」 대표

필자도 어언 30년째 극작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귀소본능은 다 있듯이 아련한 추억 속에 내 고향 평양 생각이 문득문득 되살아 나곤 한다. 나이가 들수록 그 빈도수는 더 잦아지는 듯 하다. 학창시절엔 방학 때마다 고향엘 가는 급우들의 처지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고 구정, 추석 때 등 귀향길의 혼잡이 오히려 나에게겐 선망이 되곤 한다. 인민학교 5학년 때인 10살에 떠난 평양은 너무나 오랜 추억속에서도 지워질 듯하고 가끔 화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평양의 거리는 내 고향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거기가 어디 먹감고 놀던 대동강이란 말이며, 김일성동상이 우뚝 선 그 모란봉 을밀대가 어떻게 내 고향이란 말인가?

월남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러한 허전함이 있고 이제는 그것이 마치 숙명인 양 그대로 남쪽 하늘아래 적응하며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 왔다.

극작가로 데뷔한 후 고향을 그리워하는 작품도 여러 편 집필을 했지만 그걸로 향수를 달랠 수는 없었다. 연극인으로서도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

이근삼선생님을 뵈게 된 것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작가생활 시작한지 3, 4년 후의 일인 듯하다. 이선생님을 처음 대했을 때 우선 별로 순화되지 않은 평안도 사투리에 친근감이 들었다. 가까운 일가친척이 거의 월남하지 못한 나에게 이 선생님이 북에 있을 삼촌 같았고 숙부 같았고 외사촌 같기도 했으니.

이렇게 하여 시작된 이 선생님과 의 관계는 오늘날까지 지속되었지만 이 선생님은 「민중극장」의 대표로서 작품을 발표하셨고 필자는 「실험극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각별한 유대를 갖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선생님의 작품 「국물 있습니다」, 「유랑극단」 등의 공연이 당시 명동에 있던 국립극장에서 계속 공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독특한 분위기와 극작술에 매료되어 거의 모든 작품을 접하게 되었다.

평론가들은 이 선생님의 작품을 나름대로 평하겠지만 같은 작가로서 본 이 선생님의 작품은 구성의 독특함과 사건전개의 명료함이 대단히 두드러졌다. 약간의 서사극적인 수법도 엿볼 수 있었고 풍자성이라든가 해학성은 어느 작가도 따르지 못할 독보적인 경지를 갖고 계셨다. 반면 중후한 주제나 끈끈한 스토리의 구성같은 것은 찾아 보기가 힘들다. 어쨌든 이 선생님은 이 선생님 나름대로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하였고 공연의 빈도수로 볼 때도 어느 원로작가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근삼선생님의 또하나 독특한 점이 있다면 국내에서 등용의 문을 거치지 않은 유일한 작가라는 것이다. 영문학자답게 영어로 쓴 장막극 「끝없는 실마리」를 미국 「캐롤라이나」극단에서 공연함으로써 극작가로 데뷔를 하셨으니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강대학에서 교편을 잡으시면서도 계속 작품활동을 하신 그 끈기는 후배 작가로서 존경치 않을 수가 없다.

언젠가 이 선생님을 뵈었을 때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재현아, 미국에 갔더니 나보고 대학교수는 그만두고 작품만 쓰라고 기루더라, 기룬데 우리 실정으루야 어디케 기룰 수가 있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작가들의 마음을 몹시 찌르는 말씀이다. 필자도 극작가로 데뷔하여 30년간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위하여 방송국의 문턱을 얼마나 드나들었던가?

유신시절 대학생들의 데모가 극을 이루었을 때 중앙정보부가 대학교수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가하자 이 선생님 께도 어떤 위기감이 있으셨던 모양이다. “날 잡아 가갠다구 기레서 내가 어카간? 기레서 학교루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 선생님은 평생을 상아탑 속에서 지내셨다. 그렇다고 인생의 괴로운 시절이 없으셨던 것도 아닌 듯 하다. 필자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 선생님 자제분의 사고소식을 듣고 얼마나 애석해 했는지 모른다. 누구보다 자상하신 이 선생님의 애통함이 어떠하셨으랴.

어느 분야나 선배가 있어야 하고 그 뒤를 바쳐줄 후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선후배간의 유대란 끈끈할수록 그 분야는 단단한 기반을 굳히게 되고 발전을 위한 도약도 가능한 것이다. 선배를 무시하는 후배나, 후배를 경시하는 선배가 공존한다면 이는 마치 사상누각과 같아 언제 무너져버릴지 모른다. 앞선 세대는 어떻게든 선각자로서 후배들을 이끌어 줬고 선배가 다져 놓은 토양 위에서 후배들은 존재하는 것이

다.

우리 연극계의 경우 우후죽순처럼 새로운 연극의 표현형식이 앞을 다투어 나오고 있다. 그들의 구호는 하나같이 재래의 형식 기성의 연극에 대한 부인이다. 물론 그것은 새로운 표현형식의 창출을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그들이 부인하고 저항하고 탈피하고자하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연극의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 나라의 극문화를 꽃 피워준 훌륭한 원로 선배들을 많이 모시고 있다. 위로 동량 선생님을 비롯한 이해랑, 이진순 선생님. 그분들과 동시대에 있었을 때 우리는 충분한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모두 타계를 하시고 23살의 어린 나이로 데뷔를 하였던 필자도 이제는 50대의 작가가 되었다. 그래도 아직까지 외롭지 않은 것은 이근삼선생님같은 선배 작가분들이 우리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며 같은 세대를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이근삼선생님이 이제 정년을 맞으셨다는 것은 우리 연극계에는 별 의미가 없다. 그것은 대학교수로서의 정년이시지, 극작가 이근삼선생님의 정년은 아직도 요원하고 또 그러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비공식 제자

정 복 근
극작가

이만큼 살아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평생 걸리는 곳 한군데 없이 잘도 제멋대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무슨 단체같은데 소속되어 조직의 일원이 되어본 일도 없고, 천생의 인연 말고는 사람에게 매여서 누구의 무엇이 되어본 일도 없이 혼자 험령험령 살아 온 흔적이 이제는 가끔 가난스럽게 드러나 보인다.

이런 자신의 삶에 과히 만족하지도 않지만 특별한 불만도 없이 지내왔는데 얼마전 뜻밖의 전화 한통으로 내가 이근삼 선생님의 제자들이라는 울타리 안에 한 몫 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근삼 선생님의 정년퇴임 행사를 준비하는 이로부터 제자의 한 사람으로 원고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황해서 나는 무안하게 웃었다. 나는 공식제자가 아니고 말하자면 얼치기 제자인 셈이라고 설명했는데도 그는 나도 분명히 제자축에 든다고 하였다. 전화를 끊은뒤 얼떨떨해서 나도 한참 ‘그런가? 나도 자타가 공인하는 공식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했었다.

개인이건 단체이건 어디에 매인다는 느낌은 답답해서 늘

거부감을 느끼게 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공인해준 것은 뜻밖에도 기쁘고 즐거웠다. 학교나 무슨 단체에 소속되어 이선생님의 정규적인 강의를 들은 적은 없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많은 가르침을 받은 터여서, 나 자신은 혼자 이근삼선생님을 ‘내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남 앞에서 버젓이 나도 제자라고 말해 본 일은 없다. 그런 공식적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본 일이 없는 것이다.

1970년대 중엽에 나는 당시의 극단 가교 대표였던 이승규씨의 소개로 처음 선생님을 뵈었다. 뒤늦게 희곡을 쓴다고 나서기는 했지만 갈피를 못잡아서 방황하던 내게 꼭 필요한 선생님이라고 이승규씨는 생각했던 것 같다.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시기에 어설픈 신인의 작품을 읽기가 수월치 않을셨을텐데도 선생님은 내 작품들을 읽어주시고, 연극과 희곡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곤 했다. 모든 금기 앞에서 일단은 갑갑함을 느끼고 그것을 깨고 싶어서 애쓰면서도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닌지 불안해 하던 내게 선생님은 본질 외의 모든 금기가 얼마나 값없는지 단칼에 자르듯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시곤 했었다.

그런 설명을 듣고 나면 내 작품의 잘못된 부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져서 나는 일년 내내 한 작품을 고치고 또 고치고 하기도 했었다. 그런 식으로 완성된 원고들을 나는 몇년 동안 차곡차곡 다락에 쌓아갔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그런 과정을 거친 작품들이 나중에 무대 위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어떤 특별한 힘을 갖는 경우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단단한 가르침을 받았는지 흐뭇해 하곤 했었다.

이제 나도 제자라고 나선다치면 나는 껍 게으르고 께쌌한 제자에 속한다. 정초건 경조행사건 가까이 찾아뵙는 일도 없고 주변머리 없다는 핑계로 술자리는 커녕 찻집에서나마 한 번 번듯하게 모셔본 일이 없다. 우연히 극장 언저리에서 마주치면 꾸벅 절이나 한번 하고 멋적게 웃고 물러서는 것이 고작인 내게 선생님은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고 부실하게 구는 것이 딱하다는 듯이 쳐다 보신다.

한번 뵙고 돌아설 때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 떠올라서 마음이 편치 않다가도 ‘어차피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어른이 손해보기 마련이니가...’하고 속으로 당치도 않은 변명을 하면서 물러서니 스스로 생각해도 얼마나 께쌌한지 모르겠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보면 내 인생도 제법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걸음마다 스스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창작생활의 거친 별관을 가며 깊이 의지하고 ‘내 선생님’ 이라고 부를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그 선생님이 거기에 또 건재하시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도 언제까지나 이근삼 선생님의 수많은 제자들 무리 속의 저 뒤쪽에 공식제자인 척 가만히 즐겁게 서 있고 싶다.

이근삼 선생님과 나

정진수

연출가, 성균관대 교수, 영문학

내가 처음 이근삼 선생님을 뵈는 것은 1968년도에 내가 중앙대 대학원에 처음 연극과가 생겨서 입학했을 때라고 생각한다. 그 때 나는 서강대 영문과를 갓 졸업하고 「실험극장」의 연구생으로 입단하여 연극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한편 대학에서 못다한 연극공부를 할 생각으로 대학원에 진학했었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더더욱 힘든 ‘연극에의 투신’을 결심한 나는 첫관문에서부터 큰 실망을 겪었다.

우선 기성극단이라는 데에 실망했다. 어는 구석을 들여다 봐도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마도 저녁나절에 술판 벌이는 것 하나만 프로가 아니었나 싶을 지경이었다. 모두가 연극을 한다는 사실—별로 성실히 하지도 않으면서—에 도취되어 있을 뿐 공연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배울 점보다는 고칠 점이 너무 많았다. 사정은 대학원쪽이 한결 심각했다. 처음 생긴 대학원에 기대를 한 탓도 있지만 대부분의 강의란 학부 수준에도 훨씬 못 마쳤다. 차라리 내가 강의하는 편이 나을성 싶었다. 독일에서 박사를 했다는 분, 미국에서 연기를 전공했다는 분의 강의를 그렇게 엉터리일 수

가 없었다. 들어볼 만한 강의는 외부강사로 출강한 이근삼 선생님과 여석기 선생의 강의와 내 전공과는 동떨어진 김정옥 선생의 영화 강의 정도였다.

이렇게 양쪽에서 실망만 쌓인 끝에 미국유학을 떠났었고 1972년에 돌아온 뒤부터 나 혼자 연극 활동을 시작하는 길을 택했다. 잠시 「실험극장」에 몸담았다가 이근삼 선생님이 창단한 「민중극단」을 물려받아 이효영 선생님과 본격적인 극단 활동을 펴 나갔다. 따라서 나의 연극의 뿌리는 이근삼선생님에게 있는 셈이다. 나는 미국에서 돌아 온 후 곧장 연극에 투신했지만 대학 강단에 나설 엄두는 내지 못했다. 요즘도 사정은 엇비슷하나 연극은 버는 직업 아니라 쓰는 직업이다. 결혼해서 애까지 딸린 주제에 홀어머니 신세를 지며 연극만 쫓아다니던 내 꼴은 지금 생각해도 가관이었다. 물론 대학 강의를 쫓아다녀 봤자 내 용돈벌이 정도 밖에 안되었지만 그나마 연출도 없고 성격상 남에게 청탁은 죽어도 못했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이 선생님이 자청해서 여기저기 강의를 주선해 주셨다. 주객전도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내쪽에서 보채고 찾아다니며 청탁을 해야 할 판에 나는 딱 버티고 앉아있고 이 선생님이 비서처럼(실례) 친절히 전화해서 여기 나가라 저기 나가라고 시간을 물어다(?) 주신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9년여의 강사시절 동안 제일 서글팠던 때는 연말이다. 거리에 나가면 눈발이 날리고 징글벨 소리 들리는 가운데 선물 꾸러미를 한 아름씩 안고 재잘대며 지나가는 행인 틈에 묻혀서 텅빈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걷고 있는 내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 없었다. 남들은 보너스까지 타는 달에 알량한 강사료마저 끊기는 연말연시가 저주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요즘도 난 연말연시가 되면 기분이 우울하다. 아마 그 시절

에 생긴 증세일 것이다.

이처럼 이근삼 선생님이 나한테만 유달리 베푸신 것은 물론 아니다. 요즈음도 선생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지만 제자들에 대한 자상한 보살피심은 여느 스승들과는 다르다. 성품이 직선적이어서 제자들을 앞에 앉혀 놓고도 바른 말로 아픈 데를 여지없이 찌르지만 그게 다 애정의 표시라는 걸 다들 안다.

그런가 하면 이 선생님은 이복태생답게 지독히 인색한 편이다. 내가 그렇게 자주 공연을 했어도 구경 오실 때 분장실에 박카스 한 병 사들고 오신 적이 없다. 선생님덕에 매년 설이면 인사를 하지만 ‘배불리’ 먹고 나온 기억이 별로 없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점은 인색함이 아니라 검약함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선생님자신부터 음식탐이 없으시다. 뭘 드시는 걸 거의 보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한양대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는데 진단이 ‘영양실조’로 나왔을까.

이 선생님의 푸근한 인심은 역시 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술만은 원없이 사주신다. 3차, 4차가 모자라서 댁에까지 납치해야 직성이 풀리신다. 사실 3차부터는 고역스럽다. 게다가 안주는 땅콩밖에 안 시켜 주시니까. 선생님의 그 푸짐한 입담마저 없었다면 견뎌내기 어려웠으리라. 그러나 가끔씩 댁에까지 연행당하는 건 피한다. 사모님의 눈치도 눈치려니와 댁에 도착한 이후에는 완전히 그날 하신 말씀의 재방송이다.

이 선생님은 또 어린애 같은 면이 있다. 남의 험담을 곧잘 하시는데 그게 밋지가 않다. 또 하시는 말씀을 잘 삭여서 들

으면 자화자찬이 많으시다. 그게 별로 기술적이지 못하니까 들통이 난다. 난 가끔씩 어느 쪽이 되었건 맞장구치는 건 피한다. 그럴 때 잠시 사이가 뜨곤 하나 이 선생님은 개의치 않고 속사포로 쏟아내신다. 마음 가운데 묻어두고 앞뒤를 재는 것은 이 선생님의 성미에 맞지 않는다. 이 선생님은 근엄하고 엄격하고 체통을 앞세우는 유교적 스승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토록 많은 것도 바로 그런 면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제자들끼리 모이면 이 선생님에 대한 화제가 반드시 튀어나오기 마련이며 마치 친근한 친구 얘기처럼 돌아간다. 우리끼리는 아예 ‘근삼이 형’(또 실례)으로 호칭이 굳어진 듯 싶다. 제자들은 이 선생님의 장점 못지 않게 단점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선생님은 우리 나라 극작가 가운데 유일한 희극작가이다. 사실 우리 나라의 비극 중 하나는 희극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 정치판 치고 비리와 부패가 없으랴마는 우리 나라 정치판에는 비리와 부패가 아니라 희극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뜻에서 이 선생님은 국보적인 존재이다. 이 선생님은 평소에도 농담을 즐기신다. 즐긴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농담을 토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 계신 것 같다. 물론 매번의 농담이 다 히트하는 것은 아니다. 더러 빗나갈 때도 있다. 그럴 때에도 제자들은 마냥 재미있다는 표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 선생님은 워낙 관객반응에 예민하시기 때문이다. 희극은 줄곧 밝은 웃음만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훌륭한 희극일수록 뒷맛이 씹히며 거기에는 페이썬스가 서리기 마련이다. 어느덧 이 선생님 머리 위에도 세월이 눈발처럼 싸여 환하게 웃으시지만 훌쩍하신 키에 코트자락 날리며 돌아서 가

시는 뒷모습에서는 왠지 페이스스를 진하게 풍기신다.

끝으로 나는 왜 평생에 한번도 스캔달이 없느냐고 통탄(?)
하시는데 이 선생님께 생애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캔달이
일어나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지만 어쩐지 그게 어울릴 것
같지는 않다.

국물이 많은 연극

최 명 수
연극인

이근삼교수는 1963년 극단 「민중극단」이 창단되면서 나와 친분을 갖게 된 작가이다. 해외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교수와 김정옥씨, 양광남씨 등 소위 해외파와 국내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연기자, 나옥주, 오현주, 권영주 등 세 구슬의 여배우와 최상현, 김석강, 필자와 몇사람의 동인들을 합쳐 22-3명의 단원으로 「민중극단」의 화려한 창단식을 가졌었다. 여기서 이근삼교수가 초대 대표로 추대되었다. 그때의 연극계는 극단들도 적었지만 레파토리도 비극(悲劇) 일변도로 공연되어 펍 침체되어 있던 때였다. 이 때에 「민중극장」은 레파토리로 코메디만을 공연하겠다는 기치를 들고 출발했으니, 극단 구성원으로서나, 극단 칼라로 볼 때, 일반 문화계에 큰 주목을 끌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근삼교수의 작품이 거의 희극작품으로, 오늘날 희극작가가 된 데에는 「민중극장」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40년 동안의 연기생활 중 많은 작품에 출연도 했고, 많은 작가와 친분을 가졌지만 이교수 앞에 내세우는 사람은 아직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예술가적 감각과 놀라운

집념때문이다.

코메디는 서술적 감각으로는 불가능한 작품이다. 섬광처럼 번득이는 예지의 감각과 사회와 인생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이 코메디를 결정 짓는다고 생각된다. 바로 이런 감각과 시각에서 이교수는 독보적 존재다. 자신의 작품공연 때마다 그는 객석 맨 뒤 벽에 기대어 서서 관극한다. 아니 극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살피는 것이다.

어느 장면에서, 어느 대사에서 관객은 어떠한 반응을 갖더라, 이것이 그의 연구의 대상이다. 한 공연이라고 하면, 1일 2회 공연으로, 예전에는 3일간이었고, 요 근래에 와서는 1주일씩 공연이 된다. 이 많은 공연을 거의 빠지 않고 매번 뒷벽에 기대어 서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깡마른 사람이 왜 기운이 그리 있어서인지?

이교수와는 극단에서 가장 의기상통하고 가까웠던 사이였다고 나는 자처한다. 그런만큼 추억거리도 많고 얘기거리도 많다. 그중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것은 「국물 있습니다」란 작품공연이었다.

1966년 때의 일이다. 박조열작 「토끼와 포수」로 우리 「민중극장」이 동아연극상을 탔기에 그 기념공연을 갖게 되었다. 이교수가 작품을 쓰고 기획은 필자가 맡기로 했다. 드디어 작품이 인쇄소에 넘어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목이 아직 정해지지 못했다. 가제로 “국물” 또는 “국물과 건더기” 등 몇가지 있었는데 결정을 내리기에는 미흡했다.

“최형이 알아서 하나 정해줘.”

이럴 때 이교수는 소탈하고 재미있는 점이 있다. 작품구상이나 제목을 정하는 일에 친한 친구를 끌어 당긴다.

제목은 우여곡절 끝에 “국물 있습니다”로 작가의 낙점이

떨어졌다.

공연물의 얼굴은 제목인데 껍 만족스러웠다. 연극사상 이런 식의 제목이 없었다. 어찌보면 천박한 것 같지만 “……사옵니다”라는 존대어미로 처리된 걸 보니 김철 맛도 나고 코믹한 뉘앙스가 절절 흘러 꼭 이근삼 작품에 적절한 제목 같았다.

신나는 흥분으로 곧바로 극장에 선전간판이 올라가고, 동아일보 사옥에도 큰 간판이 올라갔다.

동아연극상을 타면 수상극단이 받은 상금으로 기념공연을 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극단 「민중극장」 공연, 「국물 있사옵니다」 이런 큰 간판이 광화문 네거리 동아일보 사옥에 대문짝처럼 나붙게 된 것이다.

이런지 사오 일이 지났는데 갑지가 문공부(당시 공보부)에서 와 달라는 연락이 왔다.

“무슨 공연을 하는 거요, 공연을 제대로 하려면 제목을 바꾸시오.” 잘 아는 처지인 김창구 과장이 껍 뜬뜬한 표정으로 내뱉듯 말하는 것이다. 관에서 우려할 만한 작품내용이 아니라 점을 설명하면서 사정했지만 별 무반응이었다. 나중에 그 속셈을 알고 보니 참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당시는 관리들의 비리를 풍자하는 유행어로 “국물이 있다”, “국물이 없다” 등의 말이 향간에 돌고 있었다. 또 당시의 야당 이름이 “민중당”이었다. 그러니 야당의 칼라를 띤 “민중극장”이란 것이 생겨 가지고, 동아일보 후원으로 정부나 관리들을 비판하는 연극을 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실지 내막도 그렇지 않으려니와 이미 선전이 나가고 있는데 그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특히 너무나 좋은 제목에 만족하고 있는데 제목을 포기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작가 이교수의 뜻도 그대로 밀어 붙이자는 뜻이었다.

궁리하던 끝에 그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세웠다. 그것은 이미 나가고 있는 선전비를 보상해 주면 제목을 바꿀 수도 있다는 조건이었다.

물론 관에서 이를 받아들일 까닭은 없다. 이 일을 두고 일주일이나 실랑이를 벌였다. 사실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기도 했지만 끝내는 풀어지고 말았다. 이런 풍랑 속에서 “국물 있습니다”는 명동 예술극장에서 막이 올랐다.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기도 하다. 사람도 태어날 때 성이 바뀔 수 있다지만 이 “국물……”은 성도 이름도 전부 도적맞을 뻔한 운명에서 기사회생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이 작품을 잊을 수가 없다.

어느 서울신문사 여기자는 하도 희한한 제목이어서 구경을 왔노라고 했다. 공연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작가는 고민하면서 씨름했던 것 만큼 역작을 뽑아 주었다.

특히 라스트 처리를 위해서 번민하던 그때의 작가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교수의 작품은 여러 작품에서도 그렇듯 내게 주는 느낌이 따로 있다. 웃으면서도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 매력이 있다. 웃으면서 눈물이 젖게 하는…… 이것이 코메디의 생명이 아니겠는지? “국물……”의 주인공 김상범이 출세의 탐욕에 빠져 다른 몸의 씨를 잉태하고 있는 아내와 회의하면서, 그러나 즐겁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굴러가는 주인공 김상범은 관객에게 시니컬한 웃음과 함께 고통을 안겨 준다.

실은 잔인한 코메디 작가가.

현실과 무대의 紳士

—李根三 교수의 점프

권 일 송
시인

연극을 위해 태어났나요?
무대와 관객 없이는 한시도
살 맛이 없었던 당신
그 길에 후회가 없다면 더는 무엇을 바라리카

애시당초
인생은 연극임을 알았다면
그 天上의 醉興과 멋을
흥내낼 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大人風의 큰 키와 웃음
원색의 욕설조차 애교로만 들리던
그 술한 낮과 밤의 술 자리가
그립습니다

심연의 고독을 달래느라고
글 속에 파묻히고

어둠을 쓸어모아
한방울의 수로 적시는
버어톨트 브레히트의 제자

敵마저도 당신을 사랑했기에
마음 편했던 친구 이근삼을 위하여
오늘은 축배를 들기로 합시다

뜻밖에
외아들 유철군을 잃고
망연자실했던 당신에게
〈식탁의 맞은 편 빈 자리〉는
하느님이 채워 주시고
〈작은 神話〉의 주인공도
지금쯤 못다 이룬 이승의 꿈을
활짝 펼치고 있을 것이기에

어차피 인생은 주어진 무대
관객은 약속된 시간 속에
조용히 앉았다 일어서면
그뿐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꿈을 꾸세요
큰애기를 안주 삼아 더 많은 술도 드시고
펜클럽 안팎에서 키워온
우리의 우정은
항시 지는 쪽에서 즐겁고

유익 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가슴이지만

잠시 불꽃을 잠재우세요

다가온 내일을 뿌듯이 숨쉬고

당신의 무대와 관객 속으로 되돌아 가십시오

세익스피어와 맥주

신 경 수

호남대 교수, 영문학

“신선생 말이야. 이 논문은 너무 길어. 내가 이제까지 심사한 학위논문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좀 줄이라구…… 내 생각으로는 전반부의 철학적, 이론적 연구를 삭제하는 게 좋겠어. 이것은 앞으로 신선생의 life work로 미루고, 후반부 세익스피어를 다룬 part만으로 재구성하도록 하시오.”

이근삼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방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있는 나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 내리고 있었다. 학위논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실, 창밖에는 봄날 오후의 햇빛이 무심하게 대지 위에 쏟아지고 있었다.

“이론적, 배경적 연구는 학자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 그러나 논문 그 자체와는 관련이 없지. 희극의 이론, 나도 연구해 봤지만, 그거 간단하지 않아. 그러니 학위마치고 나서 차분하게 평생토록 연구하라구.”

선생님의 말씀은 차분하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있었다. 그러나 2주일 동안에 선생님의 지

적대로 논문체제를 수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다. 돌아오는 길, 늦은 밤 호남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나는 불평을 토하고 있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마치 그것은 행낭채를 헐어 버리고, 헛간을 뜯어다가 본채를 짓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너무 하셔!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셔야지.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그 엄청난 작업을 하라는 거야? 이번 심사를 포기하고 다음 학기에 하라는 말씀이신가?”

그 날 이후 나의 삶은 인간능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마라톤 경주에서의 마지막 스퍼트라고나 할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루 하루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의 논문은 점점 모양새를 갖추어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안개 속에 가려졌던 산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았다. 처음에는 막연하던 산의 형상이 차츰 윤곽이 드러나더니 능선과 골짜기가 보이고, 숲과 나무가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선생님께서 왜 이 길을 가라고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앞어지듯 쓰러지듯 하면서 심사가 계속되고, 드디어 마지막 심사의 날이 다가왔다. 그간의 지적사항들이 적절히 수정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끝난 뒤, 나는 밖으로 내보내졌다. 다시 불러 들어간 방안은 또다시 정적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근삼 선생님을 처음 뵈던 날, 폭탄과 같은 지시가 내리고 난 후의 바로 그 적막함이었다.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제출된 논문을 통과시키기로 하였다는 심사위원장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Doctor 신, 축하해요.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이근삼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어느 사이에 유쾌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시는 그 얼굴에는 심사 첫날 창밖에 쏟아지던 봄빛 같은 미소가 흘러 넘치고 있었다. 그 날 저녁,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하는 조촐한 모임에서 나는 선생님의 예리한 통찰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신선생, 우리가 처음 만나던 날 말이야. 내가 전반부를 삭제하라고 했을 때 나를 원망했지?”

“원망은요. 다만, 과연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 낼 수 있을지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내가 미웠을 거야. 내말을 듣는 순간, 신선생 얼굴이 새파래지던데……”

“제가 그랬습니까?”

“그때 나는 보았지. 신성생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하지만 모든 게 잘 되었어. 그렇게 고치니까 훨씬 좋아졌지 않아. 하기가 나는 논문 심사때마다 악역을 맡으니까.”

“……”

“그렇지만 세상살이를 맘에 드는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 때에 따라서는 싫지만 누군가는 해야되는 경우가 있어. 악역을 맡고 싶지 않다는 것도 결국은 이기적인 희망일 뿐이라구.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믿어. 신선생 논문을 심사하면서 입증이 되었고…… 자, 그런 의미에서 한잔 받으라구.”

“고맙습니다.”

“셰익스피어! 나도 좋아하지. 그 스트라트포드의 촌놈, 하지만 대단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지. 벤 존슨? 좋구 말구. 하지만 두번 읽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달라. 이제 신선생도 면허증(?)땀으니까 마음껏 차를 몰고

셰익스피어의 세계를 누비고 다니라구. 이제까지 들어가보지 못했던 이 골목 저 골목을 찾아가 보는 거야. 공부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자, 그런 의미에서 한잔 더!”

“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 셰익스피어를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 셰익스피어가 무슨 뜻이니 알아? 그것은 ‘sex & beer’라는 뜻이야. 셰익스피어를 알려면 맥주를 잘 해야돼. 그러니 어서 마시라구.”

밤도 깊어가고 선생님의 말씀 또한 깊어가고 있었다. 이제까지 비정하고 가혹한 말씀만 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면모가 선생님에게서 우러나오고 있었다.

“선생님 가지지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가기는 어딜 가. 한잔 더 해야지. 이번에는 내가 살 테니 가자구. 이런 날은 마음껏 취하는 거야. 우선 신선생 목을 방부터 잡고, 본격적으로 마시자구. 우리 집 근처로 정해야 늦게라도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있을테니까, 우선 그리로 가자구.”

선생님 택 앞에 숙소를 정하고, 맥주병을 가운데 두고 선생님과 마주 앉았다. 그제서야 나는 선생님 주변에 어째서 언제나 사람이 자꾸 모여드는지 이유를 이해할 것 같았다. 맥주 거품이 수북히 얹혀 있는 술잔 너머로 선생님의 뜬금없는 말씀이 건너왔다.

“신선생, 집에 전화 걸어.”

“예?”

“오늘 일, 애기 엄마한테 안 전했지? 어서 전화걸라구. 그

리고 날 좀 바꿔 줘.”

그제서야 나는 집에서 최종 심사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생각해 내었다.

“신선생 부인이요? 나 이근삼이요. 그 동안 말도 못하고 뒤에서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겠소. 나는 그 마음 잘 알아요. 이제 모든 일이 잘 끝났으니 오늘 밤은 마음놓고 편히 쉬도록 해요. 신선생은 나하고 여기서 밤새도록 마실테니까.”

그날 밤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세익스피어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맥주를 드시면서 선생님께서는 강의, 여행, 그리고 공연 등을 통해서 얻으신 다양한 일화들을 말씀해 주셨다. 하나같이 강의실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귀중한 체험들이었다. 역시 세익스피어를 논하려면 맥주가 빠져서는 안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

선생님께서 댁으로 들어가실 때는 거리에 인적이 끊어진 한밤중이었다. 졸고 있는 가로등 밑을 걸어가시는 선생님 뒤편에 유난히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너의 기쁨을 위하여

이 상 오
원광대 교수, 영문학

비가 개인 오후의 청량함이 더욱 빛나는 것은 쪽빛 하늘을 가로질러 세상을 내려다 보는 무지개가 곁들여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아무 바람도 없이 그저 홀로 일곱색을 자랑하며 수없는 인간 군상에 무작위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아름다움 그 자체. 어쩌면 선생님의 또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 세상이 수 없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더욱 복잡해져 이만여 가지가 넘는 직종이 있다고 하지만, 그 많은 직종, 그보다 더 복잡한 세상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나’ 아닌 ‘남’을 사랑하는 일이라 한다. 예외없는 법칙이 없다고 했던가? 가장 어렵다는 남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남을 가르치는 일이 아닐까 한다. 그렇게 많은 직업 중에 남을 가르치는 일로 일생을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아침이면 옛 선인들 머리 빗어 올리며 곱디 고운 향내와 함께 청량함을 고이 깔고 저녁이면 또 다시 내일을 위해 고운 빛 거두어 들이는 삶.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자신을 갈무리

하면 가슴 깊이 향을 심어주고, 눈에 빛을 가득 담아 주며, 귀에 낭랑한 삶의 소리를 채워주는 삶. 바로 일생을 통해 다른 곳에 눈길 한 번 아니 주시고 오직 교단에서 후학들에게 삶을 가르치시고 전해주신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 모습 때문에 본인도 선생님을 뵈옵게 되었고 가까이 모시며 늘 가슴에 눈에 귀에 그 향과 빛, 소리를 담아 두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우기 선생님께서는 교단에서 삶을, 삶이 지닌 속뜻을 가르치시는데 그치지 않고 영원하다 할 젊음과 마르지 않을 청춘의 샘물을 퍼 올리고 계신다. 자연의 모방이며 인생을 축도하는 연극을 통해 간접 교육으로 국민교육과 사회정화에 헌신해 오셨으니 행여 그 그림자라도 밝게 될까 조심하게 된다.

나 역시 교단에 선 지 어언 이십오년이나 되었지만 항상 인격도 부족하고 지식도 모자람을 느껴 회의를 느낄 때가 많다. 이렇듯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선생님을 뵈오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다. 선생님을 뵈옵고 지식과 교양, 인격을 쌓아 온 것이 벌써 삼십 년이 되었다. 이 긴 세월을 지나며 무한한 지식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의 능력은 가히 초인적이라 하겠다. 언제고 곁에 모시고 있으면 청춘의 샘물이 힘차게 솟아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덩달아 나 자신이 고무됨을 느끼며 새롭게 충전되곤 한다. 대지의 정령과 물의 정령, 공기의 정령이 선생님을 보좌하고 그 위에 무지개의 정령이 꿈과도 같은 왕관을 위에 받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불행히도 나를 따르는 제자가 있어 일 년이 지나면 나의 모든 것이 바닥이 나고 말 것이다. 이 때문에 늘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늘 여유와 유우머로 청량함을 실

어 인생을 지도하시니 이 얼마나 훌륭하신가?

더욱 내가 잊을 수 없는 일은 작고하신 고려대학의 김권호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의 우정어린 일화이다. 김권호 선생님께서 공부를 마치시고 귀국하실 즈음 선생님께서도 마침 쉬시고 계시던 때였다. 김 선생님께서 귀국하신다는 연락을 주셨을 때 선생님께 강의 제의가 있었고, 아직 자리를 구하지 못하신 김 선생님께 선뜻 당신의 자리를 양보하셨던 모습이 어찌 관포지교(管鮑之交)에 버금가지 않겠는가! 자그마한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지만 항상 마음 속에 새겨두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다.

끝이 없이 이어지는 대화 속에 전해져 오는 선생님의 교양과 지식에 졸음을 물리치고 잠을 거부했던 것이 얼마였던가. 선생님의 삶이 전해주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폭 빠져들어 홍수처럼 퍼부어지는 소리와 빛에 젖어 들었던 것이 그 얼마였던가. 아직도 내 삶의 길이 먼데 선생님께서 저 멀리 계시니 난 언제나 되어야 그 곁에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삶의 대화 속에 더욱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모시며 뵈어 온 선생님의 모습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글썸 이럴까?

“나의 기쁨 가운데 너의 기쁨을 위하여, 너의 기쁨 가운데 내 기쁨을 섞어서”

오늘 무지개 왕관 너머 그 끝자락 황금단지 속에 빛과 향을 소리없이 갈무리하시어 더욱 짙고 은은한 삶을 지상에 배이게 하시는 선생님께 끝으로 한가지만 부탁 말씀 올리려 한다.

선생님,

약주 좀 줄이셔서 저희 몫도 남겨 주시고,
저희들도 삶을 더 즐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경로우대증

이 유 정

이선생님 삼녀

아버지의 경로우대증, 이유정 아버지가 경로우대증을 발급 받으셨다. 아버지의 65세 생신이 지난 일주일 쯤 후에 말이다. 36장의 버스 무료승차권과 함께...

아버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신다. 베란다에서 뻥히 내려다 보이는 동회가 당신과는 하등 상관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 동회에서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생일이 지나자마자 발급된 경로우대증에서 찾으신 것이다. “야, 동회가 일을 하네!” 그리고 당연히 써있지 않을 ‘술집 이용시 반액할인’이라는 글씨를 찾아 보신다.

아버지의 생활이란 읽고, 쓰고, 술마시고, 여행하는 것이 중심이어서 이러한 생활을 누리시는 분께 또 한장의 추가된 복지카드의 필요없으신 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생활은 그렇다.

나는 아직까지 아버지처럼 많이 읽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신문 3종류, 월간지 2권, 주간지, 기타의 잡지들, 일본어판의 문학잡지를 비롯해서 여러 논문들, 전공서적들, 소설들, 희곡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어, 일어, 우리나라 말로 된 세종류로 분류되어 엄청난 양에 이른다. 아버지를 따라 외국에 나

갔을 때 아버지의 주요 일과는 서점을 뒤지는 일이었다. 전공과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영화화되는 베스트셀러 소설까지 구입하는 책은 무척이나 광범위하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 방법은 참으로 의외다. 바깥일이 없으신 날은 하루 종일 누워서 읽으시니 말이다. “쉬어야지”하시는 말씀은 누워서 뭔가를 읽는다는 말씀과 같다. 엄마가 “운동 좀 하지” “팔도 안 아픈가, 허리도 안 아픈가”하고 꾸념을 늘어놓으실 정도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꼬박 누워서 책을 읽으신다. 적어도 학자라면 책상에 품위있게 앉아 책을 읽을 법도 한데 책상에 앉아계신 모습은 글을 쓰시다가 자료를 찾으실때 외에는 뵈는 적이 없을 정도이다.

방학 때면 며칠이고 누워 책만 보시다가 어디선가 전화가 오던지 아니면 전화를 하셔서 불쑥 나가신다. 술을 드시러 나가시는 것이다. 학교강의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그외의 모임이나 회의등이 있는 날은 당연히 술을 드시겠구나 하면 8~90%는 적중한다. 늦게 들어오신다고 잠옷으로 팔아 입고 누워있다가 아버지를 맞을 수도 없다. 느닷없이 손님들을 우르르 몰고 들어오시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술에 대해선 딸인 내가 더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유명한 일화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 결혼해서 아버지곁에 없기에 술드신 후 즐기차게 피워대는 담배연기를 맡거나 그 커다란 손에 뒤통수를 얻어맞는 일은 없어졌지만, 뭔가 속은 기분으로 나는 남편을 기다린다.

딸을 보내고 난 뒤의 허전함이 괜한 것에서 나타난다. 젊었을 때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새벽3~4시까지 얘기 다들어주고 “역시 내남편이 최고”라고 해주던 부인이 요즘은 12시만 넘어도 눈을 흘기고 빨리 자라고 성화이니 “외로워 외로워서 못살겠어요”라는 18번 노래를 자주 부르시는 모양이

다. “나도 이제 늙었수” 하시며 싫지 않으신 표정으로 웃으시는 엄마의 항변이 야속하기도 하다.

이젠 아버지께 항변다운 항변을 하시는 엄마는 아버지와 같은 취미를 갖고 계시다. 바로 ‘여행’이다. 나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라 무던히 많은 곳을 다녔고 커서는 막내라는 이유로 두분과 외국에도 나갔다 올 수 있었다. 지금도 두분은 번갈아 가며 혹은 함께 부지런히 이곳 저곳을 다니신다. 어쩌다 두분을 따라 여행을 가면 두분의 체력에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외국여행 시에는 시차라는 것을 거의 느끼시지 않고, 거의 지치지도 않으신다. 여행 후 피곤으로 며칠을 쉬시는 모습도 본적이 없다. 여행지에서는 언제나 두분이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잔을 마시고 산책을 다녀 오신다. 아마 평양사범학교 시절 배구코트를 누비던 아버지와 여고 시절, 스케이트 선수로 겨울의 한강을 지치셨던 엄마이기에 신나게 여행을 하시나 보다.

그런데 문제는 또 발생한다. 늘 채근하고 서두르시며 혼자 마구 앞서서 가시는 분은 아버지이시고 나의 남편 말대로 조용하시면서 한가지 한가지 다 챙기시는 것이 매력으신 엄마는 가끔은 급하신 아버지께 불만을 가지시고는 “다시는 같이 안가!” 하시기도 한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얘기지만 아버지의 성질 급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쯤되면 나는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공격한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템포를 늦추려고 하지 않으신다. 아마도 16세 나이에 훌훌단신으로 월남한 소년의 긴장감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인지 모른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워 무시며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짧게 얘기하실 뿐이다.

이렇듯, 가끔 티격태격 하시기도 하지만 아직도 “인숙이!”

를 찾으시며 두런두런 말씀을 나누시는 그분들을 뵈면 어렸을 때의 따뜻한 기억이 되살아 나곤 한다. 아침에 눈을 떠 거실로 나오면 햇빛이 들어오는 거실 가득히 서재에서 흘러나온 과리한 담배연기가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된다. 엄마가 계속 꿰어내오는 커피냄새와 함께 거실에 꼭 차 있는 담배연기의 모습은 나에게 제일 따뜻한 영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버지의 원고지는 이렇게 채워져 왔다.

아버지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은 마치 기형인 것처럼 특 불거져 나와있다. 가끔 자랑스럽게 손가락을 들어 올리시며 이걸로 글을 써서 너희들을 길렀다고 말씀하신다. 사실 아버지는 술에 아무리 취해 들어오셔도 새벽 2~3시면 반드시 일어나셔서 책을 읽으시든지 작품을 써 오셨다. 아마도 원고지를 앞에 놓고 보내신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아버지 작품중 하나인 「원고지」의 주인공 생각이 나서 좀 죄송한 생각도 들지만 작품구상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몇년동안 생각해 오시던 작품을 끝내신 다음 커피 한잔과 함께 담배를 태워 무시는 아버지를 뵈면 ‘예술가의 초상’을 보는 듯 하여 자랑스럽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예술가’란 측면보다는 ‘교수’라는 직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본다. 그리고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게 되었다며 갖가지 요란한 반응을 보인다. 아버지의 정년퇴직에 내가 치는 축하의 박수는 서강대 신방과 학생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다행히도 나는 서강대를 다니지 않았기에, 3학점이면서, 리포트와 시험, 공연을 준비하여야 하는 ‘연극개론’과 같은 수업이나, 자신을 다 내보이며 한학기 내에 써보지도 않던 글을 쓰느라 고생해야 하는 ‘창작법’과 같은 살인적인 과목을 듣지 않을 수 있었다. 이 과목의 선생

님이 아버지이신데, 이제 퇴직을 하시면 학생들은 그 고문에서 해방되는것이 아닌가? 축하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수님이셨고, 지금까지 수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셨다. 우리집에는 명절마다 또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제자들로 붐볐고, 아버지는 그 많은 제자들에게 애정을 기울이셨다. 나 역시 아버지의 수많은 제자들 틈에서 자라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아버지 제자의 아내가 되어 있다.

아버지의 퇴직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앞에서 얘기한 아버지의 읽고, 쓰고, 술마시고, 여행하는 생활이 퇴직하셨다고 바뀌어질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새로 꾸며드린 서재에서 내 어렸을 때의 그 따뜻한 기억처럼 커피와 담배를 즐기시며 글을 쓰시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실 테니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또하나, 앞으로 곧 태어날 나의 아기는 외할아버지를 더욱 잘 알게될 것이다. 나의 조카들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신 외할아버지의 직함을 외우느라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나의 아기에게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라는 명칭과 교수는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어려운 말들 대신 “할아버지는 글쓰는 사람”이라는 따뜻한 말을 가르쳐 주면 된다.

이제 조금은 지치시기도 할 만한 나의 아버지 작가 이근삼씨는 벌써 몇개의 작품구상과 함께 여행계획을 세워 놓고 계신다. 아마 그런 생활들로 더욱 바빠지실 지도 모르겠다. 매일 새롭게 읽고, 매일 새롭게 창조하며, 즐겁게 여행을 하시는 아버지에게 경로우대증이 무슨 필요이겠는가? 그래서 아버지는 버스 무료 승차권 36장을 아흔이 되신 장인어른께 기꺼이 양보하셨다.

극작가의 안과 밖

이 태 동

서강대 교수, 영문학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모두가 만남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내가 태어남도 부모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고 형제자매의 관계도 만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어떠한 스승을 만나고 또 어떤 벗과 사귀느냐에 따라 사람의 일생이 결정된다는 것 또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나타낸 말이다.

나와 이근삼 선생님과 만남도 이러한 보편적인 진실에서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비록 간접적인 일이었지만, 이근삼 선생님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이근삼 선생님을 만난 것은 대학 2학년이었을 때였다. 그 당시 선생님은 나의 대학에 강사로 나오셨지만, 선생님의 희극시간은 그 동안 불만에 쌓여 있던 나에게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때 선생님은 미국에서 막 공부를 하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지적으로 세련됨은 물론 극작가로서 무엇하나 거칠 것 없이 자신감에 넘쳐

흘렀다. 그 때 나는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 어느 정도 감각을 익히고서, 황순원의 「왕모래」라는 작품을 번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번역에서 어려운 문제를 몇번 물어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러시지만, 선생님은 말씀을 길게 하지 않으셔서 강의실에서 몇 마디 말씀도 못 나누고 강사실로 들어가 버리셔서 항상 미흡하고 서운하기만 했다.

그런데 이근삼 선생님을 좀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길을 통해서 였다. 3학년 첫 학기 영작문시간에 어떤 외국인 여교수 한 분을 만났다. 지금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나는 그 벽안의 여선생님을 따랐고 그 선생님은 나를 많이 격려해 주셨다. 그래서 주말이면 그분이 기거하고 있던 소공동에 위치한, 지금은 헐려지고 없는 국제호텔에까지 드나들게 되었다. 나는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그 여교수님이 60년대 초에 동국대학과 드라마 센타에 일년 동안 와 계셨던 토마스 M.페터슨이라는 플브라이트 교수의 부인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페터슨 교수는 그 당시 미국 예일대학 출신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극예술과 교수로서 「타임지」에 그의 활동상황이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교수였는데, 이근삼 선생님께서 그곳에 유학하실 때 극작을 지도하셨던 분이셨다. 그분이 그 당시 어려웠던 한국을 방문해서 귀중한 일년을 보내셨던 것은 제자였던 이근삼 선생님때문이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선생님은 그 당시 은사인 페터슨 교수와 우리 나라 극예술계를 위해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 있으신 듯 했다.

페터슨 교수 내외 분은 그렇게 훌륭한 분이셨지만, 주말이면 주로 젊은 학생들과 보내셨다. 일요일 아침 가끔 그분들이 머물고 계셨던 호텔을 찾아가면, 햇빛이 잘드는 그 양지

바른 곳에서 선생님들은 젊은 학생들과 항상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이근삼 선생님은 바쁘셔서 언제나 그 자리에 없으셨고, 교수님의 사촌인 이만길군(연대 영문과)과 껌찍하고 지적으로 세련된 이원복(서울대 미학과)이라는 여학생이 그 곳에 있었다. 이근삼 선생님을 이곳에서 한번 본 것은 그 분들이 국제호텔에서 아스토리아 호텔로 이사하던 아침이었다. 그러나 그날도 선생님은 바쁘셨는지 회색양복을 입고 잠깐 왔다 가셨다.

그 분들과 만남이 있었던 후 나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대학원에 진학은 생각지도 못하고, 행시준비나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군복무를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입대를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내가 영천 부관학교에서 장교 교육을 받고 있을 때, 페터슨 교수 부인에게서 편지가 왔다. 병역의무를 마치면,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나는 군에 있으면서, 필요한 시험을 치르고 그 분이 있는 대학으로 가게되는 행운을 얻었다.

내가 66년말에 서울을 떠날 때, 군복을 입고 이근삼 선생님을 찾아 잠시 동안 인사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된다. 내가 이근삼 선생님을 보다 친밀하게 알게 된 것은 그분이 그곳에 와서 페터슨 은사님의 집에 며칠 밤을 지내며 서울에 돌아가면 중앙대학에서 서강대학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을 때였다. 선생님이 채플힐 극예술과에서 우수한 졸업생이라는 메달과 표창을 받으시고, 공항으로 떠날 때는 나도 선생을 태우고 가는 차 속에 페터슨 선생님 내외분과 함께 있었다.

보이지 않는 어떤 끈을 수 없는 인연 때문이었던지, 나는

그곳 대학원을 졸업하고 72년에 서강대학으로 와서 선생님과 함께 22년이란 긴 세월을 같은 일터에서 보냈다. 내가 서강 대학에 왔을 때 나는 문과대학에서 나이가 가장 적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미흡했고, 특별한 인맥도 없어서 항상 외로웠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선생님에게 많이 의존을 했어야만 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말이 빠르고 풍자적이어서 나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했지만, 내가 어려울 때 항상 힘이 되어주셨다.

선생님은 극작가, 특히 희극작가 특유의 기질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 항상 비판적이셨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는 나를 항상 끔직이도 사랑하며 아끼셨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선생님의 대표작인 「국물 있습니다」를 영역했는가 하면, 선생님의 연극이 공연되면 영자지에 연극평을 몇번 쓰던 일도 있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펜클럽 부회장 선거에 나가셔서 아슬아슬 했던 시절 나는 적지 않은 표를 얻어드리는 적은 일들을 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무튼 내가 우울했던 시절 나는 선생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강현두, 유재천 교수들과 더불어 어려운 시름을 극복했던 일들을 잊을 수 없다.

선생님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해서 희극작가 바로 그것이였다. 그래서 책읽고 글 쓰시는 것 이외에는 무엇이든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하셨다. 그래서 상대방이 심각하게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해 몇마디로 응답을 하고 지나쳐 버려 상대방을 대단히 무색하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선생님은 일생을 한번도 비굴하게 처신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물론 희극작가적인 기질 때문에— 다른 사

람의 비열한 짓이나 실수를 참아 넘기시지 못하고 항상 비판적이셨고 때문에 적(敵) 또한 많았다.

그러나 선생님은 적이 많을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 특징이셨다. 이른바 점잖은 사람들은 날카로운 어법 때문에 적지않게 비판적이지만, 선생님은 그와 같은 선생님 특유의 비판적인 기질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희극을 쓸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선생이 대단히 비판적이고 또 때로는 마스크를 쓴 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단히 냉담하고 지극히 사무적인 듯 보이셨지만, 그것은 선생님의 겉모양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선생님이 술을 마셨을 때 뚜렷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을 술자리에서 만나면, 그렇게 말이 화려하고 다정스러울 수가 없었다. 평소에 가졌던 씩씩한 마음도 술자리에 같이 앉으면 봄눈 녹듯이 다 풀려버렸다.

가령, 선생님은 평소에 나를 대할 때 그렇게도 무덤덤하고 무정(無情)하게 보일 수가 없었지만, 가끔 한밤중에 눈길을 헤치면서 우리 집으로 찾아오셔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가셨다. 선생님이 나에게 속마음을 보이신 또 하나의 사건은 나와 나의 집사람을 선생님의 서재에 잠을 재우신 일이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기억에 없지만, 내가 1987년 하버드 엔칭 교환교수로 서울을 떠나기 전날 늦게 선생님께 인사를 갔던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정말 내가 선생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본 것은 선생님이 아들 유철이의 갑작스런 죽음을 보고 그 추운 고려병원 영안실에서 계셨을 때였다. 아내는 그때 선생님 내외분의 창백한 모습을 보고 끝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나는 선생님이 베이지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바람 벽을 등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서 계시던 모습에서 지을 수 없는 사랑의 그림자를 보았다.

유철이를 잃고 난 후부터는 선생님이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우리 집을 찾아오시는 일이 없다. 우리가 남가좌동에서 이곳 성산동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물론 선생님은 우리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생님은 언젠가 다른 말 끝에 “집을 옮기느라고 빛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선생의 집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신 적이 있다. 그래서 이사를 온 후 선생님을 한번 모신다고 하는 것이 “산다는 것이 죄”라는 핑계로 미루다가 선생님이 은퇴하신다니 만감이 교차한다.

이제 은퇴하신 후 시간이 있으시면, 꼭 또 한번 한밤중에 눈길을 걸어서 저의 집을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그때 오실 때도 아마 선생님은 이북에 두고 오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장갑을 끼고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몇년전에 미국을 가서 8순을 넘기시고 남편없이 “실버촌”에 외롭게 사시는 페터슨 교수 부인을 뵙고 왔는데 이근삼 선생님께 소식이 없다고 서운해 하셨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분에게 소식이 없다고 해서 정이 없을 수야 있겠는가. 나 역시 같은 교정에서 머물고 있지만, 선생님을 뵈은지도 옛날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자주 뵈옵지 못한다고 해서 선생님과 나 사이에 흐르는 끈끈한 정이 세월속의 먼지처럼 없어졌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제 3부

그의 이야기

퇴장의 문턱에서 / 이근삼

나의 고향 / 이근삼

좌담회 “후학들이 모두 잘 되길 바랍니다.”

退場의 문턱에서

이 큰 삼

退場의 문턱에서 어떤 연출가가 자기 극단에서 정리한 연극관계 인사들의 명단을 보여 주었다. 그 명단은 경력과 나이를 고려해 서열순으로 작성되었단다. 공연 때 초대권이나 인장을 보낼 참이면 위부터 순서대로 보낸다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내이름은 서열 중간쯤에 있었는데 작년 말에 정리하다 보니 꺾충 上位급에 뛰어 올랐다는 얘기다. 그 연출가는 나에게 「선생님은 이제 元老이십니다」하고 축하했다. 이 찬사는 다시 말하면 당신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내 이름 앞에 있던 선배들이 다 가시고 나니 내가 그들의 빈 자리를 메우게 된 것이다. 세월의 흐름은 겨역할 수 없나 보다.

하기야 나는 일부 지방 연극인들에게는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었다. 몇 년전 지방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강연이 끝나면 으레 술판이 벌어진다. 이 때 지방에서 극단을 운영한다는 사람이 나타나 자기 극단 소개 책자를 돌렸다. 그 팜플렛의 공연 연보를 보니 10개 작품중 내 것을 네개나 공연한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나에게서는 알리지도 않고 무단

공연을 한 셈이다. 그 젊은이에게 내 이름을 가리키며 「공연에 앞서 이 사람의 허가나 받았는가」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이근삼씨는 벌써 오래전에 죽었습니다」하는 것이다.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오래 산다고 하니 그 일은 적당히 덮어 두기로 한다.

해가 갈수록 나의 전화번호 수첩이 가벼워진다. 정초에는 오래 수첩의 전화번호를 정리하는데 나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의 이름이 자꾸 빠져 나간다. 빠져 나간 자리에 새 이름이 들어와야 하는데 요즈음은 줄면 줄었지 영 새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저럭 살다보면 다른 사람의 전화수첩에서 내 이름도 빠져 나갈 것이다.

늙으면 주위에서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다. 호적의 착오로 나이는 나하고 같은데 5년전에 은퇴한 어떤 친구가 있다. 오랜만에 만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동네에서 동민 위안의 밤을 여는데 많이 모이시오” 하는 확성기 소리도 반갑다는 것이다.

2.3년전만 해도 옛 제자들이 집에 찾아 올 때는 양주 한 병을 차고 오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이제는 인삼이니 영지버섯이니 하는 보약을 들고 온다. 일생 보약같은 걸 먹은 적이 없는데 이들은 나를 완전히 늙은이로 취급하는 모양이다. 내가 제 아무리 마음은 청춘이라고 떠들어 보았자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증거다.

직업상 가끔 극장에 들른다. 우리의 극장관객은 날이 갈수록 젊어 진다. 내가 극장에 들어서면 젊은 관객들은 나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다.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영화관에 갔더니 표를 받는 아가씨가 「노인증이 있으면 반값인데…」하고 친절하게 일러준다. 단골로 다니던 술집에

서도 밀려났다. 어느덧 고객은 젊은 층으로 탈바꿈했다. 마담의 얼굴에서도 미안해 하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늙는 것도 죄냐. 야, 나도 한때 젊어 봤어. 너 늙어봤냐」하고 외치던 어떤 외국배우의 대사가 생각난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白髮을 찾아 볼 수 없다. 정치·경제·교육·예술 그리고 매스미디어에서 백발이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 경우는 늙은 흔적만 보여도 밀려난다. 그래서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을 우리는 ‘젊은 노인’이라고 부른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헌 캘린더의 마지막 장이 찢어져 나가면 우리는 한살 더 먹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다음날 초하루는 어제와 다름이 없다.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뜨고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다.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회갑을 치렀다고 해서 삼라만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내가 회갑때 외국으로 도망간 이유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나를 늙은이 취급하는 것이 싫어서였다.

生과死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운명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때가 오면 나도 내주위 사람들처럼 떠나기 마련이다. 금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나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낀다. 내 과거는 고생으로 범벅이 되어있다. 이제 마음 놓고 쉬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저 추한 욕심을 안 가졌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사람은 어차피 늙게 마련이다. 그런데 내 주위에는 나이가 들자 몹시 초조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차피 갈 길인데 무엇이 그리 초조한지 모르겠다. 老年期에는 노년에 맞는 인생이 있는 것이다. 자랑스럽고 여유있게 이 시기를 보내고 싶

은 욕심이 태산같다. 앞으로 늙을 신세대에게 노년기의 모범적인 인생을 보여주는 이유에서도 말이다.

(「동아일보」 1992년 12월)

나의 고향

이 근 삼

平壤市 大察里. 내가 태어나 근 18년동안 살았던 고향이다. 和信 백화점 네거리에서 보통 강쪽으로 西門通이 뚫려있다. 대찰리는 종로네거리에서 서문통을 따라 한 200m쯤 가면 왼쪽에 자리잡은 느슨한 언덕에 펼쳐져 있는 동네다. 언덕 위에는 평양서 제일 크다는 남산재 교회가 있어 일요일이면 골목은 교인들로 가득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李允榮목사도 한 때 이 교회에서 봉직했다.

교회로 가는 길 건너편에는 아담한 외국 선교사들의 숙소가 있어 조선말을 잘 하는 이들 선교사의 출입을 우리 꼬마들은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곤 했다. 대찰리를 중심으로 많은 학교가 산재해 있었다.

송실전문학교 · 평양신학교 · 광성중학 · 정의여중 · 정의소학교 · 광성소학교를 비롯 서문통건너 서문여중 송의 여상등 평양 시내서 가장 많은 학교가 밀집돼 있었던 곳이 대찰리였다.

우리는 무리를 지어 이들 학교의 교정을 드나들며 해가 질 때까지 뛰고 싸우고 공을 차며 정신없이 놀았다. 가끔 독립군놀이도 했다. 전설속의 김일성장군이 우리의 우상이어서

나도 긴 막대기를 허리춤에 차고 김일성역을 맡기도 했다. 나의 큰 형이 해방후 김일성장군 환영 시민대회에 갔다가 가짜 김일성장군을 보고 실망하던 일이 생각난다.

개구쟁이 시절 나의 행동 반경은 이웃 학교 뿐만이 아니라 우리집 바로 뒤편에 있던 기독교병원 동산 모란(모란)봉 그리고 집에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서기산도 포함되었다. 때로는 신양리길을 따라 떡짜구(개구리) 잡으러 보통 강에 갔으며 형을 따라 대성산에도 가곤했다.

우리 동네서 모란봉으로 가는 길은 두개가 있었다. 하수구리 상수구리를 지나 평남도청이 있던 만수대를 거쳐 가는 길과 종로거리를 따라 대동문을 지나 대동강을 끼고 타는 길이었다. 대동문을 지나면 기생학교가 있어 장구 소리며 새끼기생들의 창도 들을 수 있었다. 개구쟁이 눈에도 새끼기생들은 인형처럼 곱게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대동문 코스를 택했다.

을밀대에서 유유히 흐르는 맑은 대동강을 내려다 보는 재미는 일품이었다. 상류에서 미끄러지 듯 흘러 내려오는 흰뚝 단배를 어디서 떠내려 오는지 모를 뗏목들, 그 사이를 분주히 까블며 다니는 매생이 배들. 매생이는 손바닥만한 1인용 배로 고기잡이와 수중 택시 역할을 하는 대동강의 명물이었다. 평양은 온 거리가 나에게는 놀이터요 공원이었다.

4월이 되면 모란봉 길은 벚꽃으로 뒤덮였다. 한밤중 임시가설한 전등불에 반사되는 벚꽃이 좋아 사람들은 밤새 모란봉 산책로를 걸어 다녔다 대찰리와 신양리 사이의 가로가 밤이 되면 夜市로 변했다. 온갖 장사치들이 나와 소리를 지르며 손님을 불렀고 우리는 이 진풍경을 구경하노라 귀가 시간도 잊어 집에 가서 벌을 받기도 했다. 그 때 같이 밀려다니던

효덕이·뽀빠이·운용이·하이칼라·안재비등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큰형은 어렸을 때부터 독서광에다 자칭 소설가였다. 나도 그 영향을 받아 중학에 들어가기 전에 신호사에서 나온 세계문학전집을 거의 다 훑어 보았을 정도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우리 세형제는 돈만 생기면 일인들 거리인 「미나카이」백화점 근처의 서적상을 뒤졌다. 대찰리 고개를 내려오면 평양도서관이 있었고 더 가면 이른바 신시가가 평양역까지 뻗어 있었는데 일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던 지대다. 그쪽에 들어서면 왜 그런지 낯설었다.

우리동네 아이가 도서관 근처서 일본 애들한테 매를 맞아 우리는 복수를 한답시고 몽둥이를 들고 꽤거리로 현장에 출동했던 기억도 난다. 젊은 나이에 홀몸이 되신 어머니는 우리 3형제를 키우시기에 무척 고생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가끔 냉면을 시켜주셨다. 냉면은 주로 겨울철 한밤중에 먹었다. 영하 20도나 되는 밤에 냉면을 시키면 배달부는 냉면그릇을 긴 목판에 몇그릇 올려 놓고 목판을 한손으로 받쳐들고 자전거를 타고 배달해준다. 이 냉면 배달꾼은 평양의 명물이었다. 냉면 몇 십그릇을 목판에 올려 놓고 한손으로 가볍게 목판을 받쳐들고는 나머지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조작하여 시내를 질주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꼭예사와도 같았다.

냉면에는 꿩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다. 추위에 떨며 그 차디찬 냉면을 먹는 멋을 이남 사람들은 알리가 없다. 냉면 다음의 명물은 김치말이 밥이다. 한 겨울 밤 얼어붙은 동치미 국을 떠다 찬밥을 말아서 먹는다.

서울 토박이인 내 아내가 결혼초기, 김치말이를 달라니까 처음엔 놀랐지만 같이 살다보니 이제는 가족 모두가 김치말

이를 즐기게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한 것은 노티였다. 대개 추석명절 때 만드는 노티는 찹살과 길기미가루를 혼합해 만든 빈대떡 보다 작은 쌀과 자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보관해 두었다가 긴긴 겨울 밤 불에 구워서 먹기도 했다.

우리 세형제는 종로거리에 있던 종로국민학교에 다녔다. 그 때만 해도 입학시험이라는 것이 있어 아무나 학교에 들어갈수가 없었다. 국민학교 2학년 때 北支에서 전쟁이 터졌고 이어 시간표에서 조선어 과목이 없어졌다.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뀌었다. 창시개명이라는 것이다. 6학년 때는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진주만에서 싱가포르에서 대승했다며 우리는 밤에 등불을 들고 시가 행진에 동원되기도 했다. 「이겼다 일본 단연코 이겼다.」라는 군가를 부르면서. 6학년 때는 친구들과 부벽루를 왼쪽에 육나도를 오른쪽에 끼고 나있는 길을 따라 한시간쯤 걸어 주암산에 자주 갔던 생각이 난다. 대동강을 내려다 보며 우리는 전쟁 이야기도 했고 요새말로 진학문제도 토론했다.

나는 평양사범학교에 진학했다. 내 뜻과는 관계없이 교장이 어머니를 불러 협박반 설득반으로 사범학교 진학이 결정됐다. 100명 정도 뽑는데 2000여명이 몰려들어 시험을 일주일동안이나 치렀다. 일본 학생들은 공짜로 넣어주니 경쟁률은 40 대 1정도였다. 옷 구두 모자 책가방등 모든 것이 공짜였고 매달 그 때 돈으로 30원을 주었지만 사범교육은 철저한 노예교육이었다. 사범학교는 대동강을 건너 평양 비행장쪽 문란리에 있었다.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대동교를 거쳐 또는 대동문밑에서 배를 타고 10리가 넘는 통

학길을 꾸역 꾸역 항소처럼 왕복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3학년때부터는 학업을 전폐하고 우리는 비행장 노동자로 가동되었다.

가끔 꽤를 부려 비행장을 빠져 나와 금천대좌에 가서 극단 「고협」의 공연을 보았다.

황철이라는 배우가 좋았다. 금천대좌를 비롯 계락관·키네마·제일극장... 이 극장들은 나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평양 비행장에서도 가미가제 특공대가 오키나와를 향해 떠나곤 했다. 우리는 줄을 서서 죽음의 길로 가는 어린 소년병들에게 손을 흔들곤 했다.

나는 월남후 대학서 학생처장을 했다. 운동권 학생들을 대하며 그 옛날 나의 모습을 상기하니 묘한 심정이었다. 1947년 나는 홀로 남쪽으로 넘어왔다.

평양 대찰리를 떠난지 45년. 몇 년전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어머니가 남포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평양의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데도 고향이 내 마음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나는 참 몹쓸 시대에 태어났다.

(「서울신문」 1992년 12월 명사의 고향)

〈이근삼 선생과의 좌담회〉

“후학들이 모두 잘 되길 바랍니다”

이근삼교수정년기념사업회는 이근삼 선생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자리가 별로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수필집에서라도 이 선생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시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선생과 주변의 몇몇 제자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분이 살아오신 얘기, 제자들이 경험한 이선생의 모습, 정년의 감회 등이 솔직하고 재미있게 얘기되었습니다. 이 난을 통해 이선생과 후배, 제자들이 보다 의미 있는 참여공간을 발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좌담은 1994년 2월 28일, 서강대학교 다산관 5층 교수휴게실에서 있었습니다. (편집자 주)

좌담참석자

이근삼 선생

권성덕 (국립극단 단장 : 중앙대 연극영화과 3기)

김연중 (언론학 박사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75)

김용수 (연극학 박사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73)

김용호 (언론학 박사 : 서강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G83)

김호석 (박사과정 : 서강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G87)

최성실 (방송극작가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76)

최용원 (동아일보 기획특집부 차장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72)

김용호 : 이근삼 선생님의 정년을 기념하여 저희가 내기로 한 「에세이집」은 각계 제자들이 이 선생님과 나누었던 경험을 적어 모은 것입니다. 이런 글들에 앞서 이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모임을 갖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나 독백을 하기보다는 제자들과 경험을 주고 받으며 ‘연극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주변 분들에게도 쉽게 접근되리라 생각되어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정년을 맞으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섭섭하다니? 전혀……

이근삼 :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년퇴직하니까 착잡하지 않은가’라고 물어보는데 난 솔직히 말해서 그리 섭섭하지는 않아요. 52년부터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43년이나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교수생활을 가장 오래한 사람중의 한 사람일 겁니다. 초창기 육사를 그만두고서 동국대에서 스물여섯 살에 전임강사가 됐을 때는 제일 어린 사람이 됐다고 말도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봐도당시에 저는 참어렸던 것 같아요.

얼마 전 학장을 하면서도 인사위원회에서 항상 조기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어요. 학교제도상의 미비로 못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인데, 내가 오래 해서 피곤하다는 이유에서라기 보다는 새로운 연구를 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 직장에서

너무 오래 앉아서 자리나 차지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만 두면 일할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착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섭섭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로에 가면 권성덕



이근삼 선생님

씨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맥주도 마실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웃음) 또 대학 선생하면서 그 동안 쓰지 못했던 글도 있구요.

김연중 : 그러면 학교생활 정리 같은 것은 별도로 생각하지 않으시겠네요. 정년퇴임도 하나의 연장선상이라 생각하시니까, 은퇴라는 것이 선생님께는 별 의미가 없군요.

이근삼 :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었던 게 주로 양쪽에 다 관여했어요. 교수로서 책도 써야하고 논문도 써야하고, 극작가로서 희곡도 써야하고……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식인데, 결국 교수로서든 극작가로서든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할까요?

김용수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모임에서 ‘선생님의 은퇴는 보통 분들의 은퇴와는 다르다, 오히려 이게 해방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선생님께는 보다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거였죠.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은퇴를 준비하셔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들을 했지요.



권성덕

이근삼 : 그런데 나 은퇴하는 건 괜찮은데, 40여년 간 같이 산 아내는 습관적으로 아침에 나가 밤에 들어오곤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으면 아마 힘들어 할 겁니다. 나는 40년 동안 아침을 안 먹었는데 은퇴하면 아침, 점심도 챙겨줘야지, 또 봉급도 반으로 줄어들테고……(웃음).

내가 알기로 아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교수로서 내가 차를 맨 처음 끌고 다녔을 거예요. 57년에 미국 가서 2년 동안 차를 끌고 다녔으니까. 차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건데, 옛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가 차 사고 난 뒤로 차는 팔았어요. 차는 필요없



최용원

생는 게,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 차 잡기 위해서 왔
다갔다 뛰어다니는게 좋지
않아요? 지금 버스나 가끔
지하철을 타는 데, 다른 사
람들은 앉잖아요. 나는 서
서 흔들어도 보고 부딪치
기도 하는데 그게 건강에
좋지 않겠어요? 물론 일년
에 한 두 번 정초에세배 다
닐 때라면 차가 좀 아쉽긴
하지만요.



김용수

김용호 : 선생님께서 저희와 인연을 맺게된 것이 이북서 남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선생님께도 그 사건이
중요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양에서의 생활과
남하하실 때까지의 얘기를 정리해 주시면……

서울역 벤치에서 거지들과 자기도

이근삼 :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지금 오백만이라는데 그 중
에 한 명으로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그 당시야
다 고생했던 시기니까요.

왜정시대 때 내가 다니던 평양사범학교는 교사를
양성하는 곳으로 5년제였어요. 내가 4학년 때 해방
이 되었는데 그 다음 해 2월 초에 신의주 학생사건
이 일어나고, 평양에도 그 바람이 불어 저도 학생운
동에 참여하게 됐지요. 뼈라 뿌린다, 뭐한다 그러다

가 결국 추락당했지요. 그 당시 퇴학을 ‘추락’이라고 했거든요.

퇴학맞고 도망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큰 형님이 잡혀 들어가게 됐고, 결국 자수하고 학교에 복학해 보니 내 동기인 신인섭 씨 등은 다 5학년 수업하고 졸업했는데, 나는 유급되어 4학년으로 다시 들어가 반년 있다가 혼자남 하했습니다. 그 때 도망 안 나왔으면 지금쯤 평양에서 최소한 인민학교 교장은 했겠지요.(웃음)

김연중 : 자발적으로 혼자 결정하고 내려오신 겁니까?

이근삼 : 아니지요. 우리 어머니하고 큰 형님하고는 ‘일단 도망가야 되겠다’면서 ‘나중에 뒤따라 내려간다’ 하

셨지만 못 오셨지요. 나만 내려와서 고생도 많았어요. 서울역 벤치에서 자기도 했구요. 거지들 자는 데 가서 자는데, 거지들이 발로 차 잠자리를 뺏기기도 했고 또 내가 그렇게 차지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신문에서 가정교사 구한다는 기사를 보고 간신히



김연중



김호석

자리를 잡았죠. 보통 가정교사는 한 명만 하는데 주인집 모르게 둘 더했지요. 날 때까지 하루에 보통 세 곳에서 가정교사 하면서 공부했어요.

김용호 : 평양에서의 선생님 가족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근삼 :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지 3일 후 돌아가셨으니 잘 모르고, 큰 형님은 다음 해에,

작은 형님은 1.4후퇴 때 다 넘어왔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과부로 고생하시며 처음으로 집 장만하셨기 때문에 통일되면 내려 오신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셨는데, 그게 이별이 될 줄이야…… 그러다가 작년에 미국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어머니가 84년에 진남포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니깐 고향인데…… 이젠 서울서 40년 살았으니까 서울 사람이죠 뭐.

김연종 : 특별히 고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시구요?

이근삼 :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머니 소식 듣기 전에는 고향에서 놀던 꿈도 꾸곤 했는데, 이상하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깐 꿈에 고향이 안 나타나더라구요. 고향이라는 곳도 태어난 장소라기보다도 부모와 친지가 거기 계실 때 그리운가 봅니다.

김용호 : 가정교사 생활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최성실

29년 생이 어떻게 대학교수가?’

이근삼 : 가정교사 하다가 결국 대학 3학년 때 6.25가 났어요. 그러니깐 여기 넘어와서 공부란 건 제대로 못했죠.

김용호 : 그럼 입학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근삼 : 9월에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해화전문에서 편입생 모집한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 때는 서울대나 연대는 4월에 시험이 다 끝났고. 혼자 내려와서 공부가 되겠어요? 그동안 배구 좀 했는데,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하겠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해화전문학교를 찾아가 월반해 들어 갔지요. 이하운 선생님이 그 때 교무과장이셨는데 월반해서 2학년에 넣어주셨지요. 그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잘 봐주셨어요.

그 당시 우리 주위에서 1929년 생들은 작가나 학자가 되는 건 거의가 불가능했던 시대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가 왜정시대고 국민학교 2학년 때 조선말이 없어지고 일본말로만 했으니까. 그리고 사범학교 들어가니까 2학년 때부터 영어가 없어지고, 2학년 말부터는 매일 근로봉사를 해야 됐지요. 그러다 해방되니까 소련군이 들어왔고…… 우리 세대는 시대로 보더라도 안정되게 공부를 할 수 없



김용호

었어요. 오히려 왜정시대에 대학에 다녔던 사람들이 공부하기는 좀 수월했지요. 어떤 모임에 가니까 ‘당신 29년생인데 어떻게 교수가 됐는가’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김용수 : 혜화전문에서는 뭘 전공하셨는지요?

이근삼 : 불교전문학교이기 때문에 불교학과하고 경제학과, 문과 3개 밖에 없었어요. 해방 전에 전문학교는 연전, 보전, 혜전 셋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연전, 보전 쪽은 전통이 있는데, 혜전은 불교 학교라 선배들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죠. 선배들이 누가 있어요? 서정주씨라든가 작가들은 많이 나왔죠. 근데 1년 다니니까 갑자기 학교가 없어지더니 남산 꼭대기에 동국대학이라는게 생겼죠. 거기에 2학년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했는데, 편입금을 낼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갈 생각도 못하고……

이북에 먼저 간다는 착각에 군으로

최용원 : 6.25 때는 그럼 어디로 피난가셨어요? 군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근삼 : 그래요. 그 때 군대 들어가면 이북에 먼저 간다는 착각도 있었 지요. **최용원** : 일반 사병으로 들어가셨나요?

이근삼 : 소문에 대학생들은 훈련시켜서 이북에 선전 공작원으로 보낸다고 해서 좋아라 지원했더니 차로 사흘이나 걸려 내려와서 부산의 통신학교에 넣더라고요. 당시 고대 이문형씨, 박찬기씨 등도 있었어요. 전장

나서 자꾸 사단이 많아지고, 일반 보병들은 총쏘는 건 가르치는데 통신에서 쓰는 모르스 부호 같은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커뮤니케이션과 관계를 맺게 된 인연인지도 모르지요.

그 훈련을 석달 받고 나니까 모든 훈련병에게 일 등병을 달아주는데 나는 반장이라고 하사를 달아주고서 전부 전선으로 보냈어요. 나와 몇명은 육군본부 통신감실 보안과에 보내졌는데, 조금 있다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이왕이면 장교를 하겠다’는 생각에서 통역장교로 시험쳐 들어 갔지요.

최용원 : 그럼 통역장교로 계시면서 육사교수로 발령받아 그리 가신 겁니까?

이근삼 : 통역장교는 통역만 하는 사람들인데, 난 어떻게 태백산 전투사령부로 파견되었고, 사령관은 나를 통역관이 아닌 부관으로 썼어요. 그 때 육사가 생겼고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때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뽑혔지요. 육사에 들어가니 지금 서울대 총장인 김종운씨, 부총리였던 조순씨, 그리고 서울대 교수인 황찬호씨가 있었어요.

최용원 : 선생님도 모르는 사이에 명단이 올라가서 차출이 되신거군요.

이근삼 : 글썄 그 명단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끌려간 건 지는 모르겠지만…… 하하하.

52년에 군대 있을 동안 대학졸업장은 주더군요. 55년 되니까 동국대에서 교수들 반 이상이 다 이북으로 납치되고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총장이 국방부에 공문을 내서 동국대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최용원 : 아까 말씀하신 그 분들은 모두 육사에 같이 계신 분들이었구요?

이근삼 : 그 분들은 소령, 중령까지 진급했고 난 일찍 제대해 대위로 끝났어요. 몇 달 더 있었으면 소령인데……

최용원 : 52년 몇 월부터……?

이근삼 : 55년 10월 육사 11기가 졸업한 직후에 제대했어요.

영어, 신기하지 않아요?

김연종 : 영문학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 당시엔 영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을 때 아닙니까?

이근삼 : 아니지요. 사범학교 시절에도 같이 영어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로 봉사 가서도 영어단어 외우고 그랬죠. 사범학교 2 학년 때 영어과목이 폐강되었지만.

김연종 : 어떻게 영어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근삼 : 영어, 신기하지 않아요? 하하하……

최용원 : 그럼 육사에서도 영어교관을 하신 겁니까?

이근삼 : 그렇지요.

최용원 : 동국대에서도 영문학을 가르치셨구요?

이근삼 : 그렇지요. 내가 영문과 나왔으니까.

최용원 : 그럼 연극하고 희곡하고는 어떻게……?

이근삼 : 본래 연극을 좋아했어요.

최용원 : 그 때는 연극다운 연극도 없었을 텐데요.

빵을 쥐 교회 가다보니 연극이 취미가 되고

이근삼 : 내가 자라던 평양에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내가 있던 곳이 기독교인이 제일 많았고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전부 그 쪽에 있었지요. 그 때 교회에서 1년에 2~3번 정도 성극(聖劇)을 했어요. 그 때는 그게 그렇게 좋아 구경하러 다녔지요. 사실 연극도 좋지만, 연극보다는 가난하니까 가면 꼭 공책하고 연필하고 빵을 쥐서 자꾸 가다 보니까 취미가 된 거지.

대학에서는 소설을 가르쳤어요. 동국대학 총장서리를 한 김정근 교수, 시인 신경림씨, 오국근 교수 등이 모두 나한테 소설을 배웠지요. 그런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졌어요. 연극을 하고 싶은데…… 책은 많이 봤어요. 주로 희곡 같은 걸 많이 읽었지요.

그러다 56년에 미 대사관에서 전국 교수 중에서 미국 보내준다고…… 스미스 만트 그랜트 장학금이죠. 요즘의 풀부라이트 비슷한 거예요. 창피한 일이지만 거기 시험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 치러 왔는데 내가 제일 어렸어요. 영문학 하는 사람 3명을 뽑았지요. 장왕록씨, 송옥씨, 그리고 내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희곡 공부를 하게 된 거지요.

최용원 : 미국 가서 희곡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신 겁니까?

이근삼 : 1년이 계약인데, 마치고 돌아오려니까 미 국무성에서 ‘있고 싶으면 1년 정도 더 있어도 된다’는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학위를 해야 되겠다’ 해서 18과

목을 했지요. 영문과 아홉, 드라마과 아홉하고. 창피한 얘기지만 ‘한국에는 연극학과가 없으니 임시 학생으로 학부 1학년 기초 과목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했지요.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용수 : 선생님 그 때 경험이 연극개론 강의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근삼 : 미국에서의 교육은 뭐…… 김용수씨도 가 봐서 알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교과서가 없어서 쓴 것이 「연극개론」이 예요. 30년이 지났는데 1년에 2천 부를 찍는 정도이고, 지금 3분의 2 정도 크게 수정하고 있어요. 개정판을 내려고. 일단 은퇴하면 수정작업 부터 마무리해야지요.

김연중 :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희곡을 써 봐라’해서 그게 계기가 됐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정에 약해서 극작가가 된 것

이근삼 :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일대학 나온 극작가 토마스 페터슨 교수였지요. 거기에선 재미있는 게 대학원 코스에서 세미나할 때 다른 교수들이 모두 수업에 참가하지요. ‘버나드 쇼’라는 세미나였는데, 그 때 나를 가르치시던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네가 한국 돌아가서 희곡문학 강의도 하겠지만 먼저 극작가가 되어야 한다”하고 자꾸 요청하셔서 거부를 못하고 영어로 하는 그 코스를 택했지요. 수업을 따라가느라 밤에 울기도 했어요. 정에 약해 괜히 택했다는

후회도 했지만…… 그 때 쓴 두 작품이 공연되기도 했고……

김용수 : 그럼 극작가로서의 정식 데뷔는 미국에서 하신 건가요?

이근삼 : 희곡을 쓸 생각도 없이 갔다가 한국 사람의 약점인 정 때문에…… 그 분이 매일 집에 데려가 밥 먹여주고 관심을 가져주는데 어떻게 ‘노’ 할 수가 없더라고요.

최용원 : 결국 선생님 최초의 희곡은 영어로 쓰신 거죠?

이근삼 : 그렇게 됐지요.

김연중 : 그때 그 작품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근삼 : 내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니까 첫 작품은 38선 얘기, 두번째 작품은 피난민들이 다리 밑에서 생활 하던 것 등, 어차피 쓸 거 ‘내 조국에 대해서 좀 알라’고 그렇게 썼지요.

김용수 : 그 극장이 채플힐(Chapel Hill)에서도 유명한 극장이었다면서요?

이근삼 : ‘캐롤라이나 플레이 메이커(Carolina Playmaker)’라고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지요. 거기 사람들에게는 등용문일지 몰라도 전 외국인으로 참 운이 좋았죠.

최용원 : 그럼 우리말로 된 희곡은 언제 처음 쓰셨습니까?

이근삼 : 돌아와서 59년에 「원고지」라는 것을 써서, 여석기 선생이 사상계 편집위원으로 계실 때 사상계에 처음 작품을 냈지요.

최용원 : 그 당시 59년에 처음 희곡 쓰실 때 우리나라 연극계에서 희곡 쓰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이근삼 : 유치진씨하고 오영진씨 등이 계셨지요. 오영진씨는 주로 영화 시나리오를 많이 쓰셨어요. 차범석씨가 먼저 나왔지만 만난 적이 없고 그 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요.

‘섰다’ 하다가 결혼으로

김연중 : 선생님께서 그 때쯤에 결혼을 하셔서 사모님을 여기에 두시고 혼자 미국에 가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이근삼 : 결혼하고 1년 7개월 후 첫아이인 유리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7개월 될 때 떠나서는 4살 될 때 돌아왔어요.

김연중 : 결혼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근삼 : 내가 육군 대위 때 우연히 육사동료 친구네 집에 가서 ‘섰다’ 하다가 만났어요.

김연중 : 어떻게 섰다관에서 만나셨어요?

김용호 : 그 대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근삼 : 육사친구들이 모이면 돈이 없으니깐 그저 바둑알 놓고 하지요. 여자들도 같이 하는데 한 여자가 밤낮 속고는 했어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요.

김연중 : 그럼 결국은 연애하신 겁니까?

이근삼 : 글썸. 알다시피 내 성격에 여자를 데리고 숨어서 다니지 못하잖아요.

김연중 : 막연히 중매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근삼 : 하여튼 결혼해서 미국 갔다 와 보니 애가 4살이었

지. 또 이리저리 외국나갔다 돌아와 보면 애가 또 하나 있지. 그러다 66년인가 록펠러 3세 재단에서 부부동반으로 세계연극계를 돌아보고 오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떠나기 직전에 우리 처가 못 가겠대요. 아기를 가졌다고요. 나 혼자 다녀와 보니까 또 하나가 누워 있어요. 그게 바로 유정이에요.

「원고지」의 인생 : 동국대 교수이자 번역가

김연중 : 59년에 돌아오셔서 희곡만 쓰셨습니까?

이근삼 : 미국에서 돌아와서는 희곡보다 번역을 많이 했지요. 그 때 봉급이 2만원인가 했어요. 그것 가지고는 못 살았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됐지요. 아마 내가 번역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한장에 50환짜리 번역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김용수 : 선생님의 첫 한글작품인 「원고지」가 선생님 일생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근삼 : 돌아와 보니 참 막연하더군요. 중앙대에서 봉급을 2만 9천원 받았는데, 서강대에서 오라고 해서 왔더니 3배를 줘요. 맥주값을 더 벌긴했지만 그 때 교수들 생활이 형편 없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생각했는데, 돈 버는 방법은 글 쓰는 것 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앞으로 한국 돌아가면 내 팔자가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쓴 것이 「원고지」지요.

김용호 : 그럼 오시자마자 중앙대로 가신 건가요?

이근삼 : 처음에는 동국대에 있었어요. 29살에 교학과장 하다

가 무슨 싸움에 말려들어 몇 명이 한꺼번에 쫓겨났어요. 한 학기동안 방황하다가 62년경에 중앙대에 왔습니다.

김용수 : 선생님 동국대 영문과에 계실 때 기억나는 제자 분은 누구십니까? 중앙대로 옮기셨을 때나……

이근삼 : 그 때 교학과장하면서 내가 연극영화과를 만들었어요…… 나는 영문과에 있으면서. 근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진 선생을 찾아가 그 분한테 맡기고…… 지금 KBS에 국장으로 있는 하강일, 김기일, 이일용, 김홍우, 장옥재 씨 등이 당시 연극학과에 입학했죠.

드라마센터 설립과 관련된 일들

김용수 : 아까 록펠러 재단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잠깐 언급해주시죠? 드라마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이근삼 :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부러운게 상설극장이 있어서 거기서 훈련하고 기획하고 공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59년에 알지도 못하면서 록펠러 재단에 편지를 썼지요. 부럽다고. 그게 어떻게 연락이 되었어요. 그때 이후 록펠러 3세 디렉터가 느닷없이 전화로 ‘내가 한국 가면 누구를 만나야 하나요?’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난 적은 없지만 유치진 선생 밖에는 없을 것 같아서 급히 유선생한테 연락을 했지요. 나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면 잘 대우해 달라구요. 유선생은 놀래 가지고 그 사람이 공항에 내릴 때 배우들을 다 데리고 가서 꽃다발 들고 환영했

대요. 그래서 일이 시작된 거예요. 돌아와서 유선생과 드라마 센터를 만들었는데 내 뜻하고 다르게 되더라구요. 처음에는 공공소유였는데,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개인 소유가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얘기가 많았지.

김용호 : 그것을 밝히실 생각이 있으세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근삼 : 아니, 밝힐 것도 없고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2년 전인가 신문에도 그 일이 나기도 했구요.

김용수 : 엄밀히 얘기해서 드라마 센터는 록펠러 센터에서 한국연극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군요.

이근삼 : 글썄,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개인 것으로 되어 버렸더군요.

김용수 : 그래도 그 당시에 드라마 센터는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극장구조였죠?

이근삼 : 그래요. 나도 노량진에서 살다가 일부러 드라마 센터 밑에 셋방을 얻어 옮겨 살면서까지 열심히 했었지요.

김용호 : 중앙대에 계실 때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인생을 망치게 한’ 선생 : 중앙대 시절

이근삼 : 62년부터 69년 6월까지 연극영화과에 있었지요. 중앙대 시절은 권성덕씨가 더 잘 알 거예요.

권성덕 : 저는 선생님을 직접 뵈기보다는…… 아까 호구지책으로 번역했다고 하셨는데, 번역하신 책으로 먼저 보였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은 가난하고 희망도 없

고 그리고 어학 실력도 없었죠. 그럴 때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이 유진 오닐의 단막극입니다. 문고판으로 조그맣게 나온 건데, 그것들을 읽고서는 꿈에 부풀었었죠. 「고래」라든가, 「카리비도의 달밤」, 「위험지역」, 「뱃줄」 등 몇 개가 들어있었죠. ‘아 이렇게 좋은 작품도 있구나’ 하면서 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선생님을 만나 뵈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봐도 그 당시 제자들이 선생님을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이근삼 : 나 때문에 일생 버렸다면서?(웃음) 연극은 안 하려고 했는데……

권성덕 : 지금 선생님 제자들이 동국대에도 있고 서강대, 중앙대, 각 방송국, 배우, PD, 연출 등 많지만…… 제가 여기에 왜 이렇게 뽑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연히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누가 툭하고 엉덩이를 차요. 이렇게 보니까 키가 크신 선생님이 “너같은 놈들이 배우하는 거야. 배우하라우” 하시더라구요. 배우를 해야 될 지 뭘 해야 될 지, 영화를 해야 될지 연극을 해야 될지…… 여하튼 원서 쓸 때는 연극영화과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많이 할 것 같았어요. 나만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 때문에 ‘나 같은 촌놈도 배우를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여서는 작품을 하나씩 맡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작은 일이 제가 배우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김용수 : 거기에 권선생님 말고도 몇 분 계시잖아요. 그 때는 선생님께서 일생을 망쳐 놓은, 그러나 이제와서 보니 성공한 분들이요.

이근삼 : 사실 그 당시에는 연극하는 사람들 중에 대학출신이 드물었어요. 중앙대에서 처음으로 학사 배우들이 나왔지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극단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 유일한 학사 극단이 되었어요.

권성덕 : 「실험극단」을 도왔고, 65년에 「가교」를 만든 것도 선생님의 힘이었죠. 그 때는 밥만 먹어도 고마웠고, 조그만 극장에서라도 공연하고. 또 새마을 운동을 하기도 했었죠. 자연 퇴비를 만들어 뿌리면 좋다고 해서 한달을 돌고. 전라도 지리산과 부산으로 해서

이근삼 : 「가교」에 식구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출발은 했는데 아마추어가 하니까 그럴 수밖에. 「민중극단」은 63년에 만들었죠. 우리끼리 신선한 코메디를 해보자 하고 만들었는데 2년 하다가 대표를 그만두었지.

김용수 : 권선생님이 2기이고, 최주봉씨 등이 5가지요? 최상식 선생님이 4기나 5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권성덕 : 방송국에 가보면 지금 서강대가 다 잡고 있어요.(웃음)

물 만난 ‘광적인’ 학생들 : 서강대 시절

이근삼 : 서강대로 와서는 지금의 신문방송학과를 만들게 되었죠. 초기에 ‘보도예술학과’였는데. 가톨릭은 혁명

지향적이어서 정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로 고치라고 해서 고친 것이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rts였죠.

김용호 : 원래 과 이름이 바뀌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도예술’에서 ‘신문방송’으로.

이근삼 : 문교부에서 지시를 한 것이지요. 안 그러면 없애겠다고 그러더군요.

최용원 : 문교부 정책상……

김용수 : 유사과 통폐합이 있었지요.

이근삼 : 서강대에서는 약속대로 극장을 지어 주었는데, 이름을 「대학극장」으로 하자고 했더니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신성한 학교에 극장이 뭐냐’고 해서 결국 「메리 홀」로 됐어요.

김용수 : 외국 갔다 온 선생님들이 극장이라는 말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이상하네요. 미국에는 학교 내에 다 극장이 있는 데 말입니다.

최용원 : 그러니까 영어로 써야 된다는 거지요.(웃음)

권성덕 : 당시만 해도 ‘극장’이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금과는 달랐겠지요.

김용수 : 지금도 학교 책자를 보면 ‘강당’이라는 말과 섞여 나오거든요. 강당이라는 것은 극장보다 하위 수준인데 아직 구분이 잘 안돼 있는 거 같아요.

최용원 : 68학번이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1기생이죠. 73년에는 ‘신문방송학과’였는데 신문은 거의 가르치는 것이 없다시피 했어요. 저는 72학번입니다. 신문방송학과라고 들어왔는데 신문과 방송에 대해 가르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선생님은 세익스피어를 많이 가

르치셨어요. 그래도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 저는 연극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 중 한명이었죠.

이근삼 : 당시 신문사에 들어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 방송국 가고, 김철리나 몇 명이 연극했지. 최용원씨가 동아일보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힘으로 들어갔어요. 그 때는 신문 강의가 거의 없었어요.

최용원 : 제가 1학년 때 극장에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공연했었어요. 신입생으로 들어와 그 해 봄 축제 때 보았는데 새로운 세계의 개안이었지요. 71학번과 70학번이 배우였는데 그 선배들은 나의 우상이 되었어요. 2학년이 되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해서 연극에 대한 싹이 텄지요. 그 김에 연극을 하려고 했는데 사투리 때문에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 72학번은 3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여학생이 16명, 남학생 14명 이었죠. 남학생 14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지방학생이었고, 그 중에서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6~7명 정도였어요. 그 사람들이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사정이 저희 학번에서 연극에 별로 손을 못 대고, 방송국 PD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신문쪽으로 많이 풀려나 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 이지요.

김용수 : 저도 신방과 타이틀 보고 들어 왔는데, 제 시험 감독이 선생님이셨어요. 지금도 그 때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때도 노숙하셨고. 시험칠 때 마음이 매우 푸근했어요. 그 인상이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지요. 수업에 들어가면 부담을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 졸업생들이 모여서 어쩌다 연극 얘기를 하다 보면,

한 번씩은 다 연극을 했다고 해요.

김연중 : 연극 열풍의 시대가 한참일 때 다른 분야가 시선을 끌기 시작했는데, 신문 방송이 이 사회에서 서서히 부각되었죠. 그래서 끼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연극을 했고, 일반 대학생들은 취직위주로 공부를 했던 같습니다. 그 때 연극이 필수과목이었죠?

이근삼 : 선택이었어.

김연중 : 점차 광적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연극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웃음) 저는 75학번인데요, 제가 학교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연극반은 남녀가 어울려서 밤 새워 술 마시고 했지요. 그래서 조금은 퇴폐적, 또는 개방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아직도 그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용수형, 정한용 선배, 김철리씨 등 모두 삶의 이미지가 천방지축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했던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수 : 아니지. 그것이 바로 이선생님의 옛날 명동시절의 모습이잖아.

가르치지 않고 ‘고집어 내주시는’ 선생님

최용원 : 선생님의 아류가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군요. 권성덕 단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KBS와 동아일보의 서강대 신방과들이 꼭 잡았다고 하죠. MBC의 괴물인 장수봉 선배라든지 보면 역시 연극을 바탕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역량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 출신들과 비교할 때 서

강대 신방과는 두 분야에서 강세인데 연극과, 연극과 상관되는 PD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광고지요. 광고 중에서도 카피가 강합니다. 선생님의 영향으로 학교 다닐 때부터 천방지축으로 사고가 가능했고, 그런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방과의 풍이나 분위기로 큰 즐거움을 형성해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김연중 : 서강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면에서는 창의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서강대 출신 중에 다른 학교에 비해 소설이나 시 등을 하는 사람이 적는데, 신방과 출신의 경우는 창작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요. 이는 이선생님의 「창작법」 시간을 통해서 길러진 사람들이 극작이나 창작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쪽으로 진출하면서 형성된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용원 : 창작을 할 수 있는 과가 국문과, 영문과들인데, 그 과들은 ‘끼’보다는 ‘학자풍’의 선생님들이 많았고 그런 분위기가 과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국문과에서는 ‘신방과는 학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분이 김열규 선생님이셨죠. ‘신방과가 전공인 사람들은 손 들라’고 해서 들면 “너희들은 나가라. 여기는 학문하는 데지 따따라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따따라의 대부로서 이선생님이 계신 신방과가, ‘서강고등학교’라는 교풍과는 전혀 별개의 세계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근삼 : 최성실씨가 내 강의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최성실 : 예, 다 들었어요.

이근삼 : 최성실씨는 지금 최고의 TV작가가 되어있지요.

최성실 : 이근삼 선생님은 저에게 서강대에서 가장 중요한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이 선생님을 생각할 때 ‘학자’보다는 ‘자유인’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 선생님은 뭘 주입해서 가르치기보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 주시는 게 가장 커다란 힘이었어요. ‘네가 써봐라’는 거였죠. 제가 리포트 낸 것에 대해 평해 주신 것이 가장 감명 깊었어요. 사람을 어떤 틀 속에 넣어서 자꾸 다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을 그대로 커나가게 하는 것, 거기에다 자신감을 주시고 그 자신감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 사실 저는 이근삼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글에 대해선 문외한이었어요. 결국 연극은 안 했지만 생긴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생긴 그대로 키우도록 가르쳐 주신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김연종 : 길을 잘 들었다고 생각해요?

최성실 : 전 참 소중해요.

최용원 : 저도 글 쓰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선생님의 「창작법」 과목을 싫어하는 학생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리포트 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 중에서 지금은 기자, PD, 광고계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당시 모두 모여 모자이크로 베껴서 작품을 내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적당히 안 읽고 서로 베껴서 내곤 했지요. 그것이나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기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권성덕 : 최성실씨가 말씀을 잘 하셨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끄집어 내주시는 것’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용호 : 「명교수 명강의」 코너를 신문인가 방송에서 보도한
적이 있으셨지요?

이근삼 : 동아일보에서 한 적이 있었지.

최용원 : 송인수라는 친구가 했지.

이근삼 : 경향신문에서 전화가 왔는데, 「명교수 명강의」를 한
다며 서강학보사 총학생회에서 조사했는가봐. 나를
소개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군요. 난 한번 써 먹었
으니 하지 말라고 그랬어. 동아일보에서 3,4년 전에
해먹은 것을 왜 하냐고.

최용원 : 신문은 하루 장사여서 3, 4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
인데요, 뭐. 배구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배구선수들에게 국어, 영어도 가르치고

이근삼 : 당시 배구단을 만든 것이 여기 최용원씨지요. 이 학
교에 와보니 운동부가 없어요. 배구 얘기가 나왔고,
최용원씨가 당시 인창고등학교 출신선수들을 데리고
왔어요. 운동하는 애들이 공부를 안해서 ‘애들을 공
부시켜야 겠다’고 생각하고 숙소에 데려다 놓고 국
어, 영어를 가르치곤 했죠. 당시 선수아이들도 고생
을 많이 했지요. 내가 학생처장을 그만두니까 배구
부의 지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보태고,
코치였던 이용관씨도 상당한 액수를 보탤지요. 그러
나 역부족이라 배구부도 해체되고 말았죠.

최용원 : ‘공부만 시킨다’는 이미지를 바꾸어야 할 것인가라

는 문제와, ‘학교의 구심점이 없다’는 이슈가 제기되었던 때입니다. 5공화국 들어서면서 급격히 정원이 늘어난 시기였을 겁니다. 정원 500명 시대를 마감하고 한 학기에 천 몇 백 명이 들어오면서 서강대가 양적으로 커진 시점에서 구심점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연고전같은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동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에 나온 서강 동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듯한 인상이 강했는데 이것을 묶어야겠다는 생각에 선생님이 걱정을 하셨고, 그런 계기에서 배구부를 만드는 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요. 배구부가 생기자 서강대가 ‘공부하는 학교’였다는 데서 체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던 데 반해, 배구부가 해체된 것이 선생님께서 제일 아파하셨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근삼 : 그 당시 교수들도 많이 후원했지요. 대학원생들도 고생이 많았어요. 지방에 게임이 있으면 자기 돈 내고 내려가서 응원하고 음료수 사 주고. 결국 지금 고대나 연대를 보더라도 운동부는 동창회 소관이예요. 당시는 서울대를 불러서 게임을 많이 했죠. 열등감을 없애자고.

최용원 : 당시 서울대와 교환경기를 했는데, 그 팀이 여기와서 우리 체육관에서 하기도 했고 우리도 가곤 했지요.

김연종 : 우리 배구부가 없어지니까 서울대도 없어졌지요.

이근삼 : 그 때 어려웠던 것은 인창고 애들을 불러올 때 2백만 원을 주고 데려왔는데, 그 당시 좋은 선수 한 명

을 데리고 오려면 5천만원은 했었어요.

김용호 : 80년대 초지요. 최선배는 어떻게 관여하셨어요.

최용원 : 그 당시 저는 배구 담당기자였습니다.

이근삼 : 말이 그렇지. 최용원씨가 배구부를 만들었지. 난 그
저 배구를 좋아했어. 고등학교 때 배구선수도 했고.
지금도 배구는 좋아해요. 배구 대표 선수들 데리고
미국, 캐나다도 일주했었고. 얼마나 좋아요.

최용원 : 그 당시 선생님은 대학배구연맹 이사로 계시면서 국
가대표 남자팀을 인솔하고 미국, 캐나다 원정에 단
장으로 가셨어요. 아마 선생님 인생에 있어 유일한
외도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는 데요.

21세기를 내다 본 교육

김용호 : 저는 83년에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사회과
학 일변도의 분위기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학원생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다른 길을 모색하기
도 했는데, 선생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결국은 박사
학위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뭔가 모르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 때를 생각
해보면 저는 과학의 틀 속에 모든 것을 담지 못하는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길이 있다는 충고를 계속해 주셨어요. 혹시 선생
님께서는 학생들을 키우는 데 어떤 철학이나 의도가
있으신지요? 저도 눈여겨 보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근삼 : 김용호씨가 들어왔을 때, 아직 ‘문화’에 대해 체계적
인 정리가 안되어 있을 때였죠. 신문과 방송을 가르

치는 것을 보니 단순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보다는 문화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문화에 관련된 수업을 시작했죠. 20년 지나고 보니 신문이나 방송도 역시 문화란 큰 테두리 안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신조구요.

최용원 : 선생님께서 떠나시면 지금까지 신문방송학과가 가져온 학풍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회과학 일변도의 학과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근삼 : 강현두 선생을 요전에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은퇴하면 문화 관계 강의가 없어지지 않겠는가고.

김연중 :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선생님께서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선생님이 한국 신문방송학과 최초로 대학원에서 문화와 예술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는 그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배웠어요. 시대를 거슬러서 보니까 10년 후 쯤이 된 지금에야 신문방송학계 통에서 문화 바람이 불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문화'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쪽을 알지 못하면 신문방송학을 얘기할 수 없는 데까지 왔지요. 그런 전통 때문에 저희도 많은 사람들이 전공으로 문화 공부를 하게 되었고, 대학원생들도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강한 게 서울대와 서강대인데, 서울대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먼저 문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

서 보면 선생님이 은퇴하신다 해도, 연극부분에서는 용수형같은 제자들도 있고, 신방학 일반에서는 문화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단과대학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외국의 예처럼 연극과, 영화과, 신문과, 방송과…… 이런 식으로 커다란 장래 비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뿌리신 문화 공부의 공간은 이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근삼 :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문화가 기초인데, 잘못하면 기술적으로 흐를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최용원 : 잘 보면 서강대 신방과 출신의 학생들이 창조적인 일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사회는 문화의 사회라는 것을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죠. 80년대 초 부상하기 시작했던 문화가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경쟁력 하지만 그것보다는 문화가 더 중요하죠.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이 문화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자기들의 뿌리를 내려 공기처럼 번져나가도록 해놓고, 물건은 그 다음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가 더 중요성을 가집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서, 학문의 뿌리로서 문화를 첫째로 봐야 합니다.

두번째는 미래의 사회는 개인적 창조성이 없으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일본이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추월당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교육제도가 공동체 중심이라면, 미국은 개인 사고의 창조력을 발전시키고 자기 스스로 새로운 것

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서강대 신방과는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게하는’ 교육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의 교육제도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근삼의 아류’를 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면, 이선생님의 교육방식이 100년 후에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거예요.

김용호 : 21세기를 위한 교육을 미리 하신 거지요.

술 철학, 주례 철학

이근삼 : 김호석군도 한마디 해요.

김호석 : 80년대 후반에 선생님을 처음 뵈었는데, 저희 아버님보다 연세가 더 드셨고 사회적 지위도 완성되신분을 뵈었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서 제자면서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교생활하면서 본 선생님은 자유로우시면서도 예의범절에서도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마광수식 예술 정신만 추구하다 보면 아내도 계속 교체해도 좋다는 식일 수 있지만, 선생님의 도덕관은 매우 철저하다고 생각해요. 술좌석에서는 저와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같이 술을 들자고 하십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나 하면, 보사부장관과의 식사 자리도 마다하고 저희들과 술을 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점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선생님만의 힘이죠. 제자들을 계속 새롭게 봐

주시는 게 대단한 힘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용호 : 선생님에 관한 얘기에서는 술이 빠지질 않습니다.
혹시 술 철학, 혹은 술친구 철학이 있다면……

이근삼 : 사실 나는 술을 늦게 배웠고, 담배는 더 늦게 배웠어요. 나는 술 자체는 모르겠는데, 술이란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촉진제라 생각해요. 술좌석에서 무슨 술 좋아한다든가 술 한잔 마시고 참 맛있다고들 하는데 나는 아직도 술맛을 잘 몰라요. 다만 술은 얘기하는 데 촉진제라는 정도로만 알지요. 담배도 마찬가지로요. 그 증거로 여태껏 집에 들어가 혼자 반주라고는 한 적이 없고, 담배도 안 피워요. 해서 술이라는 것은 의사 전달의 유효유라고 생각하지요.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이것이 없으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나는 술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양쪽이 무장해제해야 하는데, 여기에 술이 좋다고 생각해요. 작품을 쓰는 데도 자기 자신을 무장해제해야 작품이 나옵니다. 나는 애주가는 아니예요. 여기 계신 권성덕씨는 술이라면 맥주가 아니면 상대를 안 하는데, 나는 맥주건 소주건 다 좋아요. 술 자체에 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마시는 것이니까.

김용수 : 선생님의 주례 철학도 유명하잖아요. 주례 때 제 친구들, 철리나 저, 다 야단 맞았거든요.

이근삼 : 최용원씨 결혼 때도 그랬지. 부인이 김경희지. ‘내가 알기에 신랑은 공부 안한다. 졸업할 때 학점이 2.1이 뭔가 말야’하면서 욕도 하고 그랬지. 동아일보의 지영선 차장이 동아일보에 글을 썼는데, ‘이건 주례

가 아니고 제자 놓고 욱하고 혼계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대학원생 하나가 논문이 내일 마감인데 그것도 안하고 장가간다고 해서 식당단상에서 '너 논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에게 얘기하는 건데, 보통 주례라면 '만장하신 관객들'을 위해서 하거든. 난 그건 반대야. 솔직히 말하면 난 주례를 못하거든.

김용수 : 아니예요. 제 결혼식 때도 선생님 주례에 대해서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결혼식장에 와서 선생님이 제 단점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근삼 : 아니, 그랬나?

김용수 : 처가집에서도 나에 대해서 매우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참 좋았다고 하더군요. 선생님하고 술 먹다 즐던 얘기 등 몇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이근삼 : '절대로 술 먹는 자리에서 자지 말라'고 그랬지.(웃음)

김용수 : 선생님 주례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는 것이 뭐냐하면 '남편이 아침에 식사할 때 여자는 일체 잔소리를 하지 말라'. 그런데 제 와이프가 잘 안 지키거든요. '남자 친구 찾아올 때 어느 시간이든 간에 인상 쓰지 마라'. 사실 그런 얘기가 실질적이거든요. 신부한테도 그런 얘기 한 것이 기억에 남죠. 다른 주례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대개 신랑, 신부만 이상화시키는데……

김용호 : 이제 선생님과 나눌 얘기의 큰 대목은 웬만큼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기 전에, 선생님께 반쯤은 축하, 반쯤은 희망의 말씀을 한 마디씩 해 주시지요.

글 많이 쓰실 거죠?

권성덕 : 퇴임하신다니까 한편으로는 섭섭하지만, 이번에 「이성계의 부동산」과 관련시켜 보면, 주인공을 맡으신 김동원 선생은 무대를 은퇴하시는 분이고, 또 선생님은 정년…… 두 예술회원들의 만남과 헤어짐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데 저는 관심이 가구요.

그 동안 한국 연극은 리얼리즘 계열의 비극적인 것이 아니면 연극의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고정관념화 되었는데, 선생님이 희극작품을 쓰시고 민중극단도 하시면서 ‘희극도 훌륭한 연극’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연극계의 쌍벽을 이루어 놓으셨죠. 앞으로 시간이 더 나실 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사회를 풍자한다고 할까, 좋은 작품을 더 많이 써 주시면 한국 연극계가 더욱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성실 : 글 많이 쓰실꺼죠? 희극 많이 쓰시고 싶으세요?

이근삼 : 살다 보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최성실 : 상관없이 쓰신다는 거죠. 그러나 희극이 쓰고 싶은 때가 있고 비극이 쓰고 싶은 때가 있어요.

이근삼 : 희극이라는 장르를 따로 생각하고 비극을 따로 생각하는데, 비극과 희극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고 봐요. 인생이 동전인데 한쪽만 자꾸 봐요. 사람이 살

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양쪽을 보는 것이죠. 보통은 항상 좋은 일만 보고 사는데, 느닷없이 상(喪) 같은 것을 당하거든. 그럴 땐 뭐가 되느냐 말이야. 인생은 희극과 비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혼합되어 있어요. 써머셋 모음이 한 얘기인데, ‘항상 좋은 것, 밝은 것만 찾다가는 안된다’는 거죠. 완전한 집안이 어디 있어. 모두 말 못할 고민이 있지. 나도 제일 충격적인 일을 당해 보았지만,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문제지. 극작도 마찬가지로요. 나는 희극 속에 비극이 들어 있고, 비극 속에 희극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희극을 쓸 때 비극 쓴다, 희극 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최성실 : 자유롭게 글 많이 써 주세요.

이근삼 : 은퇴해서 연금 받으면 수입이 반으로 툭 떨어지니까 글은 써야 하는데 희극 쓰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방송 드라마를 쓰면 어떨까? 최성실씨가 MBC의 연속극 양보하고 나 좀 도와주지.

최용원 : 「원고지」 쓰던 그 당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근삼 : 최성실씨의 TV 연속극 첫회를 보고 내가 전화도 했는데…… 최성실씨가 열심히 쓰지. 「우리들의 천국」을 쓰는데, 이 사람이 한 번 학교에 왔어요. 왜 왔느냐고 하니 조옥라 선생 강의를 들으러 왔다고 했어. 글 쓰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성실해야 하는 거야. 실망한 것이 하나 있다면, 드라마에서 심리학 교수로 박인환씨가 나왔는데 누구나 몰랐더니, 최성실씨 왓 그게 바로 나라라는 거야. 그래도

박인환씨보다는 내가 낫지.(웃음) 열심히 써 주기
바래요.

김호석 : 저는 선생님 살아계실 때의 평가와 돌아가신 후의
평가가 어떠 할까가 매우 궁금해요. 제 느낌으로는
이순신과 원균처럼, 어떤 사람은 장점이 크게 부각
되고 원균처럼 나쁜 점이 부각되는 인물이 있는데,
선생님께서서는 이순신 같이 후대에 더욱 평가받는 인
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수 : 호석이가 선생님 사후까지 말했는데, 선생님의 은퇴
는 다른 분 들과는 다르게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상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
은 선생님이 은퇴한 후에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
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은퇴를 다른 방향으로 생
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실씨도 그렇지만 작가로서
라이벌 의식이 들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잖아요.(웃
음)

최성실 : TV 드라마 쓰지 마시고 희곡 쓰세요. 두려우니까
요.

정년은 해방과 자유의 비상

김연종 :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방과 하고 잘 안 맞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에요. 오히려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학과
에 있으셨다면 선생님의 작품은 훨씬 좋은 것이 되
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선생님보다 훨씬 큰
인물이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희가 신방과에 들어와서 배우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각이 진’ 학문이고, 사회과학이라는 틀 속에서 기초로부터 고급과정까지 따라가는 학문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선생님께서 처음 계획했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틀 지우는 쪽으로 학과가 움직여 갔죠.

그래서 선생님의 정년은 곧 해방이고, 곧 독수리가 날듯이 창공을 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용수형이 말했듯이 ‘해방’이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은퇴하는 것이 선생님께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합니다. 과목에 맞추어 강의를 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로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최용원 : 저도 의무방어전을 해야했는데……(웃음)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혜택을 받기보다는 욕먹고 꾸중받는 쪽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술자리 있으면서 뒤통수 맞고. 제 집사람이 74학번인데, 지금도 그 주례가 저희 회사 기자들뿐 아니라 다른 기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겨레신문 문화부장 하는 지영선씨가 지금도 그 주례사를 두고 얘기하는데, 선생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끝나자마자 “왜 이들이 결혼하는지 잘 모르겠다, 한 애는 도서관만 다니며 공부만 하는 애고, 한 놈은 맨날 술만 마시고 당구장만 돌던 애인데, 애들이 어떻게 결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지요. 그 순간에 나는 결혼 잘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있어요.(웃음) 꼭 10년 하고 한 달 반 전 얘기죠. 이것이 선생님이 가진 과격미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은 천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준천재라고는 생각합니다. 틀 속에 안주하지 못하는 인격체라는 점에서 선생님은 준천재시고, 그 점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호구지책 때문에 한 틀에 너무 오랫동안 계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문제를 훤히 날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례집을 모으면 상당히 팔리지 않겠습니까?

이근삼 : 우리 학생들처럼 나를 생각하는 학생들을 못 본 것 같아요. 아들이 죽었을 때 절에 가서 뼈가루를 다 뿌리고 돌아오는데, 그 때 최용원씨가 끝까지 제 옆에 있어 주었죠. 생각해 보니 애가 죽을 때까지 칭찬을 못했던 말이야. 그 애 방에서 내가 잔다고 하니 최용원씨가 죽어도 집에 안 가겠다며 나랑 같이 잤어요. 나 혼자 자면 울거라고 그러면서.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창조적인 과에 갔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진 않았습다. 서강대 우리 과처럼 창조적인 만남이 어디 있었어.

김용호 :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뒷바라지도 하셨고, 그 때문에 저희 제자들이 고생도 많이 시켜드렸는데, 그 동안 사모님께서 저희 치닥거리를 하시느라 고생이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사모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제

자들과 후배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경험을 통해 우러난 양심의 소리가 울리도록

이근삼 : 내가 평상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글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연극계에서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후일에도 그렇게 후학들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또 후학들이 저보다는 공부도 많이 했을테니 훌륭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잘 되는 걸 바라지요.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딱히 더 말할 것은 많지 않은데…… 기억나는 것은 경남대에 있는 김종덕씨의 경우 좌우명을 자꾸 써 달라기에 ‘불급불태(不急不怠)’라는 말을 써 주었어요. 서둘지 마라. 요새 학생들이 매우 성급한 것 같아요. 태는 태만하지 마라. 서둘지도 말고 태만하지도 말라는 거였죠. 1년 후 김종덕군을 만났더니 불급은 그대로 지키는데 불태는 잘 못 지키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군요. 내가 26세에 대학의 전임이 되었을 때를 보더라도 서두를 필요 없어요. 몇 년 먼저 전임됐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착실해야지.

또 양심, 양심 하는데 경험을 통한 양심을 말해야지 경험하지 않고 말하는 양심의 소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살다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 양심을 말 못할 때도 있어요. 경험을 통하지 않은 양심의 소리는 중요하지 않고 경험을 통한 양심의 소리

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삼시다.
일동 :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